

蓮盤丁氏三世文獻錄

谷城文化院發刊

분들이 功利와 名譽를 멀리하고 隱居行義하며 孝와 友와 睦과 信을 一生의 指標로 삼고 儒者의 大道를 지키면서 社會敎化에 至大한 功을 남겼고 特히 石蓮先生은 士林이 寓慕하여 梧岡祠에 妥靈하고 있어 이분들의 文獻을 한 家門의 誌狀으로만 남겨두기가 哀惜하고 社會에 頒布하면 道義와 倫理昂揚에 一助가 되리라 믿고 이 文獻을 編纂케 된 것이 그 背景이다.

이 文獻編纂에 同參한 분들과 이 家門의 宗子인 丁宗杓氏가 나에게 序文을 命하기에 우리 文化院이 推進하는 事業이라 辭讓하지 않고 이 經緯解明으로 序文에 代하면서 이 文獻의 翻譯과 編輯에 賢勞하신 湖山 朴穰奎 斯文에게 謝意를 表한다.

一九九七年十一月 日

谷城文化院長 金吉榮 謹序

序

湖之浴鄉文物之淵藪也院祠林林儒風彬彬耀人耳目者甚不尠而蓮盤丁氏之三世文獻世所罕有而林林彬彬中之可屈指也蓮盤羅丁之世居仁里而入居浴川二百餘禩以忠孝詩禮世其家興起斯文表正人紀負重望於當時而有不可掩者存焉有若野隱丁公崛起於猷畝之間劬經力學真積力久以聖賢君子爲期以孝悌忠信爲本領孜孜不怠如恐不及充於中而溢於外名聲洋溢人皆心悅誠服加以受學于蘆沙先生講明疑難辨析同異晚暮以孝聞而除都正公之胤子石蓮先生亦以勉菴先生之高足早知君君臣臣父父子子之道節義學德超出尋常萬萬而範世勵俗者多矣而妥享于梧岡祠公之肖孫南耘公以弦窩先生之傳鉢優於詩禮篤於志操有遺稿上所云蓮盤丁氏之三世文獻是已而尤不覺芝醴之有根源也丁門之文獻可云充棟汗牛而鄉之多士輒懷丁門

之微德願讀丁門之文獻者車載斗量耳浴川之文化院長金吉榮
甫嘉其鄉士友之願讀而拔萃丁門三世文獻之珍要者而裒粹成
冊將欲登梓亦以譯解以優新進之要讀而囑于湖山朴穰奎斯文
譯解文獻湖山之費數百日而盡精入神尤可尚也可賀也使浴鄉
之士友家藏戶棄讀三世之文獻模三世之德行則浴鄉之儒風彬
蔚不待卜於詹尹而可算矣公之孝曾孫宗杓君亦以名門肖裔善
繼善述而克家者也謁余于瑞石寓居請以弁卷之文此所謂問路
於盲也以余人微文拙焉敢當也余與宗杓髦士交契深矣不敢愆
忘僭叙之佛頭之穢甚爲慚恧

歲丁丑之陽復節

儒州

柳

漢

相

叙

서

호남(湖南)의 육향(浴鄉·谷城)은 문화(文化)에 관(關)한 사물(事物)이 많이 모인

곳이다. 서원(書院)이나 사우(祠宇)가 때를 지어 모여있고 유학(儒學)의 풍속(風俗)이 찬란하여 사람의 이목(耳目)을 빛나게 함이 심히 적지 않는데 연반정(蓮盤正)씨 삼세 문헌(蓮盤丁氏三世文獻)은 세상에서 드물게 있는 것이거니와 떼지어 있고 찬란한 것 중에서도 가히 손가락을 꼽을만 하다. 연반(蓮盤)은 나주정씨(羅州丁氏)가 대대로 살아오는 아름다운 마을로 옥천(浴川·谷城)에 들어와 살아온지 이백여년(二百餘年)에 충효(忠孝)와 시례(詩禮)로써 그 가문(家門)을 이어오며 사문(斯文)을 일으키고 사랑의 기강(紀綱)을 바로세워 당시(當時)에 중망(重望)의 위치(位置)를 부하(負荷)하였기에 그 빛을 가려서는 안될 것이 존재(存在)하니 야은정공(野隱丁公) 같은 이는 이 도량안에서 우뚝 솟아나 경서(經書)에 힘들이고 학문(學文)에 힘쓰며 참됨을 쌓기에 오래도록 힘쓰고 성현(聖賢)의 자(子)로서 기약(期約)하고 효제충신(孝悌忠信)으로서 본영(本領)을 삼아 부지런하고 게을리하지 않길 미치지 못할가 두려워하는 것 같이하니 중심(中心)에 채워지고 밖으로 넘어 명성(名聲)이 넘쳐지니 사람이 다 마음으로 기뻐하고 정성스레 외복하였는데 거기에 더하여 노사선생(蘆沙先生)에게 수학(受學)하여 의심나고 어려운 곳을 강하며 밝히고 갈거나 다른점을 분별하여 가려내고 만년(晩年)에 효자로 들리어 도정(都正)에 제수(除授)되었다.

공(公)의 큰 아들 석연선생(石蓮先生)도 또한 면암선생(勉菴先生)의 제자(弟子)로 일찍 임금이 임금을 다워야 하고, 신하(臣下)는 신하(臣下)다워야 하고, 아비는 아

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하는 도리(道理)를 알고 절의(節義)와 학덕(學德)이 보통의 많은 수에서 뛰어난 세상(世上)의 모범이 되고 풍속을 가다듬음이 많았고 오강사(梧岡祠)에서 리향(妥享)되고 있고 공(公)의 초손(肖孫)인 남윤공(南耘公)은 현와선생(弦窩先生)의 제자(弟子)로 시례(詩禮)에 넉넉하고 지조(志操)에 돈독(敦篤)하였으며 유고(遺稿)가 있으니 위에서 말한 연반정씨삼세문헌(蓮盤丁氏三世文獻)이 이것이라. 더욱 영지(靈芝)나 예천(醴泉)이 근원(根源)이 있다는 것을 알겠도다.

정문(丁門)의 문헌(文獻)은 가히 쌓으면 마룻대에 닿고 소가 끌면 땀을 흘릴 정도로 많다고 하는데 그들의 많은 선비들이 문득 정문(丁門)의 아름다움 덕(德)을 그리워하고 정문(丁門)의 문헌(文獻)을 읽기를 원하는 자가 차(車)에 싣고 말로 될 정도로 많으니 옥천(浴川·谷城)의 문화원장김길영보(文化院長金吉榮甫)가 고을사우(士友)들이 읽기를 원하는 것을 가상하게 여기고 정문삼세문헌(丁門三世文獻)의 진귀하고 요긴한 것을 발취(拔萃)하여 차례로 모아 冊을 완성하고 인쇄하려고 하면서 번역하여 신진(新進)들이 읽기에 편하게 하려고 호산박양규(湖山朴養圭) 사문(斯文)에게 의촉하여 문헌(文獻)을 해석케 하니 호산(湖山)이 수백일(數百日)을 소비하여 정성(精誠)을 드렸으니 더욱 가상하고 치할 일이다. 옥향(浴鄉·谷城)의 사우(士友)들이 집집마다 소장하고 호호마다 저장하여 삼세(三世)의 문헌(文獻)을 읽

고 삼세(三世)의 덕행(德行)을 본받는다면 욕향(浴鄉·谷城)의 유풍(儒風)이 빛나
고 올창할 것은 점술가에 점칠것을 기다리지 않아도 가히 계산할 만하다.

공(公)의 효증손종표군(孝曾孫宗杓君)도 또한 명문(名門)의 어진 후예(後裔)로써
잘 이르고 잘 좇아 가문(家門)을 능히 지켜가고 있다. 나를 서석우거(瑞石寓居)에
찾아뵙고 책머리의 서문(序文)을 청하니 이는 이른바 맹인(盲人)에게 길을 묻는 것
이다. 나는 위인(爲人)이 희미하고 문학(文學)이 졸렬(拙劣)하니 어찌 감당하리오
만은 나와 다만 종표(宗杓)선비와는 사귀어 온 교분이 깊으니 지라 감히 괘시할수 없어
참람함을 잊고 서문(序文)을 지으니 부처님머리에 오물로 더럽힌 것 같아 심히 부끄
럽다.

丁丑年十二月 儒州 柳漢相叙

祝刊辭

그안(謹按)컨데 본정씨삼세문헌록(本丁氏三世文獻錄)에는 인자수(仁者壽)로 전(傳)하는 군자국(君子國)의 삼통(三統)이 실로 찬찬유유(察察有倫)하다.

연반고가(蓮盤古家)에서 그 정씨(丁氏) 야은(野隱) 석연(石蓮) 남은(南耘) 삼세(三世)의 문통(文統)은 그대로 효충범절(孝忠凡節)로 일관(一貫)한 호남일향(湖南一鄉)의 체통(體統)이요 그 사통(師統)은 그대로 노사기선생(蘆沙奇先生) 면암최선생(勉菴崔先生) 현와고선생(弦窩高先生)으로 이어지니 바로 이 겨레 유한계년(有韓季年)에 빛나는 위정척사(衛正斥邪)의 도통(道統)이며 다시 그 체통(體統)과 도통(道統)은 이 효사충(移孝思忠)을 통해 우국여가(憂國如家)의 활력(活力)으로 면면(綿綿)하니 그 법통(法統) 또한 오늘날의 이 민국강상(民國綱常)으로 결코 무관(無關)치가 않다.

이런찌기 노사선생(蘆沙先生)은 그 위정척사(衛正斥邪)의 정신실덕(精神實德)으로 회색(晦塞)하는 오동(吾東)의 도통(道統)을 확립부지(確立扶持) 하였고 오선면암선생(吾先勉菴先生)은 다시 그 삼통(三統)

을 앞세워 저 일제(日帝)의 침략(侵略) 불의(不義) 앞에 끝내 의병순국(義兵殉國)으로서 일으키는 절(立)懂樹節(立懂樹節) 하였으니 오늘의 본(本) 문헌록(文獻錄)을 통해 그 상신(尚新)하는 삼통(三統)의 감회(感懷)는 더욱 새롭기에 그 유풍여향(遺風餘香) 또한 여기 이어서 흠모(欽慕)롭다.

여기서 본문헌(本文獻)을 통해 오동삼한(吾東三韓)의 오늘의 삼통(三統)이 그 길은 동궐(同軌)를 가고 차동궐(車同軌) 그 길은 동문(同文)을 읽고 서동문(書同文) 그 행(行)은 동륜(同倫)을 걷는 행동륜(行同倫) 민족일통(民國一統)의 통일(統一) 앞날에 크게 연원보비(淵源補裨)할 것을 간절히 소원기대(所願期待) 하면서 이 뜻깊은 향당풍화(鄉黨風化)를 간절히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지극진력(至極盡力) 해주신 조형래구수(趙亨來郡守)님과 김길영문화원장(金吉榮文化院長)님은 비록한 제현대방(諸賢大方)님께 아울러 원모치하(遠慕致賀)를 드리나니 이로써 유래문향(由來文鄉) 곡성일원(谷城一圓)에서의 그 도덕풍화(道德風化)와 흥모감발(興慕感發)은 일신유일신(日新又日新)으로 길이 유장(悠長)하여라.

檀紀四三三〇年 丁丑歲暮 大韓民國國家像徵諮問委員長

勉菴玄孫 崔 昌 圭 謹識

祝刊辭

문헌(文獻)이 인간(人間)에 있어 매우 소중(所重)한 것은 그 사람의 정신(精神)과 사상(思想)과 학덕(學德)과 행의(行義)를 문헌(文獻)으로써 남길수 있기 때문이다.

일찌기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시길 송기문독기서(誦其文讀其書) 불지기인(不知其人)이 가호(可乎)아 하시었으니 이 말씀은 그 문헌(文獻)을 보고 그 사람의 정신(精神)과 사상(思想)과 학덕(學德)과 행의(行義) 등(等) 모든 부분을 알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헌(文獻)을 어찌 소중(所重)히 여기지 않을수 있으랴. 한 가문(家門)에 있어 일세(一世)의 문헌(文獻)을 득(得)하기도 어려운 것인데 황차(況且) 삼세(三世)의 문헌(文獻)을 득(得)하는 것은 옛날에도 찾아보기 드문 일이다.

저(남(全南) 곡성군(谷城郡) 석곡면(石谷面) 연반리(蓮盤里) 나주정씨(羅州丁氏) 일가문(一家門)에 연삼세(連三世)의 문헌(文獻)이 보좌(保藏)되어 있으니 야은공휘문교(野隱公諱文教) 석연선생휘대현(石蓮先生諱大暉), 남근공휘익섭(南耘公諱翼燮) 삼세(三世)의 문헌(文獻)이다.

이를 대략(大略) 살펴보면 야은공(野隱公)은 오선자(吾先子) 노사
선생(蘆沙先生)의 문인(門人)으로 자성(資性)이 고결(高潔)하고 효행
(孝行)이 지극(至極)하여 효천(孝薦)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 돈녕부
도정(敦寧府都正)의 별은전(別恩典)을 받았고 석연선생(石蓮先生)은
최면암선생(崔勉菴先生)의 문인(門人)으로 덕고행결(德高行潔)하여
세인(世人)의 경앙(景仰)한 바 되어 오강사(梧岡祠)에 배향(配享)되
었으며 남은공(南耘公)은 고현와선생(高弦窩先生)의 문인(門人)으로
문행(文行)이 구비(具備)하여 유고(遺稿)를 간행(刊行)하였으며 그의
배풍천노여사(配豐川盧女史) 또한 효열지행(孝烈之行)으로 여러차례
향도천(鄉道薦)에 올라 효열비(孝烈碑)를 세웠다.

이와같이 정문(丁門)의 일가(一家)에서 야은(野隱) 석연(石蓮) 남
은(南耘) 삼세(三世)의 효우지절(孝友志節)과 문학행의(文學行義)는
당세수범(當世垂範)은 물론(勿論)이요 전후(傳後)의 귀감(龜鑑)이 될
것이므로 석학명유(碩學名儒)들의 찬문(撰文)이 찬란(燦爛)하다. 대저
(大抵) 가정(家庭)의 문헌(文獻)을 모아 향방(鄉坊)의 문헌(文獻)을
이룩하고 향방(鄉坊)의 문헌(文獻)을 모아 방국(邦國)의 문헌(文獻)

을 이룩한 것이특히 이 삼공(三公)의 문헌(文獻)은 어찌 정문일가(丁門一家)의 광영(光榮)에 그칠뿐 이리요. 오늘 곡성문화원장(谷城文化院長) 김길영 씨(金吉榮 氏)께서 정문삼세(丁門三世)의 문헌(文獻)을 발취(拔萃) 발간(發刊)함에 주력(注力)한 것은 가까이는 본방문헌(本坊文獻)을 빛나게 함이요 나아가서는 세인(世人)들로 하여금 본문헌(本文獻)에 실린 가언선행(嘉言善行)과 문학행의(文學行義)를 상모(想慕)케 함으로써 오늘날의 수풍여숙지자(樹風勵俗之資)로 삼고자 하는 의의(意義)에 경의(敬意)를 표(表)함과 아울러 축하(祝賀)해 마지않는 바이다.

檀紀四三三〇年 丁丑十二月 上旬

蘆沙 曹孫 奇浩仲 謹識

目次

序文 (谷城文化院長·金吉榮) · 三

序文 (儒州·柳漢相) · 五

祝刊辭 (勉菴玄孫·崔昌圭) · 一〇

祝刊辭 (蘆沙剛胃孫·奇浩仲) · 一二

◎ 野隱公記蹟

行狀 (長興·高光善) · 二一

墓碣銘 (竹山·安秉析) · 二六

通文 (朝鮮網獻錄·楓溪祠刊所發文) · 三二

碑文 (崇祿大夫前禮曹判書原任·奎章閣提學·安東人·金宗漢) · 三六

◎ 石蓮先生記蹟

行狀 (務安·朴穰奎) · 四一

墓碣銘 (玉川·趙敏植) · 五四

墓誌銘 (長興·魏啓道) · 六三

遺墟碑文 (恩津·宋在晟) · 七一

祀壇碑文	(星州·李栢淳)	七五
答通文	(成均館長·金敬洙)	七八
梧桐祠石蓮丁先生配享奉安文	(羅州·羅鉀柱)	八〇
石蓮堂記	(海州·吳彥泳)	八二
字說	(隴西人·李正容)	八五
採山齋記①	(咸陽·呂昌鉉)	八七
採山齋記②	(忠州·朴夏玖)	九一
採山齋上梁文	(月城·李鍾璿)	九七
相宜亭記①	(幸州·奇老章)	一〇三
相宜亭記②	(玉川·趙敏植)	一〇五
愛蓮亭記	(玉川·趙泳鉉)	一一〇
採山契案序	(濟州·梁箕默)	一一二
遺稿序	(豐山·洪錫憲)	一一六
門人錄序	(坡平·尹丁鎬)	一二〇
淵源錄序	(黃州·邊時淵)	一二四
採山齋唱酬詩文集序	(竹溪·安·塑)	一二七
採山齋唱酬詩文集叙傳	(善山·柳鍾茂)	一三一
淵源錄發刊辭	(慶州·崔昌圭)	一四〇
採山齋唱酬詩文集跋	(胞弟·丁大瑢)	一四三

◎石蓮先生遺文選

採山齋記	一四六	○兄弟	一九三
講會序	一四九	○嫡庶	一九五
採山齋示學生文并條約	一五一	治政要語	一九八
戒晝寢學徒文	一五五	勸學示諸生辭	二一〇
示齋中學徒文	一五八	事父母能竭其力義	二一四
示舍弟勸學文	一六一	石蓮說	二一七
戒兒姪輩文	一六四	勸人擇師教子說	二二〇
布告諸君子文	一六六	征伐不如保民勸農說	二二三
代人請捐助書齋重修文	一六九	存心說	二二五
修身要語		耕讀相背說	二二七
○心	一七二	答野人說	二三〇
○性	一七五	鹽說	二三三
○言	一七九	倉鼠嘲厠鼠說	二三五
○行	一八二	孫龐二子冰炭說	二三八
齊家要語		吳王夫差用伯嚭亡國說	二四〇
○夫婦	一八五	自樂說	二四二
○父子	一八九	至理不二說	二四五

◎ 南耘公記蹟

贈丁大雅遠翼

（進士愚齋·鄭載弼）· 二四八

行狀

（幸州·奇老章）· 二五〇

墓碣銘

（豐山·洪錫憲）· 二五六

遺稿序

（順興·安泰曾）· 二六一

跋

（長興·魏啓道）· 二六四

跋

（族弟·採·鈞）· 二六七

◎ 南耘公詩文選

家君周甲獻壽

桃源 ······ 二七八

弦窩函丈見枉銘感叙懷

巖上孤松 ······ 二七九

弦窩先生挽

幽興 ······ 二八〇

聞官家慰水災同胞有作

對話 ······ 二八一

勸示學徒

述懷 ······ 二八二

對友論懷

十五夜月 ······ 二八三

賞菊

自娛 ······ 二八四

山樓晚眺	二八五	書懷	二九〇
幽居	二八六	偶成	二九一
山興	二八七	以文會友論	二九二
懷友	二八八	冰巖瀑布記	二九四
山樓獨坐	二八九			

◎ 孺人豐川盧氏記蹟

行狀	(長水·黃從周) · 二九七
孝烈碑銘	(眞城·李家源) · 三〇三
跋文	(務安·朴穰奎) · 三〇八

野隱公記蹟

野隱丁公行狀

公諱碩璜一諱文教字明彥號野隱丁氏系押海押海之丁來自中國在麗朝有諱悅號檜軒以大別相都元帥拜平章事有諱宗甲文科官昭格署令累徵不起曰安作二姓臣遂南下錦城終守西山之節有諱克隆大司諫八傳諱彥奎有勇略當丙子扈從南漢有功朝廷嘉之賜勳券除端川府使生諱元夏司僕正生諱夢佐僉中樞生諱道一號南隱近齋朴胤源門人始居于谷城子姓仍居焉寔公之曾祖也祖諱翊相考諱獻斗號杜谷妣慶州金氏父塏樹隱冲漢后憲廟己酉八月十九日生公于石谷坊蓮洞里第孝友穎慧良知愛敬家窶不得專工或釣或採事親盡職敦友伯仲睦婣族戚敬信賓朋一無虛禮親癢憂形于色湯餌扶持暫不離側唾洩便尿躬親不使家人三十丁外憂四十遭內艱哭擗之痛幾至滅性初終之節克遵

禮制朔望展墓寒暑不廢每當喪餘日三齊沐雖脯果一楮躬自奉
進盡其如在誠兄弟之喪喪葬凡節親自經紀撫養諸姪嫁娶制產
無異己子至於親戚憂患疾苦極力周章先墓守護之節緬裏之禮
躬者擔舂不委於諸族傍先無后之墓極誠守護省楸無闕性且好
施必先於人而後於己見寒則推衣衾聞飢則推食飲務農業出入
餘穀糴則平糶則高坊曲多賴而生活食報天餉竟以孝薦通政大
夫敦寧府都正受業于蘆沙奇先生門教子姪以義方雖他人年少
諄諄勸學曰人不學無以立設塾而勸四方來學者此足以振衰俗
矣乙亥春詣菑山謁勉菴崔先生講學難疑多有獎詡及終戒門子
弟曰墳墓先祖之所宅不可不盡誠保守文學立身行己之方不可
不務汝曹慎無忘此言己巳正月十四日塲享年八十一葬于本坊
蓮洞後麓負坤原夫人全州李氏父信茂桃平君后有閨範墓別封
在天皇山下乾坐原舉二男一女男長大覲號石蓮崔勉菴高弟雅飭

有文學次大瑑光山金在浩婿也長房孫翼燮次房孫日燮星燮餘
幼翼燮袖其大人所草事行屬狀德於光善想不溢美而誣先故遂
刪畧而序次之以俟立言君子考徵焉

崧闕逢闕仲秋長興高光善 謹述

야은지은이
석환
문교
해장

공의 휘(諱)는 석환(碩璜) 일휘 문교(文教)요, 자(字)는 명언(明彦)이며 호는 야
은(野隱)이며 정씨(丁氏)는 압해(押海)의 계통인데 압해의 정은 중구에서 왔다. 고
려조에 휘열(悅)은 별호가 회헌(檜軒)인데 대별상 도원수(大別相 都元帥)로 평장
사(平章事)에 배수되고 휘 종갑(宗甲)은 문과로 관이 소격서령(昭格署令)이었으나
여러번 조정에서 나오도록 불렀지만 일어서지 않고 이르길 어찌 두 왕조의 신하가
되었는가 하고 드디어 남쪽 금성(錦城)으로 내려와 서산(西山: 백이 승재의 절개)의 절개
를 지키다 일생을 마쳤고, 휘 규용(克隆)은 대사간(大司諫)이며 8대를 내려와 휘
언규(彦奎)는 용맹과 지략이 있어 병자호란을 당하여 왕을 남한산성으로 모셨고 조
정에 공이 있어 가상히 여기는 훈장을 주위 단천부사(端川府使)에 제수하였고 그의
아들 휘 원하(元夏)는 사복정(司僕正)이요 그의 아들 휘 몽좌(夢佐)는 첨중추(僉中

樞(요) 그의 아들 휘 도일(道一)은 별호가 남은(南隱)이며, 근재 박윤원(近齋 朴胤源)의 문인으로 처음 곡성에 살기 시작하여 자손이 세거하게 되었는데 이 분이 공의 증조이시다. 조부의 휘는 의상(翊相)이요, 아버지 휘는 헌두(獻斗)요, 별호는 두곡(杜谷)이며, 어머니는 경주김씨인데 아버지는 만(漫)이요, 수은충한(樹隱 沖漢)의 후손이다.

헌종(憲宗) 기유팔월십부일에 공이 석곡면 연동리 집에서 낳으니 효도하고 우애하며 영민하고 재주 있었고 본래부터 사랑하고 공경하는 도리를 알았던 분이다. 집안이 가난하여 학문에 전념하지 못하고 후 냐시질 하고 후 나물을 캐서 어버이 섬기는 자식의 직분을 다 하였고 백형이나 주형과의 우애가 돈독하였으며 일가 친척간에 화목하고 손님과 벗을 공경과 시의로 대하였으며 한가지도 허례허식이 없었다. 어버이가 병들면 그 심하기를 빛을 나타내고 약 다리고 미음 쓰며 몸을 불드리는 일로 잠시도 결을 떠나지 않았으며 침과 콧물을 닦는 것과 대변과 오줌 누이는 일을 몸소 행하고 집안사람에게 시키지 않았다.

나이 서른살 때에 아버지를 여의고 마흔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심에 을부짓는 슬픔으로 거의 실성하다 싶이 했다. 초상과 장례지내는 절차를 예에 따라 행하였고 사망에 상모하는 일을 추위와 더위로 폐하지 않고 언제나 제사날을 당하면 날마다 세 번씩 목욕재계하였으며 비록 어포(魚脯)나 과일 하나라도 몸소 봉진하면서 결에 계시는 듯한 정성을 다 하였다. 형제의 초상에도 초상치고 장례치르는 모든 절차를 친

히 영문하여 처리했고 여러 조카들을 길러 시집 장가를 보내고 살림을 차려주길 내
자식과 똑같이 하였으며 친척간에도 우환이나 병고가 있으면 힘을 다하여 두루 보살
폈다. 선대의 묘소를 수호하는 일이나 면례(緬禮: 무덤을 옮겨서 다시 묘를 쓰는 일)하는 예절등
을 자신이 담당하여 처리하고 제족들에게 위임하지 않았다. 방조(傍祖) 증후손이 없
는 묘소도 정성을 다하여 수호하고 성묘도 철하지 않았다.

성품이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여 반드시 남에게 먼저하고 자기에게 뒤에 하였
고 추위에 떠는 사람을 보면 옷과 이불을 주고 굶주린 사람을 보면 음식을 주었고
농사에 힘쓰면서 출입하였다. 남은 곡식을 내 드림에 있어 반아 드릴 때는 평승(平
升)을 썼고 쌀을 밖으로 낼 때는 고승(高升)으로 하니 동리에서 모두 신뢰하고 살아
가니 하늘이 갓아 복으로 먹어 온 것이다.

마침내 효행으로 추천되어 통정대부 돈령부 도정(通政大夫 敦寧府 都正)이 되었
다. 노사 기선생(蘆沙 奇先生)의 문하에서 수업하였고 자질들을 의리로 가르쳤으며
비록 다른 사람의 젊음이라도 지성스럽게 학문하길 권하면서 이르길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설 땅이 없다 하고 서당을 설립하고 사방에서 배우러 온 학도에게 학문을 권
장하니 이는 족히 쇠잔해 가는 풍속을 지흥 시킴이다. 을해(乙亥: 一八七五)년 봄에
채산(藺山: 경기도 포천)에 가서 면암 최선생(勉菴 崔益鉉先生)을 뵈고 어렵거나 의심난
점을 배우고 의허 만영(도읍)을 받았다. 죽음에 즈음하여 문자제들을 영계하길 묘소
는 선조의 집이니 정성을 다하여 보존하고 지켜야 하고 학문은 이신양명의 길이니

힘써야 한다. 너희는 삼가하여 이 말을 잊지말라 하고 기사(己巳...一九二九)년 정월 십사일(에) 타계하니 나이가 八一세다. 본면 뒷산 곤좌원(坤坐原)에 장사지내다. 부인은 전주이씨(全州李氏)이니 아버지는 신무(信茂)요 도평군(桃平君)의 후예로 규범이 있었다. 묘는 별도로 썼는데 천황산 밑 건좌원(天皇山下乾坐原)에 있다. 二남一女를 두니 장남은 대현(大暉)인데 호는 석연(石蓮)이며, 최면암(崔勉菴)의 제자로 행실이 우아하고 정재되어 문학의 깊이가 있었다. 차남은 대용(大瑢)이요, 광산 김재호(光山 金在浩)는 사위다. 큰집 손자는 익섭(翼燮)이요, 작은집 손자는 일섭(日燮), 성섭(星燮)이다. 나머지는 어리다. 익섭이 그의 부친이 기초한 사적을 가지고 와서 광선(光善)에게 행장을 부탁하기에 생각컨대 과찬하여 선조를 속이지 않았으므로 드디어 깎고 덜어내어 차례대로 쓰고 말을 제대로 할 군자(君子)가 고증하길 기다린다.

갑술 정축 자오음 고광선 삼가 기록함.

野隱丁公墓碣銘

野隱丁公以孝聞於世而竟達于 天聰褒之以通政大夫敦寧府都正於以見孝之至而此足以不朽千秋矣後雖有作者何以加此嗚

呼偉矣公之沒久矣玄堂尚無係牲之石諸孫以爲憂今年始具既磨其曾孫宗杓奎哲奉高弦窩光善狀訪余請記陰之文辭不獲謹按公諱碩璜又文教字明彥丁氏籍羅州來自中國麗朝檜軒悅以都元帥拜平章事至季世諱宗甲官昭格署令國亡守西山之節累徵不就南遷錦城數傳克隆大司諫至彥奎丙子扈從南漢 賜勳券除守令又至道一號南隱以朴近齋胤源門人始居于谷城是公之曾祖祖翊相考獻斗號杜谷妣慶州金氏父塏樹隱冲漢后憲宗己酉八月十九日生公于石谷蓮洞里第公自幼孝心純至常承順父母之志無一時之拂言戾色供養口體必盡其力或採或釣既溫且涼各適其宜至於愆節憂形于色湯餌扶持暫不離側唾洩便尿躬除不人外內丁憂哀痛過禮幾至滅性送終之節克遵禮制朔望展墓寒暑不廢每當夫日齊戒散致必盡如在之誠兄弟喪葬親自經紀撫養諸姪嫁娶制產親戚憂患疾苦極力周章先墓之節緬襄

之事躬自擔夯不委諸族傍先無后省墓無闕性且好施見人飢寒
推衣與食務農餘穀糴平糶高鄉隣多賴保活士林以孝廉薦 蒙
褒向晚益致意於學乃受業于蘆沙奇先生門對子姪與年少諄諄
勸勉曰人不學無以立設塾以處四方來學者謁勉菴崔先生講學
難疑多蒙獎誦臨終戒子孫曰墳墓先祖之幽宅不可不盡誠文學
立身之方法不可不專務卒己巳正月十四日墓蓮洞後麓負坤之
原夫人全州李氏信茂女有閨範別葬天皇山下乾坐原長男大覲
有文學次大瑑光山金在浩壻長房男翼燮洪燮次房男日燮星燮
餘不錄銘曰

孝親友弟兄睦于族與戚周窮又獎學六行兼一身嗟爾樵牧兒須
愛墳前木

皆壬申大壯月上澣 竹山 安 秉 柝 撰

야이정공묘갈명

야이정공(野隱丁公)은 효자로 세상에 소문이 났고 마침내 임금에게까지 도달되어 통정대부 돈녕부도정(通政大夫 敦寧府都正)으로 포상되니 이에서 효성이 지극하면 족히 써 천추에 썩지 않음을 보겠다. 뒤에 비록 글을 지을 사람이 있더라도 어찌 이 에 더 하리요. 아! 위대하다. 공이 죽은지 오래 되었으나 묘소에 아직 생(牲)을 매 어들 돌이 없어 여러 자손들이 걱정하여 오다가 음년에 비로소 비석을 구비하고 그 증손 종표(宗杓)와 규철(奎哲)이 고현와 광선(高弦窩 光善)이 지은 행장을 받들고 나를 찾아와 묘비문을 청하기에 사양 하였지만 사양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삼가 살 펴보니 공의 휘는 석항(碩曠) 또는 문교(文教)요, 자는 명언(明彦)이며, 정씨의 본 관은 나주인데 증국으로부터 왔다. 고려조 때 회현열(檜軒悅)은 도원수로 평장사(平章事)에 배명되고 고려 말엽에 이르러 휘 종갑(宗甲)은 벼슬이 소격서령(昭格署令)이었으며 고려가 망함에 서산(西山) 백이(백이 수제가 승은산)의 절개를 지키느라 여러번 불렀지만 나아가지 않고 남쪽 금성(錦城)으로 피해 왔다. 여러 대를 거쳐 즉응(克隆)은 대사간(大司諫)이요, 언규(彦奎)는 병자호란 때 왕을 남한산성으로 모시니 공응(公應)을 주어 수령으로 제수하였고 또 도일(道一)은 호가 남은(南隱)인데 박근재 윤원(朴近齋 胤源)의 문인으로 처음 곡성에서 살기 시작하였는데 이 분이 공의 증조이다. 조부는 익상(翊相)이요, 아버지는 헌두(獻斗)인데 호는 두곡(杜谷)이며, 어머니는

경주김씨인데 아버지는 만(漫)이요, 수는충한(樹隱冲漢)의 후손이다.

헌종 기유(憲宗 己酉·一八四九) 八月 十九일에 공을 석곡면 연동마을 집에서 낳으니 공이 어려서부터 효심이 수결하고 지극하여 항상 부모의 뜻을 이어 받들고 한 시도 거스르는 말과 어그러진 낮빛이 없었다. 어버이를 공양할 때 그 정성을 다해 후나물도 캐고 후나기질도 하였으며 따습거나 서늘하게 하는것을 그때그때 적당하게 맞추웠고 병이 들면 근심하는 빛이 얼굴에 나타나고 약 다리고 미음쓰며 붙잡아 드리는 일로 잠시도 결을 떠나지 않았고 침과 콧물을 닦으며 대소변을 누이는 일은 몸소 이행하고 남에게 시키지 않았다. 부모가 돌아가시는 슬픔이 지나쳐 거의 실성하다 싶이 하였고 장례지내는 절차는 예절에 맞게하고 삭망의 성묘는 추위나 더위로 써 패하지 않았었다. 언제나 제사날을 당하면 산제(散齋)·밖에 나가 하는 행례의 규제(치제) 致齊·집안에서 근심하는 것)로 재계하고 꼭 결에 계시는 것 같은 정성을 다 하였다. 형제의 초상과 장례에도 친히 다스렸고 여러 조카들을 양육하여 시집장가를 보내고 살림을 차려 주었다. 친척간에 병들거나 괴로운 일이 있으면 힘써 다하여 두루 보살폈고 선대의 묘소를 수호하는 절차나 면례(緬禮)하는 일등을 몸소 담당하였고, 제조들에게 위임하지 않았으며 방조(傍祖)증 후손이 없는 묘소도 성묘를 쫓기지 않았다. 성풍이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여 굶주리거나 헐벗은 사람들을 보면 옷과 밥을 주었고 농사짓고 남은 곡식을 반아드릴 때는 평승(平升)으로 밖으로 낼 때는 고승(高升)으로 하

나 이우들이 많이 신뢰하고 살아가니 그들 선비들이 효도와 청렴으로 천거하여 포상을 받았었다.

늦은막에 더욱 학문에 뜻을 두어 노사 기선생(蘆沙 奇先生) 문하에서 수업하였고 자식이나 조카며 청소년들을 대할 때마다 지성스럽게 공부하길 권하면서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입신(立身)할수 없다하고 서당을 설립하여 사방에서 오는 학도들을 가르쳤다. 면암 최선생(勉菴 崔先生)을 뵈고 어렵거나 의심난 곳을 배우고 익혀 많은 도움을 받았다. 임종(臨終)할 때에 자손들을 경계하길 무덤은 선조의 유택이니 정성을 다하지 않을수 없고 글을 배우는 것은 입신양명(立身揚名)의 방법이니 저넙하여 힘쓰지 않을수 없는 일이라고 하고 돌아가시니 기사(己巳:一九二九) 정월 십사일 이요, 묘는 연동 뒷산 곤좌(坤坐)의 언덕에 있다. 부인은 전주이씨 신무(信茂)의 따님인데 여자의 법도가 있었다. 묘는 별도로 썼는데 천황산 밑 건좌원(乾坐原)에 있다. 큰아들 대현(大現)은 문학(文學)이 있었고 작은아들은 대용(大溶)이며, 광산 김재호(光山 金在浩)는 사위다. 큰아들의 아들인 익섭(翼燮)과 홍섭(洪燮)이요, 작은아들의 아들인 일섭(日燮)과 성섭(星燮)이요 나머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명(銘)하노라.

어버리에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일가와 친척간에 화목하였고, 구한사람도 외주고 학무에 정려하니 여섯가지 행실을 한몸에 겸비하였네. 아! 나무하고 소치는

아이들도 모름지기 무덤 앞에서 있는 나무를 사랑하리라.

壬申(一九三二)三月 일 주산 안명 탁 지음

通文

右文諭事古之稱孝子者有奇節與異積焉王祥之鯉躍於冰而爲奇節孟宗之筍出於雪而有異蹟至若曾子之寓慕羊棗朱子之忠養鳧藻通萬古奇奇異異不易之大孝也卽聞貴郡石谷面蓮盤里孝子丁文教羅州人字明彥號野隱官通政大夫檜軒公諱悅之后司諫公諱克隆十三世孫丙亂功臣官端川府使諱彥奎六代孫杜谷處士諱獻斗之第三子也自幼氣宇軒昂稟性剛直事親敬兄出於良知而誠事父母侍癘祝天露禱湯餌扶持不離侍側唾洩便尿不替於人而奄當天崩擗踊哭泣幾至滅性血淚三霜盡禮無憾丁內艱省定哭泣已如前喪求山安窀朔望展墓風雨不尼二兄曰汝

之至孝吾所不及也及伯氏內外喪凡百諸具親自經紀孤侄男妹
 嫁娶分產仲兄無產迎嫂婚侄親自負擔每當忌日日三齊沐雖脯
 果親自奉獻勤儉耕織升斗之粟糶則高糶則平此等事業士女之
 口碑至今不磨教子孫必有義方對人子亦勸文學淑夫人全州李
 氏桃平君之后信茂之女持身有德治家以法有女師之風嗚乎至
 誠所格天監昭昭克孝所到士論嘖嘖谷蘭不欲播香而香自臭臯
 鶴不欲聞聲而聲自聞理勢然也斯人之昭昭事實現出於三網修
 繕之日鄙等不可含嘿故茲以發文 貴郡僉君子使此卓異之行
 永傳不朽以爲闡揚旋褒之地幸甚
 右敬通于谷城 鄉校士林僉座

己未二月三日 朝鮮網獻錄楓溪祠刊所發文

통문

一〇二쪽 통문(通文)으로 알리는 일이 옛날에 효자라고 칭하는 자는 기절(奇節)·뛰어

난 절개(과 이적(異蹟)·불가사이한 기적)이 있었었는데 왕상(王祥)의 잉어가 이름속에서 뛰어
 나온 것이 기적이 되고 맹종(孟宗)의 주순이 눈속에서 나온 것이 이적이다. 증자(曾
 子·공자의 제자)께서 양조(羊棗·증자의 아버지 증식이 즐긴 음식)에다 사모하는 마음과 붙이고 주
 자(朱子)께서 충성을 다하여 봉양하길 물오리가 모람을 보면 좋아하듯 하였으니 오
 랜 세월을 통하여 기이(奇異)하다고 여기는 효자와 바꾸지 못할 큰 효자다. 귀군 석
 곡면 연반리 효자 정문교(丁文教)는 나주정씨로 자는 명언(明彦)이며 별호는 야은
 (野隱)으로 벼슬은 통정대부(通政大夫)인데 회헌공 휘 열(檜軒公 諱 悅)의 후예요
 사가공 휘 규옹(司諫公 諱 克隆)의 十三세손이며 병자호란 때 공신으로 단천부사
 (端川府使)를 지낸 휘 언규(彦奎)의 六대손이요 두곡처사 휘 헌두(杜谷處士 諱 獻
 斗)의 셋째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도량이 넓고 기운이 찬으며 성품이 굳세고 정직하
 여 어버이를 섬기고 형을 공경함이 타고난 지능에서 나왔다. 부모를 정성껏 섬기며
 병을 간호할 때 천지신명에게 빌고 약 다리고 미음쓰며 몸을 붙들기 위하여 어버이
 곁을 떠나지 않았고 침과 콧물을 닦고 대소변 받아내는 일을 남에게 맡기지 않았았으
 며 아버님이 돌아가심에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울부짖다 거의 실성할 지경에 이
 르렀고 삼년사상을 피구날로 지내며 모든 예도를 다하여 유감없이 행하였다. 명당을
 구하여 시신을 편안히 모셨고 삭망(朔望) 성묘를 바람이 부나 비가 오거나 폐하지
 않았으니 두 형님이 말씀하길 네의 지극한 효성이 우리가 따르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백씨(伯氏) 내외의 초상시에도 모든 장례절차를 친히 처리하였고 외로운 조카 남매를 결혼시키고 재산을 나누어 살림을 꾸리게 하였으며 중형(仲兄)께서 재산이 없기에 형수를 맞이하고 조카들을 결혼시키는 일에도 자신이 부담하였다.

매년 선영의 제사날을 당하면 날마다 세번씩 목욕재계하고 비록 어포나 귀일이라도 친히 구하여 반들여 헌상하였으며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배를 짜 대나 말(升斗) 곡식을 밖으로 낼 때는 고승(高升)대를 쓰고 받아드릴 때는 평승(平升)대를 쓰는데 의령이 남다른 소의 입에서 입이로 전하여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있다.

자손을 교육함에는 반드시 율령(律令) 방도로 하였고 남의 자식을 대할 때도 학문하기를 권하였다. 숙부인(淑夫人) 전주이씨는 도평공(桃平君)의 후예요 신무(信茂)의 따님인데 몸가짐이 덕이 있었고 가정을 법도로 다스리니 여사의 풍치가 있었다. 아(子)지극한 정성이 이르는 곳엔 천감(天監·상제(上帝))에게 밝게 비치고 지극한 효도가 이르는 곳엔 선비들의 논의가 칭찬으로 자자하다. 골짜기에서 피어나는 난초는 향내를 뿌리고자 아니하지만 향기가 스스로 냄새를 내고 언덕위의 학은 소리를 들리려고 앉았지만 소리가 스스로 들리게 되는 것이니 자연의 이치가 그런 것이다. 이 사람의 환히 밝은 사실이 삼강문(三綱門) 수선하는 날에 나타나니 저희들이 무뎠을 수 없으므로 이에 토포(陶)를 보내오니 귀공의 여러 선비들이 이렇듯 사후(死後) 기이한 일일지 모르라 전하고 씩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들쳐내어 효자각 등의 표창을 하여 주시면 다행이

겠습니다.

우(右)와 같이 고령의 고성향과 유림 여러분에게 통고합니다.
조선 광헌록 풍계사 발간소에서 통문을 받함.

碑文

夫孝貴乎自盡名成乎闡揚苟自盡矣奚須於闡揚乎顧今天步移
躔橫流滔滔一點陽脉不絕如綫者豈非天彝人紀者歟谷郡人士
爲揄揚丁孝子異蹟鐫貞珉以表閭徵余以記其事余雖昏泚於孝
子事烏可辭諸孝子曰文教羅州之氏官通政字明彥號野隱檜軒
公諱悅后司諫公克隆十三世孫杜谷處士諱獻斗其考也慶州金
氏樹隱公之后壘之女其妣也生而性孝怡愉母或違拂其天姿之
純摯也長而事父母盡志體之養篤友兄弟晨婚定省其操行之夙
著也侍癘百方調治願以身代唾洩便尿不替於人及至遭艱攀號
擗踊頓絕方蘇幾至滅性泣血三霜盡禮無憾占吉安寔寘田栽松

奄遭內艱哀毀哭泣一如前喪朔望展墓風雨不尼者八十年四代
忌日日三齊沐脯果祭需親自奉獻其伯氏內外喪凡百諸具躬執
經紀撫育孤侄男妹嫁娶分產無踰均衡仲兄無產迎嫂婚侄隨事
負擔且使子侄不出市場顧問擔任諸家所用物品供給有規務農
治產幸有餘裕則糶高糴平鄉里士女咸稱寬弘也其配全州李氏
桃平君后信茂女持身以德治家有法教子義方遂成大儒臨終招
門子侄曰墳墓祖先之所宅不可不盡心文學立身之方不可不務
汝曹毋忘此言此公之治命也嗚呼以公之德之行未始不闡揚而
綽楔殊典無地可尋宜鄉人士慄慄於彝好也 銘曰 經殘教弛
天步移躔誠孝竭力公復何嫌一有扶綱耀後光前片石不磨過者
是欽

上章敦牂春分節上浣

崇祿大夫前禮曹判書原任奎章閣提學 安東人 金宗漢 撰

대개 효도란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데서 귀하게 되고 이름은 세상에 널리 떨쳐지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진실로 자신의 도리를 다 하였다면 어찌 들쳐나갈 기다릴 것인가 요즘 세상을 돌아 보건데 천운(天運)이 과도를 벗어나고 멋대로 흐르는 물이 범람하는데 한점의 양맥(陽脈)이 끊어지지 않고 실날같이 이어지니 어찌 하늘의 뜻 벗어난 법과 사람이 행할 도리가 아닌가 곡성유 선비들이 정효자의 기적을 끌어 올리 어 돌에 새겨 이 선행을 칭찬 하고자 나에게 그 사실을 기록하라 하니 내 비록 혼미 하지만 효자의 일에 어찌 사양하리요.

효자 이름은 문교(文教)요 나 주정씨로 벼슬은 통정대부(通政大夫)며 자는 명언(明彦)이며, 호는 야은(號野隱)인데 회헌공 휘 열(檜軒公 諱悅)의 후예로 사간공 즉응(司諫公 克隆)의 十三세손이요 두곡처사 휘 헌두(杜谷處士 諱獻斗)는 그의 부친이며 경주김씨(慶州金氏) 수인공(樹隱公)의 후손 만(漫)의 따님인 그의 모친이다. 태어나서 부터 천성이 효성스러워 온화하고 유순하여 혹시라도 뜻을 거역하지 않았음은 그의 타고난 바탕이 순수함이었고 자라서 부모를 섬기되 뜻과 몸을 봉양하는 정성을 다하였으며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하고 밤이면 잠자리를 정하고 새벽이면 안부를 살핌은 그의 조행(操行)이 일찍 나타난 것이다. 병을 갠후할데 백방으로 조리하여 치료하였으며 자신이 대신하여 아프길 원하였다. 침과 콧물을 닦고 대소변

발아내느 일을 남에게 맡기지 않았었다. 부친께서 작고 했을 때 을부짓으며 땅을 치고 발
 을 굴었다가 갑자기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소생하였으나 거의 실성하다 싶이 되었다.
 피가 말려 삼년동안 예절이라 하여 유감없이 하였고 좋은 명당을 잡아 안장하고 버려둔
 밭에 소나무를 심었다. 모친상을 다하여서도 슬퍼하고 을부짓음을 부친상과 똑같이 했
 다. 상망성묘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치지 않고 행한 것이 八十년이 되었다. 四대에
 걸친 조상의 제사날이 닥치면 날마다 세번씩 목욕 재제하고 어포(魚脯)나 과일 등의 제
 수를 손수 마련하여 받들어 헌상하였다. 그의 백씨(伯氏) 내외의 초상시에도 장례 절
 차에 따른 모든 기구를 몸소 경륜하여 다스렸고 부모 일흔이 어린 조카 남매를 길러 훈이
 을 시키고 재산을 나누어 살림을 차려주대 구형을 넘지 않게 하였으며 중형(仲兄)께서
 재산이 없는지라 형수를 맞이하고 조카를 결혼 시키는 데의 비유를 일에 따라 부담하고
 또 아들과 조카들에게 시장엘 가지 못하게 하고 고문(顧問)을 담당하고 여러 집에서
 소양을 가르치며 고을에 있었다. 농사에 힘쓰며 살림을 하다가 다행히 식량
 의 여유가 있어 밖으로 낼 때는 고승(高升)으로 하고 받아드릴 때는 평승(平升)으로 하
 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량이 넓으신이라고 칭찬하더라.

그의 부인은 전주이씨 도평군(桃平君)의 후예인 시부(信茂)의 따님인데 몸가짐이
 덕스러웠고 집안을 다스리는데 법도가 있었으며 자식들을 옹양이 도리로 가르쳐 드디
 어 큰 선비가 되게 하였다. 주읍에 이르러 자식과 조카들을 불러놓고 이르길 묘소는

조상들의 유택이니 마음대로 다하여 보존치 않을 수 없고 글을 배우는 것이 입신(立身)의 방법이라 힘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즉 너희들이 이 말을 잊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공의 유언이다. 아! 공의 덕과 행실이 처음부터 들어나지 아니한 것이 아니지만 효행을 표창하는 정표(旌表)를 내릴곳이 없으니 마땅히 향중의 인사들이 덕을 좋아하는 뗏뗏한 길에 정성을 쏟아야 할 것이다.

명(銘)하노라.

경전(經典)이 쇠잔해지고 교화가 헤이되어 천운(天運)이 과도를 벗어났지만 정성을 더하여 효성으로 힘을 다하였으니 공은 다시 무언을 겸손해 하리요 한가지 강상(綱常)을 붙잡음이 있으니 후이들을 빛나게 하고 앞사람에게 빛나네. 조그맣게 새겨놓은 돌은 갈아 부개하지 않으니 여기를 지나는 이 공경스러워 하리라.

경오년 춘분절 상완 승록대부 전예조판서 원임 규장각제학 안동인 기묘중한 지음

石蓮先生記蹟

石蓮丁先生行狀

선생(先生)의 휘(諱)는 대현(大暉)이요, 자(字)는 자경(自旻)이며 석연(石蓮)은 자호(自號)요 성관(姓貫)은 나주정씨(羅州丁氏)다. 상세(上世)의 휘(諱) 열(悅)은 호(號)가 회헌(檜軒)인데 대별상도원수(大別相都元帥)로 평장사(平章事)에 배명(拜命)되고 삼전(三傳)하여 휘(諱) 윤종(允宗)은 검교대장군(檢校大將軍)에 태자태부(太子太傅)로 시호(諡號)는 충열(忠烈)이요 휘(諱) 공수(公壽)는 상장군(尙將軍)하시중(上將君門下侍中)이요 휘(諱) 순우(純佑)는 좌명공신(佐命功臣)인데 다 여사(麗史)에 등재(登載)된 현조(顯祖)요 삼전(三傳)하여 휘(諱) 종갑(宗甲)은 호(號)가 백은(白隱)으로 공민왕조(恭愍王朝)에 소격서령(昭格署令)이었는데 국혁후(國革後) 조선태조(朝鮮太祖)께서 소명(召命)이 있었으나 불취(不就)하고 길야은(吉治隱)과 더불어 전리(田里)에 돌아가기로 동맹(同盟)하여 야은(冶隱)은 금오산(金烏山)으로

들어가고 공(公)은 금성산하(錦城山下)로 돌아와 임탁(林卓)과 함께
 불복(不服)의 절의(節義)를 지켰고 삼전(三傳)하여 휘(諱) 즉응(克
 隆)은 호(號)가 치재(耻齋)로 단종조(端宗朝)에 대사간(大司諫)이었
 는데 다초승은위시(端宗遜位時)에 기관남하(棄官南下)하여 영평성덕산
 (永平聖德山)으로 들어가 두문자정(杜門自靖)하고 단종(端宗)께서 승
 하(昇遐)하심에 삼년복(三年服)을 입고 매년(每年) 휘진(諱辰)을 당
 (當)하면 영월(寧越)을 향(向)하여 통곡(痛哭)하고 돌아오니 사람들이
 그곳을 월현대(越峴臺)라 명명(命名)하였는데 나주관민(羅州官民)이
 세운 유적비(遺蹟碑)가 있다. 칠세조(七世祖) 휘(諱) 언규(彦奎)의 호
 (號)는 사암(思菴)인데 병자호란(丙子胡亂)때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어가(御駕)를 모신 공(功)으로 단천부사(端川府使)에 제수(除授)되고
 고조(高祖) 휘(諱)는 도일(道一)이요 호(號)는 남은(南隱)인데 근재
 박문헌공(近齋朴文獻公)의 문인(門人)으로 남평(南平)에서 곡성(谷城)
 으로 이거(移居)하였는데 학행(學行)이 저세(著世)하였다. 증조(曾祖)

의 휘(諱)는 익상(翊相)이요 조(祖)는 휘(諱) 헌두(獻斗)며 호(號)는 두곡(杜谷)인데 은거행의(隱居行義)하여 세인(世人)이 두곡처사(杜谷處士)라고 칭(稱)했다. 고(考)의 휘(諱)는 문교(文教)며 또 다른 휘(諱)는 석황(碩璜)이요, 호(號)는 야은(野隱)이며 기노사선생(奇蘆沙先生)의 문인(門人)인데 효행천(孝行薦)으로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에 증직(贈職)되고 비(妣)는 숙부인(淑夫人) 전주이씨(全州李氏) 시(詩)문(文)에 능(能)한 여(女)로 유한정정(幽閑靜貞)하여 여사(女士)의 풍(風)이 있었었다.

선생(先生)이 갑신(甲申) 一八八四)十月十五日에 연동본제(蓮洞本第)에서 탄생(誕生)하니 기우(氣宇)가 고걸(高傑)하고 영오(穎悟)가 절(絶)倫(倫)하여 자유(自幼)로 일동일정(一動一靜)이 법도(法度)가 있어 유배(類輩)와 유희시(遊戱時)에도 학림군계(鶴立群鷄)의 의표(儀表)가 있었었다. 취학(就學)하여선 스승의 독찰(督察)이 없어도 스스로 과정(科程)대로 진척(進陟)하여 문리(文理)가 통투(通透)해지니 동료간

(同僚間)에 갑을(甲乙)을 겨룰자 없이 경사자집(經史子集)을 섭렵(涉獵)하였다. 처음엔 증부만은공(仲父晚隱公) 휘(諱) 석교(碩敎)에게 배우고 미약관(未弱冠)에 국내장덕(國內長德)인 최면암(崔勉菴), 송연재(宋淵齋), 기송사(奇松沙) 삼선생(三先生)에게 종유(從遊)하며 관감초(觀感請益者) 많았고 서찰(書札)로 왕복(往復)하며 난의(難疑)를 질정(質正)하였다.

집뒤에 한 별서(別墅)를 짓고 이름은 망미대(望媚臺)라 하니 무술(戊戌..一八九八)年 봄에 송연재선생(宋淵齋先生)이 종학자(從學者)와 더불어 이대(臺)에서 강(講)했고 익년(翌年)己亥..一八九九) 봄에는 기송사선생(奇松沙先生)이 이대(臺)에서 하루 노시니 일방(一方)의 유풍(儒風)이 진작(振作)되었다. 그후 을사(乙巳..一九〇五)年에 폐백(幣帛)으로 최면암선생(崔勉菴先生)을 배우고 성경현전(聖經賢傳)을 질의응답(質疑應答)하고 수기치인(修己治人)과 폐사존성(閉邪尊聖)과 존화양이(尊華攘夷)의 대의(大義)를 강론(講論)하면서 학문(學問)

은 실천구행(實踐窮行)이 귀중(貴重)함은 인식(認識)하고 사장적저술(詞章的著述)에 주력(注力)하지 않았다.

병오(丙午)·一九〇六년에 최면암선생(崔勉菴先生)의 창의소(倡義所)에 쫓아가 거의(舉義)에 가담코자 하니 면암선생(勉菴先生)께서 정모(丁某)는 친환(親患)이 위중(危重)하다 하니 귀가(歸家)하여 시랑(侍湯)하라고 하시며 효(孝)가 곧 의(義)이라 하시므로 명(命)을 받들어 귀가(歸家)하였다. 경술(庚戌)·一九一〇) 국치이후(國耻以後)로 절치부심(切齒腐心)하여 척왜(斥倭)의 모의(謀議)를 하다가 사전발각(事前發覺)으로 왜병(倭兵)에 체포(逮捕)되어 묵비권(默秘權)을 행사(行事)하니 전모(全貌)를 밝히려는 후독(酷毒)한 고문(拷問)으로 거의 기절(氣絶)함에 촌전(村前)에 버리고 갔는데 다행(多幸)히 천우신조(天佑)神助)로 회생(回生)하였다. 기력(氣力)이 회복(回復)된 후(後)로 애연정(愛蓮亭)을 짓고 일동이동지(一一同志)와 더불어 슬을 나누고 시(詩)를 지으며 강개비분(慷慨悲憤)한 회포를 풀었다.

고종(高宗)께서 승하(昇遐)하시기에 복(服)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양론(兩論)이 자자할 때 선생(先生)은 의연(毅然)히 뜻을 흔들리지 않고 망미대(望媚臺)에 올라가 곡위(哭位)를 설치(設置)하여 북망통곡(北望痛哭)하니 이후(以後)엔 복(服)의 유무(有無)에 대(對)한 두가지 논의(論議)가 재발(再發)되지 않았다.

이로부터 선생(先生)의 명성(名聲)이 날로 불어나 사표(師表)의 촉망(觸望)이 흡연(洽然)히 돌아오니 원근(遠近)에서 학도(學徒)들이 운집(雲集)함에 그 재능(才能)에 따라 수순(諄諄)하게 교육(教育)하고 인도(引導)하길 능도록 게을리 않으니 많은 인재(人材)가 그 문하(門下)에서 배출(輩出)되었다. 선생(先生)이 채산재(採山齋)에서 기거(起居)하시며 아동(我東)의 전통적(傳統的) 가륜(綱倫)과 사상(思想)을 글에 지키면서 후진양성(後進養成)을 자신(自身)의 임무(任務)로 여기니 사린(四鄰)에서 시(詩)로 찬양(贊揚)하고 또는 문(文)으로 칭찬(稱贊)한 문건(文件)이 상자(箱子)에 넘으므로 문인(門人)들이 채산재창수시문집(採山齋唱酬詩文集)을 발간(發刊)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선생(先生)의 소성(素性)이 성효독우(誠孝篤友)하여 유완승수(愉婉承順)과 지체겸양(志體兼養)으로 어버이를 시봉(侍奉)하였고 특(特)히 자당(慈堂)께서 안질(眼疾)로 십여년간(十餘年間) 호정출입(戶庭出入)을 못하니 각방(各方)으로 주선(周旋)한 끝에 신약(新藥)을 얻어 효험(效驗)을 보니 모두가 효성(孝誠)의 감응(感應)이라고 했다. 친상(親喪)을 당(當)할 때 마다 호천망극(昊天罔極)의 슬픔으로 거의 멸성지경(滅性之境)에 이르렀다. 송종지절(送終之節)은 가례(家禮)에 준(準)하여 행(行)하고 삭망성묘(朔望省墓)도 결(闕)하지 않았으며 매양 기제시(忌祭時)에는 산제(散齋)와 치제(致齋)로 여재지성(如在之誠)을 다 하였다.

또 아우 석봉(石峰) 대용(大容)과 더불어 우애(友愛)가 돈독(敦篤)하여 늦은막에 상의정(相宜亭)을 짓고 동탁연음(同卓連衾)하며 윤지(埧麓)로 담락(湛樂)하니 옛날 춘진(春津)과 군실(君實)만이 전문(專美)하다고 하겠는가 역중사우(域中士友)가 혹(或)은 시(詩)로 혹(或)은 문(文)으로 찬양(贊揚)한 문헌(文獻)이 협사(篋笥)에 가득했다. 뿐

만 아니라 더욱 추원(追遠)의 사업(事業)에 힘을 쏟아 누대(累代)의 선산(先山)에 석의(石儀)와 제전(祭田)을 주비(周備)하여 향화지절(香火之節)에 여감(餘感)이 없게 하고 족척간(族戚間)에 의탁(依托)할 곳 없는 유고(幼孤)를 무욕(撫育)하여 성혼(成婚)시키고 분산성가(分産成家)한 자(者)도 수삼명(數三名)이다. 효경(孝經)과 열녀전(烈女傳)과 사례편람(四禮便覽)과 내칙중(內則中)에서 부녀자(婦女子)에게 가장 절실(切實)한 부분(部分)을 발취(拔萃)하여 일책(一冊)을 편제(編製)하고 규범(閨範)이라고 이름지어 부녀행동(婦女行動) 수칙(守則)으로 제공(提共)하니 향리(鄉里) 각처(各處)에서 등서(謄書)하여 서로 전(傳)하였다. 무술(戊戌)一九五八년 七月 삭조(朔朝)에 그손종표(其孫宗杓)를 불러 금월(今月)十八日은 나의 대귀일(大歸日)이니 예지(豫知)하라고 하시고 오년(吾年)이 七十五니 수(壽)도 또한 많다. 그러니 너무 슬퍼말라고 하는 그의 의용(儀容)이 엄연청수(儼然清秀)하여 백학재운격(白鶴在雲格)이더니 과시(果是) 十八日 조조(早朝)에 가중(家中)을 집합(集合)하여 목욕(沐浴)을 청(請)하고 새옷으로 갈

아침은 뒤에 부모(父母) 묘소(墓所)에 영결인사(永訣人事)를 하겠다
고 부액(扶腋)케 하여 망배(望拜)의 예(禮)를 마치고 제(弟) 석봉공
(石峰公)에게 내가 죽으면 삼일(三日)을 넘기지 말고 성복(成服)하라
고 명(命)하시고 즉일신시(即日申時)에 역책(易箒)하시니 문인(門人)
과 사림(士林)이 모여서 석곡면(石谷面) 연반리(蓮盤里) 적박동(積
박洞)산하(積泊洞先山下) 신좌지원(辛坐之原)에 장례(葬禮)지내고 난후(葬
後) 장마(杖馬)가 십여일(十餘日)을 계속(繼續)하니 모두가 선생(先生)의 예지(豫
知)에 감탄(感嘆)하였다.

배(配)는 전주최씨(全州崔氏) 삼순(三淳)의 여(女)인데 지신(己
申) (持身以德)하여 여사지풍(女士之風)이 있었다. 갑신(甲申)에 생(生)하
고 계축(癸丑) 四月七일에 졸(卒)하니 묘(墓)는 선생묘(先生墓) 우측(右
側)에 합조(合兆)하고 계배(繼配)는 전주이씨(全州李氏) 동우(東宇)
의 여(女)인데 정유생(丁酉生)이며 정사(丁巳) 정월(正月) 二十二日
에 졸(卒)하니 묘(墓)는 선공묘(先公墓) 우측(右側)에 합조(合兆)하
고 계배(繼配)는 함양오씨(咸陽吳氏) 기만(基萬)의 여(女)인데 화순

무위(和順無違) 하였다. 임인(壬寅)에 생(生)하고 계미(癸未) 정월
 (正月)二十九日에 졸(卒)하니 묘(墓)는 연동초후(蓮洞村後) 근좌원
 (坤坐原)에 있다. 선배최씨(先配崔氏)는 생일남일여(生一男一女)하니
 남(男)은 익섭(翼燮)이요 여(女)는 청송심경식처(靑松沈景植妻)다. 익
 섭(翼燮)의 일명(一名)은 해봉(海鵬)이요, 자(字)는 원익(遠翼)이며,
 호(號)는 남운(南耘)인데 고현와광선(高弦窩光善)의 문인(門人)으로
 문학(文學)이 부섭(富瞻)하여 유고(遺稿)가 간행(刊行)되었고 풍천노
 씨(豐川盧氏) 준현여(準鉉女)를 취(娶)하니 효열비(孝烈碑)가 세워졌
 고 五남二녀(五男二女)를 두니 남(男)은 종표(宗杓), 규혁(奎赫), 규
 중(奎重), 규순(奎淳), 규완(奎完)이요, 여(女)는 연일 정경택(延日
 鄭京澤) 밀양 박종갑처(密陽朴鍾甲妻)다. 계배이씨(繼配李氏)는 무
 육(無育)하고 계배오씨(繼配吳氏)는 一남三여(一男三女)를 낳으니 남
 (男)은 홍섭(洪燮)이요, 여(女)는 옥천 조동선(玉川趙東善), 수흥 안
 정섭(順興 安正燮), 경주 김기신처(慶州金基信妻)다. 홍섭(洪燮)의
 자(字)는 홍기(洪奇)요, 호(號)는 추파(秋坡)인데 진원박씨(珍原朴

氏) 태천여(泰阡女)를 취(娶)하여 二남四여(二男四女)를 두니 남(男)은 규문(奎文)、규성(奎成)이요, 여(女)는 나주 나연화(羅州 羅然和)、경주 이재량(慶州 李在亮 妻)이요, 여二여(餘二女)는 미계(未筭)하다. 증손(曾孫)은 우진(又鎭)、규진(圭鎭)、윤진(允鎭)、증진(仲鎭)、창진(昌鎭)、원진(元鎭)、경진(京鎭)、광진(光鎭)、무진(茂鎭)、갑진(甲鎭)、호진(虎鎭)、당진(堂鎭)、일호(一鎬)、삼진(三鎭)、을진(乙鎭)、범진(範鎭)、태진(台鎭)이요, 여(餘)는 어려서 기록(記錄)안는다.

오호(嗚呼)라 선생(先生)이 정학(庭學)이 있는 유문(儒門)에서 생장(生長)하여 연원(淵源)이 심장(深長)한 학문(學問)으로 세인(世人)이 경앙(景仰)하는 사표(師表)의 위치(位置)에서 꺼져가는 유학(儒學)을 수호(守護)하는 보루(堡壘)로서의 역할(役割)을 다하면서 남기신(업적(業績)은) 실(實)로 지대(至大)하다. 정슬구치(庚戌國耻)와 남북분단(南北分斷)과 六·二五사변(六·二五事變) 등(等)의 창상누변(蒼桑累變)의 역경(逆境)속에서도 병심(秉心)을 고수(固守)하고 유자(儒者)의 본분(本分)을 지켜 효사부모(孝事父母)하고 우우형제(友于兄

弟)는 처신(處身)의 지표(指標)로 하고 의관정제(衣冠整齊)와 근독위
 좌(謹獨危坐)는 지신(持身)의 부(符)로 삼아 주야일념(晝夜一念)을
 후지양성(後進養成)에 두고 교학불권(敎學不倦)의 정신(精神)으로 선
 유(先儒)의 가행의덕(嘉行懿德)을 필사(筆寫)하여 무상공여(無償供
 與)하고 효제충신(孝悌忠信)과 정사역천(精思力踐)의 도(道)로 교도
 (敎導)하여 육천일방(浴川一方)에 사풍(士風)이 빈빈(彬彬)하게 진흥
 (振興)케 하니 그 청덕(淸德)과 현로(賢勞)에 누구든 옷깃을 여미지
 않으니오.

불행(不幸)하게 六·二五사변시(六·二五事變時) 유고(遺稿)가 소설
 (燒失)되어 중요문자(重要文字)가 누락(漏落)된채 잔여산고(殘餘散稿)
 약간(畧干)을 수집(蒐輯)하여 신해(辛亥·一九七一) 춘(春)에 간행(刊
 行)하였고 무진(戊辰·一九九〇) 춘(春)에 연원록(淵源錄)을 간행(刊行)
 하였다. 신축(辛丑·一九六一) 춘(春)에 문인(門人)과 사림(士林)들이
 제단(祭壇)을 설치(設置)하고 분필(芬苾)의 예(禮)를 행(行)하다가 계
 유(癸酉·一九九三) 춘(春)에 오강사(梧岡祠)에 추배(追配)하여 영모

(景慕)의 예(禮)를 다하고 있다.

일(日)에 선생(先生)의 주손(胄孫) 종표형(宗杓兄)이 나에게 가장
(家狀)을 보이면서 현대문(現代文)으로 장덕지문(狀德之文)인 행장
(行狀)을 기술(記述)해 주길 청(請)하기에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 사
양(辭讓)했으나 종표형(宗杓兄)과는 동경우(同庚友)라 정의공돈(情誼
孔敦)할 뿐만 아니라 선생(先生)과 오선자(吾先子) 민재선생(敏齋先
生) 휘(諱) 임상(琳相)과는 동문연원(同門淵源)이요 또 면암선생(湄岩
(勉菴先生主壁)의 오강사(梧岡祠)와 평산사(平山祠)에 각각(各各) 배
향(配享)되어 있어 세의상(世誼上) 불고문졸(不顧文拙)하고 이와같이
기록(記錄)하였으나 사람의 덕(德)을 기술(記述)하는 것은 화공(畫
工)이 사람의 초상(肖像)을 그리는 것 같아서 만일 일경(一莛)의 터럭
이라도 차이(差異)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하신 정자(程子)님의
교훈(教訓)처럼 선생(先生)의 진면(眞面)에서 얼마나 멀게 기록(記
錄)되었을가 하는 두려움이 앞서 입언(立言)자(立言君子)의 질정(質訂)에
일입(一任)한다.

정축(丁丑)一九九七 지월(至月) 일(日)

후학(後學) 무안 박양규(務安 朴穰奎) 근찬(謹撰)

墓碣銘

丁生宗杓草其王考遺事而來告于不佞曰王考墓草再宿矣將豎石于羨門銘文茲敢貽勞于先生翁乃余之畏友忍可辭諸竊惟翁之友能文家多矣今不求諸彼而反求諸如我大訥者蓋以其志氣之相孚也按公諱大暉字自旻號石蓮姓丁氏羅州人以高麗光祿大夫錦城府院君諱聖徽爲上祖至諱允宗太子太傅諡忠烈公至諱宗甲號白隱文科官至昭格署令入我朝徵命不就與吉冶隱林卓同歸田里守罔僕義至諱克隆號耻齋司諫院大司諫端廟遜位入聖德山中隱淪而終至諱彥奎號思菴仁廟丙子扈從南漢累立奇功高祖諱道一號南隱出入近齋朴公門丁氏之居谷城自

公始曰翊相曰獻斗曾祖祖諱也考諱文教一諱碩璜號野隱蘆沙
奇公門人 贈通政大夫敦寧府都正妣淑夫人全州李氏信茂女
高宗甲申十月十五日生公于蓮洞里第器宇雋爽穎悟邁倫幼不
戲狎色笑動止不離途轍纔上學尋行數墨課誦無闕沿文索義輒
驚師長塾中曹偶與之甲乙者鮮矣既而腹笥富贍遊學于域內長
德如淵齋宋先生松沙奇先生門觀感請益者頗云頻矣贊謁于勉
菴崔先生講義質難經史子集參互考訂得聞修己治人閉邪尊聖
華夷尊攘之義庚戌屋杜後築愛蓮亭雪月良辰與一二同志酣觴
賦詩以泄慷慨悲憤之懷戊午 高宗之喪一邊凶論有服不服之
說公毅然不撓而設哭班位北望痛哭時輩儁貳之論不敢肆焉聲
譽日滋宗師之望洽然自歸隣近負笈之徒隨日踏至隨其才而叩
竭兩端而諄諄誘掖期至成就而不知老之將至也性於孝養在視
抑搔先意承順期得親心之歡喜遭艱哀毀逾禮廬于墓側晨

夕攀號哀動傍人且篤於友于晚築相宜亭與弟大瑑寢興不離春
津假寐君實附背不獨專美矣域中士友或詩而贊之或文而贊之
者溢于篋笥尤致力於追遠累世墓途之儀衛香火之物土或創或
修極其周備無至餘憾此乃公之實事之梗槩也嗚呼人之道不過
日用云爲當於理己而公之所行槩而言之夙夜一念慥慥乎職分
之所當爲動遵規度而孝於父母友於昆季忠以處己恕以待人而
憂道之不振勸獎來學而道之以孝弟忠信精思力踐俾得知爲學
階程有補於風教者多矣可不歛衽哉戊戌七月十八日考終于寢
葬于石谷面積治枕辛原配全州崔氏三淳女癸丑四月七日卒墓
蓮洞村後三佛岳枕辛原生一男一女男翼燮女青松沈景植妻繼
配全州李氏東宇女丁巳正月二十二日卒墓亦三佛岳辛原無育
繼配咸陽吳氏基萬女癸未正月二十九日卒墓蓮洞上村後坤原
生一男三女男曰洪燮女玉川趙東善順興安正燮慶州金基信妻

長房孫宗杓性杓京杓直杓完杓女延日鄭京澤密陽朴鍾甲妻餘
幼不舉銘曰

萬善原於孝推孝餘可識學足以師傅可紹行足以神明可質左右
經史寤寐是究誘掖來徒兩端竭叩簞瓢處巷我樂誰知視彼青紫
太虛雲垂兄及弟矣怡怡湛翁孝友爲政扶紀振俗繼家有孫而光
來百積厚裕後宜爾振振截彼積治之洞肆是仁人之阡苟有好彝
之性者孰不景慕而式焉

歲在庚子初下浣

玉川 趙敏植 撰

묘갈명。

정(丁)생. 종표(宗杓)가 그의 왕고(王考)의 유사(遺事)를 초(草)하여 와서 나에
게 고하여 말하길 「왕고(王考)의 묘(墓)의 돌이 두번이나 무었으니 장차 연분(羨
門)에 빛들을 세우고 글을 새기려고 합니다. 이에 감히 선생께 수고를 끼치게 되었
습니다.」라고 했다. 응(翁)은 나의 두려운 벗이니 차마 사양할 수 있겠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건데 응(翁)의 친구중에 글에 능한 사람이 많을텐데 오늘날 저들에게서 글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나같이 아주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은 지기(志氣)를 서로 믿었기 때문이다.

살피보건데 공(公)은 휘(諱) 대현(大暉)이며 자(字)는 자경(自旻)이며 호(號)는 석연(石蓮)이며 성(姓)은 정씨(丁氏)이니 나주(羅州) 사람이다.

그러(高麗)때 광록대부(光祿大夫) 금양부원군(錦陽府院君) 휘(諱) 성휘(聖徽)를 상조(上祖)로 삼는다. 휘(諱) 윤종(允宗)은 태자(太子) 태부(太傅)였으며 시호(諡號)는 충렬공(忠烈公)이다. 휘(諱) 종갑(宗甲)은 호(號)는 백은(白隱)이며 문과(文科)로 관직이 소격서령(昭格署令)에 이르렀다.

우리 조정에 들어와서 소명(召命)이 있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길야은(吉冶隱) 임탁(林卓)과 함께 시골로 돌아와 고려(高麗)를 생각하는 절의를 지켰다. 휘(諱) 극응(克隆)은 호(號)는 치재(耻齋)이며 사간원(司諫院) 대사간(大司諫)이었다. 단종(端宗)이 손위(遜位)하자 성덕산(聖德山) 가운데로 들어가 은거(隱居)하다 죽었다. 휘(諱) 언규(彦奎)에 이르러서 호(號)가 사암(思菴)이니 인조(仁祖) 병자(丙子)·一六三六(년)에 남한산성(南漢山城)에 호종(扈從)하여 여러번 기이한 공(功)을 세웠다. 고조(高祖) 휘(諱) 도일(道一)은 호(號)가 남은(南隱)이니 박근재(朴近齋)의 문에 출입하였다. 정씨(丁氏)가 곡성(谷城)에서 살았던 것은 공(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의상(翊相)」과 「헌두(獻斗)」는 증조(曾祖)와 조(祖)의 휘(諱)이다. 고(考) 휘(諱) 문교(文教)는 호(號)가 야은(野隱)이니 노사(蘆沙) 기공(奇公) 문인(門人)이니 효(孝)로써 통정대부(通政大夫)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에 증직되었다. 비(妣) 숙부인(淑夫人)은 전주(全州) 이씨(李氏) 신무(信茂)의 딸이니 고종(高宗) 갑신(甲申)·一八八四)년 十月 十五日 공(公)을 연동리(蓮洞里) 집에서 낳았다. 라고난 기품이 준상(雋爽)하고 빼어나게 총명함이 무리에서 뛰어나 어려서도 희압(戲狎)하는 낮빛이나 웃음이 없었고 행동거지가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겨우 공부를 시작하자 행실을 찾고 글쓰기를 자주하며 과송(課誦)을 빠뜨리지 않았다. 글을 연마하고 뜻을 찾아 무릇 스스로 과 어르는데 놀라게 했으니 글방의 천구들과는 비교될 만한 것이 없었다.

이윽고 학문의 축적이 넉넉해지자 역내(域內)의 장덕(長德)인 송연재(宋淵齋)와 기송사(奇松沙)의 문하(門下)에서 유학했으니 관감(觀感)하여 더 가르쳐 주기를 청한 것이 자못 번거로웠다고 말했다. 면암(勉菴) 최(崔)선생에게 폐백을 갖고가 뵈옵고 의(義)를 배우고 어려움을 문고경사(經史)와 자집(子集)을 서로 고정(考訂)하여 수기(修己) 치인(治人)과 폐사(閑邪) 존성(尊聖)과 중화(中華)와 오랑캐의 존경하고 물리쳐야 할 뜻을 들을 수 있었다.

경술(庚戌)一九一〇년의 나라가 망한 뒤에 애련정(愛蓮亭)을 짓고 눈내리고 달 뜨는 좋은 시절엔 한두 동지(同志)들과 술을 마시고 시(詩)를 지으면서 강개(慷慨) 비분(悲憤)한 회포를 풀었다. 무오(戊午)一九一八년 고종(高宗)이 돌아가셨을 때 한편에서 복(服)을 입느냐 복(服)을 입지 않느냐의 말을 흥하게 논했으나 공(公)이 의연(毅然)히 흔들리지 않고 곡(哭)을 할 반위(班位)를 설치하고 북쪽을 바라보고 통곡했다. 그러니 시배(時輩)들이 두가지로 끝던 론(論)을 감히 펴지 못했다. 명성(名聲)이 날로 불어나 큰 스승이 될 것으로 기대함이 흠연(洽然)히 절로 돌아왔고 이근에서 유학하려는 무리들이 날마다 이르러오니 그의 재주에 맞추어 두 끝을 두드려 다 가르쳤고 수순히 유액하여 성취할 때까지 기약했으니 늙음이 장차 이르는 것도 알지 못했다.

효양(孝養)에 천성적 이어서 결에서 가려운 곳을 긁어 드리면서 먼저 스승(承順)하는데 뜻을 두고 부모가 마음으로 기뻐할 때까지 기약했다.

부모의 상사(喪事)를 만나서는 슬픔에 몸을 상하고 예(禮)를 넘었으며 묘(墓) 옆에 초막을 짓고 아침 저녁으로 나무를 불들고 호곡하니 슬픔이 옆 사람을 감동케 했다. 또 우애(友愛)에 돈독하여 늙은이에게 상의정(相宜亭)을 지어서 아우 대용(大容)과 더불어 자고 일어나는 것을 떨어지지 않았으니 춘진(椿津)이 자는 척하고 근실(君實)이 드음을 어루만지던 것이 오로지 두 사람만이 차지할 수 없었다.

그 지역 사우(士友)들이 더러 시(詩)를 지어 칭찬하고 더러 글을 지어 칭찬한 것이 상자에 넘쳤다.

더우기 먼 조상을 추모하여 여러 대(代) 무덤가는 길의 의례와 향화(香火)를 보호할 물건과 토지에 힘을 다하여 어떤것은 창건하고 어떤것은 수리하여 그야말로 두루 갖추는데 지극하여 서운함을 남김이 없었으니 이것이 바로 공(公)의 실질적인 일종의 대강이다.

오호라! 사람의 도(道)가 일용(日用)에 불과하다 말하니 자기를 다스리는데 마땅해야 하리라 공(公)의 행한바를 대강 말한다면 밤낮으로 진실하게 직분의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한결같이 생각하여 행동은 법도를 따랐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하고 충성으로써 처신하고 용서로써 사람을 대하였고 도(道)가 진작되지 않음을 그심하여 후학(後學)을 장려하되 효제 충신으로 인도하고 고요히 생각하고 힘써 행하여 학무를 하는 과정을 알게하여 풍교(風教)에 보탬이 있었었던 것이 많았으니 가히 옷깃을 여미지 않으니 리요.

무술(戊戌) 一九五八년 七月 十八일에 돌아가시니 석곡면(石谷面) 적치(積治)의 신(辛)을 등진 언덕에 장사지냈다.

배(配)는 전주(全州) 최씨(崔氏) 삼순(三淳)의 딸이니 계축(癸丑) 一九一三년 四月 七일에 돌아가셨다. 묘(墓)는 연동(蓮洞)마을 뒤 삼불(三佛)산의 신(辛) 좌향

의 언덕이다. 一남一녀를 낳았으니 아들인 익섭(翼燮)이요 딸은 청송(靑松) 심경석(沈景植)의 아내다.

계배(繼配)는 전주(全州) 이씨(李氏) 동우(東宇)의 딸이니 정사(丁巳..一九一七)년 정월二十일에 돌아가셨다. 묘(墓)는 또한 삼불(三佛)산 신(辛) 좌향의 언덕이니 자식이 없다.

계배(繼配)는 함양(咸陽) 오씨(吳氏) 기만(基萬)의 딸이니 계미(癸未..一九四九)년 정월二十九일에 돌아가셨다. 묘(墓)는 연동(蓮洞) 윗마을 뒤 곤(坤)의 좌향 언덕이다. 一남三녀를 낳았으니 아들인 홍섭(洪燮)이며 딸은 옥천(玉川) 조동선(趙東善)과 수흥(順興) 안정섭(安正燮)과 경주(慶州) 김기신(金基信)의 아내이다.

큰 아들의 손자는 종표(宗杓)와 성표(性杓)와 경표(京杓)와 직표(直杓)와 완표(完杓)이며 딸은 연일(延日) 정경택(鄭京澤)과 밀양(密陽) 박종갑(朴鍾甲)의 아내이다. 나머지는 어려서 거론하지 않는다.

명(銘)에 이르길 만선(萬善)은 효도에서 근본하니 효(孝)를 미루어보면 나머지는 알만하다. 학문은 너그러히 스스로 이을 수 있고 행실은 너그러히 신명에게 물을 수 있네.

경사(經史)를 좌우에 두고 자나 깨나 연구하고 후진(後進)을 이끌어서 두 끌을 다

두드렸네.

단표(簞瓢)로 시골에 사니 나의 즐거움 뒤 알리오.

저 벼슬을 보기를 하늘에 구름같이 하였네.

형과 아우가 화락하게 지냈고 효우(孝友)로 정치를 하니 강기(綱紀)를 부지해 풍속

을 떨쳤네.

가정을 이을 손자가 있으니 영광이 백대(代)를 가리라.

덕을 두터이 쌓아 후사가 넉넉하니 마땅히 후세에 떨치고 떨치리라.

저 높고 높은 적치(積治)의 골짜기여!

인인(仁人)의 무덤이여라.

참으로 인륜을 좋아하는 성품을 지닌자.

누가 경모하여 절하지 않으리까?

해는 경자(庚子)·一九六〇년 초여름 하순(下旬)에 옥천(玉川) 조민식(趙敏植)은

찬(撰)하노라.

石蓮丁公墓誌銘

石蓮丁公歿後三十一年公之嗣孫宗杓以柳南江狀及趙一軒碣

來曰天道無常陵谷之變不可豫測而吾祖之幽宅尚闕誌刻徵余以銘余曰二公之文足以不朽公又何敢贅爲辭不獲謹按公諱大暉字自昚石蓮號也系出羅州以高麗錦陽府院君諱聖徽爲上祖忠烈公諱允宗太子太傅白隱諱宗甲文科昭格署令守罔僕義與吉治隱同歸田里入韓朝耻齋諱克隆大司諫端廟遜位八聖德山中思菴諱彥奎丙子胡亂扈駕南漢立勳除端川府使三傳而南隱諱道一從近齋朴公胤源學晚移于石谷之蓮洞於公高祖曾祖諱翊相祖諱獻斗號杜谷考諱文教號野隱以孝贈通政大夫敦寧府都正妣淑夫人全州李氏靜貞有婦德信茂外大父也公生而器宇雋爽穎悟超夷幼不妄言笑與凡兒異就塾學日立課無闕時或分曹鬪藝無能出其右者人皆器之既而博通經史遊學于邦內長德若其於宋淵齋奇松沙兩先生書疏徃復質難不已又復贅謁于勉菴崔先生講論尊攘大義國耻以後築愛蓮亭而與二三同志酌酒

賦詩憂時憫俗而以洩壹鬱不平之氣如謝翱之西臺慟哭聞高宗賓
天有服不服之凶論公獨毅然設哭班如禮携貳輩莫敢肆焉自是鄉
坊宗之遠近來學日衆公乃嚴約規以身先之雖盛暑必冠帶終日且
隨其賢愚而誘之掖之激勵漸磨使就成其業暇又拔萃古今人修身
齊家治國之要言至論以供學者之龜鑑此所謂良工心獨苦也性素
孝友事親極其誠敬遭艱廬墓與弟湛和築相宜以同寢處可比楊播
姜肱之風推而至於奉先具石儀以衛墓途置祭田以備香火此蓋公
之大畧也卒以戊戌七月十八日距生高宗甲申十月十五日享年七
十五葬于石谷坊積治洞先塋下負辛原三配全州崔氏三淳女生一
男翼燮一女青松沈景植妻全州李氏東宇女無育咸陽吳氏基萬女
生一男洪燮三女玉川趙東善順興安正燮慶州金基信妻餘蕃不錄
噫滄桑累變民僞日滋猶以儒衣儒冠之士亦如脂韋若聞公獨立不
懼之風豈不奮然自勵哉爲之銘銘曰

國師峯下兮窈窕可宅中有碩人兮寬邁可法春秋大義兮懷然可
肅勸學諸規兮井井可服修治要語兮愛然可掬孝弟為本兮事事
可則作銘昭眎兮來世可百

檀君紀元四千三百二十一年戊辰夏至日

長興魏啓道撰

묘지명

석련(石蓮) 정공(丁公)이 돌아가신후 삼십일년에 공(公)의 사손(嗣孫) 종표(宗杓)가 유남강(柳南江)의 행장(行狀)과 조일헌(趙一軒)의 묘갈문(墓碣文)을 가지고 찾아와 이르길 천도(天道)가 떳떳하지 않아 세상 변천의 심함을 헤아릴 수가 없는데 우리 할아버지의 유택(幽宅)에 아직도 묘지(墓誌)를 새긴것이 빠졌습니다 라고 하며 나에게 명(銘)을 구했다.

나는 말하길 「두분의 글이 넉넉히 공(公)을 잊혀지지 않게 할수 있는데 또 무엇하러 감히 구대기를 덧붙이겠오.」라고 하고 사양했으나 얻지 못하고 삼가 살펴본다.

공(公)의 휘(諱)는 대현(大暉) 자(字)는 자경(自旻)이니 석련(石蓮)은 호(號)이다.

나주(羅州)에서 가계(家系)가 출발(出發)하여 고려(高麗)때 금양부원군(錦陽府院君) 휘(諱) 성휘(聖徽)를 상조(上祖)로 삼는다. 충렬공(忠烈公) 휘(諱) 윤종(允宗)은 태자(太子) 태부(太傅)였으며 백은(白隱) 휘(諱) 종갑(宗甲)은 문과(文科)로 소격서령(昭格署令)이었는데 신하로 굴복하지 않는 의(義)를 지키다가 야은(冶隱) 기재(吉再)와 함께 시골로 돌아왔다.

조선(朝鮮)에 들어와서 치재(耻齋) 휘(諱) 극릉(克隆)은 대사간(大司諫)이었는데 단종(端宗)이 소위(遜位) 할때 성덕산(聖德山) 속으로 들어갔다. 사암(思菴) 휘(諱) 언규(彦奎)는 병자호란(丙子胡亂)때 남한산성(南漢山城)에 임금을 호종(扈宗)하고 가서 공훈(功勳)을 세워 단천부사(端川府使)에 제수(除授)되었다.

삼대(三代)를 전해내려와 남은(南隱) 휘(諱) 도일(道一)이 근재(近齋) 박윤원(朴胤源)의 학문을 조차서 만년(晩年)에 석곡(石谷) 땅 연동(蓮洞)으로 이사(移徙)하였으니 공(公)에 대해 고조(高祖)가 된다.

증조(曾祖)는 휘(諱) 익상(翊相)이며 할아버지는 휘(諱) 헌두(獻斗) 호(號)가 두곡(杜谷)이며 아버지는 휘(諱) 문교(文教) 호(號)가 야은(野隱)이니 효(孝)로써 통정대부(通政大夫)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에 증직(贈職)되었다.

어머니 숙부인(淑夫人) 전주(全州) 이씨(李氏)는 정정(靜貞)하여 부덕(婦德)이 있었으니 신부(信茂)가 외할아버지이다.

공(公)은 나면서부터 기우(器宇)가 매우 장건(壯健)하고 영오(穎悟)함이 무리에
서 뛰어난서 어려서도 망녕되지 말하거나 웃지 않았으니 보통 아이들과는 달랐다.
서당에 나가 글을 배울 적에 날마다 과정(課程)을 세워놓고 빼먹지를 않았다. 어느
때 후 편을 갈라서 문예(文藝)를 다룰 적에 공(公)보다 나은 사람이 나오지를 못했
으니 사람들이 모두 그릇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이윽고 경사(經史)에 널리 통
하자 나라안의 장덕(長德)들을 찾아다니며 배웠으니 그 송연재(宋淵齋) 기송사(奇
松沙) 같은 두 선생(先生)들과 편지를 주고 받으며 어려운 곳을 물기를 그치지 않았
다. 또다시 폐백(幣帛)을 가지고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 선생을 찾아가 존왕양
이(尊王攘夷)의 대의(大義)를 강론(講論)하였다.

경술(庚戌)이후에 애련정(愛蓮亭)을 지어 놓고 두서너 동지(同志)들과 술
을 나누고 시(詩)를 지으며 때를 즐기며 풍속을 걱정하면서 우물하고 불평스런 기
(氣)를 덜었으니 마치 사고(謝翱)가 서대(西臺)에서 통곡(慟哭)했던 것과 같았다.
고종(高宗)이 서거(逝去)하자 복(服)을 입은 것이나 입지 않았을 것이나 의 흥론(凶
論)이 있을 때 공(公)은 홀로 용감하게 곡(哭)을 할 자리를 설치할례(禮)와 같이
하니 의견이 갈라졌던 무리들이 감히 방자하지 못했다. 이로부터 고을에서 으뜸으로
존중하게 되었다.

원근(遠近)에서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 지니 공(公)이 이에 엄격하게 규

범(規範)을 만들어서 몸소 솔선했고 비록 대단한 더위라 해도 반드시 하루종일 관(冠)을 쓰고 띠를 띠었다. 또 현우(賢愚)에 따라 이끌어 주고 격려하여 점점 탁마(琢磨)되어 그들의 학업(學業)이 성취(成就)하게끔 해주었다.

한가할 때에 또古今의 사람중에서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에 대해 말했던 요어(要語)와 지론(至論)을 발췌하여 배우는 사람들을 귀감(龜鑑)으로 이바지 했으니 이것이 이른바 양공(良工)은 마음이 혼자만 고생스럽다는 것이다.

성품이 평소에 효우(孝友)하여 부모를 섬기는 일에 그 성경(誠敬)을 극진히 하였으며 상(喪)을 만나서는 여묘(廬墓) 살이를 했다.

아우와 더불어 매우 화목(和睦)하여 상의정(相宜亭)을 지어놓고 잠자리를 함께 했으니 양파(楊播)와 강굉(姜肱)의 풍속과 비교할만 했다. 미루어서 선사(先祀)를 받드는 일에 이르러서도 빗돌을 갖추어서 무덤가는 길에 호위했고 제전(祭田)을 마련하여 향화(香火)에 대비했으니 이것이 대저공(公)의 대략이다.

무술(戊戌)·一九七〇년 七월 十八일에 졸(卒)하고 고종(高宗) 갑신(甲申)·一八八四년 十月 十五일에 태어났으니 향년(享年) 七十五세이다. 석곡(石谷) 마을 적치동(積治洞) 선영(先塋) 아래 신향(辛向)을 등진 언덕에 장사(葬事)했다.

세 아내인데 전주(全州) 최씨(崔氏)는 삼순(三淳)의 따님이니 한 아들 익섭(翼燮)과 한 딸 청송(靑松) 심경식(沈景植)의 아내를 낳았고 전주(全州) 이씨(李氏)

는 동우(東宇)의 따님이니 자식이 없었다. 함양(咸陽) 오씨(吳氏)는 기만(基萬)의 따님이니 한 아들 홍섭(洪燮)과 세 딸 옥천(玉川) 조동선(趙東善) 수흥(順興) 안정섭(安正燮) 경주(慶州) 김기신(金基信)의 아내를 낳았다. 나머지는 번거로와 기록하지 않았다.

아아! 심한 세상의 변천이 자주 바뀌니 백성의 거짓이 날로 더하여 오히려 선비의 옷과 선비의 관(冠)을 쓴 사람도 또한 아침을 잘한다. 만약 공(公)의 우뚝히 홀로서서 두려워 하지 않으니 풍모를 듣는다면 어찌 분연(奮然)히 스스로 힘쓰지 않았겠는가? 그를 위해 명(銘)을 하니 명(銘)에 이르길…….

국사봉(國師峯) 아래가 음묵하여 유택(幽宅)을 지을 만하고 그중에 석인(碩人)이 있었으니 너그럽고 뛰어난 본받을 만하네. 춘추(春秋)의 대의(大義)는 당당하여 공경할 만 하고 학무를 권하던 여러 규약(規約)은 정연(井然)하여 따를 만 하네. 수신(修身) 치국(治國)의 요어(要語)는 사랑스러워 음킬 만하고 효제(孝弟)를 근본(根本)으로 삼아 일마다 본받을 만 하네. 묘명(墓銘)을 지어서 밝게 보이니 후세(後世)에 백년(百年)을 전하리.

다주(檀君) 기원(紀元) 四三二一年 무진(戊辰..一九八八)년 하지일(夏至日)에 장흥(長興) 위계도(魏啓道)는 찬(撰)한다.

遺墟碑文

惟此谷城縣石谷面蓮洞即石蓮丁公藏修講學之所也其門徒諸人與公之孫宗杓以水不忍廢地不忍荒之意合謀豎碑于遺墟令宗杓謁文于余辭不獲己謹按公諱大覲字自昞石蓮其自號也系出羅州以高麗錦陽府院君聖徽爲上祖奕世冠冕不絕曰道一號南隱近齋朴文獻公門人自公始居谷城曰翊相曰獻斗高曾祖三世考曰文教號野隱以孝贈都正妣淑夫人全州李氏信茂女公以高宗甲申生穎悟絕倫動止凝重就學塾師不煩而甚勤儕流推重稍長從學于吾王考淵齋先生勉菴崔先生洎松沙奇公宇萬而於崔先生服勤講義厚蒙獎誦退益慥慥學贍行篤蔚然爲洛州之望也當庚戌屋社杜門自靖乃築愛蓮亭花月良辰呼朋觴詠以暢慷慨幽懷逮高宗賓天或有服不服之說公倡言排之與門徒設位痛哭持服志者稱善事親孝順遭艱廬墓極盡誠敬昆季友篤晚築

相宜亭同處共案壩箎和樂奉先殫誠以忠信篤敬處鄉接人咸服其賢接引來學導之以孝悌諄諄誘掖至老不倦壽得七十五戊戌卒公有三配全州崔氏三淳女全州李氏東宇女咸陽吳氏其萬女崔氏吳氏各有一子翼燮洪燮孫男宗杓性杓京杓直杓完杓噫公志操之清造詣之高可謂一方之表準鄒聖所謂一鄉之善士公其人歟公其人也一片貞珉庶可與公之徽蹟同其不虧歟公衣履之藏亦在相望一喚地云

時辛丑重陽節

恩津 宋 在 晟 撰

유허비문

이 곡성현(谷城縣) 석곡면(石谷面) 연동(蓮洞)은 곧 정석연(丁石蓮) 공(公)이 장수(藏修)하고 강학(講學)하던 곳이다.

그 문하(門下)의 제자 여러 사람과 공(公)의 손자 종표(宗杓)가 선생이 살던곳에 물을 차마 폐하지 못하고 땅을 차마 황폐하게 못한다는 뜻으로 유허(遺墟)에 비둘기를

세울 것을 함께 도모하여 종표(宗杓)로 하여금 나에게 찾아와 글을 구하게 하였다. 사양을 했으나 부득이 했다.

삼가 살펴보건데 공(公)의 휘(諱)는 대현(大暉)이요 자(字)는 자경(自鏡)이며 석연(石蓮)은 그의 자호이다. 가계(家系)는 나주(羅州)에서 출발했다. 고려(高麗) 금양(錦陽) 부원군(府院君) 성휘(聖徽)로써 상조(上祖)를 삼으니 여러 대 벼슬이 끊이지 않았다. 도일(道一)은 호(號)가 남은(南隱)이며 근재(近齋) 박문헌(朴文獻) 공(公)의 문인이었으니 공(公) 때부터 곡성(谷城)에서 처음 살게 되었다. 「익상(翊相)」과 「獻斗」까지 고조(高祖)와 증조(曾祖) 조(祖) 삼세(三世)이다. 고(考)는 「문교(文教)」이니 호(號)는 야은(野隱)이다. 효(孝)로써 도정(都正)에 증직되었다. 숙부인(淑夫人)은 전주(全州) 이씨(李氏) 신무(信茂)의 딸이다.

공(公)은 고종(高宗) 갑신(甲申)·一八八四)년에 태어났다. 훗날 깨달음이 무리보다 뛰어났고 행동거지가 침착하고 시중하였다. 학문에 나아가서는 글방 스스로 번거롭게 아니했고 매우 부지런하여 친구들의 추중(推重)이 되었다. 약간 자라서 우리 왕고(王考) 연재(淵齋)선생과 면암(勉菴) 최선생(崔先生)과 및 송사(松沙) 기공우만(奇公宇萬)에게 종학(從學)했다.

최선생(崔先生)에게 부지런히 의(義)를 배워 깊이 장려해 칭찬해줌을 받았고 물러나와서는 더욱 정성을 쏟아 학문이 너넉해지고 행실이 돈독하여 왕성하게 낙주

(洛州)의 중망(衆望)이 되었다. 경술(庚戌·一九一〇)년에 나라가 망하는 일을 당하
자 무을 단고 스스로 편안히 살았다. 이에 애련정(愛蓮亭)을 짓고 꽃피고 달뜨는 종
은 시절엔 벗을 불러 술마시고 시(詩)를 지으면서 강개한 회포를 풀었다.

고종(高宗)이 서거하였을 때 혹은 복(服)을 입어야 한다느니 복(服)을 입지 않아
야 한다느니 하는 말이 있었다. 그때 공(公)은 큰 소리로 물리치고 문하(門下)의 제
자와 더불어 배위를 설치하여 통곡하고 복(服)을 입었다. 뜻있는 자들이 잘했다고
칭찬했다. 부모를 섬기는 데 효수(孝順)하여 부모상(父母喪)을 당하여 무덤에 초막을
짓고 성경(誠敬)을 지극히 다했다. 형제(兄弟)에겐 우애(友愛)가 돈독하여 늙은막
에 상의정(相宜亭)을 짓고서 함께 살고 함께 먹으면서 형과 아우가 화목하고 화락했
다. 선조(先祖)를 받드는 데에 충(忠)·신(信)·독(篤)·경(敬)으로써 정성을 다하였
다. 마을에 살면서 사람을 접(接)할 때엔 그의 어진것에 모두 감복했다. 후학(後學)이
도할 때엔 효제(孝悌)로써 인도하고 순수하게 이끌어 주어 늙도록 게으르지 않았다.
나이는 七十五세를 살고 무술(戊戌·一九四六)년에 돌아가셨다. 공(公)에겐 세 아내
가 있었으니 전주(全州) 최씨(崔氏) 삼순(三淳)의 딸과 전주(全州) 이씨(李氏) 동
우(東宇)의 딸과 함양(咸陽) 오씨(吳氏) 기만(基萬)의 딸이다. 최씨(崔氏)와 오씨
(吳氏)는 각각 한 아들을 가졌으니 익섭(翼燮)과 홍섭(洪燮)이다. 손자는 종표(宗
杓)·성표(性杓)·경표(京杓)·직표(直杓)·완표(完杓)이다.

아! 공(公)의 말은 지조와 고상한 조예(造詣)는 한 지방의 표준(表準)이라 말할 수 있다. 맹자(孟子)께서 이른바 「한 고을의 어진 선비」라 하였으니 공(公)이 바로 그런 사람이던가? 공(公)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한 조각 빛돌은 아마도 공(公)의 빛나는 자취와 더불어 똑같이 사라지지 않을지어다. 공(公)의 무덤 또한 서로 바라 보고 한번 부를 만한 땅에 있다고 말하노라.

때는 신축(辛丑)·一九六一년 중양절(重陽節)에 은진(恩津) 송재성(宋在晟)은 찬(撰)하노라.

祀壇碑文

嗚呼此石蓮丁先生祀壇也公以韓末巨匠勉菴先生之高第弟講道于浴川之蓮洞一方學者覲德請業爭先恐後莫不以公之言行爲著蔡丈尺凡五十年其所處採山齋戶屢常滿化導攸暨鄉風丕變隱然迄于今未弛公既沒及門諸公慕公不置歲壬子春收議設壇于此遂年上香越五年丁巳又與謀曰先生遠矣吾輩雖此畧伸微衷世變靡常人事不可知孟立石紀實以徵諸後也於是衆議歸

一使吳明煥遠來要文於余余服公之風舊矣託名為榮為叙如右
系以言曰願諸公無徒以此為吾事己了更與奮發振勵講服遺訓
光大德業是崇獨為報佛大抑亦為一道之幸矣願諸公之勉之也
公諱大暉字自旻丁氏籍羅州大司諫克隆之后居南平又徙于此
祖道一有學行考文教一諱碩璜蘆沙奇先生門人孝薦官都正高
宗甲申歲生公公美風貌愛弟甚有相宜亭終身同起居云

丁巳春二月

日

星州

李

栢

淳

謹撰

사단비문

오호라! 여기는 석련(石蓮) 정공(丁公) 선생의 사단(祀壇)이다.

공(公)은 한말(韓末) 거장(巨匠)인 면암(勉菴) 선생의 고제(高弟)로 다만 옥천

(浴川) 연동(蓮洞)에서 강도(講道)하여 그 지방의 배우는 자들이 덕을 보고 학업을

청했으니 앞설것을 다투어 뒤설까 두려워하여 공(公)의 언행을 귀감으로 삼지 않음이

이 없었따.

무릇 五十年 동안 그가 살았던 곳 채산재(採山齋)엔 문밖에 신밭이 항상 가득했고 교화하고 인도함이 미친 곳에 고을의 풍속이 크게 변하여 은연히 우물밭에 이르도록 해이되지 아니했다.

공(公)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분하의 여러 제자들이 공(公)을 사모하여 버려두지 아니하고 임자(壬子: 一九七二)년 봄에 의논을 모아 여기에 단을 세워 해마다 향(香)을 올리더니 다음 五年 정사(丁巳: 一九七七)년에 또 더불어 도모하기를 「선생이 가진지 오래이니 우리들이 비록 여기에서 약간 조그만 속마음을 편다해도 세상기 변하여 뗏뗏함이 없고 인사(人事)는 알수가 없으니 먼저 빗돌을 세우고 사실을 기록하여 후세에 증거로 남겨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의 의논이 하나로 귀착되어 오명환(吳明煥)으로 하여금 멀리서 와서 나에게 글을 구하게 하였다.

나는 공(公)의 품모를 의복한지 오래라 이름날 불어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르너쪽과 같이 서(叙)하면서 「이어서 말하노니 원하옵건데 여러분은 다만 이것으로 우리의 일이 이미 끝났다고 하지 말고 다시 더불어 분발하고 힘을 떨쳐 남긴 교후를 강(講)하고 따라서 노대(老大)한 덕업(德業)을 바로 숭상함이 다만 부처의 은혜에 보답함이 될 것이요 또한 한도(道)의 다행함이 될 것입니다. 원컨대 여러분은 힘쓰십시오.」라고 했다.

공(公)은 휘(諱) 대현(大暉)이요 자(字)는 자경(自鏡)이다. 정씨(丁氏)는 본적이

나주(羅州)이니 대사간(大司諫) 극릉(克隆)의 후손이다.

남평(南平)에서 살다가 또 이곳에 이사한 선조는 도일(道一)이니 학행(學行)이 있었다.

고(考)는 문교(文教)이니 또 하나의 휘(諱)는 석황(碩璜)이다. 노사(蘆沙) 기선생(奇先生)의 문인(門人)으로 효도로 천거되어 도정(都正) 벼슬을 했다.

고종(高宗) 갑신(甲申)·一八八四)년에 공(公)을 낳았으니 공(公)은 아름다운 품모였다. 아우를 사랑함이 깊어서 상의정(相宜亭)을 두고 종신토록 함께 기거했다.

정사(丁巳)·一九七七)년 봄二月 일일에 성주(星州) 이백순(李栢淳)은 삼가 찬(撰)하노라.

答通文

今按全羅南道谷城鄉校通告文則管内石谷面蓮盤里石蓮丁公大覲系出羅州忠烈公諱允宗之后敦寧府都正諱文教之子也以天賦之材早習庭訓性本誠孝事親志體從師崔勉菴先生而心得大經大義欲從義所以遂大志因於母病危急未達其志歸家看病竟當庚戌國恥切齒腐心而謀議斥倭求國之策事前發覺甚當拷

問至於死境纔得回生起居草廬扁其額曰採山講道不倦教人無厭養成後輩彬彬之士輩出其門至於感化其道繼往開來有補於現下匡風正俗之資而未得俎豆之典湖南儒論相應追配於梧桐祠之意甚幸幸事惟願諸章甫敬奉勉旃

壬申三月上浣

成均館長

金

敬

洙

다담동무

이제 전라남도 곡성향교 동고무사를 살피본즉 관내 석곡면 연반리의 석연(石蓮) 정공(丁公) 대현(大現)은 계통이 나주에서 나옴고 충렬공(忠烈公) 휘(諱) 윤준(允宗)의 후예요 돈령부도정(敦令府都正) 휘(諱) 문교(文教)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타고난 재주로 일찍 가정의 교훈을 익히고 천성이 본래 지실한 효자여서 아버지의 뜻과 모음을 섬겼다. 최면암(崔勉菴) 선생을 스승으로 좇아 마음에 대경(大經)과 대의(大義)를 얻고 의병의 장소에 따라가 큰 뜻을 이루려고 했으나 어머님 병환이 위급함으로 인하여 그 뜻을 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병을 간호했다. 끝내 경술(庚戌) 구치(國恥)를 당하여 이를 갈며 마음을 씩히고 왜놈을 물리치고 나라 구할 계책을 모

의하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심한 고문을 당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겨우 회생하
고 초가집 여막에서 기거하면서 그 액호를 쓰길 재산재(採山齋)라 하고 도를 강하길
계을리지 않고 사람 가르침을 싫어함이 없이 후배를 양성하니 빈빈한 선비들이 그
문하에서 배출 되었다. 그 도를 감화 시키는데 이르러선 지나간 이를 이르고 오르는 이
를 깨우쳐 오늘날 풍기를 강정하고 풍속을 바로 세우는 자료에 보탬이 있었으나 사
우(祠宇)에서 제사지내는 은전을 얻지 못했는데 호남 유림의 논의가 서로 오강사
(梧岡祠)에 추배할 뜻으로 응하니 심히 다행스럽고 다행스러운 일이니 오직 바라건
데 모든 선비들이 공경하게 받들기에 힘 쓸지이다。

임신(壬申) 三월 상순

성균관장 김경수

梧岡祠石蓮丁先生配享奉安文

石蓮丁先生

生于儒家詩書世業自幼刻苦羣經涉獵淵松講學俱往同參自乙
巳後贅謁勉庵德行為本文藝爲末專務實踐不事著述薰陶德性
涵養氣質想公儀像雲鶴松月採山齋立開門納徒朝晡唯喏一方

垂模築亭相宜和樂且湛卷中間日林下清談跡公平生樂在安貧
大可善俗小可淑身教導攸暨鄉風丕變後死設壇籩豆有薦爰及
今春衆議齊發瞻彼梧岡師弟同苾多士駿奔虔奉清酌來假來饗
無疆降福

癸酉驚蟄節

羅州 羅 鉀 柱 撰

봉안문

석연 정선생(石蓮 丁先生)은

유가(儒家)에서 태어나니 시서(詩書)를 대대로 업으로 했다. 어려서부터 비상한 노
력으로 경서(經書)를 두루 읽고 송연재(宋淵齋)와 기송사(奇松沙)에서 강학하는데
갈이가서 동참하였고 을사(乙巳)후로부터 폐백으로 최면암(崔勉菴)을 배웠고 덕행
으로 그분을 삼고 문에는 끝으로 삼아 오로지 실천에 힘쓰고 저술(著述)은 일삼지
않았다. 덕성으로 사람을 교화하고 기질을 함양하였네. 공의 의상(儀像)을 상상하니
구름위의 학이요 술위의 달이다. 채산재(採山齋)을 세우고 문열어 학도들을 맞아
드렸네 아침저녁으로 공손히 대답하니 한 지방에 모범을 드렸네 상의정(相宜亭)을
지어 화려하고 또 즐기니 책속의 한가한 날이요 하향 선비들의 맑은 담화다. 공의

평생 발자취는 즐거움이 안빈(安貧)에 있었으니 크게는 가히 풍속을 선하게 하였고
적게는 가히 몸을 맑게 했네. 교도(敎導)의 미친 바는 고을 풍속을 크게 변화 시켰
다. 죽은 뒤에 제단(祭壇)을 만들고 제사 지내다가 을 봄에야 여러 사람의 논의가 함께
발의되어 저기 우러러 보이는 오강사(梧岡祠)에 스승과 제자를 같이 제사 지내기로
하고 다사들이 바쁘게 서둘러 정성스럽게 맑은 술을 받드노니 오셔서 흠향하시면 무
구토록 복이 내려 지리라.

계유경칩절

나주 나갑주 지음

石蓮堂記

石蓮同閨丁友大覲自號也年前屬余請記默然無酬應者無他嘗
見水蓮而未聞石蓮未知其形色之發於根祇又未知其清香之爲
如何而但留惑於心故濡毫却停者久矣今又有托實難以不能於
文辭常愬然而呼兒研墨盥薇露而跪要大覲狎坐問曰稱以石以
蓮何也所居坊曰石所居里曰蓮以是寓意耶應之曰以坊與里言
之孰非其乎但解頤而已將欲言而無言見其無言而究其義乃知
其不然復問曰易曰介于石愛蓮說曰不染淤泥取其義其非耶丁

友哂然曰尊鑑之垂照人心何若是其至明古人妍醜莫逃云者此可知也上項所謂介于石不染淤泥安敢致有擬意哉盖其道學不敢質得然其石之餘介蓮之餘香於書講學之久而於心欲愛之深也是以聽之良久久久思諒子非石而不可轉也又非蓮而不可染也磊磊然特立乎白雲流水之邊亭亭然拔出乎衆芳衰頽之後於物可見子之形氣於子可見物之氣像推一心而觀之固兩美之必合石乎蓮乎子其非耶子真是也

甲子七月朔朝

海州 吳 彦 泳 謹記

석련담기

석련(石蓮)은 한동리 정씨(丁氏) 친구 대현(大暉)의 자호이다.

년전에 나에게 부탁하여 기(記)를 정했는데 무뎠기 응답이 없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일찌기 수련(水蓮)은 보았어도 석련(石蓮)은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그 형색(形色)이 뿌리에서 피어나는 것을 아직 모르고 또 그 청향(清香)이 어떠한지도 몰라서 다만 마음에 의혹을 남겨 놓았다. 그래서 글을 쓰려다 잠깐 지체한다는 것이 문득 오래 되었

다. 그런데 이제 또 부탁함이 있으니 참으로 문사(文辭)에 능하지 못한 때문으로 항상 괘세할 수가 없어서 아이를 불러 먹을 갈고 장미 이슬에 세수하고 꾸며어앉아 대현을 기다렸다.

자리를 당겨 물기를 「석(石)과 연(蓮)으로써 이름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사는 곳의 마음이 「석(石)」이고 사는 곳의 동리가 「연(蓮)」이라서 이때문에 뜻을 붙인 것입니까?」라고 했다. 응답해 말하길 「마음과 동리로써 말한다 해도 누가 그야말로 그르다 하겠습니까?」라고 하고 다만 고개를 떨구고 있을 따름이요 장차 말을 하려다가 말을 말았다. 그가 말이없는 것을 보고 그 뜻을 연구해 보니 이에 그렇지 않음을 알았다.

다시 물어 말하길 「주역(周易)에 『돌보다 굴다』라고 했고 애연설(愛蓮說)에 『지름에도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그 뜻을 취한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라고 했다.

정씨(丁氏)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하길 「당신의 사물을 보는 견해가 사람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 것이 어찌면 이같이 지극히 밝습니까? 옛 사람의 『아름답고 추한 것을 숨길 수가 없다』라고 말하던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라고 했다.

윗머리에서 이른바 「돌보다 굴다」지름에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이 어찌 감히 취미 중에 비길만한 뜻이 있겠는가? 대체로 그의 도학(道學)은 감히 질정하여 얻을 수 있으니 그러니 그들의 넉넉한 절개와 연(蓮)의 넉넉한 향기는 책에서 강학한 지가 오래고 마음에서 사랑함이 기표나 드했다. 이때문에 들은지 한참동안 오래 오래 생각하고 살펴보았다.

그대는 돌이 아니어서 구를 수가 없고 또 연(蓮)이 아닌데도 더럽힐 수가 없어 험
걸차게 흰구름과 흐르는 물가에 특립(特立)하고 우뚝하게 못꽃이 쇠퇴한 후에 빼어
났으니 석연(石蓮)에게 그대의 형기(形氣)를 볼 수 있고 그대에게서 물건의 기상을
볼 수 있다.

한 마음은 미루어 본다면 참으로 둘다 아름답게 여기리니 반드시 「석(石)」과 연
(蓮)에 합치될 지어다. 그대는 그것이 틀렸는가? 「그대가 참으로 옳다.」했다.

갑자(甲子)·一九二四)년 七月 초하루 아침에 해주(海州) 우언영(吳彦泳)은 삼가 기
(記) 하노라.

字說

余嘗聞術家之言人之福祿吉慶畧關於造字之善矣善哉丁學之
字自昗二字行世其旨至且深矣夫自之爲字由也從也昗之爲字
由日從火也易曰天行健君子以之自強不息是自之義取諸斯道
之明歟其在性性存存之際體用由其德則福祿自從也且在威威
儀儀之間動靜就之如日吉慶如火昗耀也然則福祿自至而倉廩

衣食實足然後自知禮節也吉慶炁著而草木山川所過之前炁被
精采誠所寶鑑藏厘妍強自明也洪鍾在筮鳴聲炁聞則不翅福祿
吉慶之自至而允協于性存威儀之炁著矣自之義炁之義豈不猗
歟美哉

甲辰九月上浣隴西人李正容謹識

자(字)설

내가 일찍 점술가의 말을 들으니 사람의 복록과 길하고 경사스러운 것은 약간 자
(字)를 잘 짓는것에 관계된다고 하니 잘 되었다. 정학(丁學)의 자는 자경(自炁) 두
글자로 행세를 하고 있는 그 뜻은 지극하고 깊다. 대개 자(自)라 하는 글자는 유(由)
며 종(從)이요 경(炁)이라 하는 글자는 일(日)로 말미암음이요 화(火)를 뜻임이라.
주역(周易)에 이르길 하늘의 가는것이 건장하면 구자가 써 하되 스스로 힘쓰길 쉬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스스로 자(自)의 의의이니 이 도의 밝음을 취함인가. 그 성
(性)을 성(性)으로 하고 존(存)을 존(存)케 하는데 있는 즈음에 체(體)와 용(用)
을 그 덕에 연유케하면 복록이 자연히 다르리라. 또 위(威)를 위(威)로 하고 의
(儀)를 의(儀)로 하는 사이에 음직이고 고요하며 나아감이 해외같이 경사스럽고 불
과같이 빛나리라.

그러즉 복록이 자연히 다가와 창고가 찰 것이요 의식이 실제로 넉넉한 연후에 스스로 예절을 아는 것이다. 경사스럽고 빛이나면 초목과 산천도 지나가는 곳의 앞에 빛이 광채를 입어 보감(寶鑑)이 감속에 감추어진 어여쁜 것임이 스스로 밝혀질 것이다. 큰 종(洪鍾)이 종틀에 있어 우는 소리가 빛나게 들리면 복록과 경사스러움이 스스로 이를뿐만 아니라 진실로 성(性)과 존(存)과 위(威)와 의(儀)가 빛나게 나타나 화합하리니 스스로 자(自)의 의의와 빛날 경(鏡)의 의의가 어찌 무성하고 아름답지 않인가.

갑진九월 상순 롱서인이 이정용 삼가지음

採山齋記

①

登山可採者非一而齋曰採山未知所採者何歟所貴乎採薇者夷齊之後凡廉退者皆尚焉所美乎採玉者以玉比德而採非玉之玉也至於採藥則從古隱淪之士往往託於此而韜光鏜跡然則藥也玉也薇也其所採皆一貫事石蓮丁居士讀書養閒凡倥倥然問字者亦誠心授讀樂於進取不似世人舌耕者樣自勝冠至于今老白

首不渝不怠昔日之蒼然豎髮今則峨峨然弁髦乃相與托契結齋
春秋會講其曰採山者蓋自處以松下之童子而擬其師於採藥歌
咏其廉退高尚懷玉自珍之雅操於是乎遠近賡和者殆盈箱篋皆
蒼鬱可誦吁今世而有如是之美舉也耶夫執經問業以求是正固
資於師承而其於初上學時塾師之從容節度警策啓發使之涵養
氣質薰陶德性其功渠遜於他人哉叔世人情偏急讒解小微通鑑
半部便作七律妄自尊大背其塾師而之他稍有不合亦悻悻自好
此豈師生隆親之道也哉其間採山之說當顛滋而知愧矣抑有一
焉道理無窮見識難明當益聞其所未聞益見其所未見使吾德崇
業廣則門路之正淵源之的自然彰諸所謂報佛恩其在是矣此齋
上諸君所不可不知也行當以一筇一屐訪採山翁於蓮山之陽則
或不以採藥去三字拒我否先以此寄聲焉

乙酉春三月上澣

咸陽 呂 昌 鉉 書

채산재기 ①

산에 올라 쉼만 한 것이 하나가 아닌데 재(齋)를 「채산(採山)」이라 했으니 모르겠
다. 쉼만 한 것이 어떤 것인가?

고사리 캐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바는 백이(伯夷)·숙제(叔齊)의 뒤에 청렴하여
물러난 모든 자가 모두 숭상해서이고 옥(玉)을 캐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바는 옥
(玉)으로써 덕(德)에 비유하여 옥이 아닌 옥을 캐어서이며 약(藥)을 캐는 것에 이
르러서는 예로부터 으뜸하는 선비가 왕왕 이것에 의탁하여 빛을 감추고 자취를 숨겨
버려서이다. 그러니 약이나 옥이나 고사리가 그 캐는 바는 모두 한 께미의 일이다.

석련(石蓮)·정거사(丁居士)는 책을 읽고 한가함을 기르면서 무릇 바쁘게 와서 글
자를 묻는 자라면 또한 성심으로 읽기를 가르쳐 나아가 취하는 것을 즐겨하였으니
세인(世人)·중의 선생의 모양과는 같지 않고 스무살 때부터 오늘날 늙어 흰머리가 피
는데에 이르러서도 게으르지 않고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 날에 새까맣게 섰었
던 머리가 이제는 험하게도 쓸모없이 되어 버렸다. 이에 서로 마음을 맞추어 재(齋)
를 지어 추추로 모여 강(講)을 하기로 했다.

그것을 「채산(採山)」이라 한것은 아마도 소나무 아래 동자로 자처하고 그의 스승
을 채약(採藥)한 것에 비기어서 청렴하여 물러난 것을 노래하고 옥(玉)을 생각하는
것을 높이 숭상하여 스스로 우아한 절조를 보배롭게 여긴 것이리라.

이에 원근(遠近)에서 운(韻)을 이어 화답한 것이 거의 상자를 가득 채웠으니 모두가 성대하여 외울만한 것들이었다.

아! 금세에 아갈이 아름다운 거사가 있던가? 무릇 경서(經書)를 갖고 가서 학업을 묻어 옳게 고칠 것을 구하는 것이 참으로 스스로를 받들었던 덕택이고 그들이 처음 학문을 시작할 때에 글방 스스로의 조용한 절도가 경책(警策)하고 계발하여 기질을 함양하고 덕성을 훈도케 하니 그 공이 무엇이 타인보다 못하겠는가?

말세(末世)의 인정이 오로지 조금 아는데 시급하여 소미(小微) 통감(通鑑) 반부(半部)라도 조금알면 곧 七언(言) 율시(律詩)를 지으며 망녕되이 스스로를 존대하여 그 글방 스스로를 배반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또 조금이라도 합당치 않으면 발끈 화를 내어 자신만을 좋다하니 이러니 어찌 스스로 제자가 높이며 칭하는 도(道)가 되겠는가? 그들이 채산(採山)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마땅히 이마에 땀을 흘리며 부끄러움을 알리라.

또 한가지가 있다. 도리(道理)가 무궁하고 견식(見識)은 밝히기 어려우니 마땅히 아직 듣지 못한 바를 더욱 듣고 아직 보지 못한 바를 더욱 보아 나의 덕이 높아지고 일이 넓어지게 한다면 문로(文路)의 바름과 연원의 뚜렷함이 자연히 드러나리니 이른바 부처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것이 그것이 여기에 있으리니 이재(齋) 위의 제군들이 몰라서 안 될 바이다.

조금 더 있다가 한 지팡이와 한 짚신으로 연산(蓮山)의 남쪽에 채산옹(採山翁)을
찾으리니 후시 「약캐러 갔다」는 세글자로서 나를 거절이나 앎으려는가? 먼저 이것
으로 소식을 전하노라.

을유(乙酉·一九四五)년 봄 三月 상순(上旬)에 함양(咸陽) 여창현(呂昌鉉)은 서
하노라.

採山齋記 ②

客有過谷城者至蓮盤里山不高而秀水不深而清洞邃而不僻境
靈而不俗可知爲仁智者之所居也逢樵叟而問曰此間必有名士
矣知之乎樵叟指溪岑繞回松篁鬱蒼處曰這裏有數椽茅屋其中
有一老隱士不以世事經心惟以教誨爲事時人呼之以處士矣於
是因樵叟之指訪處士之居先觀主翁嗟歿之恨現於蒼顏風泉之
愁攢于皓眉次觀齋舍架有春秋綱目廚有飯鐺茶竈而已六七冠
艸侍坐讀書眞今世罕觀也相揖而坐因舉齋號而質之曰榜顏以

採山此豈非墨胎氏採薇西山之義歟主翁艷然曰否否夷齋聖之清者也義不食周粟登彼西山歌彩薇而餓死堂堂忠義輝映萬古而如余頑愚不死於白狗屋社時苟生於黃馬國恤之日百經浩恟尚存一縷寄居此山採橡實以爲飯採葵葉以作羹採黃精而釀酒採青椒以用肴採樵以暖吾室採茶以解吾喉苟圖活計故記實以扁名也然桑瀾滔天青邱陸沈山川草木盡爲出沒於島夷洋胡風潮之中則以余寄此山川採此草木之無義無耻者比諸夷齋之採薇西山此非責我以不死苟生耶客乃正襟復坐愀然徐對曰世或有以死生論忠義之有無者此偏滯之見也夷齊不食而死箕子罔僕而生死生雖殊其義則一也今翁秉義罔僕遯世自靖孰謂無義也武王克商天下宗周西山之薇非不添周之雨露而伯夷之心不知有周而採之故後世不曰周之首陽晉室已亡宋朝繼立紫桑之菊非不入宋之乾坤而淵明之心但知有晉而愛之故後人稱以晉

之栗里則今吾山川草木雖出沒於島風洋潮而翁之心知有吾鮮
千島萬洋何關焉且採薇歌曰神農虞夏忽焉沒兮我適安歸五柳
先生傳自謂羲皇上古人翁謂講道林焚啓牖後學扶線陽於窮陰
掛孤燭於長夜則以憂國憂道之士追慕採薇西山何不可之有哉
主翁莞爾而不答矣客歸路過余梅月寓舍道其事甚詳余曰此是
吾友處士丁翁大覲藏修之齋也未幾月翁之賢季大瑑來請懸楣
之文余素不文不能贊一辭於其間只記客所傳之語以歸之

闕逢活灘小春下浣 忠州 朴夏玖 書

채산재기 ②

어떤 객(客)이 곡성(谷城)을 지나다가 연반리(蓮盤里)에 이르렀다. 산이 높지 않
은데도 수려하고 물이 깊지 않은데도 맑고 골짜기는 깊어도 구벽하지 않고 지경은
신령하여 속(俗)되지 않으니 어질고 지혜로운 자가 살 곳을 알 수 있었다.
나뭇군 영감을 만나 물기를 「이 사이에 반드시 명사(名士)가 있을텐데 아는가?」

하니 나뭇꾼이 시내와 산봉우리가 빙 둘러 있는 소나무 대나무 울창한 곳을 가리키며 말하길 「저 속에 몇개의 서까래로 지은 초가집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늙은은사(隱士)가 있는데 세상일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교육으로 일일 삼아 시인(時人)들이 처사(處士)라고 부릅니다.」라고 했다.

이에 나뭇꾼이 가리키는 대로 처사의 거처를 찾아갔다. 먼저 주인 늙은이에게서 실의(失意)한 한(恨)이 노쇠하여 창백한 얼굴에 나타나고 풍천(風泉: 末世)의 근심이 흰 누삼에 엉겨있는 것을 보았다. 다음으로 제사(齊舍)에서는 시렁에 추추강목(春秋綱目)이 있고 부엌엔 밥솥과 다조(茶竈)만이 있는 것을 보았다.

六·七명이 관을 쓴 사람들과 종각들이 모시고 책을 읽고 있는 것이 참으로 금세에 선 보기도 못할었다.

서로 인사를 하고 앉아 재호(齋號)를 들어 물었다. 「채산(採山)으로 현판을 한 것이 이것이 묵태씨(墨胎氏)가 서산(西山)에서 채미(採薇)하던 뜻이 아닙니까?」했다.

주인 늙은이가 발연히 말하길 「아닙니다. 아닙니다. 백이(伯夷) 숙재(叔齋)는 성인 중의 청(淸) 자입니다. 의(義)로 주(周)나라 곡식을 먹지 않고 저 서산(西山)에 올라 채미가(採薇歌)를 노래하다. 굶어 죽었으니 당당한 충의(忠義)가 찬란히 만고에 비추입니다. 그런데 나같이 완악하고 어리석은 자는 경술(庚戌: 一九一〇)년 나라

가 망한 때에도 죽지 못하고 구차하게 기미(己未·一九一九)년 나라의 근심이 있는 날까지 살아서 백번 호겁(浩劫)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한 가닥 생명을 보존하여 이 산에 붙여 살면서 나무 열매를 따서 밤으로 삼고 나물 인골을 따서 죽을 만들고 황정(黃精)을 캐서 술을 빚고 산초를 따서 안주로 쓰고 나무를 해서 나의 집을 따듯하게 하고 차를 따서 나의 목을 해갈하니 참으로 살 계획을 도모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판의 이름으로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음탕한 음악이 하늘에 넘쳐 청구(靑邱)의 땅이 망하여 산천초목이 모두 섬님과 서양 오랑캐의 풍조속에 빠져 버렸으니 내가 이 산천에 붙여서 이 초목의 의(義)로 남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것을 캐는 것으로서 백이(伯夷) 숙제(叔齊)가 서산(西山)에서 채미(採薇)하던 것에 비유한다면 이것은 내가 죽지 않고 구차하게 살아있는 것을 꾸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했다.

객(客)이 이에 웃기를 바로하고 다시 앉아 근심스레 안색을 바꾸어 천천히 대답해 이르길 「세상에 후 주고사는 것으로 충의(忠義)의 유무(有無)를 논(論)하는 자가 있으나 이것은 편벽되고 백인(伯夷) 숙제(叔齊)는 먹지 않고서 죽고 기자(箕子)는 절개를 굽히지 않고서도 살았으니 사생(死生)이 비록 다르다 해도 그 뜻은 하나입니다.

오늘날 노인께서 의(義)를 잡고 절개를 굽히지 않고서 세상을 피하여 스스로 맑게

사니 누가 의(義)가 없다고 이르겠습니까?」

무왕(武王)이 상(商)나라를 이겨서 천하(天下)가 주(周)나라를 큰집으로 섬겼으니 서산의 고사리도 주(周)나라의 우로(雨露)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닌데 백이(伯夷)의 마음은 주(周)나라가 있는 것을 모르고 고사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후세에 「주(周)나라의 수양산(首陽山)」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진(晉)나라의 왕실(王室)이 이미 망하고 송(宋)나라의 조정이 계승하여 있으니 자상(紫桑)땅의 구화도 송(宋)나라의 천지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아닌데 도연명(陶淵明)의 마음은 다만 진(晉)나라가 있는 것만 알고 구화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후인들이 「진(晉)나라의 울리(栗里)」로 일컬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네 산천초목이 비록 섬섬의 풍속과 서양의 풍조에 빠졌다해도 응(翁)의 마음은 우리 조선(朝鮮)이 있음만 알고 있으니 천도(千島)와 만양(萬洋)에 무슨 관계가 있으리오 또 채미가(採薇歌)에 이르길 「신농(神農)씨와 우(虞)나라 하(夏)나라가 홀연 망했으니 나는 마침 어디로 돌아 갈 것인가?」라고 했고 오류(五柳)선생전(傳)에선 스스로를 「희황(羲皇)상고인(上古人)」이라 일컬었습니다.

응(翁)은 숲에서 도(道)를 강하며 후학을 열어 깨우쳐 주며 실재(實)는 양기(陽氣)를 구음(窮陰)에서 지탱하여 의로운 초승달을 기린밤에 걸어 주었으니 우국(憂國)우도(憂道)하는 선비로써 서산(西山)에서 채미(採薇)했던 것을 추모한다고 말해서 무엇

이 안될 것이 있습니까? 라고 했다.

주인(淸)이께서 빙그레 웃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 객(客)이 돌아가는 길에 나의 매월(梅月) 우사(寓舍)를 지나면서 그 일을 심히 자세히 말해주었다. 내가 이르길 「이 사람은 나의 친구 처사(處士) 정대현(丁大暉) 응이 장수(藏修)하는 곳입니다.」 라고 했다. 얼마 아니가서 응(翁)의 동생 대용(大瑢)이 와서 현판의 글을 청했다. 나는 평소 글을 잘하지 못하여 그 사이에 한마디의 글도 덧붙이지 아니하고 단지 객(客)이 전하는 바의 말을 기록하여 돌려 보내노라.

갑신(甲申)·一九四四)년 초봄 하순(下旬)에 충주(忠州) 박하구(朴夏玖)는 서하노라.

採山齋上梁文

一椽營經便要暮境逍遙之處數日功訖多蒙諸生周旋之勞僅謀
易安不圖傑構恭惟主人石蓮公押海世家忠臣苗裔年過七旬結
廬窮谷心不倦乎教人時值百六脫履塵寰身已隱乎採藥傷心花
島夢想依稀舉目山河風景慘淡春風白首興歎萋楚之猗儺落日

青山深憂御宇之板蕩世間不涉餘人之支吾心上尚思舊邦之甲
子佳山美水興方酣於風騷駟馬高車心已灰於雲路闢窓高臥白
雲棲帷採薇遲歸明月滿筥清業自在淵明之鋤狂塵不侵管寧之
帽枕流漱石身體清癯醉烟餐霞腸肚淨孤松雪積偃蹇拔俗之標
修竹風來灑落出塵之想冬而暖室無憂折綿之寒夏而涼臺不畏
流金之熱摳衣負笈彬彬蛾述之徒握手展眉秩秩燕賀之客伏念
付佞翰墨寒士樗櫟散材鏤冰淺觀既無三冬書史雕蟲小技亦非
八斗文章知有續貂之誚敢獻覆瓿之資薰德性而變化氣質接汪
波而澡雪塵襟揀穀朝而舉梁撰美辭而秉筆兒郎偉拋樑東玉宇
崢嶸月滿空碧嶺丹崖列屏似却疑身在畫圖中拋樑西天皇高岳
雲爲梯衆人皆恟滄桑換絃誦猶如一變齊拋樑南蒼松黃菊逕枝
三六洲風雨知何處一枕唐虞夢寐甘拋樑北聳翠明山氣像特從
古論人我亦知不稱富貴只稱德拋樑上烟霞常擁薜蘿帳乾乾惕

若整冠衣千古聖賢聊可尚拋樑下放歌縱酒風稜雅伯牙歎不遇
鍾期一曲峨洋和者寡伏願上樑之後邦運泰回文風振作繩繩苗
裔克率乃祖之嘉謨濟濟門生敦尚先王之禮樂補風化於羗窟獸
穿期道德於聖域賢藩

甲申九月中浣

月城 李 鍾 璿 撰

채산재상량문

한서까래로 집을 짓는 것은 곧 흙의 막 소요처를 구함일세.

몇일만에 짓는 일이 끝났으니 재생(諸生)들이 주선한 노고를 많이 힘입었네.
겨우 쉽게 편안할 것만 도모하고 크게 짓는걸 도모치 않았따오.

생각컨대 주인 석련공(石蓮公)은 압해(押海) 세가(世家)로 충신의 후예일세.

나이七十이 넘어서 구한 골에 집을 지어

마음은 사람을 가르치는데 게으르지 않았고,

때는 백육(百六)의 운세를 만나 속세(俗世)를 집신 벗어버리듯,

몸은 벌써 채약(採藥)하는데 으뜸했네.

화조(花鳥)에 마음을 상했으니 꿈속 갈이 어렵듯하고,
산하(山河)에 눈을 뜨는 풍경이 참담하구나。

봄 바람에 흰머리 높으니 장초(長楚)의 부드러움에 탄식을 일으키고
해가지는 청산에서 기묘이 구월이 판탕(板蕩)해 버림을 그심하네。

세간(世間)엔 많은 사람의 반항을 구제하지 못하고
삼상(心上)엔 아직도 옛 나라의 연월(年月)을 생각해。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물에 흥은 바야흐로 시부(詩賦)를 즐기고
네 마리 말의 높으니 수레는 마음이 이미 벼슬길에 재가 되었네
창을 열고 높이 누웠으니 백운(白雲)이 장막에 기승되고

고사리 캐어 늦게 돌아오니 명월(明月)이 바구니에 가득하네。

많은 생활은 도연명(陶淵明)의 호미에 있고

미친 티끌은 관영(管寧)의 건(帽)을 침범치 못하네。

물을 베고 돌로 양치질 하니 신체는 맑게 야위었고

안개에 취하고 노을을 먹으니 뱃속은 깨끗하고 조출해라。

외로운 소나무 눈이 쌓인 것 높이 속세에서 벗어난 뜻대이트。

기린 대나무에 바람이 불어오으니 깨끗하여 진세(塵世)를 벗어난 생각이드스。

겨울에 따뜻한 집은 숨이 떨어진 날의 추위를 걱정하지 않느。

여름에 서늘한 짐은 쇠를 녹여 흐르게 하는 더위를 두려워 않네
옷을 건어 잡고 책가방 짊어진 건 싹싹하게 글을 외우는 학도들

손을 잡고 일말을 편 것은 질서 정연히 집짓는 일 즉하하는 손님들

업드리어 생각컨데 나는 학묵(翰墨)에 한미한 선비요 쓸모없는 선비로 버려진 재목일세
얼음에 새기듯 볼품없는 천한 견식이 이미 삼년의 서사(書史)도 없고
글쓰는 조그만 기술이 또한 여덟 말의 무장도 아니네

계속될 꾸짖음이 이성을 거슬러 알면서도 감히 잊어버린 항아리 같은 자질을 드러난 것은
덕성(德性)에 고화되어 기질을 변화 시키고

넓은 물결을 접하여 먼지 낀 옷깃을 깨끗이 씻기 위해서네

좋은 아침을 가려서 들보름을 올리며 아름다운 말을 선택해 붓을 잡았네

아나위여! 들보름 도끼이로 드니

하늘이 깨끗하여 달이 공중에 가득하구나

푸른 봉우리 밖은 절벽이 병풍이런 벌려 놓이듯

무늬 몸이 그림속에 있는가 의심스럽네

들보름 서쪽으로 드니 높은 천황산(天皇山)은 구름의 사다리가 되었구나

사람들 모두가 상전벽해(桑田碧海) 될까 겁내는데

현송(絃誦)은 오히려 제(齊)나라가 한번 노(魯)나라로 변한듯

들보를 남쪽으로 드니 푸른 소나무 노란 국화 길의 갈래 셋이구나
육 대주의 풍우가 어느 곳을 아는가?

한 배개로 당우(唐虞)의 세상에서 꿈자리가 달가와라.

들보를 북쪽으로 드니 우뚝 솟아 푸르른 명산(明山) 기상(氣象)이 특별해라.

예로부터 사람을 논하는 것나 또한 아니,

부귀(富貴) 들 칭하지 않고 덕(德) 만을 칭할 뿐이지

들보를 위로 드니 연하(烟霞)가 항상 벽라(薜蘿) 장막에 끼었구나.

부지런히 부지런히 힘쓰고 삼가하고 두려워 하니

천고(千古)의 성현을 숭상하네.

들보를 아래로 드니 방가(縱酒)에 풍속이 모나면서도 우아 하구나.

백아(伯牙)가 종자기(鍾子期)를 만나지 못함을 탄식하니

한 가락 아양곡(峨洋曲)을 화답할 리 없으리.

없드리어 원하옵노니 상량(上樑)한 후에 나라의 운세가 태회(泰回)하고 글쓰는

풍속이 진작되고 끊임없는 후에 들 조상들의 아름다운 후계를 따르고 정연한 제사

들 선왕의 예악을 두렵게 숭상하여 오랑캐 글 짐승 구덩이에서 풍화(風化)를 돕고

성인의 땅 현인의 울타리에서 도덕을 기약케 하소서.

갑신(甲申..一九四四)년 九월 중순(中旬)에 월성(月城) 이종선(李鍾璿)은 찬(撰)하노라.

相宜亭記^①

石蓮居士丁公與其弟大琰結亭於通明山下蓮溪上泉石之美眺望之勝頗有可觀而不取取相宜爲顏蓋曰宜兄宜弟之義而存戒於斯須範於後進非自標榜於世也然居士湛洽之行既稔聞于浴川士友余亦一造而見其同卓連衾之相愛出入起居之相須出於尋常等夷也於焉歲逝二公俱作千古亭上之雲相應慘淡而無光亭下之水亦應嗚咽而失聲爲之愴然者久矣日公之孫宗杓來言曰我祖築亭未幾遽棄不肖我輩孤露不忍荒廢願賜一言以記名亭之意且指引我輩前頭從事者如何余躍如而進曰有是哉子之言也見今薄態甚至於借父鋤而爲德色分米折薪滔滔爭先子能存先王大人之遺戒思欲丹艸而增美之以是心做去何患於近親之相踈何恤乎永世之不相宜也夫如是則曩之慘淡者復怡然嗚咽者復作洪鍾而亭於是乎不朽矣吾復何言以是爲記足矣

辛丑春二月上澣

幸州 奇老章記

상의정기 ①

석련(石蓮) 거사 정(丁) 공이 그의 아우 대용(大瑢)과 통명산(通明山) 아래 연계(蓮溪) 위에 정자를 지었다. 천석(泉石)의 아름다움과 조망(眺望)의 승경이 자못 볼만한 것이 있었으나 취하지 않고 상의(相宜)를 취하여 현판을 삼았으니 아마도 「형에게 마땅하게 하고 아우에게 마땅하게 한다」는 뜻으로써 여기에 경계를 두고 모름지기 후진에게 본받도록 함이지 스스로 세상에 표방(標榜)함이 아니리라.

그러나 거사(居士)의 침착하고도 두루 미치는 행실은 이미 옥천(浴川)의 사우(士友)에게 넉넉히 소문이 나있고 나 또한 한번 이르러서 그가 탁자를 함께하고 이불을 함께하여 서로 사랑하던 것과 나들이와 기거(起居)를 서로 기다리던 것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것을 보았었다. 그런데 세월이 어언 멀어져 두분이 함께 천고정(千古亭) 위의 구름이 되어 서로 참담하여 빛이 없는 것을 대하고 정자 아래의 물도 또한 목이 매어 실성한 듯이 대하여 창연(愴然)함이 오래였다.

어느날 공(公)의 손자 종표(宗杲)가 와서 말하길 「우리 할아버지가 정자를 지은 지 얼마 안되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불초한 우리들이 어려서 부모를 잃었지만 차마 황폐하게 버려 들 수가 없으니 원컨대 한마디 말씀 주시어 정자를 이름했던

뜻을 기(記)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앞에서 종사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했다.

나는 뭘 뜻이 나아가서 「옳구나! 너의 말이 오늘날을 보는데 야박한 작태가 심하여 아비의 호미를 빌려 주고도 덕을 베푸는 낮빛을 하는 지경에 이르러 쌀을 나누고 땀나무를 갈라 도도하게 앓을 다투는데 그대는 선왕(先王) 대인(大人)들이 남긴 경계를 보존하여 단청하고도 더욱 아름답게 하고자 함을 생각하니 이것으로 마음들을 지어 간다면 어찌 근친(近親)들이 서로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근심할 것이며 어찌 영세(永世)에 서로 마땅하지 않는 것을 근심하겠는가?

무릇 이와 같으면 지난날에 참담했던 정자 위의 구름이 다시 편안해지고 목이 메었던 정자 아래의 물이 다시 큰 종이 되리니 정자가 위에서 썩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 무슨 말을 하리오 이로써 기(記)를 삼는 것이 넉넉하리라」라고 했다.

신축(辛丑)·一九六一년二月 상순(上旬)에 행주(幸州) 기노장(奇老章)은 기(記)하노라.

相宜亭記

②

愛親敬兄秉彝之所固有萬善皆從此而生三綱六行實權輿於是

矣昔人之正身藻行爲萬世法程乃修此者也先王之協和萬邦俾民物各循其情亦修此者也是道也出於天而具於我求無不得逞無不到苟能一念靡懈於友友之地食焉而憂昆季之飢衣焉而慮昆季之寒痛癢切乎己欣戚視同己仁愛之心洽于內翕和之氣達于外則大可以樹風善俗小可以淑身治家利澤所及容有可量哉噫目今綱倫失教至親之愛化爲道人賓窮也而凌侮患難也而不赦情垂勢戾有若薰蕕冰炭之不相容是誠何心哉丁君大覲悶時俗汚下而既倒之狂瀾無計可挽與其弟大瑑謀立一亭于屋後扁其楣曰相宜其意蓋出於宜兄宜弟而可以教國人之義也世之立亭者類皆藏修游息爲計而惟君則昆季日聚乎斯而踟躇焉顧瞻焉怡怡悅和之氣融融於楹戶之間使觀者油然發好德之良心其旨深哉天下之俗非一人一家之所可化然天下者亦一人一家之積一家善則可以風於鄉里鄉里善則可以風於州郡州郡善則天

下亦何難之有惟願埶箎唱和而洽其歡戒勿相猶而全其義翕然
湛樂之氣可偶於古人之怡怡則見之者孰不感其性分之所固有
而反省其身哉然則一線微陽或寄此而來復矣遂書此以告天下
之兄弟爲讎而令父母愁者焉

乙未季春上澣

玉川 趙敏植 記

상의정기 ②

애친경형(愛親敬兄)은 병이(秉彝)의 고유(固有)한 바여서 만가지 착함이 모두 이
로 좃아서 나오며 삼강육행(三綱六行)은 사실상 이에서 권여(權輿)한다. 옛 사람들
이 정신(正身)과 조행(藻行)으로 만세(萬世)도록 법정(法程)이 되게 하였던 것은
바로 이를 다음에서 엮으며 선왕(先王)들이 협화만방(協和萬邦)하여 민물(民物)로
하여금 각각 그 정(情)에 따르도록 하였던 것도 이를 다음에서였다.

이도(道)는 하늘에서 나와 자기 자신에게 구비되었으니 구하여 얻지 못할 것이
없고 가서 도달하지 못할 것이 없다. 진실로 일념(一念)할 수 있어 우애하고 우애하
는 일의 세 이름이 없다면 밥을 먹으면서는 형제(兄弟)의 배고픔을 그심하고 옷을 입

으면 형제(兄弟)의 추위를 염려하게 된다. 형제(兄弟)의 아픔이나 가려움을 자기의 절실함으로 여기고 기쁨과 슬픔을 자기의 일과 같이 여겨서 인애(仁愛)의 마음이 내면(內面)에 흡연(洽然)하고 흡화(翕和)의 기운이 외부(外部)에까지 도달된다면 크게는 수풍선속(樹風善俗)할 수 있고 작게는 숙신치가(淑身治家)할 수 있어 그 이익과 혜택이 미치는 바를 헤아릴 수가 있으리요.

아아! 오늘날 강륜(綱倫)이 가르침을 잃고 지친(至親)의 사랑이 갈가는 사람으로 변해버려 빈궁(貧窮)한 처지이면 업신여기고 환난(患難)에도 구제하지 않아 정(情)과 세(勢)가 어긋나고 빗기어 마치 선악(善惡)과 빙탄(氷炭)이 서로 용납하지 못함과 같으니 이는 정말로 어떤 마음이 이렇게 했겠는가?

정대현군(丁大峴君)은 시속(時俗)이 오하(汚下)하고 이미 광란(狂瀾)으로 넘어져 불자(不)를 제책(制)이 없음을 걱정하여 그의 아우 대용(大溶)과 더불어 집뒤에다가 정자(亭子) 하나를 세울 계획을 했다. 그 문미(門楣)에 부칠 이름을 상의정(相宜亭)이라 하였으니 그 의미는 아마 의형(宜兄)의제(宜兄宜弟)한다면 국인(國人)을 가르칠 수 있다는 뜻에서 나왔으리라.

세상에서 정자(亭子)를 세우는 사람의 부류들이 대부분은 장수(藏修)하고 유식(游息)하는 것으로 제책을 삼는데 오직 군(君)만은 형제(兄弟)가 날마다 이 정자에 모여 주저(踟躕)하고 고침(顧瞻)하면서 이이(怡怡)하고 열화(悅和)한 기운이 정자

(亭子) 전체에 융융(融融)하여 보는 사람들로 하여 호덕(好德)의 양심(良心)이 유연(油然)하게 피어나도록 하였으니 그 뜻이 깊기도 하다.

천하(天下)의 풍속(風俗)이란 한 사람이나 한 집안에서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천하(天下)란 역시 한 사람 한 집안이 모여진 것이다. 한 집안이 착하다면 향리(鄉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향리(鄉里)가 착해지면 주군(州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군(州郡)이 착해지면 천하를 착하게 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으리오.

다만 바라노니 윤지(埶箴)로 창화(唱和)하여 그 기쁨을 흠족하게 하고 계물(戒勿)로 상유(相猶)하여 그 의리(義理)를 온전하게 하여 흡연(翕然)하고 담락(湛樂)한 기운이 고인(古人)들의 이이(怡怡)했던 것에 짝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 성분(性分)의 고유(固有)함에 감동되고 그 몸을 반성(反省)하지 않으니 사람이 누우이리오 그렇다면 한 줄기의 가느다란 양맥(陽脈)이 아마 이 정자에 의탁하여 다시 나타나리라.

마침내 이렇게 기록하여 천하의 형제(兄弟)간에 원수로 삼아서 부모로 하여 근심토록 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노라.

을미(乙未)·一九五六년 계향(季香) 상순(上旬)에 옥천(玉川) 조민식(趙敏植)은 기(記)하다.

愛蓮亭記

水陸之花妙態奇香名於天下者不一而近於幾百矣獨以君子之名現於今古者蓮也蓮之性雖生於淤泥之中不以污穢之物累於其心亭亭獨立與光風霽月品雖異類淡淡氣像則一也余知牡丹花王之富貴者也桃李朱門之繁華者也濂翁不以富貴繁華者取之獨以蓮之愛同予者幾人作爲說頭者恐其天下之人不行其道陷於不義混沌相雜而然也余友丁石蓮亦愛濂翁之愛取其石以面名蓮里名先爲自身之之扁額欲行其道不可以須臾離之也近自鄉隣遠及方外皆欲愛之行之而不近於禽獸之域也然則何人不善何俗不美也哉是以起數間架於家之後麓鑿小咫于其南種之以蓮扁之曰愛蓮亭孰不稱善而爲美也哉夫子曰德之流行速於置郵而傳命以是做去則天下之人聞風而無不善矣善哉石蓮也以愛蓮二字不啻于亭額常誌視于座右則道在其中而必爲濂

翁之亞賢矣勉之哉勉之哉 其何難也自冠幸以來雖數載師士自
歲在丁丑小春下澣 玉川翁趙詠鉉吳謹撰

애연정의

물과 육지에서 피어난 꽃이 예쁜 태도와 기특한 향기로 천하에 유명한 것이 하나
가 아니고 몇백개에 가까울텐데 유독 구자란 이름이 지금이나 옛날에 들쳐난 것은
연(蓮)이다. 연의 성질이 비록 지혈수에서 생겨나지만 더러운 물질로써 그 마음에
누를 끼치지 않고 우뚝 홀로 섰으니 비개뒤에 맑은 바람과 밝은 달로 더불어 품위는
비록 다른 종류이지만 담담한 기상은 한결 같다. 내가 알기에 목단은 꽃주의 왕으로
부귀한 자요 복숭아와 오얏은 지위 높음은 벼슬아치의 변화한 자다. 염옹(濂翁)·주돈희(周
敦頤)·소학(宋學)의 시조)이 부귀나 변화한 것을 취하지 않고 홀로 연을 사랑 했는데 나와
같은 사람이 몇사람인가 먼저 앞서서 연을 사랑하는 시작한 것은 천하의 사람들이
그도(道)는 이행하지 않고 불의에 빠져 뒤엎히고 서로 섞일가 두려워 그런 것이다.
내 벗 정석연(丁石蓮)도 또한 염옹(濂翁)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여 그 돌을 취하
여 열달 이름들 연으로 하니 마음 이름이다. 먼저 자신의 편액(扁額)·자신의 의지를 글로써
서 걸어놓은 액자)으로 삼고 그 도를 행하면서 잠깐도 떠나지 않고자 함이니 가까이는 고

을 이웃으로 부터 멀리는 구의 밖까지 다 사랑하고 행하여 금수의 지경에 가깝게 아
니 하고 자 함이다. 그런즉 어떤 사람이 착하지 않고 어느 풍속이 아름답지 않게
가! 이러므로써 두어칸 집을 짓되 산 기슭에 짓고 적은 못을 그 남쪽에 파서 연을
심고 액호(額號)를 애연정이라 하니 누가 선하고 아름답다고 칭송하지 않으리라.

공자(孔子)님이 말씀하시길 덕(德)의 유행은 연말(우편)보다 빨리 전달 되는 것이
니 이것으로써 지어 갈것을 명한다면 천하의 사람들이 풍성을 듣고 선하지 않으리
없으리라. 잘했도다 석연(石蓮)이여! 애연(愛蓮) 두글자로서 정자의 액호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항상 앳아있는 오른쪽에서 볼수 있도록 기록해 둔다면 도(道)가 그
운데 있어 반드시 염응에 베풀가는 어진이 가 될 것이니 힘쓰고 힘쓸지어다.

정축十月하순

옥천 조영현 삼가지음

採山契案序

契者券也不知昉於何時而使民用之以爲符信之謂也所謂如執
左契是也楔者被也古者春日遊嬉被除不祥之謂也契與楔之不
相八如此今則渾稱之未知其何謂也自叔季以來釀錢滋利上自

學士大夫以至閭巷匹庶無無契之人外若道義相尚患亂相恤而其心則惟利是趨春計秋較錐刀不合則怒氣相加昨日之管鮑便作今日之仇賊其傷風敗俗病國蠹民果安在乎惟晉人之會于蘭亭列書姓名一觴一詠風流韻事亦足爲被除之遺事然未之多見但貪貨而已故余自幼至老未嘗不爲嗜利而曾不畜一契亦好詩文而曾不爲契券一字文而止今見採山契規例聳然異之推其塾師丁石蓮爲座目之首凡席而無上下則是亂於席上車而無左右則是亂於車中巡序井井有序亦可尚也至若春日和煦踈布緩帶逍遙於近山近水嘯咏漱濯或賡採薇歌而返則曾中之幽鬱瀟散矣安在其貨利之相較哉余非不欲膏秣從之痛說此懷而老矣末由臨風寄神而已

孔夫子誕降二千四百九十七年丙戌十二月 日

濟州 梁 箕 默 撰

채산계안서

계(契)는 언약의 증서이다. 어느 때에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백성으로 하여금 사용하여 부신(符信)으로 여기도록 하는 것을 말하니 이른바 좌계(左契)를 가진 것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

계(契)는 떨쳐버리는 것이다. 옛날 봄날에 유희로 상서롭지 못한 것을 떨쳐 버리던 것을 말한다.

계(契)는 계(契)가 서로 들어 맞지 않는 것이 이와 같은데 오늘날에는 두루 일컬어 버리니 그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말기로부터 이래로 돈을 추렴하여 이익을 불리니 위로는 학사(學士) 대부(大夫)로부터 마을의 범부에 이르기까지 계(契)가 없는 사람이 없다.

밖으로 도의(道義)로 서로 존중하며 환란(患亂)에 서로 구제하는 것 같으나 그 마음은 오직 이익만을 좇으니 봄에 계산하고 가을에 비교하여 송곳끝만큼이라도 합당하지 않으면 노기(怒氣)를 서로 가하여 지난날의 관중(管仲) 포숙(鮑叔)과 같은 친구들이 곧 오늘날날의 원수가 된다. 그것이 풍속을 상하고 패(敗)하게 하며 나라를 병들게 하고 백성을 좀먹게 함이 과연 어떠한가?

오직 진(晋)나라 사람들이 난정(蘭亭)에 모여서 줄줄이 성명을 달 쓰고 한잔 술에 한수시(詩)를 읊던 풍류스럽고 운치있던 일이 또한 넉넉히 재앙을 떨쳐 버리는 유

사(遺事)가 되리라 그러나 그런것은 보이지 않고 다만 재물만을 탐낼 뿐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늙도록 일찌기 이익을 즐기지 않은적은 없었으나 일찌기 하나의
계(契)도 기르지 않았고 또한 시문(詩文)을 좋아하나 일찌기 계권(契卷)을 위해서
는 한 문자도 쓰지 않았다.

오늘날 채산계(採山契)의 규례(規例)를 보니 뚜렷이 그와는 달랐다. 오직 그 글방
선생인 정석련(丁石蓮)을 추대하여 좌목(座目)의 수령으로 삼았다. 무릇 자리에 상
하(上下)가 없으면 이것은 자리 위에서 어지럽고 수레에 좌우가 없으면 이것은 수레
가운데에서 어지럽다. 순서(巡序)가 정연하게 차례가 있는 것이 또한 높일만 했다.

화후(和煦)한 봄날에 도포를 풀어 헤치고 띠를 느슨하게 풀고서 가까운 산과 가까
운 물에 소요하며 시를 읊고 양치질 하며 몸을 씻고 더러는 채미가(採薇歌)의 운
(韻)을 이어 노래하여 돌아온다는 것과 같은데 이르러서는 흥양의 우물함이 사라지
리니 어찌 그것이 화리(貨利)를 서로 비교하는데 있겠는가?

내가 수레를 준비하여 따라가서 힘써 이 회포를 쓰고자 아니한 것은 아니나 늙은
지라 바람을 맞으며 정신을 부칠 기력이 없음을 따름이다.

공자(孔子) 탄생 二四九七년 병술(丙戌) 一九四六년 十二月 일 제주(濟州) 양기
묵(梁箕默)은 찬(撰)하노라.

石蓮遺稿序

抱經矻矻于窮山寂寞之濱其適也枯矣其生也泊矣而以畢其年內而不得於家妻嘲子笑外而見侮於人聞訕見咄究厥生平果無所爲前韓末暨外寇僞政四十年間讀書爲名者概多此類是蓋不惟執政之蔑裂禮法弁髦儒術之致抑以士而立志不固處事無義壅滯而不通黏着而不揚只以抗高爲自賢之禍也惟於其間能卓然自立奮然邁征有拔於俗士而持己敬謹御家以和接人以信不以利害動其心榮辱渝其節則可爲一方之翹楚而鄉少從學師道立焉德之高下學之淺深雖有大小之殊均爲補於警世扶俗也石蓮丁公殆其儔也歟公少也師勉菴淵齋松沙三先生門路正而趨向明矣義理定而氣節高矣自古國不祀足不到城闔索居究經鄉少稍稍進學公立規定程循循提覺其所悲歡憂戚一於詩發辭質而忠意切而暢至於書尺不飾華藻惟以情到理順爲主以其人則

慷慨之士語其文則忠厚之言也公之孫宗杓與其門徒粹爲遺稿
四編請余校閱而叙弁摩挲嘆賞畧加點綴而授之曰方今蔑聖棄
學滔滔一世而諸家集稿出如雨筍誰能多者以世道則固有如此
者然自其子孫而視之則先人精神之所湊言行之所形自其門徒
而視之則師門學術之所敷義理之所蘊固營玩繹不舍于日夕者
也况先王考之敦本懋實尤非他人可比者乎願函刊布與中外同
志之士共焉

龍集庚戌季冬

豐山 洪 錫 憲 序

석련유고서

窮山(窮山) 적막한 물가에서 경(經)을 안고서 부지런 했으며 그의 좃아가는 방향
이 매말랐고 그의 생(生)은 담백하게 하며 해를 마쳤기 때문에 안으로는 집안에서
아내의 비웃음과 자식의 웃음을 얻지 못했고 밖으로는 남에게 모멸을 당하여 비방을
듣고 질책을 당하였다.

그의 평생을 헤아려 본다면 괴연 해흥은 바가 없다.

전한말(前韓末)로부터 외구(外寇)들이 위정(僞政)한 四十년 간에 미치도록 책을 읽는다고 이름하는 자들이 대체로 거의가 이런 류(類)이다. 이는 대체로 집정(執政)이 멀렬했고 예법(禮法)이 무용(無用)의 물건이 되어버린 유술(儒術)의 소치일 뿐 만이 아니라 또한 선비가 뜻을 세움이 곤란하지 못하고 일을 처리함의 의(義)가 없어서 막혀 불통하고 점착하여 들쳐나지 못한 때문이며 단지 항거하여 높은 체하는 것으로써 스스로 어질다고 여긴 재앙이었다.

오직 그러한 틈에서도 능히 타연히 자립하고 분연히 힘써나아가 속사(俗士) 중에 서 빼어나고 몸가짐이 경온(敬謹)하여 화(和)로써 짐을 거느리고 믿음으로써 사람을 접(接)하며 이해(利害) 때문에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영욕(榮辱)이 그의 절개를 더럽히지 않았으니 가이한 지방의 교초(翹楚)가 될만 했으며 마을의 젊은이 들이 좃아가 배우니 사도(師道)가 세워졌다.

덕(德)의 고하(高下)와 학문(學問)의 천심(淺深)이 비록 대소(大小)의 구별이 있기는 하나 다같이 세상을 경계하고 세속을 부지하는데 도음이 되었으니 석련(石蓮) 정공(丁公)이 아마도 그런 사람일지이다.

공(公)은 접어서 면암(勉菴)과 연재(淵齋)와 송사(松沙) 세 선생에게서 배워서 문로(門路)가 바로고 취향(趣向)이 분명했고 의리(義理)가 정(定)하여지고 기절

(氣節)이 고상했다.

고국(古國)이 제사를 지내지 못한 때로부터 발이 성문(城門)에 이르지 않았고 쓸쓸히 살면서 경(經)을 연구 했으며 고을의 젊은이들이 조그맣게 학문에 나아가니 공(公)은 규정(規定)을 세워 놓고 순수히 이끌어 깨우쳐 주었다.

그는 비환(悲歡)과 우척(憂戚)한 바를 시(詩)에 다 한결같이 표현하였는데 말이 질박하고 충성스럽고 뜻이 간절하고 화창했다. 편지에 있어서는 한 자(字)도 화려한 문체로 꾸미지 않았고 오직 정(情)이 지극하고 이치가 순한것을 주로 하였다.

그는 사람으로는 강개(慷慨)한 선비요 글로 말한다면 충후(忠厚)한 말이다. 공(公)의 손자 종표(宗杓)가 그의 문하(門下)의 제자들과 함께 유고(遺稿) 四편을 간행하기 위해 나에게 교열(校閱)하고 서문을 써 줄것을 청하였다.

손을 문지르며 감탄하여 감상하고 대략 점철(點綴)을 더하여 주면서 이르길 「바야흐로 오늘날 성인(聖人)을 능멸하고 학문을 버리는 것이 도도(滔滔)한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원고를 모아 내놓으니 비운뒤 주순이 누가 더 많이 나오는가 하는 듯하다. 세도(世道)로는 참으로 이같은 일이 있으나 그러나 자손으로부터 본다면 선인(先人)의 정신(精神)이 펼쳐진 바요 언행(言行)이 나타난 바다. 그 제자들로부터 본다면 사문(師門)의 학술이 펼쳐진 바요 의리가 쌓인 바이니 참으로 마땅히 음미하고 실마리를 찾아서 밤낮으로 그치지 않아야 할 것인데 하물며 할아버지께서 그본을

돈독히 여기고 실지를 힘쓰던 것을 우선으로 여기시던 것이 더더욱 남에게 비교할 자가 아닌 것이야!

원컨대 간행하여 빨리 배포하여 중외(中外)의 뜻을 같이한 선비들과 더불어 함께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했다.

해는 경술(庚戌...一九七〇)년 계동(季冬)에 풍산(豊山) 홍석희(洪錫憲)는 서하노라.

門人錄序

爲一國之師者有一國之弟子爲一鄉之師者有一鄉之弟子觀於弟子之衆寡可知其師之教育之廣狹也石蓮丁公諱大暉字自晁其先羅州人以雋爽之器宇有穎悟之才性早出入于宋淵齋崔勉菴奇松沙三先生之門斥邪扶正尊華攘夷之義治己治人爲學爲文之要他弟子所未嘗聞者無不聞之犁然而心有所悟裒然而體有所胖退而築一屋于幽靜處日寢處其中沉潛乎四書五經修齊治平之道無不心得而躬驗之參考于百家諸子治亂興亡之故無

不曲暢而旁通之然遭天地之翻覆無所施其蘊抱日與經生學者
談理說經存師道于既凶扶線陽於窮陰隱然有強艱扶抑之勢而
一方之儒風蔚然以興衣冠而出入者莫非其門徒人之不問而知
之如胡文定之弟子焉公歿之三十餘年其門人及私淑于公者二
百餘人錄其姓名將刊門人表相洙吳明煥與公嗣孫宗杓來問頭
語于不佞竊念師道之廢蓋已久矣唐之李翱張籍輩皆學于韓文
公而愧其稱師每於言語書翰之間不曰先生而曰兄况今之世乎
而自職業教師之出所謂弟子者視師如路人一離教庭不相問焉
噫空山荒茅之下木食澗飲而執一策兀然坐臯比如公者有何所
施乎而爲其門徒者雖沒世不能忘嘗刊其師稿樹其師碑今又成
此錄可知公所嘗懇懇斥斥諭之誨之者莫非以孝悌忠信禮義廉
耻之道而然也

光復四十戊辰立夏節

坡平 尹丁鎔 叙

석련문인일록서

한 나라의 스승이 되는 사람은 한 나라의 제자(弟子)가 있고 한 고을의 스승이 되는 사람은 한 고을의 제자(弟子)가 있으니 제자가 많고 적은것을 보고서 그 스승이 교육(教育)한 것이 넓은가 좁은가를 알수 있다。

석련(石蓮) 정공(丁公)은 휘(諱)는 대현(大暉) 자(字)는 자경(自鏡)이니 그 선계(先系)는 나주인(羅州人)이다。

주걸차고 글센 기품(氣品)으로 뛰어난게 총명한 재성(才性)이 있었으니 일찌기 송연재(宋淵齋) 최면암(崔勉菴) 기송사(奇松沙) 세분 선생의 문하(門下)에 출입(出入)하여 간사함을 배척하고 정도(正道)를 부지하여 중화(中華)를 높이고 이적(夷狄)을 물리치는 뜻과 자기를 다스리고 남을 다스려서 학문(學問)하고 그들을 짓는 요령을 다른 제자들보다 일찌기 듣지도 못한것을 듣지 아니함이 없었다。

위엄(威嚴)스럽게 마음에 깨달은 바가 있었으며 듄직하게 몸이 살찌 퍼진바가 있었다. 물러나와 그으하고 고요한 곳에 한집을 짓고 밤낮으로 그속에 살면서 사서(四書) 오경(五經)을 깊이 음미하여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의 도(道)를 마음으로 깨닫고 몸으로 증험(證驗)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제자(諸子) 백가(百家)를 참고(參考)하여 치란(治亂) 흥망(興亡)의 연고(緣故)를 자세히 통달(通達)하여 곡진(曲盡)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나 천지(天地)가 번복(翻覆)한 때를 만나 그 마음에 쌓은 포부를 베플곳이 없었다. 그래서 날마다 경(經)을 배우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성리(性理)와 경지(經)를 담설(談說)하며 이미 사리진 속에서 사도(師道)를 보존하고 구음(窮陰) 속에서 실날같은 양기(陽氣)를 부지하여 위엄스럽게 괴로움을 참고 언늘린 것을 부지해 주는 기세(氣勢)가 있어서 한 지방의 유풍(儒風)이 성대하게 일어 났었다. 의관(衣冠)하고 출입(出入)한다는 사람치고 그 문하(門下)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없는 것을 사람들이 묻지 않아도 알았으니 마치 호문정(胡文定)의 제자들과 같았다.

공(公)이 돌아가신지 삼십(三十)여(餘)년(年)에 그의 문인(門人) 및 공(公)을 사숙(私淑)한 사람 이백(二百)여(餘)인(人)이 한책에 그의 성명(姓名)을 적어서 장차 간행(刊行)하려고 할적에 문인(門人) 표상수(表相洙) 오명환(吳明煥)과 공(公)의 사손(嗣孫) 종표(宗杓)가 찾아와서 나에게 서문(序文)을 청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사도(師道)가 폐(廢)해진 것이 이미 오래되었다. 당(唐)나라의 이고(李翱)와 장적(張籍) 등이 모두 한문공(韓文公) 퇴지(退之)에게서 배웠는데 그 스승이라 일컫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항상 말할 때나 편지 보내는 사이에도 선생(先生)이라 말하지 않고 형(兄)이라 말했는데 하물며 오늘날 같은 세상이겠는가?

그런데 교사(教師)라는 직업이 나옴으로부터 이른바 제자(弟子)라는 사람들이 스

승보기를 길가는 사람처럼 보고 한번 교정(敎庭)을 떠나기만 하면 서로 묻지도 아
니한다.

아아! 쓸쓸한 산(山)속 쓰러져가는 띠집 아래서 나무 열매를 먹고 냇물을 떠 마
시면서 한 책(策)을 잡아 오뚜기 강석(講席)에 앉은 공(公)같은 사람이 어딘가에
베플곳이 있겠는가 그 문하의 제자되는 사람들이 비록 죽는다 해도 잊을수가 없어서
그 스승의 원고를 베껴 간행하고 그 스승의 빚돌을 세우고 오늘날 또 이 석련문의록
(石蓮門人錄)을 만들었다. 공(公)이 일찌기 간절히 삼가했던 바를 알수 있으니 깨우
쳐주고 가르친 것이 효제(孝悌) 충신(忠信) 예의(禮義) 염치(廉耻)의 도(道)로써
하지 않음이 없었다.

광복(光復) 四四年 무진(戊辰..一九八八)년 입하절(立夏節)에 파평(坡平) 윤정복
(尹丁鎭)은 쓴다.

石蓮淵源錄序

維我東國壤地雖小羣賢輩出郁郁文明與有宋相伯仲焉華西李
先生崛起私淑以其道授後人及門有重菴省齋勉菴之賢勉菴之
門又多忠信篤敬之士若石蓮丁公大覲其一也早年抱贄得聞尊

攘大義白狗之變痛不自勝兩度大喪戴白衣縞方喪如禮惟以導
迪後進爲己任立規定程眷眷乎存養實踐期勉乎日行一善一方
多化之入其鄉稱先生不問可知爲公也公歿後及門諸子刊厥遺
稿今又蒐輯公修身齊家治政等要語與夫身後文字門生名錄首
以華勉兩先生行蹟簽爲淵源錄將公諸世玄晏之託及於不佞盖
行道垂訓雖有高下淺深之或差其能有助於扶植斯文之功則固
不可無傳後之圖此日此役誠不可已也亦可以觀公教化之及人
者深矣嗚呼諸子其欲加勉於邁守師訓以爲卒業之地耶余雖不
得承咳於當日欽仰者深而又有所期望於諸子敢以是爲弁語

戊辰四月

日

黃州 邊時淵 序

석련연원록서

우리 동국(東國)이 땅덩어리가 비록 작으나 못 현인(賢人)들이 배출(輩出)하여

차라한 문명(文明)이 송(宋)나라로 더불어 서로 우열(優劣)을 가리기가 어렵다.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 선생이 우뚝히 사숙(私淑)으로 일어나서 그의 도(道)를 후인(後人)에게 전수(傳授)하였으니 문인(門人)중에 중암(重菴) 김평부(金平默)과 성재(省齋) 유석린(柳錫麟)과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이란 현인(賢人)이 있었고 면암(勉菴)의 문인(門人)중에 또 충신(忠信) 독경(篤敬)의 선비들이 많았는 데 석련(石蓮) 정대현(丁大暉) 공(公)과 같은 이가 그중한 사람이다.

공(公)은 어린 나이에 폐백(幣帛)을 안고 가서 왕실(王室)을 높이고 이적(夷狄)을 배척하는 대의(大義)를 듣고 경술(庚戌: 一九一〇)년의 변(變)때에 슬픔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더니 두번의 대상(大喪)에서 흰 천(巾)을 쓰고 흰 상복(喪服)을 입고서 임금의 상(喪)을 예(禮)와 같이 했다.

오직 후진(後進)을 인도(引導)하는 것으로써 자기의 책임을 삼아 법규(法規)를 세우고 장정(章程)을 정하여 부지런히 존심양성(存心養性)하고 정도(正道)를 실천하며 날마다 한가지 선(善)을 행할것을 기약하여 힘썼으니 한 지방이 많이 교화(教化) 되었었다. 그 그늘에 들어가서 선생(先生)이라 일컬으면 묻지 않아도 공(公)인 것을 알수 있었다.

공(公)이 돌아가신 후 문인(門人) 여러 사람들이 그의 유고(遺稿)를 간행(刊行)하고 오늘날날 또 공(公)의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정(治政) 등의 중요한 말씀과 돌

아가신 후의 문자(文字)와 문하생(門下生)의 이름을 기록한 것을 수집하여 화서(華西)면암(勉菴) 두 선생(先生)의 행적(行蹟)을 첫머리에 실고 표제(表題)를 연원록(淵源錄)이라 했다.

장차 세상에 간행(刊行)하여 내놓으려고 할적에 서문(序文)의 부탁이 나에게 왔다. 대저 도(道)를 행하고 훈교(訓敎)를 드리움이 비록 고하심천(高下深淺)으로 후 차이가 나기는 하나 그야말로 사문(斯文)을 부식(扶植)하는데 도움이 되는 공덕(功德)이 있으니 참으로 후세(後世)에 전(傳)할 계획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날 날의 이 일이 참으로 그만 들수가 없고 또한 공(公)의 교화(敎化)가 남에게 미친 것이 기쁨을 볼수 있으리라.

우호라! 여러 제자(弟子)들은 그 스승의 교훈(敎訓)을 더욱 힘써서 학업(學業)을 마칠 땅으로 삼고자 하는가? 내 비록 당일(當日)에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으나 흠앙(欽仰)함이 깊고 또한 여러 제자들에게 바라는 바가 있어서 감히 이것으로 서두(序頭)의 말로 삼는다.

무진(戊辰) 一九八八年 四月

日

황주(黃州)

변시연(邊時淵)은 서(序)한다.

採山齋唱酬詩文集序

山自雪山而南馳遙遙至谷城石谷之坊有峰峭秀映空精光若可

掬者曰國師蜿蜒下趨于地岡隴彎回竹樹葱蒨差碩人之邁軸者曰蓮洞丁石蓮翁大覲居之翁自中歲以後深自韜晦絕今不爲惟與古人唯諾署其室曰採山有詩以見志遠近士友知不知和者惟恐或後而殆牛腰之束矣翁之友吳君采泳徵余弁其首曰翁於詩非直非其長雅所不屑但臨境賦懷遇物遣興不規規於聲病陶寫天機之發而止無甚膾炙於人口若其安清素息趨營隨分自適徜徉嘯傲於泉石雲月之間者有足以感動人故人自和之初非翁之所與也然卷已成編矣不可委諸篋衍任他厄於蟲鼠思欲與及門者印而藏之子其圖之余曰唯唯叔世文僞日滋苟得山水佳者置一亭舍可以棲息而悅適焉則必力導羣言以張之揭版而隘墻壁印帙而峙諸案弊也久矣吾恐人之薄觀乎其外而不察其中者將是卷之比而同之也且念翁既號以蓮則蓮之爲物出淤泥濯清漣不以無人而不芳而人之樂聞而樂道之者如古人愛蓮之作也蓮

豈有求而得之耶蓋其亭亭淨植香遠益清者自有以感人之愛也
是卷也無乃類之然耶余矇於詩者也殊未知諸作之互有能否之
如何然其不藏人之善則一也獨余以固陋爲子雲書中西蜀富人
是則可愧

惟乙未黃陽之月下澣

竹溪 安 塑 記

채산재창수시문집서

산이 설산(雪山)으로부터 남쪽으로 달려 멀리멀리 곡성(谷城)의 석곡(石谷) 동네
에 이르러 산봉우리가 가파르고 빼어나 하늘에 어리어 정미한 빛이 음길 만한 것이
있으니 「국사(國師)」이다.

구불구불 땅으로 치달아 산과 언덕이 굽었고 대와 나무가 푸르러 석인(碩人)이 은
거 하기에 마땅한 것이 「연동(蓮洞)」이니 정석련(丁石蓮) 대현(大峴)이 살았다.

옹(翁)이 중세(中歲)로부터 이후 길의 스스로 으튼하여 금세의 일을 끊어 행하지
않고 오직 고인(古人)에게 응답했다. 그 집말 「채산(採山)」이라 현판하고 시(詩)를
지어 뜻을 보이니 원근(遠近) 사우(士友)중의 아는 자건 모르는 자이건 화답하는

자들이 오직 후시라도 뒤질까 싶어 했으니 거의 소의 허리만큼의 뭉뚱이였다.

옹(翁)의 친구 오채영(吳采泳)군이 나에게 그 첫머리를 서문해 줄것을 구하면서 이르길 「옹(翁)은 시(詩)에 대해서 다만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닌 것이어서가 아니라 평소에 달갑게 여기지 않았을 바입니다. 다만 지경에 임하여 회포를 쓰고 일을 당하여 흥(興)을 보낼 뿐 소리에 대해 규규(規規)하지 않고 천기(天氣)의 발함을 묘사하는 데 괴로와 했으나 단지 심히 인구(人口)에 회자함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의 안청(安淸) 소식(素息)하며 추영(趨營) 수분(隨分)하며 자적(自適) 상양(徜徉)하며 천석(泉石)과 운월(雲月)의 사이에서 휘파람 불며 오만했던 것과 같은 것이 넉넉히 사랑할 가뭇음케 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화답한 것이지 처음부터 옹(翁)이 참여한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책이 이미 편(編)을 이룬지라 상자에서 넘치는 대로 버려두고 벌레먹고 쥐 먹는 대도 곤앰을 당하도록 버려 둘 수가 없어서 생각하여 제자들과 더불어 인쇄하여 보관하고자 하여 아들이 그것을 꺾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내가 이르길 「그러던가? 말세(末世)인지라 글의 거짓됨이 날로 더해져서 참으로 산수(山水)의 아름다움을 얻는 자는 한 정사(亭舍)를 지어두고 서식 하면서 기쁘고 마음에 맞으면 반드시 여러 말을 이루어서 퍼내고 현판(懸板) 걸고 담벽(담) 막고 책(冊) 인쇄 하여 책상에 꽂아버려 둔지가 오래이다. 나는 사람들이 그 외면만을 얽게 보고서 그 마

음속을 살피지 않는 자가 장차 이책도 똑같은 비유할까 두렵다。」라고 했다.

또 생각컨데 응(翁)은 벌써 연(蓮)으로써 호(號)를 했으니 연(蓮)의 물성(物性)이 지흠에서 나와서 맑은 잔물결에 씻겨서 사람마다 꽃다와하지 아니함이 없고 사람들이 즐거이 듣고 즐거이 말하는 자가 옛 사람의 애연설(愛蓮說)을 지었던 작자와 같이 여기지 않았다면 연(蓮)을 어찌 구하여 호(號)로 얻었겠는가?

아마도 그것이 정정(亭亭)하게 깨끗이 서서 향기가 멀수록 맑아지는 것이 스스로 사랑할 감동시키는 사랑이 있어서일 것이다. 이책이 바로 그것은 종류가 아니겠는가?

나는 시(詩)에 어두운지라 다만 여러 작품이 서로 가진 것과 능하고 능치 못한 것이 어떠한지를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선(善)을 숨기지 못하는 것은 한 가지이다. 다만 나는 고루한 사람인데 양자운(楊子雲) 책속의 서촉(西蜀) 부자가 되었으니 이것이 부끄럽다.

을미(乙未)·一九五五)년 윤 삼월 황양(黃楊)의 달 하수에 주계(竹溪) 안소(安塑)는 서하노라.

採山齋唱酬詩文集敘傳

丁石蓮大暉氏隱去教授於浴川蓮洞山中一日其門生表相洙吳

鏞根訪余南江書室示所錄氏之先系及行事大畧曰生等爲吾師門將刊行採山齋唱酬詩文集竊觀古人有自爲其詩文集叙傳者多自傳亦可况他人之爲乎而况詳吾師門卽莫如丈人是以請余於石蓮翁素有心悅誠服於其行義之善矣顧何敢辭哉謹就其所錄輒櫟括而爲之筆曰丁大暉字自炅石蓮其號也押海之丁來自中國後爲東方著姓上世有諱聖徽高麗朝以都提調佐翼功臣銀青光祿大夫封錦陽府院君四傳至諱允宗太子太傅諡忠烈累傳至諱克隆我 端宗朝文科官司諫院大司諫兼知製教丙子禍作挈家南下入永平聖德山以守罔僕之義每當 端宗諱辰東向寧越痛哭而歸時人名其地曰越峴臺至今有遺躅七世祖諱彥奎號思菴 仁祖丙子亂以端川府使扈從南漢累立戰功朝廷嘉之賜錄券高祖諱道一號南隱學問精博專治性理之學南方學者至今矜式之曾祖諱翊相祖諱獻斗號杜谷隱居行義事載道誌逸士編

考諱碩璜一諱文教號野隱蘆沙奇正鎮門人以孝行登儒薦後蒙別恩典贈通政大夫敦寧府都正妣淑夫人全州李氏此其所自出之系也生而穎悟絕倫性孝友事親愉婉無所違及上學不煩程督而自能刻意力學成童之年已涉獵經史而盡顧於著述不甚留意曰士貴實行文藝億末耳所居家後有一區小阜俯野臨溪眺望甚好暇日登臨仍築一別墅名之曰望峩臺而以境景之美聞於鄉省戊戌春淵齋宋先生過浴川與從者登臨設講會于臺上翌年己亥松沙奇先生又歷臨于臺爲一日之遊大覲之得謁淵齋松沙兩先生蓋因此而其專意爲爲己之學者有所觀感於兩先生矣及遭前後喪哀毀幾危身而猶率禮俯就自送終至免喪一遵古禮而行丁氏始自南平徙來故先世墳墓皆在南平而多祭田未備石儀未具處嘗慨恨于此中年減家產三分之一別途營蓄十餘年頗得贏餘七八處先墓各置祭田又具石儀而畢又嘗以國文鈔記內則孝

經列女傳及四禮便覽中最切於婦行者爲一冊名之曰閨範以資其家閨門之學士友家傳相謄書得行于鄰近數處與弟大瑑友愛甚雖相析著異爨一生有無共之寢處不相離晚年築一亭而兄弟同處名曰相宜亭賦詩以述其志遠近士友爲之賡和者詩文至數百篇自中年即絕意榮利於一切世味泊如也而惟以教育後進爲己任非爲世俗人舌耕之爲而每年開書塾于廊舍凡遠近負笈而來者皆收容焉故鄉里之文風日益開門下之弟子日益衆於是諸生設一契名曰採山契擬以營建一書齋故先定齋名以採山而自師生以及遠近士友皆有齋之詩與文裒然成一卷即古人所謂詩成屋未就也然而近復門生諸人將先刊其詩文集者蓋欲使其師見於生前也云

論曰昔蘇文忠爲陳季常作方山子傳爲生前人立傳蓋始於此而後人亦多昉而爲之然蘇文則其叙事只一歧亭相見一段而今余

於此文不得不臚列翁平生諸事者以諸事之善皆不可掩且以諸生之請在於此而不在彼其意亦可尚也爾

乙未首夏日

善山 柳 鍾 茂 撰

채산재창수시문집서전

정석련(丁石蓮) 대현(大暉)씨는 은거하여 옥천(浴川) 연동(蓮洞) 산중에서 교수(教授)하였다. 어느날 그 제자 표상수(表相洙)와 오용근(吳鏞根)이 남강서실(南江書室)로 나를 찾아와 기록했던 정씨(丁氏)의 선계(先系) 및 행사(行事) 대략을 보이며 「저희들이 우리 사문(師門)을 위해서 장차 채산재(採山齋) 창수시문집(唱酬詩文集)을 간행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보건데 옛사람 중에 스스로 시문집(詩文集)서전(叙傳)을 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전(傳)을 하는 것도 또한 가(可)하거늘 하물며 타인이 함이리우? 게다가 우리 사문(師門)을 자세히 아는 이는 곧 어르신 만한 사람이 없으니 이 때문에 청합니다.」라고 했다.

내가 석련옹(石蓮翁)에 대해 평소부터 그가의 의(義)로움을 행했던 좋은 점에 대해 심열(心悅)하고 성복(誠服)했으니 돌아보건데 어찌 감히 사양하겠는가? 삼가 그 기록한 바에 나아가 곧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글을 쓰노라.

정대현(丁大暉)의 자(字)는 자경(自鏡)이며 석련(石蓮)은 그의 호(號)이다.

압해(押海) 정(丁)씨는 중국(中國)으로부터 온 이후 동방(東方)의 두드러진 성

(姓)이 되었다. 상세(上世)에 휘(諱) 성휘(聖徽)는 고려조(高麗朝)의 도제조(都提

調) 좌익공신(佐翼功臣) 은청광록대부(銀靑光錄大夫)로써 금양(錦陽) 부원군(府院

君)에 봉해졌다. 四대를 전하여 휘(諱) 윤종(允宗)에 이르러서는 태자(太子) 태부

(太傅)를 하였으니 시호(諡號)는 충열(忠烈)이다. 여러 대(代)를 전하여 휘(諱) 극

룡(克隆)에 이르러서 다종조(端宗朝)에 문과(文科)로 사간원(司諫院) 대사간(大司

諫) 겸지재교(兼知載敎)를 베풀었다. 병자(丙子)·一四五五)년 사회가 일어나자 가족

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와 영평(永平) 성덕산(聖德山)에 들어가 절의를 굽히지 않

는 의(義)를 지켰다. 다종의 기일(忌日)을 만날 적마다 동쪽으로 영월(寧越)을 향

하여 통곡하고 돌아왔으니 그 시대 사람들이 그 땅을 이름하여 「월현대(越峴臺)」라

고 하여 지금도 유적이 남아있다.

七세조(世祖) 휘(諱) 언규(彦奎)는 호(號)가 사암(思菴)이다. 인조(仁祖) 병자

난(丙子亂)때 단천부사(端川府使)로 남한산성(南漢山城)에 호종(扈從)하여 여러번

전공(戰功)을 세워 조정에서 하례하여 녹권(錄卷)을 내렸다.

고조(高祖) 휘(諱) 도일(道一)은 호(號)가 남은(南隱)이다. 학문이 정박(精博)

하고 오로지 성리학(性理學)을 다스려 남방(南方) 학자들이 지금도 본받고 있다.

증조(曾祖)는 휘(諱) 익상(翊相)이요 조(祖)는 휘(諱) 헌두(獻斗)이며 호(號)는 두곡(杜谷)이다. 은거(隱居)하여 의(義)를 행했으니 일이 도지(道誌)의 일사편(逸士編)에 실려있다.

고(考)는 휘(諱) 석항(碩曠) 일휘(一諱) 문교(文教)이며 호(號)는 야은(野隱)이다.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문인이니 선비의 천거에 오른 후 특별한 은전(恩典)을 입어 통정대부(通政大夫) 돈영부(敦寧府) 도정(都正)에 증직(贈職)되었다.

비(妣)는 숙부인(淑夫人) 저추(全州) 이씨(李氏)이다. 이것이 태어난 바의 계통이다. 나면서 부터 영오(穎悟)하여 무리에서 뛰어난 성품은 효우(孝友)했다. 사친(事親)에는 부드럽고 아름다와 어기는 바가 없었다.

처음 학문을 배울때에 미처서 일과의 감득에 번거롭지 않았고 스스로 마음에 새겨 학문에 힘썼고 十五살이 되었을때 이미 경서(經書)와 사기(史記)를 섭렵하여 다 읽었다.

돌아보건데 저술에 대하여는 심히 유의하지 않고 이르길 「선비는 실행(實行)을 귀히하고 문예(文藝)는 곧 말단(末端)일 뿐이다.」라고 했다.

살던 집 뒤의 한 구역에 작은 언덕이 돌을 굽어보고 시냇가에 임하여 있어서 조망(眺望)이 심히 좋다. 한가한 날에 오르내리다가 이에 한 별장을 짓고 이름하여 「망미대(望媚臺)」라 하였으니 경치의 아름다움으로 마을에 소문이 났다. 무술(戊戌)...

八九八)년 봄에 연재(淵齋) 송(宋) 선생이 옥천(浴川)을 지나다가 종자(從者)들과 더불어 올라와 대(臺)위에 강회를 베풀었고 이듬해 기해(己亥: 一八九九)년에 송사(松沙) 기(奇)선생이 또 대(臺)에 역임(歷臨)하여 하룻날의 놀이를 즐겼다. 대현(大峴)이 연재(淵齋) 송사(松沙) 두 선생을 뵈올 수 있었던 것이 대체로 이로 인해 서이고 그가 오로지 자신의 몸을 위한 학문을 할 것을 생각한 것이 두 선생에게서 관감(觀感)한 바가 있었으리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사를 당하여는 슬퍼하다 몸을 훼손하여 거의 몸이 위태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예(禮)를 따라서 급혀 나아갔고 장례를 치룬 뒤로부터 면상(免喪)에 이르도록 한결같이 고례(古禮)를 따라 행했다.

정(丁)씨가 처음에 남평(南平)으로부터 이사해 왔던 연고로 선세(先世)의 분묘(墳墓)가 모두 남평(南平)에 있어서 흔히 제전(祭田)이 준비되지 못했고 빗돌이 갖추어지지 않아 곳곳에서 일찌기 이것을 한탄했다. 중년에 가산(家産)의 삼분의 일만을 덜어서 별도로 경영하고 저축한 십여년에 자못 여유를 얻어 七·八곳의 선묘(先墓)에 각기 제전(祭田)을 두고 또 빗돌을 갖추기를 다했다. 또 일찌기 국문(國文)으로 써 내칙(內則) 효경(孝經) 열여전(列女傳) 및 사례편람(四禮便覽)을 초하여 기록한 것 중에서 부행(婦行)에 가장 절실한 것을 한 책자로 만들어 이름하여 「규범(閨範)」이라 하여 그의 집안 여자들 교육의 바탕으로 삼았고 사우(士友)들이 가문에

전하려고 서로 책을 등서하여 이끄는 여러 곳에서 행할 수 있게 했다.

아우 대용(大溶)과는 우애(友愛)가 깊어서 비록 젓가락을 나누고 부뚜막을 달리 하기는 했으나 일생동안 있고 없는 것을 함께하고 잠자리를 서로 떨어지지 않았다. 만년(晩年)에 한 정자를 지어 형제가 함께 살았으니 이름하여 「상의정(相宜亭)」이라 하고 시(詩)를 지으면서 그들의 뜻을 슬회하니 원근 사우들이 운(韻)을 이어 화답한 시문(詩文)이 수백편에 이르렀다.

중년(中年)으로부터 곧 영리(榮利)에 대해 생각을 끊고 일체의 세상 맛에 대하여는 담백한 듯했고 오직 후진의 교육을 자기의 임무로 삼았으니 세속의 선생들이 하는 것과는 같지 않았다. 그리고 매년(每年) 낭사(廊舍)에서 글방을 열어 무릇 원근에서 책가방을 짊어지고 온 자들을 모두 수용하여 향리(鄉里)의 문풍(文風)이 날이 갈수록 열리고 문하의 제자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졌다.

이에 여러 학생들이 한 계(契)를 설립하여 이름하여 「채산계(採山契)」라 하여 한 서재(書齋)를 설계해 세울 것을 생각했다. 그래서 먼저 재(齋)의 이름을 채산이라 정하고 선생과 학생으로부터 원근 사우에 미치기까지 모두 재(齋)의 시문(詩文)을 지어서 모아 한권의 책을 이루었으니 곧 고인(古人)이 이른바 「시(詩)는 이루었는데 집은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래에 다시 문하(門下)의 학생 여러 사람들이 장차 먼저 그 시문집(詩文

集)을 간행하려 하니 대체로 그 스승이 생전(生前)에 보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말할
것이다.

논(論)에 이르길 「옛날 소문충(蘇文忠)이 진계(陳季)를 위해서 일찌기 방산자(方
山子)의 전(傳)을 지었으니 생전(生前)의 사람을 위해서 전(傳)을 세운것이 대체로
여기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후인(後人)들이 또한 흔히 모방하여 지었다. 그러나 소
(蘇)의 글은 그 서사(叙事)를 단지 한 높은 정자에서의 한 발단을 보였을 뿐인데 오
늘날 내가 이 글에서 응(翁)의 평생의 여러 일들을 여열(臚列·진열)하지 않을 수 없
는 것은 여러 일들의 좋은 점을 다 덮어버릴 수 없기 때문이고 또 여러 학생들의 청
(請)이 이것에 있고 저것에 있지 않기 때문이니 그 뜻이 또한 가상스럽다.

을미(乙未·一九五五)년 첫 여름에 선산(善山) 유종무(柳鍾茂)는 찬하노라.

石蓮淵源錄 發刊辭

석련(石蓮) 정대현(丁大現) 선생(先生)은 전라남도(全羅南道) 곡성(곡성
군(谷城郡) 석곡면(石谷面) 연반리(蓮盤里) 둔녕부도정(敦寧府都正)
야은(野隱) 휘문교(諱文教) 숙부인(淑夫人) 전주이씨(全州李氏) 사이
에 태어났다.

석연선생(石蓮先生)은 일찌기 중부(仲父) 만은(晚隱) 휘석교(諱碩
 教)를 비롯하여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 연재(淵齋) 송병선(宋秉
 璿) 같은 여러先生에게 수업(受業)하고 오선조(吾先祖) 면암선생(勉
 菴先生)에게 지알(贄謁)하여 많은 학덕(學德)과 경륜(經綸)을 쌓으시
 고 을사늑약후(乙巳勒約後) 면암선생(勉菴先生)과 의거(義舉)를 도모
 (圖謀)하였으나 친환(親患)이 위중(危重)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유구상
 도(憂國傷道)하던중 고종(高宗)이 승하(昇遐)하자 역내사림(域內士
 林)에게 복(服) 입을것을 창언(倡言)하고 복(服)을 입고 망미대(望岬
 臺)에 올라 설위통곡(設位痛哭)하다 왜병(倭兵)에게 발각되어 심한 고
 문(拷問)끝에 기절(氣絕)하였으나 하늘의 보살핌을 받아 오륙시간(五
 六時間)뒤에 회생(回甦)하였다. 그러나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였으며
 남달리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의 법도를 지키는 마음이 깊어 가혹(苛
 酷)한 왜정(倭政)의 단발령(斷髮令)에도 단발(斷髮)하지 아니하고 채
 산재(採山齋)에 은거(隱居)하여 아동도강(我東道剛)의 전통사상(傳統
 思想)을 고수(固守)하고 오직 후진양성(後進養成)을 기임(己任)으로

여기시며 **밤을새워 책(冊)을 등(騰)하여 무상분배(無償分配)하는 등(等)** **무상교육(無償教育)에 일생(一生)을 바치었다.** 초근목피(草根木皮)로 그근 생활(生活)하면서 이해(利害)로 마음은 움직이지 아니하니 응불실기(雍不失氣)요 부귀빈천(富貴貧賤)한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친절(親切)과 겸손(謙遜)으로 한결같이 대(對)하니 일시동인(一視同仁)이라 부귀영화(富貴榮華)를 부운(浮雲)같이 여기고 효우근검(孝友勤儉) 예의염치(禮義廉耻)를 몸소 실천(實踐)하여 교육(教育)의 자로로 하시니 선생(先生)의 절의조행(節義操行) 학덕(學德)을 좇아 원근사림(遠近士林)이 서로 앞뜰다투어 선생(先生)을 따랐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 사문(斯文)은 석연선생(石蓮先生)의 문인(門人)됨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화서(華西) 면암(勉菴) 석연(石蓮) 삼선생(三先生)의 얼을 새기며 문인(門人)의 성명자호생년현조(姓名字號生年顯祖) 및 자손(子孫)을 수록(收錄) 응사친우(隆師親友)의 도(道)를 도모(圖謀)하기 위(爲)하여 문인(門人)여러분의 정성(情誠)을 모아 석연연원록(石蓮淵源錄)을 간행(刊行)하오니 훌륭한 선생(先生)에 훌륭한 문

인(門人)이라 경하(敬賀)하오며 끝으로 석연선생(石蓮先生)의 연원록(淵源錄)이 천추(千秋)에 전(傳)하여 우리 학계(學界)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면서 삼가 무사(蕪辭)로 발간(發刊)을 송하(頌賀)하는 바이다.

戊辰正月

日

慶州

崔

昌

圭

謹題

採山齋唱酬詩文集跋

採山齋卽我舍伯石蓮先生教授諸生之學堂而其始先生與諸生作齋之韻遠近士友聞而賜和者詩與文多至數百首而皆以原本隨來隨綴藏之篋衍每一尋閱不無紛雜錯亂之苦今年春門生諸人欲爲之編纂刊印以免尋閱之苦且擬各自持一冊校讎已畢淨寫隨了名之曰採山齋唱酬詩文集今將付剞劂先是先生之門生相與設一契卽所謂採山契而以其始設年久人員頗多所營蓄者有若干而今此役所費蓋欲傾困於契所蓄矣嗚呼在今日世衰道

微師道之廢無論甚至於詆排文學滔滔皆是而諸君之行此古學古
道者其有補於風化者豈淺淺哉竊復念之先生一生所著詩文別冊
收錄者將倍蓰於此集矣其編纂之刊印之要在先生百歲後事而不
知其時又有風義之君子致力於此事者如今日諸君之爲者乎此大
瑑所以先謝今日諸君之義而繼以有待於後日之事爾

乙未首夏之日 胞弟 大瑑 盥手敬跋

채산재창수시문집발

채산재(採山齋)는 즉 나의 만형(舍伯) 석연선생(石蓮先生)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당인데 그 시초는 선생과 학생들이 재(齋)의 윤을 지으니 원근 사우들이 듣고 화
답하여 준 시문(詩文)이 수백수에 이르렀는데 다 원본을 오는데로 따라 철하여 상자
에 넣어두고 한번씩 열람할 때마다 분잡하고 착란한 괴로움이 없지않아 음년봄에 문
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편집하고 인쇄하여 연람하는 괴로움을 면하려고 또 각각 한
권씩 가질것을 헤아려 교정을 마치고 정서도 따라서 끝내어 이름하길 채산재 창수
시문집이라 하고 이제 인쇄에 붙이려 하는데 앞선에 선생의 문인들이 서로 더불어

한 계(契)를 설치하여 곳 이른바 채산계(採山契)요 처음 설계(設契)한 횡수는 오래 되고 사람들을도 자못 많아져 경영하면서 저축한 것이 약간 있어 지금이 일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개 계에서 저축한 돈에서 다 내놓고자 하는 것이다.

우후라! 우를날에 있어 세상이 쇠잔해지고 도(道)는 희미해져 사도(師道)의 폐단은 노할것도 없이 심지어 흥이나 보고 배척하는 문학이 거침없이 흐르는 모양이다 그런데 제구들의 이갈이 옛 학문과 옛 도를 행하는 것이 그 풍화(風化)에 보람이 있는 것일 어찌 얽다가 하겠는가.

저으기 다시 생각컨데 선생께서 평생동안 지은 시문(詩文)을 별책으로 수록한 것이 장차 이 시집보다 여러 갑절이 될 것이다. 그를 편집하고 인쇄하여 간행하는 것은 요컨대 선생이 돌아가신 후에 잇쓸 일이나 그때에도 또 풍의(風義)의 구자가 있어서 이 일에 힘일 다하여 우를 제구들이 하는 것 같이 할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이에 대응(大琮)은 먼저 우를 제구들의 의리에 사례하고 이어서 후일의 일에도 기대하련다.

을미년 초여름에 아우 대유(大維) 손을 씻고 공경스럽게 밭(跋) 하노라.

石蓮先生遺文選

採山齋記

採山齋者吾與諸生營建一讀書之室也工未就而先爲之命名相與賦詩而述志聊以爲一時諸生課題之作顧諸生欲張大其事要遠近士友賡和所收集詩與文輒之大幾如牛腰余尚不爲之記文者盖有待於齋之成也顧諸人之作夕以採山二字比擬於夷齊西山採薇奈辭不着實何不可無辨而明之辨之如何無寧自我作記以告于諸生及諸人之爲可耶此世何世上焉而國破君亡下焉而世衰道滅疆土人民沒八於島夷之板圖今所遭之時則然矣然以所遭之時如此見彼傾筐採薇於春山者皆謂之二子之倫則不可也以余之齋名採山比擬於二子不幾於此乎且余雖嘗讀書粗知義理慷慨悲憤不欲生於今日則或有之矣然古人不云乎雖周公孔子之聖苟一言出於自聖之意便非聖人夷齊何如之聖而比及

於如余淺淺者乎嗚呼余齋之以採山者抑有在焉蓋取乎釣於水
魚可膳採於山茹可食之古語而其意欲與二三子結隣結社於萬
山之中隨羣逐隊朝而樵採于山暮而讀書于齋咿咿唔唔不知山
外之作何狀也爲之記以破世人之惑

乙酉仲春下泮

主翁記

채산재기

채산재(採山齋)는 나와 제생(諸生)들이 한결같이 책을 읽으려 하고 건설한 집이다.
공사(工事)가 아직 이루어 지지도 않았는데 먼저 명명(命名)하여 함께 시(詩)를
짓고 뜻을 기슬한 것은 애오리지 일시적으로 제생(諸生)들의 과제(課題)의 시작(詩
作)으로 생각해서였다. 그런데 제생들이 그 일을 장대(長大)하게 하고 싶어서 원근
사우(士友)들의 경화(慶和)의 詩의韻을 이어 和答)를 구하여 수집한 바, 시(詩)와 문(文)의
두루마리 크기가 거의 소허리만큼 했다. 그러나 내가 아직도 재기(齋記)를 짓지 않
은것은 대체로 채산재(採山齋)가 이루어 지기를 기다려서다.

여러분들의 작품을 돌아 보건데 흔히 「채산(採山)」 두 글자로써 백이(伯夷) 수제

(叔齊)의 「서산채미(西山採薇)」의 노래에 비쳤으니 말이 착실(着實)하지 못한데 어찌할 것인가? 불가불 변명하여 밝히지 않을 수 없으니 차라리 내가 스스로 기(記)를 지어서 제생들과 제이름에 알리는 것이 가하지 않을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위로는 나라가 망하여 임금이 없으며 아래로는 세상이 쇠퇴하여 도(道)가 민멸하고 강토와 인민이 섬오랑캐의 판도(板圖)에 빠져 들어갔다. 오늘날날 만난 바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다. 그러나 당한 바의 시대가 이와 같다 하여 저 바구니 가득히 춘산(春山)에서 고사리를 캐는 자를 보고 모두 백이 숙제의 무리라 말한다면 않을 것이다. 나의 재(齋) 이름이 채산(採山)이라 하여 백이 숙제에 게 비친다면 이런 일과 거의 같지 않을까?

내가 비록 일찍이 글일어어 약간의 리(義理)를 알고 강개(慷慨) 비분(悲憤)하여 오늘날과 같이 세상에서 살고 싶어하지 않을 때가 가끔 있기도 했다. 그러나 고인(古人)이 말하지 않았던가? 「비록周公(周公)과 공자(孔子) 같은 성인(聖人)이라 하더라도 구차히 스스로 성인이라는 뜻을 한 마디라도 내놓는다면 곧 성인(聖人)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 백이 숙제가 어떠한 성인인데 나같이 천근(淺近)한 자가 비기여질까?

오호라! 내가 채산(採山)으로 재명(齋名)을 삼은 것은 또한 뜻이 있다. 대체로 물에서 낚시한 고기는 신선하고 산에서 뜬 나물은 먹음만 하다는 옛말의 뜻에서 취했으니 그 뜻은 두서너 사람과 함께 이웃을 맺고 모임을 맺어 만산(萬山) 증에서 무

리를 따르고 좃으면서 아침에는 산에서 나무하고 나뭇채고 저녁에는 재(齋)에서 글을
읽으며 증언증언 소리내어 산밖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가를 모르고 싶어서이다.
재기(齋記)를 적어서 세인(世人)의 의혹을 깨뜨리노라.

을유(乙酉)·一九四五)년 증춘(仲春) 하한(下澣)에 주인 함은이는 기록하노라.

講會序

契以講會名會英才講古書也自島夷侵凌縫掖之林喪氣落魄會
合猶難又奚暇於講古書乎惟往而必復天道有定亂極思治人心
之所同也去乙酉七月七日島夷撤世則姑未大定而民則有小康
之幸於是村秀才子二十餘人負笈來學咿唔之聲依若前日之絃
誦上天孔仁不欲終喪斯文者歟余謂諸君曰夫君子之學爲能變
化氣質人一能之己百之人十能之己千之擇善固執日夕惕若何患
乎難與適道也惟在諸君用力如何耳乃設旬講一月而三次蓋一
日積而爲旬一旬積而爲三旬三旬則一月也月而復月則年也從

此不撤溫故知新之工必有可觀矣因書講案願與諸君做去無間之工以底于道諸君其勉之哉

강회서

계(契)를 강회(講會)라고 이름한 것은 영재(英才)를 모아 고서(古書)를 가르치는 까닭이다.

섬오랑캐가 침략함으로부터 도포(道袍) 입은 선비들이 기개를 잃고 넋을 잃어 회합하는 것도 어려우니 또 어느 겨를에 고서(古書)를 강(講)할 수 있었겠는가?

오직 가면 반드시 돌아오는 천도(天道)의 정해진 이치가 있고 난(亂)이 극심하면 정치를 생각함은 인심(人心)도 똑같은 바이다. 지난 을유(乙酉:一九四五)년 七月 七일에 섬오랑캐가 물러나니 세상은 아직 크게 안정되지 못했어도 백성은 다행히도 약간 편안해졌다. 이에 마을의 수제자(秀弟子)를 二十여인이 책을 짚어지고 왔다. 들리는 소리가 마치 지난날의 들리는 소리와 「현송(絃誦)하던 것과」 같았으니 상천이 심히 어질어 끝내 사문(斯文·儒學)을 잃지 않으리라 하심인가?

내 제군(諸君)들에게 이르노니 무릇 군자(君子)의 학문이란 능히 기질(氣質)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니 남이 한가지 능하거든 자기는 백가지를 능해야 하고 남이

열가지 능하거든 자기는 천가지를 능해야 한다. 선(善)을 가려 고집하여 밤낮으로 두렵게 생각하면 어찌 근심하겠는가? 어려움이 곧 도(道)에 가는 것이니 오직 제군(諸君)들이 힘쓰는 것이 어느 정도냐에 달려 있음을 뿐이다.

이에 순강(旬講)을 개설하여 한달에 세차례씩 강(講)하겠다. 대체로 하루가 쌓여서 열흘이 되고 열흘이 쌓여서三十일이 되니三十일이 곧 한달이다. 한달에 다시 한달이一年이니대로 그치지 않으면 온고지신(溫故知新)의 공부(工夫)가 반드시 볼만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강안(講案)을 쓰노라.

원컨대 제군(諸君)들과 더불어 설새없이 공부를 하여서 도(道)에 이르고 싶으니 제구들이 그야말로 힘쓸지이다.

採山齋示學生文

井條約

今諸生之從余於荒山寂寞之濱相守枯淡者其意居何豈不以學文一事乎所謂學問者學爲人之道也而古昔聖賢千言萬語中曰孝悌忠信曰仁義道德曰敬曰誠云云者布在方冊皆說與後人爲人之道者也今諸生講習之矣可無待乎余之說余亦可以無贅說

矣惟恐諸生之立志或有所不堅踐履或有所未篤故茲手鈔朱夫子滄洲精舍諭學者前後二文貼付于齋之壁繼之爲書齋規約幾條以付于下願諸生朝夕視爲警各自惕念以資躬踐實行之地庶免捕風捉月之歸矣

規約

一、凡吾齋同硯者要立志鞏固毋或爲時俗污中途自廢事

二、凡讀書要體驗于身躬踐于行毋使書自書我自我諸生自今日當刻意力行自愛親敬長隆師親友及灑掃應對一切行小學書自居以小學童子以備他日大學工夫之基礎事

三、諸生各自一日行一善決意假使今日決行不妄言明日決行不妄戲如此積日以日日遷善作之不止以至久久成性事

四、寫字及作文亦儒者不可廢之一事則諸生自今日一定課程日時每日朝午飯後寫字畧一時間每一日間作詩一首每五

月間作文一首嚴立課程無違遵行事

五、諸生中或有鬪爭及遊戲等事妨於修業者則相規以善道至再至三而猶不悛則不容貸黜學事

六、上記規約格別嚴守事

채산재시학생문 井條約

오늘날 제생(諸生)들이 거친산 적막한 물가에서 나를 따라서로 고담(枯淡)을 지키는 것은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오로지 글을 배우려는 한가지 일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른바 학문(學問)이란 사람이 되는 도(道)를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옛 성현(聖賢)의 천마디 만마디의 말씀에 「효제충신(孝悌忠信)」이니 「인의도덕(仁義道德)」이니 「경(敬)」이니 「성(誠)」이니 말한 것들이 여러 서적에 실려있다. 모두가 후인(後人)들에게 사랑되는 도(道)를 말해주는 것이다.

오늘날 제생들은 그것들 강습(講習)했으니 어찌 내말을 믿지 않으리요. 나 또한 쓸데없는 말을 덧붙이지 않으리라.

오직 제생(諸生)들의 입지(立志)가 혹 견고하지 못한바가 있을까 실천함이 혹 돈독하지 못한바가 있을까 두려워서 이에 손수 주자(朱子)가 창주정사(滄洲精舍)에서

학자(學者)들일 깨우쳤던 저후(前後) 두 문첩(文貼)을 배껴서 재(齋)의 벽(壁)에 붙이고 이어서 재(齋)의 규약(規約) 몇가지를 써서 아래에 붙이노라.

원컨데 제생(諸生)들은 아침저녁으로 보고 경계를 삼아 각자 생각을 두렵게 하여 몸소 실천하고 실행하는 바탕으로 삼는다면 바람과 달을 거머잡고 돌아오는 보람이 라 할수 있으리라.

규약

一、무릇 나의 재산재에서 함께 공부하는 자들은 반드시 뜻을 공고히 세울 것이며 후시라도 시속(時俗)의 더러움 때문에 중도(中途)에서 자폐(自廢)하는 일이 없도록 할것.

二、무릇 독서는 요컨대 몸으로 체험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니 책은 책대로 나는 나대로가 되지 않도록 하라. 제생들은 누날부터 마땅히 마음에 새기고 힘써 행하여 스스로 부모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스승을 존경하고 벗에게 친히 하라. 그리고 청소하고 응대(應對)하는 일체를 소학(小學)대로 행할 것이며 소학(小學) 배우는 동자(童子)로써 자처하여 다음날 대학(大學) 공부의 기초가 되도록 준비 할것.

三、제생들은 각자 하루에 한가지씩 선(善)을 행할것을 결의(決意)하라 가령 오늘 은 망녕된 말들 하지 않을것을 결행(決行)하고 내일은 망녕된 장난들 하지 않을

것을 결행(決行)하라. 이런 날이 날마다 거듭됨으로써 선행(善行)이 그치지 않고 쌓이므로 해서 영원한 품성(品性)이 이루어 지도록 할것.

四、글자를 베끼고 글을 짓는 것은 또한 선비로서 폐할 수 없는 일종의 한가지이니 제생들은 어느부터 적당한 과정보(課程)을 정하여 매일 아침밥과 점심밥을 먹은 후에 글자 베끼기를 대략 한시간 매일 하루중에 시(詩)를 한수 짓고 五일 간격으로 글(文)을 한수 짓는다. 엄격하게 과정보를 세워 놓고 어김없이 수행할것.

五、제생중에 후 싸우거나 장난치는 등의 일이 있어서 수업에 방해하는 자는 타이르되 두번에 이르고 세번째 이르러도 잡히지 않으면 용서없이 내쫓을 것.

六、위에 기록한 규약(規約)을 각별히 엄수할 것.

戒晝寢學徒文

人之元氣內虛則外邪橫侵次第事也故易曰天行而健君子以之自疆不息太公曰無事燃燈寢睡爲三盜晝眠懶起爲八盜大抵心無所主則懶散自隨便成痼疾雖有良劑神藥難可醫治古語云夙興夜寐所思忠孝者人不知而天必知報之以福飽食暖衣尸居懶

慵者身雖安而天必知報之以禍惟願諸君收其放心讀其經傳則外邪以退福善自臻矣然則豈非覺今是而昨非耶景行錄曰木有所養則根枝必茂終成棟樑之材水有所養則泉源壯大終成灌溉之利其為水木之頑猶然况人為物之最靈者乎篤學勤攷則志器遠大識見高明終成君子虛費居諸不立課程則懶散自隨氣質難變所見茫昧終為頑愚矣昔宰予晝寢子曰朽木不可彫也糞土之墻不可污也可不戒哉然則夙興夜寢孳孳為善豈不是至誠無息之學也歟

계주침학도모근

사람의 원기가 안이 허하면 밖의 사악한 기운이 침입하는 것은 차례대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역(周易)에 이르길 하늘의 가는길이 천장하면 구자가 하는 일에 스스로 힘쓰길 쉬지 안하는다고 하였고 강대공이 말하길 무사(無事: 일 없는 것) 연노(燃燈: 연등불이) 침수(寢睡: 잠자는 것)를 세 도득이라 하였고 낮잠을 자며 일어나길 싫어 하

는것은 여덟 도둑이 된다 하였으니 대저 마음에 주장하는 것이 없으면 게을러지고 정신이 흐려지는 것이 자연히 따라와 문득 몸쓸병이 생기는 것이니 비록 좋은 약제나 신약이 있다해도 치료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옛말에 이르길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면서 충효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이 반드시 알아서 복으로써 갚아주고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을 입으며 우두커니 살면서 게으른 자는 몸은 비록 편안하지만 하늘이 반드시 알아서 화로써 갚는 것이니 오직 원컨데 제구들인 그 흠어진 마음을 수렴하고 경전(經傳)을 읽으면 밖의 사악한 기운은 물러가고 복과 선(善)만이 스스로 이르리라. 그런즉 어찌 지금이 옳고 어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랴!

경행록(景行錄)에 이르길 나무란 잘 길러주는이가 있으면 뿌리와 가지가 무성하여 종당엔 기둥이나 들보의 제목이 되고 물도 잘 길러주면 물줄기가 씩씩하고 커져서 마침내 물을 대어 농사 짓는데 유리할 수 있으니 물과 나무처럼 완고한 것도 오히려 그렇거든 하물며 사람처럼 만물중에 가장 실령스러운것이 되었음이야 독실하게 배우고 부지런하게 하면 뜻과 그릇이 원대 해지고 아는것과 보는것이 높고 밝아 마침내 군자가 될 것인데 헛되게 살며 그날 그날 행할 과정을 세우지 않으면 게으르고 흠어지는 마음이 스스로 따라와 기질(氣質)을 변하기가 어렵고 보는것이 어두워 끝내 어리석은 사람이 될것이다.

옛날 재여(宰予·공자의 제자)가 낮잠을 자거늘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길 씩씩은 나무는

가히 조각할 수 없다고 썩은 흙의 담장은 가히 쇠손질을 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가히
경계치 않으리라! 그런즉 일찍 일어나고 밤들거든 자며 부지런히 착한일을 하는 것이
어찌 지극한 정성이 심이 없는 학문이 아니겠는가!

示齋中學徒文

紫陽夫子曰天以陰陽五行化生萬物氣以成形而理亦賦焉盖物
有變化人有賢愚人於其間受天地之氣氣稟不齊或賢或愚又有
過不及之弊是亦理固然也王制曰愚者得書而賢賢者得書而利
大抵人之爲人莫善於學學而成器亦莫善於質質乃玉之璞也器
乃璞之玉也爲璞而不琢則棄玉也爲玉而不磨則棄器也豈玉然
也人之學文亦然人而不學則無以爲人故禮記曰玉不琢不成器
人不學不知義夫人之學問而知道即玉之琢磨而成器也然則學
問乃成人之錘鑿講習乃研精之沙石也諸君素以璞玉之質幾造
乎裁琢之域而方營研精如此做去則去不器不遠矣可畏且敬然

夫何今日天篤降災舉中國而夷之驅人類而獸之體髮冠裳非復
我先王之舊則豈不誠痛哭寒心哉然而行己行心可期淳朴待人
接物德量含洪焉則孰不謂讀書之力乎讀書起家之本循理保家
之本勤儉治家之本和順齊家之本也此四本字真是自成之樞機
也惟願諸君子以四本字爲一心準的着力變遷工夫則豈非自疆
不息君子歟

시재증학도문

자양(紫陽) 주자(朱子)께서 말씀하시길 「하늘이 음양(陰陽) 오행(五行)으로 만
물(萬物)을 화생(化生)시키고 기(氣)로써 모양을 이루고 이(理) 또한 부여(賦與)
했다.」라고 했다.

모든 물건의 변화가 있고 사람은 어짐과 우매함이 있다. 사람이 그 사이에서 천지
의 기운을 받았으나 기품(氣稟)이 똑같지 않아 혹은 어리석고 또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폐단이 있으니 이것이 또한 정해진 자연의 이법인 것이다. 왕제(王制)에 이
르길 「어리석은 자는 책을 얻어서 어질어지고 어진 자는 책을 얻어서 이로우 된다.」

라고 했다. 대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배움보다 좋은 것이 없고 배워야만 성공한다. 그릇은 또한 바탕보다 좋은 것이 없으니 바탕은 바로 옥(玉)을 가다듬이며 그릇은 가다듬은 옥(玉)이다.

박(璞)인데 쪼이지 않으면 옥(玉)을 버리는 것이요 옥(玉)인데 갈지 않으면 그릇을 버리는 것이다. 어찌 옥(玉)만이 그러하겠는가? 사람이 글을 배우는 것도 또한 그러하니 사람으로써 배우지 않으면 사람다움이 없다.

그러므로 예기(禮記)에 이르길 「옥(玉)은 쪼이지 않으면 그릇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의(義)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 무릇 사람이 학문(學問)하여 도(道)를 아는 것이 곧 옥(玉)이 탁마되어 그릇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문이 바로 사람만드는 퇴찰(鈍鑿)이며 강습(講習)이 바로 연정(研精)하는 사석(沙石)이다. ····· 제군(諸君)들은 평소 박옥(璞玉)의 바탕으로 가다듬어야 한다. 바야흐로 경영하고 갈아 정밀함이 이갈지 않으면 갈수록 머지않아 불기(不器)가 되어가리니 두려워하고 경건해야 할 것이다.

무릇 어찌서 오늘날 하늘이 두터이 재앙을 내리고 온 나라를 오랑캐로 만들며 인류를 몰아다 짐승으로 만드는가? 체발(體髮)과 의관(衣冠)이 다시 우리 선왕(先王)의 옛것이 아니니 어찌 참으로 통곡하고 한심스럽지 않겠는가?

그러나 몸을 행하고 마음을 행하는데 순박(淳朴)함을 기대할 수 있고 사람을 대하

고 불거음을 접하는데 도덕과 사려(思慮)가 넓다면 누가 독서의 힘이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독서(讀書)는 집안(家)을 일으키는 근본이며 순리(順理)는 집안(家)을 보호하는 근본이며 근검(勤儉)은 집안(家)을 다스리는 근본이며 화순(和順)은 집안(家)을 가지런히 하는 근본이다. 이 네가지 근본(本)이란 글자는 진실로 자기성장(自成)의 기틀(樞機)이다.

오직 원컨대 제군자(諸君子)들은 이 네가지 근본(本)이란 글자로써 한 마음의 표주로 삼아 변천하는 공부에 힘을 쓰다면 어찌 자강불식(自強不息)하는 군자(君子)가 아니겠는가?

示舍弟勸學文

余讀書以來人之出處大槩點檢則人之爲人都由學問不學則未免牛襟馬裾而與草木同齊不能充萬物中最靈之稟賦也故孟子曰逸居而無教則近於禽獸又曰人不學不知道又曰人而無耻非人也大抵無學問而不知耻則雖有動作飲食則禽獸之蠢木石之頑也孰謂人孰謂人哉噫近世學者爲物欲所蔽血氣之所使與人

爭也彼與彼年相若也道相似也至詐至譎千態萬狀者或持美妙之物相換相戲終境覺悟利害得失以臆駢顏或疎或倍竟失平日相親之誼豈不惜哉余平日所恨者吾家以湖南舊閥零替於百年之間者豈不令人可愧也汝之童年亦是走駒之過隙也收千里之放心讀萬古之傳史則庶免馬牛之襟草木之歸必將至玉顏女千鍾祿之大慶矣幸勿浪遊誦詩成學掘井及泉更振古家聲豈不徽且美哉大禹聖人猶惜寸陰至於衆人當惜分陰豈不是學者服膺不舍之訓耶勉之勉之

시사제권학부

내가 글을 읽은 이후로 사람이 출세하는 큰 줄기를 점점 해본즉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것은 모두 학부으로 연유한 것이니 배우지 않으면 소(牛襟)나 말(馬裾)을 면하지 못하고 초복과 더불어 도류가 되어 만물중에 가장 실령스러운 품성의 바탕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시길 안일하게 살면

서 가르치지 아니하면 금수에 가깝다 하였고 또 이르시길 배우지 않으면 도(道)를 알지 못한다 하였고 또 이르시길 사람되어 부끄러워 함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였으니 대저 학문이 없고 부끄러워 할 줄 모른다면 비록 음직이고 마시며 먹음이 있을지라도 새나 짐승이 나무나 돌에서만 꿈틀거리는 어리석음 같으니 누가 사람이 라 이르며 누가 사람이 라고 할 것인가 !

아(슬프도다 요즘 학자들이 물욕에만 눈이 가리워지고 혈기를 부리는 것은 사람 과 다투는 것 뿐이다. 저 사람과 저 사람이 나아가 서로 갈고 도(道)가 서로 갈을지 라도 거짓과 속임에 이르러는 천대만상인 사람들이 후 미묘한 물건을 가지고 서로 교환하고 서로 희롱하다가 종당엔 이해득실(利害得失)만을 각오하고 언척으로 얼굴 을 밝히며 후(후)인 소원해지고 후(후)인 배신하여 마침내 평소에 서로 친하게 지낸던 우 의 를 잃게 되니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

내가 평소 한탄스러워 한 것은 우리 가문의 후남의 오랜 문벌이지만 백여년간 구차 하게 살아온 것에 대하여 어찌 사람으로서 가히 부끄럽지 않았겠는가. 네의 어린나 이 도 역시 달리는 말처럼 세월이 지나가는 것이니 천리나 훌어진 마음일 거두고 오랜 옛날부터 전해오는 역사서를 읽으면 거의 말이나 소의 옷깃과 초목으로 돌아가는 것 을 면하고 반드시 장차 어여쁜 여자를 얻고 천종의 봉록을 받들 큰 경사가 이를 것 이니 행여라도 헛되이 놀지 말고 시를 의우고 학문을 성취하길 삼삼할 때 삼삼이 나

오도록 파는것 같아 하여 다시 오랜 가문의 명성을 떨치다면 어찌 아름다우나 또 아
름답지 않겠구나。

우(禹) 임금과 그의 성인도 오히려 초음(寸陰)을 아끼셨거늘 보통 사람들이야!

마땅히 분음(分陰)을 아껴야 한다는 것이 어찌 배우는 사람이 가슴에 담고 놓아 버
리지 않아야 할 교훈이 아니라 힘쓰고 힘써라。

戒兒姪輩文

子夏曰事君能致其身事父母能竭其力與朋友交言而有信雖曰
未學吾必謂之學也大抵忠於其君孝於其親信於其朋友此三件
事是爲讀書之大旨而行事之大節也於斯三者反求諸己事君以
若伯夷程嬰自期事親以效大舜曾子自待交友必以管鮑元白自
守方寸之間念念做去則孰不謂大人之學也夫鳥獸微物也烏有
反哺鳳有信心麟有忠直可以人兮不如鳥獸乎近世頽靡成風耽
嗜麪藥以啣盃爲高致坐於街店以愛少艾終日戲談而不知國事
之如何又不顧父母之養且交友之際親遠疎近與雜類輩相戲談

弄說或爭鬪敗倫短杖窄衣周行大路不務農蠶又不學經傳其堂
上膝下之飢寒以尋常看過惜哉爾等體父母愛子之心以忠孝信
三字爲家庭之規爲一心之準的無至以險入奢則豈不是無忝厥
生者乎

계아질배분

자하(子夏) 공자의 제자(子夏)가 말하기를 임금(임금)을 섬김(事君) 제 능히 그 몸을 다하고 부모를 섬김(事親) 제 능히 그 힘을 다하고 벗(朋友) 들을 사귄(交) 제 말한 것이 믿음(信)이 있으면 비록 배우지 않았(未嘗) 다 할 지라도 나는 반드시 배운 사람이라고 하겠다고 하였으니 대저 그 임금에게 충성(忠)하고 그 어버이에게 효도(孝)하고 그 벗에게 시용(用)이 있어야 하는 이 세가지 일은 그를 이런 큰 뜻(大志)이요 일을 행하는 큰 마다가 되는 것이다. 이 세가지를 내 몸에서 구해 보자. 임금(君) 을 섬김(事君)에 백이(伯夷) (은나라 충신), 정영(程嬰) (옛날 충신) (갈이 할 것을 스스로 기약하고 어 버이를 섬김에) 순임금과 증자(曾子) (공자의 제자) (를 본받을 것을 스스로 기대하고 벗을 사귄 반드시 관포(管鮑) (관仲과 鮑叔 (증자 (증추시대 齊나라의 정치가로 가장 친한 사람) (원백(元白)의 마음을 스스로 지켰는가) 마음속에 가절(加切)한 생각으로 행해간다면 누가 큰 사람의 학 문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새나 짐승은 미천한 동물이지만 가마귀는 도로 먹이는 효심이 있고 봉은 민는 마음
 이 있고 기린은 충성스럽고 정직함이 있는데 사람되어 새나 짐승만 같지 못할 것
 이다. 요즘에 교화가 무너져 풍성을 이루지 못하고 곡자의 읊이나 즐기는데 빠져 술
 을 마시는 것으로 고상한 운치로 삼고 주점에 앉아 접은 계집이나 사랑하며 종일토
 록 희롱하는 말이나 하면서 나라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지 못하고 또 부모 봉양
 하는 것도 돌아보지 않으며 또 벗을 사귀는데도 친하고 멀며 서끌고 가까운간에 잡
 류의 무리들과 서로 희롱하고 농담하면서 혹은 다투고 폐륜하고 단장과 좁은 옷으로
 큰 기린을 돌아 다니며 농사 짓고 누에 치는데 힘쓰지 않고 또 경전(經傳)도 배우지 않
 으며 그 부모나 자식들이 굶주리고 추워하는 것도 보통으로 보아 넘기니 애석하도
 다. 너희들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체 받아 충과 효와 신의 세 글자로 가정
 의 규약으로 삼고 한 마음의 표적으로 삼아 음흉하게 사치스런데 들어가지 않으면
 어찌 이것이 그 삼삼을 욱되게 함이 없지 않으랴。

布告諸君子文

經曰身體髮膚受之父母不敢毀傷孝之始也蓋以身爲親枝故喪
 其身便是喪其親也人之百體惟髮在上爲最貴重於威儀風表故

古昔聖人教之以簪笄巾纓冠帽冕璫之飾其愛而重之之節次則自兒生三日而洗沐三月而髦以至二十而總髮爲髻加之以冠也其冠祝曰棄而幼志順而成德眉壽萬年黃耇無疆其敬且重有如此近世學者有忽於此而變於夷狄之俗背先王之法違父母之訓一朝髡薙不以爲恠可爲寒心惟願諸君子遵先王之法從父母之訓毋敢自恣髡剃爲五尺之童所笑焉夫髮與齒俱是身軀之敷榮於外者而人之將老或有齒落則拾之盛囊及其送終之日置之棺柩之中且以香水洗其頭髮以梳世塵皆由情禮也所謂禮出於情情出於禮此也然則諸君子爲孝子乎爲忠臣乎爲賊子乎爲亂臣乎爲夷狄乎爲君子乎諸君子其必有以知所擇處矣

프고제군자분

경서(經書)에 이르길 몸과 머리털과 살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헐거나 상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고 하였다. 대개 몸은 어버이의 가지가 되는고로 그 몸을

상하면 그것이 어버이를 상하는 것이다. 사람의 백가지로 나누어지는 몸통이 중에서 오직 머리칼이 위에 있어 가장 귀한 것이 되고 위와 품모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옛날 성인이 비녀꽂는 것과 두건과 갓이며 관을 닦는 모자며 면류(冕旒: 면류관 또 구슬로 꿰 갓끈)를 장식하는 것을 가르친 것은 그 사랑하고 존중하게 여긴 절차이니 즉 아이가 낳은지 삼일이면 목욕시키고 석달이 되면 더번머리로 머리를 따고 二十에 이르르면 머리를 묶어 상투를 만들고 갓을 쓰게 하였는데 관례(冠禮)의 측면에 이르길 어렸던 뜻을 버리고 순하게 더을 이루고는 성인이 길어지도록 오래 살며 늙도록 건강하라고 하였으니 그 고경스럽고 존중함이 이와 같는데 근세의 학자들이 이것에 소홀하여 오랑캐의 풍속으로 변하여 선왕(先王)의 법을 배반하고 부모의 가르침을 어겨 하루아침에 머리를 깎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으니 가히 한심스러운 일이다.

오직 원하옵건데 제군자(諸君子)는 선왕의 법을 준수하고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감히 자발적으로 머리를 깎아서 어린아이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대개 머리칼과 이빨은 다 신체의 활짝 핀 꽃같은 것이다. 사람이 늙어서 후 이빨이 빠지면 주어서 주머니에 담았다가 죽을 때에 관속에 놓아두고 또 향수로 그 두발(頭髮)을 닦아서 세샴티끌을 씻는 것이니 다 정과 예로 연유한 것이다. 이른바 예는 정에서 나오고 정은 예에서 나온다는 것이 이것이다. 그런즉 제군자(諸君子)는 효자가 되려는가, 충신이 되려는가, 도적이 되려는가, 나쁜 신하가 되려는가, 오랑캐가 되려는가, 구자가 되려는가, 제군자는 반드시 가려서 처신할 바를 알 것이다.

代人請捐助書齋重修文

某等敬告于僉尊座下伏以

夏曰校殷曰庠每仰先聖之駿業 道德
州有序家有塾願增今日之鴻猷 人材

門基 府庫

况我

東方君子之國 南州高士之學

絳帳霄懸西河教於處處 青襟日聚北海風於家家

士夫之冀北 文章之隴西

嗟呼鄙等

僻在背山之隅 難免面墻之責

摠是菽麥之不辨 何況魚魯之可識

馬牛襟裾 犬豚族類

顧念

才或天生 教亦地醜

啓蒙以養正學必升堂 迎師以導功誨可入室

可使日月就將 宜如金玉磨琢

然而 廢此教 頽彼學

授之方 習之所

朝難詠暮難吟 春何絃夏何誦

更發謀議 將欲嗣葺

瞻彼白屋難辨役人之糧 束此亦手何圖匠氏之價

何幸我僉君子

手多濶狹 足可救助

馬君之殖財散親舊而振施 杜老之廣廈庇寒士而俱歡

分千樹一 減四海一

葉之影便成濃陰 勺之水可作濶波

伏望

細察窮巷之事勢 庶嘉幼學之衷情

銅為恩穀為恩可觀重 多亦惠寡亦惠足需雲

欄之期 上棟下宇快得大壯之卦 然則 曰師曰弟豈無育英之樂
時之用 殖庭覺楹喜頌斯干之詩 自南自北將有培根之教

學小學大之童遊必有方 扶助之恩皆可服膺 茲以 冒廉仰懇
舞勺舞象之兒趨向得所 勸獎之澤莫不銘心 拔例俯恕

請嘗試庶幾 顧力行何如

대이청연서재증수문

모(某)등이 여러 높은신 부들에게 공경하게 고하나이다. 이르러 아뢰건데 하(夏:

우)禹)의 명명이 세운 최고의 왕조(殷)에서는 교(校)라 하고 은(殷: 하나라 다음의 왕조)에서는 상(庠)이

라 했는데 매양 성인들의 높은 언택을 숭앙했고, 주(州)에는 서(序)가 있고 집에는

숙(塾)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큰 계획이 불어나게 되길 원함이다. 도덕에 들어가는

문의 터요 인재를 기르는 창고였다. 하물며 우리는 동방 군자의 나라요 남쪽땅 높은

선비의 학문이다. 스승자리 높이 서하(西河)에 달고 곳곳에서 가르치니 학생들 날로

북해(北海)에 모여 집집마다 풍성이라. 사대부의 기북(冀北)이요 문장의 롱서(隴

西)다. 아슬슬프다 저희들이 편벽되게 산을 짙어진 모퉁이에 있어 무식한 책임임을

면하기 어렵다. 모두가 콩과 보리를 분간하지 못하니 어찌 어(魚)자와 노(魯)자를

알것인가, 말이 나 소가 옷을 입고 개나 돼지의 무리다. 돌아보고 생각컨데 재주는 후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도 하지만 가르치는 것은 또한 후천적인 것이다. 계몽하여 바른
 학문을 가르치면 반드시 승당(升堂) ··· 학문의 깊이가 당해 으뜸 하고 스스로를 맞이하여 공도린 가
 르침이므로 인도하면 가히 입실(入室) ··· 학문의 심오하여 방외 들이오는 경지에 이름 할 것이다. 가히
 날과 달로 나아가고 마땅히 쇠와 옥을 같고 조으리라. 그렇지만 이러한 고수의 방법
 을 폐지하고 저렇듯이 학습할 장소를 무너뜨린다면 아침에 읍이 어렵고 저물어 읍
 기도 어려워며 봄엔 어디에서 읍을 읽고 여름엔 어디에서 읍을 외우리. 다시 모의할
 것을 발의하여 이집을 수리코자 하나 저 가난한 집들을 보니 일하는 사람들의 식량
 을 갖추기가 어렵고 여기 맨손으로 묵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묵고 그들의 품속을 만
 들겠는가 어떨거나 다행하게도 우리의 여러 구자들이 손을 많이 활협(濶狹) ··· 넓음과 좁음
 (하고 발음이 가히 구조(救助) 할만 하다. 마군(馬君) 이 키은 재산은 친구들에게 나누
 어 주어 은혜를 베풀었고 두로(杜老)의 집은 추간 선비들을 의지케 하여 함께
 즐겼다. 천나무에서 나누어진 한의의 그림자로도 우거진 노인들이 이루고 사방의 바다
 에서 떨어진 한자의 물로도 눈멀은 사람들을 만든다. 얻드려 바라건대 구급한 마일의 형
 편을 자세하게 살피고 어린 학도들의 충성을 가상의 여여 동(銅)도 은혜로운 소식도
 은혜라. 가히 무진한 난간의 기약을 보겠고 많은 은혜로운 해라 주히 비올
 때의 쓰임으로 수용될 것이다. 마룻대를 올리고 서까래를 엮으니 쾌히 대장(大壯) ··· 육

심사과외 하나인데 완성함을 뜻함)의 과를 얻었고 뜰에 심어 서까래 될것을 깨달으니 기쁘게
사간(斯干...시경 사간장)의 시를 칭송하네. 그런즉 스승과 제자가 어찌 육영하는 즐거움
이 없겠는가. 남쪽과 북쪽에선 장차 뿌리 북돋우는 가르침이 있으리라. 소학을 배우
고 대학을 배운 어린이들이 놀때에 반드시 방소가 있고 작(勺)으로 찹추고 상(象)
으로 찹추는 아이들의 앞으로 향해갈 곁을 얻으리라. 부조를 한은혜는 다 가슴속에
안고 권장한 덕택은 명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써 염치를 무릅쓰고 우러러 간청하
오니 특별히 사랑하시옵소서. 청컨대 시도해 보시길 바라오니 행함이 어떨것인가.

修身要語

(心性言行)

○心

心爲一身之主宰萬事之本領也

養其身不如養其心養其心不如養其善也

參爲三才曰惟心矣

朱子求放心齋銘曰防微謹獨茲守之常仁何不在於心心何不在
於仁也

心不放則是持敬之法也

靜則得專一煩則得淆雜學者之着力只在於一心之靜也

收其放心讀其經傳能用力於仁善孝友則修身自在其中矣

心一也有指體而言者有指用而言者

存其心檢其身不可頃刻放捨

心正則如青天白日人得而見之

靜處然後心神收斂心神收斂然後義理自明

靜菴先生曰欲治心病不待他求只就平平存在畧畧收拾處能接續用工至於純熟則自然心地虛明不累於事物也能如是則修身
上真適要也

수신요어 (심성언행)

○ 3

마음의 하품의 주재 (主宰)요 만사 (萬事)의 본령 (本領)이다.

그 마음을 기르는 것이 그 마음을 기르는 것만 못하고 그 마음을 기르는 것이 그 선(善)을 기르는 것만 못하다. 참여하여 삼재(三才)가 되는것을 「오직 마음」이라 한다.

주자(朱子)의 구방심재명(求放心齋銘)에 이르길 「작은 일을 막고 홀로 이섯을 때를 삼가는 것이 이것이 지키는 땀땀함이니 인(仁)이 어찌 마음에 있지 아니하며 마음이 어찌 인(仁)에 있지 아니하겠는가?」고 했다.

마음을 멋대로 하지않는 것이 곧 지경(持敬)하는 법이다.

고요하면 전일(專一)할 것이고 번거로우면 효잡(淆雜)할 것이니 학자(學者)들이 힘쓸곳이 단지 한 마음의 고요함에 있다.

그 방심(放心)을 거두고 그 경전(經傳)을 읽어서 인(仁) 선(善) 효(孝) 우(友)에 힘쓰면 수신(修身)이 저절로 그 가운데 있으리라.

마음은 하나인데 체(體)를 가르켜서 말하는 자도 있고 용(用)을 가르켜서 말하는 자가 있다. 그 마음을 보존하고 그몸을 단속하여 잠깐이라도 멋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마음이 따르면 푸른 하늘의 밝은 해와 같아서 사람들이 볼수가 있다.

거처(居處)를 고요히 한 연후에 심신(心身)을 거두고 심신(心身)을 거둔 연후에 의리가 절로 밝아진다.

정암(靜菴)선생이 이르길 「마음의 병(病)을 고치고자 한다면 다른데서 구할것을 기다리지 말고 단지 평안하게 존재하고 간략하게 수습하는데 나아가 능한 곳에 처(處)

하여 계속하여 공부(工夫)를 힘쓰면 순숙(純熟)한데 이르면 자연히 심지(心地)가 허명하여 사물에 얽매이지 않음은 것이다.」라고 했으니 능히 이같이 한다면 수신상(修身)에 참으로 요령에 맞을 것이다.

○性

天所賦爲命物所受爲性

衆人與聖人其本性則一也

人皆受天賦之性然氣稟各異或賢或愚賢者養其眞元之氣虛可實而知命愚者未養眞元之氣明亦蔽而不知其命也

人性本善有不可革者何也曰語其性則皆善也語其才則有下愚不移所謂下愚有二焉自暴自棄也

子思曰天命之謂性率性之謂道修道之謂教
固守天性保養元氣矯治客氣則萬善具足矣
天君泰然則事物無私事物無私是性善也

謹獨則善皆從之不謹獨則諸惡皆隨八學者不可不慎也

善者性之本性者心之體心者情之主也情既發則有善有不善矣
人生氣稟有善惡然不是性中元有此兩物相對而生也其自幼而
善自幼而惡是氣稟者然也

只日用動靜無非性之所使也

善固性也然惡亦不可不謂之性也

景行錄曰人性如水水一傾則不可復性一縱則不可反制水者必

以堤防制性者必以禮敬必以禮敬則修身上第一件事也

人性本善無古今智愚之殊也

性出於天才出於氣氣清則才清氣濁則才濁才則有善有不善性
則無不善孟子道性善言必稱堯舜以實之曰人皆可以爲堯舜豈
其欺我哉

하늘이 부여한 바가 명(命)이 되고 물건이 받은 바가 성(性)이 된다. 중인(衆人)과 성인(聖人)도 그 본성(本性)은 한 가지이다.

사람은 모두 하늘이 부여한 성(性)을 받았다. 그러나 기품(氣稟)이 각각 달라서 혹은 어질고 혹은 어리석다. 어진 자는 그 진원(眞元)의 기(氣)를 길러서 허령(虛靈)한 마음을 채워서 명(命)을 알고 어리석은 자는 진원(眞元)의 기(氣)를 기르지 못하여 명덕(明德)을 또한 가려서 그 명(命)을 알지 못한다.

인성(人性)은 본래 선한데 고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성(性)으로 말하면 모두 선하나 그 재질로 말하면 하우(下愚)가 있는 즉 이른바 하우(下愚)를 면하지 못할 것이 두가지가 있으니 자포(自暴)하는 것과 자기(自棄)함이다.」라 말하겠다.

자사(子思)가 이르길 「천명(天命)을 성(性)이라 하고 솔성(率性)을 도(道)라고 하고 수도(修道)를 교(教)라 한다.」고 했다.

글게 천성(天性)을 지키고 원기(元氣)를 보양하고 객기(客氣)를 바로잡아 다스리면 모든 선(善)이 갖추어 너넉하리라.

마음이 너그러우면 사물이 사사로움이 없고 사물이 사사로움이 없는 것이 바로 성(性)이 선한 것이다. 홀로 있을 때를 삼가면 선(善)이 모두 따라오고 홀로 있을 때를 삼가지 않으면 모든 악이 다 따라 들어오니 배우는 자는 삼가지 않으면 안된다.

선(善)이란 성(性)의 그본이요 성(性)은 마음의 체(體)요 심(心)은 정(情)의 주
인이다. 정(情)이 이미 발하면 선(善)도 있고 불선(不善)도 있다.

사람이 타고난 기품(氣稟)엔 선(善)과 악(惡)이 있으나 이 성(性)중에 원래 이
두가지의 물건이 있어서 상대로 생겨 나지는 않았었다. 어려서부터 선(善)하고 어려서
부터 악한 것은 바로 기품(氣稟)이 그러한 것이다. 단지 일상 생활의 동정(動靜)이
성(性)이 무린바가 아님이 없다.

선(善)함이 본디 성(性)이다. 그러나 악(惡)도 또한 성(性)이라 말하지 않음을
없다. 경행록(景行錄)에 이르길 「사람의 성(性)은 물과 같아서 물은 한번 었지르면
돌이킬 수 없듯이 성(性)도 한번 놓아지면 돌이킬 수 없다. 물이란 것은 반드시 두
으로써 막고 성(性)은 반드시 예(禮)으로써 공경히 해야한다.」라고 했으니 반드시 예
(禮)로써 공경히 함이 곧 수신상(修身)의 첫번째 일이다.

사람의 성품은 본래 선하여 고금(古今)과 지우(智愚)의 구별이 없다. 성(性)은
하늘에서 타고났고 재(才)는 기(氣)에서 타고났다. 기(氣)가 맑으면 재(才)가 맑고
기(氣)가 흐리면 재(才)가 흐리다. 재(才)는 선(善)도 있고 불선(不善)도 있으나
성(性)은 불선(不善)이 없다. 맹자(孟子)가 성(性)이 선(善)하다 함을 말하면서 반
드시 요(堯)와 순(舜)이 마음을 일컬어서 실증해 말하길 「사람이 모두 요(堯) 순(舜)
이 될수 있다.」라고 했으니 어찌 우리를 속인 말이겠는가?

○言

人之動其心都因言以宣也

言箴曰人心之動因言以宣發禁躁妄內斯靜專矧是樞機興戒出好吉凶榮辱惟其所召

言不中理則萬事不正所謂一言之失足以敗事也

心定則身修身修自言寡爲始也

言忠信行篤敬安往而不好義哉

夫口舌者禍福之門若遇衆事交至之時尤可慎戒

伊川先生曰人之蘊蓄由學而大在多聞古聖賢之言與行攷蹟以

觀其用察言以求其心識而得之以蓄成其德

雖有儀秦之辯訥於言爲要訣耳

孔子曰君子欲訥於言而敏於行又曰其言似不足者學者着力玩

索究其精奧也

古語曰口是傷人之斧言是割舌之刀大抵言不中理不如無言

明道先生曰修辭立其誠不可不仔細理會言能修省言辭便是要立誠若只是修飾言辭爲心只是爲僞也

言溫而氣和則萬善俱足耳

今人緘口可見慎言之第一急務也

詩曰心之所感有邪正言之所形有是非心收言默則無以殺雜而適於道義言有所失則難乎免於禍患矣

○言

사람이 그 마음을 음직이는 것은 모두가 말로 인해서 나타난다.

언잠(言箴)에 이르길 「인심(人心)의 변동은 말로 인해서 나타난다. 말할때 조금 하고 망념됨을 금(禁)하면 마음이 바로 고요하고 저일(專) 하거늘 하물며 추기(樞機)인 입이 리오? 저재를 일리키고 우호(友好)를 내는 것과 기쁨(吉凶) 영욕(榮辱)이 오직 말이 초래한 바이다.

말이 도리에 맞지 않으면 만사가 부정(不正)하니 이른바 한마디의 실수가 너네히

일을 그르친다. 마음이 안정되면 몸이 닦아지니 몸이 닦아지는 것은 말이 정음으로 부터 시작한다. 말이 충신(忠信)하고 행실이 독경(篤敬)하면 어디를 가든 의(義)를 좋아하지 않겠는가?

무릇 구설(口舌)이란 화복(禍福)의 문이니 만약 많은 일이 교차되는 때를 만나면 더욱 삼가하고 경계해야 한다.

이천(伊川) 선생이 이르길 「사람이 덕(德)을 쌓는 것은 배움으로 말미암아 커지니 옛 성현(聖賢)의 말씀과 행실을 많이 듣는데 있다. 공적(功蹟)을 상고하여 그 쓰임을 보고 말을 살피서 그 마음을 구하여 알아서 자기 덕을 쌓고 이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비록 장의(張儀) 소진(蘇秦) 같은 구변(口辯)이 있다해도 말을 더듬듯이 함이 요결(要訣)이 될 뿐이다.

공자(孔子) 이르시길 「군자(君子)는 말에는 더듬은 듯하고 행동에는 민첩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 이르시길 「그 말이 부족할 듯한 것은 배우는 자가 힘을 써서 곰곰 생각하여 그 정미하고도 오묘함을 연구해서이다.」라고 했다.

고어(古語)에 이르길 「입이 바로 사람을 해치는 도끼요 말이 바로 혀를 찌르는 칼이다.」라고 했으니 대저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하다.

명도(明道) 선생이 이르길 「말을 닦아서 그 성(誠)을 세우는 데는 이회(理會)를

정밀히 하되 말이 능히 닦아지고 생략되지 않으면 안되니 언사(言辭)로 하여금 성(誠)을 세우는 요령이다 만약 단지 언사(言辭)를 수식하는 것만으로 마음을 삼는다면 단지 거짓이 될 뿐이다.」라고 했다.

말이 따뜻하고 기운이 온화하면 모든 선(善)이 갖추어 넉넉하리라. 쇠로 사람을 만들어 입을 봉해 놓았듯이 말을 삼가는 것이 첫번째 급선무임을 가히 볼수 있다.

시(詩)에 이르길 「마음의 느끼는 바에 사정(邪正)이 있고 말의 나란한 바에 시비(是非)가 있으니 마음이 거두어 지고 말이 무뎠어지면 효잡(殺雜)함이 없어서 도의(道義)에 맞을 것이고 말이 실수하는 바가 있으면 화환(禍患)을 벗어나기 어려우리

라.」라고 했다.

○行

夫行者心之所發善是當行之大道惡是崎嶇偏側之歧也

行善者多助行惡者多憎是皆世情也人情然也凡行以孝悌忠信

爲主宰也行之本爲孝故爲仁自孝弟始

行必篤言必忠則仁在其中仁在其中萬善自臻萬善自臻天下之

人心事物都由我而正矣

孟子對齊宣王曰行仁政而王莫之能禦也

人之爲學也趨向正當立志堅確不爲蹊逕所惑然後可充其本然之善矣

敬慎以立其本窮理以明乎善力行以踐其實三者終身事業也

人之所期不可不遠且大然行之亦須量力有漸志大心勞力小任重恐終敗事

修身之道非他存其心養其性慎其言篤其行於斯四者能着力用功於修身乎何有陽明勝則德性用陰濁勝則物欲行

或問於余曰修身之法在乎正心乎曰然正心之要在何曰靜定

退溪先生曰靜處專一非難鬧處專一爲難非徒心性言行處事理會上皆亦然也

存養其心理會其性以忠其言以敬爲行

○行

무릇 행동이란 마음이 발한 바이니 선(善)이 바로 마땅히 행해야 할 대도(大道)

요악(惡)이 바로 기구(崎嶇)하고도 편측(偏側)한 갈래 길이다.

선을 행하는 자는 도음이 많고 악을 행하는 자는 미움이 많으니 이것이 모두 세정(世情)이요 인정(人情)인 듯하다. 무릇 행실은 효(孝) 제(悌) 충(忠) 신(信)으로써 주재(主宰)를 삼아야 한다.

행실의 근본은 효(孝)가 되기 때문에 인(仁)을 하는데는 효제(孝悌)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행실이 반드시 두렵고 말이 반드시 충성스러우면 인(仁)이 그 가운데 있다. 인(仁)이 그 가운데 있으면 모든 선(善)이 절로 다하고 모든 선(善)이 절로 다하면 천하의 인심(人心)과 사물(事物)이 모두 나로부터 바르게 되리다.

맹자(孟子)가 제의 선왕(齊宣王)에게 대답해 이르길 「인정(仁政)을 행하시면 천하(天下)에 왕노릇함을 능히 막지 못합니다.」라고 했다.

사람이 학문을 함에 추향(趨向)이 정당(正當)하고 입지(立志)가 확고하여 좁은 길이라 느끼게 되지 않으면 연후에야 그 본연(本然)의 선(善)을 가득 채울 수 있다. 경신(敬慎)으로 그 근본을 세우고 궁리(窮理)하여 선(善)을 밝히고 역행(力行)하여 그 실지를 실천하는 세가지 것은 평생의 일이다.

사람이 기약하는 바가 원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행노하는 것 또한 모름지기 힘을 헤아려서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 뜻이 커서 마음이 수고롭고 노력이 적으면 짐이 무거우면 끝내 일을 실패할까 두렵다.

수신(修身)의 도(道)는 다름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존하고 그 성(性)을 기르고 그 말을 삼가하고 그 행실을 두렵게 함이니 이 네가지 것에 능히 힘을 쓰고 공(功)을 쓰면 수신(修身)에 대해 무엇이 남아 있으리요.

양(陽)과 명(明)이 이기면 덕성(德性)이 쓰이고 음(陰)과 탁(濁)이 이기면 물욕(物欲)이 행해진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물어 말하길 「수신(修身)하는 법이 마음을 바르게 하는데 있 습니까?」라고 하여 「그렇다 하니」 「마음을 바르게 하는 요령은 어디에 있습니까?」하여 「뜻을 정(定)하고 마음을 고요히 함에 있다」라고 했다.

퇴계(退溪) 선생이 말하길 「고요한 곳에서 전일(專)히 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곳에서 전일하기가 어렵다. 한갓 심성(心性)과 언행(言行)만이 아니라 일 에 처하여 이회(理會)하는 데에도 모두 그러하다.」라고 했다.

그 마음을 보존하여 기르고 그 성(性)을 이회(理會)하여 그 말을 충성스럽게 하 고 고요함으로써 행동해야 한다.

齊家要語

(夫婦夫子兄弟嫡庶)

○夫婦

夫婦人倫之始萬福之源夫和婦順然後萬福至焉

昔者卻缺耨其妻饁之敬相對如賓夫婦之道當如是也

二姓之合所以付遠厚別也無別無義禽獸之道也

夫婦爭鬪之事失禮亂倫也痛哉豈其然乎

或婦有蔑視其夫者焉此非他都忘禮敬遽相親密無所不至故也如是則烏能正其家乎一家之人和雍敦睦則家內多慶偏僻乖戾則禍將立至可不慎哉男子八內不嘯不指女子出門夜行以燭無燭則止

子思曰君子之道造端乎夫婦

夫婦之間相和相敬雖幽暗之中肅容處之則是爲正家之本也
道路男子由右女子由左

承我宗嗣者婦人也

男子親迎男先於女剛柔之義也天先乎地君先乎臣其義一也

居家必用孝友敦睦四字則家室和悅矣

男不言內女不言外男子居外女子居內能各自守其節則福祥自至神人化之矣

夫守其正婦守其順雖家貧屢空諄諄和樂矣

夫敬其身以帥其婦婦敬其身以承其夫內外和順家道正矣

가정에 관련한 말씀

부부(夫婦)는 인륜(人倫)의 시작이요 만복(萬福)의 근원이니 지아비가 온화하고 지어미가 수종한 연후에야 만복(萬福)이 이른다.

옛날에 각결(卻缺)이 김멜적에 그 아내가 들 밥을 내오는데 고영히 상대함의 손님 대접 하듯했다. 부부의 도(道)는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두성(姓)으로 합하는 것은 멀고 가깝과 두터움이 구별이 된다. 구별이 없으니 (義)가 없는 것은 짐수(禽獸)의 도(道)이다.

부부(夫婦)가 싸우는 일은 예(禮)를 잃고 인륜을 어지럽히는 것이니 슬프도다! 어찌 그러해야 하겠는가? 혹 아내가 그 남편을 멸시하는 자가 있는것은 이것이다

름이 아니라 모두가 예경(禮敬)을 잃고 서로 친밀하지 아니함에 이른 까닭이다. 이와 같은 면에서 능히 그 집안을 바르다 할 수 있겠는가?

한 집안의 사람이 화옹(和雍)하고 돈목(敦睦)하면 가내(家內)에 정사가 맑고 편벽(偏辟)하고 괴려(乖戾)하면 화(禍)가 장차 선채로 이를 것이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남자가 내실(內室)에 들어올 때는 휘파람 불지 말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여자가 문을 나설 때 밤길에는 등촉을 쓸 것이며 등촉이 없으면 가지 말아야 한다. 자사(子思)가 이르길 「군자(君子)의 도(道)는 부부에게서 시작된다.」라고 했다.

부부의 사이는 서로 화합하고 서로 공경하되 비록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라도 엄숙한 모습으로 처신한다면 이것이 곧 집을 바르게 할 근본이 된다. 도로(道路)에서 남자는 오른쪽으로 가고 여자는 왼쪽으로 간다.

나의 종사(宗嗣)를 계승해 줄 자가 부인(婦人)이다. 남자가 친히 맞이하여 여자보다 남자를 우선으로 하는 것은 강양(剛柔)의 뜻이다. 하늘이 땅보다 앞서고 임금이 신하보다 앞서는 것과 그 뜻이 한가지이다.

집에서 거(居)할 때 반드시 「효우(孝友) 돈목(敦睦)」 네 글자를 쓴다면 집안이 온화하고 기쁘리라.

남자는 여자를 흥보지 않고 여자는 남편을 말하지 않으며 남자는 밖에 거처하고

여자는 안에 거처하면서 각각 그 절개를 지킨다면 복상(福祥)이 절로 이르고 신(神)과 사람이 화합하리라.

남편이 그 정직함을 지키고 아내가 그 순종함을 지키면 비록 집이 가난하여 자주 굶는다 해도 수순히 화락(和樂)하리라.

지아비가 그 몸을 공경히 하여 그 지어미를 거느리고 아내가 그 몸을 공경히 하여 그 지아비를 받들어 내외가 화순(和順)하면 가도(家道)가 바르게 되리라.

○父子

父子天性之親五倫之首慈孝不已

子事父母鷄初鳴咸盥漱左右佩用適父母之所下氣怡聲問其寒溫疾痛荷癢以敬抑搔之出入則或先或後以敬扶持之

父雖不慈子不可以不孝也

父愛而教之教之以義方子奉而承之孝以養之爲人之道自此始之長幼鷄鳴以起歛枕席灑掃室堂及庭各從其事

若或父陷於不義則和聲以諫諫而不聽則三諫三諫而不聽則號

泣號泣而不聽則反其身而憂孝之不極也

凡爲人子之禮冬溫而夏清昏定而晨省出必告反必面所遊必有方父而不予其子子而不父其父則不可斯須立於世也

父慈子孝易父頑子孝易而難孝子之盡其心於斯可得也

孔子曰父在觀其志父沒觀其行三年無改於父之道可謂孝矣

家有政父爲君子爲臣以義事之以義使之

養親不掩父之過教子不養子之惡

近世爲人子者不順父母忤逆其親至於背親離家如是而正其家乎正其身乎痛哉痛哉

家君即親也親即父母也家君云者即家之君也

詩曰父兮生我母兮鞠我欲報之德昊天罔極又曰哀哀父母生我

劬勞

○父子

부자(父子)는 타고난 친함이며 오륜(五倫)의 첫째이니 자애(慈愛)와 효도가 그치지 않아야 한다.

자식이 부모를 섬길제 첫답이 울거든 모두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죄우에 쓸것을 차고 부모의 침소에 가서 기운을 낮추고 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그 춥고 따뜻한 것을 묻고 가려워 하시거든 굶어 드리고 출입할 때는 후 앞서기도 하고 후 뒷서기도 하여 공경스럽게 돌봐 드린다.

아버지가 비록 자애롭지 못하다 해도 자식은 불효(不孝)해선 안된다.

아버지는 사랑하여 가르치되 의로운 방향으로 가르치고 자식은 받들어 모시되 효도로써 봉양해야 하니 사람이 되는 도(道)가 이로부터 시작한다.

어른과 어린애는 답이 울거든 일어나서 이부자리를 거두고 방과 마루와 뜰을 청소하고 나서 각기 자기 할일에 종사한다.

만약 아버지가 불의(不義)한 데 빠지면 소리를 온화하게 하여 간(諫)하고 간(諫)해도 들어주지 않으면 세번까지 간한다. 세번 간(諫)해도 들어주지 않으면 크게 울고 울어도 들어주지 않으면 자식을 반성하여 효(孝)가 극치하지 못함을 그심해야 한다.

무릇 자식된 자의 예(禮)는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서늘하게 하고 저녁

에는 이부자리를 정해주고 새벽에는 살핀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고(告)하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면대하며 노는 곳은 반드시 정해 두어야 한다.

아버로서 그 자식을 자식 대접하지 않고 아들로써 그 아버지를 아버지 대접하지 않으면 이는 세상에 결코 설 수가 없다.

아버지가 자애로우니 제 자식이 효도함은 쉬우나 아버지가 사나우니 제 자식이 효도함은 쉽고도 어려우니 효자가 그 마음은 다함은 이런 데서다.

공자(孔子) 이르시길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그 뜻을 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행실을 보고 삼년을 아버지(道)를 고치지 말아야 효(孝)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다.

가정에도 정사(政事)가 있다. 아버지는 임금이 되고 아들은 신하가 되니 의(義)로써 섬기고 의(義)로써 부러야 한다.

부모를 봉양함에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두지 말고 자식을 가르침에 아들의 악(惡)을 기르지 말아야 한다.

근세엔 사람의 자식된 자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 부모를 배반하고 집을 떠나서는 지경에 이르니 이와 같으면 그 집을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그 몸을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슬프고 슬프도다.

가군(家君)은 곧 친(親)이며 친(親)은 곧 부모이다. 가군(家君)이라 말하는 것은

근 집안의 인망이기 때문이다.

시(詩)에 이르길 「아버지여!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여! 나를 기르시니 은덕(恩德)을 갚고자 할진데 하늘처럼 끝이 없다.」라고 했다. 또 이르길 「애달파라 부모여! 나를 낳으시고 고생하셨도다.」라고 했다.

○兄弟

兄弟同氣之人當怡怡也

兄之所以爲兄弟之所以爲弟長幼之道備焉

友愛者莫如兄弟也爲兄爲弟何忍不和

兄弟同氣之人骨肉之親不可藏怒宿怨以敗天倫也

近俗兄弟之各居皆由婦人也

余讀張公藝九世同居篇撤讀默念幾至昏晦切歎其能忍於衣服飲食之不均

兄弟同受父母之氣以我一身豈有彼我哉

不愛昆弟者無異於不愛其親者也愛其親則豈不愛其父母之子乎
兄弟有過則當以誠意告諫誠意訓導不陷於不義可也

昔牛弘弟酗射殺兄牛其妻屢言弘誦不休此皆友愛之甚篤也
孟子曰孩提之童無不知愛其親及其長也無不知敬其兄也

○兄弟

형제는 동기(同氣)의 사람이니 마땅히 화복해야만 한다. 형이 형이 되는 까닭과 아
우가 아우가 되는 까닭에서 장유(長幼)의 도(道)가 갖추어 진다.

우애는 형제만한 것이 없거늘 형이 되고 아우가 되어서 어찌 차마 불화하리오.

형제는 동기(同氣)의 사람이며 뼈와 살을 나는 친함이니 분노(忿怒)를 감추고 원
망을 묵혀서 천륜(天倫)을 그르쳐서는 안된다.

그래의 풍속에 형제가 따로사는 것은 모두가 부인(婦人)때문이다.

내가 장공예(張公藝)의 구세동거편(九世同居篇)을 읽고서 읽던 것을 던져두고 가만
히 생각하길 거의 저녁때에까지 이르렀으니 그가의 복과 음식이 규등하지 못함에 대해
잘 참았었던 것을 참으로 감탄해서다.

형제는 똑같이 부모의 기운을 받아서 나와 한 몸이니 어찌 너와 내가 있겠는가?

근 집안의 인연이기 때문이다.

시(詩)에 이르길 「아버지여!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여! 나를 기르시니 은덕(恩德)을 갚고자 할진데 하늘처럼 끝이 없다.」라고 했다. 또 이르길 「애달파라 부모여! 나를 낳으시고 고생하셨도다.」라고 했다.

○兄弟

兄弟同氣之人當怡怡也

兄之所以爲兄弟之所以爲弟長幼之道備焉

友愛者莫如兄弟也爲兄爲弟何忍不和

兄弟同氣之人骨肉之親不可藏怒宿怨以敗天倫也

近俗兄弟之各居皆由婦人也

余讀張公藝九世同居篇撤讀默念幾至昏晦切歎其能忍於衣服飲食之不均

兄弟同受父母之氣以我一身豈有彼我哉

不愛昆弟者無異於不愛其親者也愛其親則豈不愛其父母之子乎
兄弟有過則當以誠意告諫誠意訓導不陷於不義可也

昔牛弘弟酗射殺兄牛其妻屢言弘誦不休此皆友愛之甚篤也
孟子曰孩提之童無不知愛其親及其長也無不知敬其兄也

○兄弟

형제는 동기(同氣)의 사람이니 마땅히 화목해야만 한다. 형이 형이 되는 까닭과 아
우가 아우가 되는 까닭에서 장유(長幼)의 도(道)가 갖추어 진다.

우애는 형제만한 것이 없거늘 형이 되고 아우가 되어서 어찌 차마 불화하리오.

형제는 동기(同氣)의 사람이며 뼈와 살을 나눈 친함이니 분노(忿怒)를 감추고 원
망을 묵혀서 천륜(天倫)을 그르쳐서는 안된다.

그래의 풍속에 형제가 따로사는 것은 모두가 부인(婦人)때문이다.

내가 장공예(張公藝)의 구세동거편(九世同居篇)을 읽고서 읽던 것을 던져두고 가만
히 생각하길 거의 저녁때에까지 이르렀으니 그가 의복과 음식이 균등하지 못함에 대해
잘 참았었던 것을 참으로 감탄해서다.

형제는 똑같이 부모의 기운을 받아서 나와 한 몸이니 어찌 너와 내가 있었는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자는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 부모를 사랑한다면 어찌 그 부모의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겠는가?

형제에게 허물이 있으면 마땅히 성의(誠意)로 고(告)하여 간(諫)하고 성의로 가르치고 인도하여 불의(不義)에 빠지지 않게 함이 옳다.

옛날 우홍(牛弘)의 아우가 술주정으로 형의 소를 쏘아 죽이니 그 처가 자주 말했으니 홍(弘)이 그를 원기를 그치지 않았으니 이것이 모두 우애의 심히 돈독함이다.

맹자(孟子) 이르시길 「어린애도 그 부모를 사랑할 것을 알지 못함이 없고 그가 자라는 데 미쳐서는 그 형을 공경할 것을 알지 못함이 없다.」라고 했다. 子曰 孩提之時

○嫡庶

嫡庶之分殊自古定禮也

正嫡之待庶孽不下於奴隸自古準禮然究其本源則過而甚矣哉

然尊卑有

序則上下和皆由義所在也豈其難乎哉

庶本父母所愛媵妾之子也父母之所愛吾何可賤之乎

家無庶則已有庶則友愛無偏回思父母之心可也夫底友愛深篤則無怨言憎惡滋甚則常怨不已是家之禍也

小星之夫人惠及媵妾而媵妾盡其心江沱之嫡惠不及媵妾而媵妾不怨是皆各盡其道也(小星江沱皆詩名)

能用力於齊家者必先須正心使夫婦父子兄弟嫡庶皆爲和順是爲齊家之要耳

或問於余曰讀書何先曰修身也然則修身何先曰孝悌也又曰齊家何先曰修身孝悌便是爲齊家也曰否在其家人也余曰然則治家人不在乎孝悌修身乎

夫婦和順夫子慈孝兄弟友愛嫡庶主惠皆是齊家之大要也

○嫡庶

적서(嫡庶)의 분수가 다름은 예로부터 정해진 예(禮)이다. 정적(正嫡)이 서얼(庶孽)을 대접함이 노예보다 내리지 않는 것이 예로부터의 준례이다. 그러나 그 본원을 깨보면 지나치고도 심하구나 그러나 존비(尊卑)에도 차례가 있으니 상하(上下)가

화합함이 모두의(義)의 소재(所在)로 말미암이니 어찌 그토록 어렵다 하리오. 서자도 본래 부모가 사랑하는 바의 잉첩(媵妾)의 자식이니 부모가 사랑하는 바를 내가 어찌 천하게 할수 있겠는가?

집에 서자가 없으면 그만이겠지만 있다면 우애함에 편벽됨이 없이 부모의 마음은 돌이켜 생각함이 옳을 지어다.

우애가 심히 돈독하면 원망하는 말이 없을 것이나 증오함이 더욱 심하면 항상 원망이 그치지 않으니 이것이 집안의 재앙이다.

소성(小星)의 부인이 은혜가 잉첩에게 미쳤으나 잉첩이 그 마음을 다하고 강타(江沔)의 적실이 은혜가 잉첩에게 미치지 못했으나 잉첩이 원망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모두 자기 자기의 도의(道義)를 다함이다.

능히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데 힘을쓰는 자는 반드시 마음을 바르게 하여 부부(夫婦) 부자(父子) 형제(兄弟) 적서(嫡庶)로 하여금 모두 화순(和順)하게 해야 하니 이것이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요령이다.

어떤이가 나에게 물어 말하길 「독서엔 무엇을 우선해야 합니까?」하여 「수신(修身)이다」했다. 「그렇다면 수신(修身)에선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하여 「효제(孝悌)이다」했다.

부부가 화순하고 부자(父子)가 자효(慈孝)하고 형제가 우애하고 적서가 은혜를 주로 함이 모두 제가(齊家)의 큰 요령이다.

治政要語

經曰其人存則其政舉其人亡則其政息是以是非善惡皆由我一心而心正則萬事得其正萬事得其平無爲而化治道明矣
濂溪先生曰治天下有本身之謂也治天下有則家之謂也

人君之事天同一父母視民同一兄弟視萬物同一儕輩以充仁義然後能盡其職

誠心而王則王矣假之而霸則霸矣二者之道不同在審其初而已爲政以敬爲主宰

人君之德在於得民心而已如衆星拱北矣
般樂怠敖者亡其國施仁尚德者興其國也
爲政必以唐虞爲期必以桀紂爲戒

正大寬平以絕偏係之私用賢使能不厭逆耳之言則治國其庶乎
自古至今治亂之政在乎遠近小人君子小人專用權柄則其國必

危君子以忠孝事其長上則其國必興萬事萬物皆成也

惟仁君反求諸己不患賢臣之不得也

爲政以仁則惟日不足也

君仁則取其仁善之利不取兵革之利樂其兵革之利則民皆疾怨樂其仁善則民皆仰之堯之民擊壤歌帝力何有於我哉是也

王政純一則民心和悅以民心爲心則治道可成矣

教化行而風俗美故爲政以民力爲重也

人君者一國之元首不可無慎謹勤苦之心也

爲政之要莫大於敬

治國在齊家

國之廢興存亡只在於君臣之賢愚也

孔子曰君使臣以禮臣事君以忠

發政施仁用賢斥邪使民勸農選士勸學則一國晏然一國晏然則

天下平矣。枹朴子曰：迎斧鉞而正諫，據鼎鑊而盡言，豈非捨命效忠耶？君不能盡其道，臣不能盡其職，不可共治天下。國家也不可不各盡其道。孟子曰：仁者無敵，無敵則天下國家之治可運於掌上矣。君仁莫不仁，君義莫不義，天下之治亂繫乎人。君仁與不仁耳。王行仁政，則君子多助，不行仁政，則小人多助。君子多助則其國治，小人多助則其國亂。爲政不可不慎其擇人也。

孟子曰：天時不如地利，地利不如人和。

以義使臣，臣則效死盡忠。

惟仁君能用賢臣，能斥小人。

賢臣滿朝則其國泰，小人滿朝則其國危。

尚德之君視民如赤子，暴怒之君視民如仇讎也。

人主國之綱領，民者國之本也。無人主則無民，無民則無君也。故君以民爲天，民以君爲父母也。

君仁臣直則治君不仁臣不直亂

施仁愛民以義使臣尚德尊賢省其刑罰薄其賦稅信能如是則隣國之民仰之若父母悅之猶解倒懸也是無敵於天下也

爲政能除暴救民則必安其邦也

書曰民惟邦本本固邦寧豐年則充備倉庫府庫飢歲則散而救民然後邦可寧也

征伐之道先視民心也民心從則天意可得也

縱欲怠傲者以滅天命也

君臣上下各勤其職毋怠毋傲毋驕以安其民其國泰矣

孜孜勤勤擴充仁善然後可得民心也

孔子曰天子忍之國無害天子不忍國空虛爲政惟忍爲上也

不奪功利之私施仁由德則可而王矣

暴怒之君多殺人仁善之君多養民殺人尤多者天下亂養民爲義

者天下安王者天下之義主也行仁義而王則天下之民皆願立於其朝矣

王道之要不過推其不忍之心以不忍之心行王政則斯民之悅服毋異如水之就下也

不行仁政以好征伐不視民心加其刑罰則民散而邦必危矣傳曰能行王政則寇戎爲父子不行王政則赤子爲仇讎此爲政之

一大要言君不憂賢臣不得臣不憂聖君不得也楚莊王亂政蘇從入諫以斷鍾鼓之縣其國之治霸於諸侯

循理而公於天下者惟聖主之所能盡其性也古之聖王不能從其所好一饋十起勞在其中矣

光明正大周流無滯者與天地同共一體也君臣之道當務用於之誠

教化綱常國之元氣

君臣之道與天地陰陽無異陰陽相合則雲興雨施澤被萬物陰陽相背則旱霖不已君臣相合則治道明而民必和悅君臣不合則綱紀衰頹民必離散毋輕守正之士莫距忠諫之口

宰相者君之腹心與手足也

大臣不以親細事

靜庵先生曰立志以古昔帝王爲期處事當斟酌得宜立志古之帝王爲期則政有餘地而處事當斟酌則政無害矣

정·치·요·어

경(經)에 이르길 「사람이 있으면 정사(政事)가 들어지고 사람이 없으면 정사가 사라진다.」라고 했다. 이러므로 시비(是非) 선악(善惡)이 모두 나의 마음에서 유래하니 마음이 바르면 만사(萬事)가 그 정을 얻고 그 때 평함을 얻으니 가만히 두어도 저절로 교화되어 정치의 도(道)가 밝아 지리라.

염계(濂溪) 선생이 이르시길 「천하를 다스리는데 근본이 있으니 수신을 말한다. 천하를 다스리는데에 법이 있으니 제가를 말한다.」라고 했다.

임금이 하늘을 섬김이 부모와 같으며 백성을 봄이 형제와 같으며 만물(萬物)을 봄이 동배(同輩)와 같이 하여 인의(仁義)를 가득 채운 연후에야 그 직분을 다할 수 있다.

성심으로 왕노릇 하면 왕이요 인(仁)을 빌려서 패(霸)를 하면 패(霸)일 것이다. 두가지의 도가 갈지 않으니 그 시초를 살피는데 있을 따름이고 정치를 함은 공경이

로써 주재(主宰)를 삼는다.

임금의 덕은 민심(民心)을 얻는 데에 있을 따름이니 못 별들이 북두칠성(北斗七星)을 응위하여 바라보는 것과 같다.

즐기고 게을리 하는 자는 그 나라를 망치고 인(仁)을 베풀고 덕(德)을 숭상하는 자는 그 나라를 일으킨다.

정치를 하는데는 반드시 당우(唐虞)로 기약하고 걸주(桀紂)로 경계를 삼아야 한다.

정대(正大) 관평(寬平) 하여 편계(偏係)의 사사로움을 끊고 현인을 임용하고 능한 자를 부리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리라.

예로부터 지금까지 치란(治亂)의 정치는 소인(小人)과 군자(君子)를 멀리 하느냐 가까이 하느냐에 있다. 소인(小人)이 권력을 전용(專用)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위태하고 군자가 충효(忠孝)로써 그 장상(長上)을 섬기면 그 나라는 반드시 흥하여 만사(萬事)와 만물(萬物)이 다 이루어진다.

오직 어진 임금은 반성하여 자기 몸에서 모든 것을 구하므로 현신(賢臣)을 얻지 못

하는 그 심음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치(政治)를 인(仁)으로 한다면 오직 날이 부족하리라.

임금이 어질면 그 인선(仁善)의 이로움을 취하고 전쟁의 이로움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전쟁의 이로움을 즐긴다면 백성이 모두 질원(疾怨)할 것이며 그 인선(仁善)을 즐긴다면 백성이 모두 우러러 볼 것이니 요(堯) 임금의 백성이 격양가(擊壤歌)에서 「임금의 힘이 나에게 무슨 관여가 있으리오.」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왕정(王政)이 순일(純一)하면 민심(民心)이 화열(和悅)하므로 민심으로 마음은 삼는다면 치도(治道)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교화(教化)가 행해지면 풍속이 아름다워 진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데는 백성의 힘을 증중하게 여긴다.

임금이란 하나의 원수(元首)이니 신조(慎勤)하고 근고(勤苦)한 마음이 없어서는 안된다. 정치(政治)하는 요령은 공경보다 큰 것이 없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데 있다. 나라가 폐하고 일어나고 남고 망하는 것은 단지 군신(君臣)의 현우(賢愚)에 달려있다.

공자(孔子) 이르시길 「임금은 신하를 예로써 부리고 신하는 임금을 충성으로 섬겨야 한다.」고 하셨다.

정치를 일으켜서 인정(仁政)을 베풀어 현인을 등용하고 간사한 사람을 배척하여

백성에게 농사를 권하며 선비를 뽑아 학문을 권장하면 한나라가 편안할 것이고 한나라가 편안하면 천하가 태평하리라.

포박자(枹朴子)가 이르길 「도의에 맞아 죽는다 해도 바로 간(諫)하며 술에 삼아져 죽는다 해도 다 말한다.」라고 했으니 어찌 명(命)을 버리고 충성을 다함이 아니겠는가?

임금이 그의 도(道)를 다하지 못하고 신하가 그의 일을 다하지 못하면 함께 천하 국가(天下國家)를 다스릴 수가 없으니 각기 자기의 도(道)를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 맹자(孟子)가 이르시길 「인자(仁者)는 적(敵)이 없다.」라 했으니 적(敵)이 없으면 천하(天下) 국가(國家)의 정치를 손바닥 위에서 굴리듯 손쉽다.

임금이 어질면 어질지 않는 것이 없고 임금이 의로우면 의롭지 않는 것이 없으니 천하의 치란(治亂)은 임금이 어진가 어질지 못한가에 매어 있음을 따름이다.

왕(王)이 인정(仁政)을 행하면 군자들이 많이 돕고 인정을 행하지 않으면 소인의 말이 돕는다. 군자가 많이 도우면 그 나라는 다스려지고 소인이 많이 도우면 그 나라는 어지러워지니 정치를 하는데는 그야말로 사람을 선택하는데 삼가지 않으면 안된다.

맹자(孟子)가 이르길 「하늘의 때가 지형적인 이로운데 못하고 지형의 이로운데 사람의 화합만 못하다.」라고 했다.

의(義)로써 신하를 부리면 신하는 주(主)임을 다 하도록 충성을 다 하리라. 오직 어진 임금이랴 현신(賢臣)을 임용할 수 있고 소인(小人)을 물리칠 수 있다.

현신(賢臣)이 조정에 가득하면 그 나라는 편안하고 소인(小人)이 조정에 가득하면 그 나라가 위험하다.

덕(德)을 숭상하는 임금은 백성을 어린아이처럼 보고 사납게 성내는 임금은 백성을 원수처럼 본다.

임금이 나라의 가령(綱領)이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임금이 없으면 백성이 없고 백성이 없으면 임금이 없다. 그러므로 임금이 백성을 하듯 보며 역기고 백성이 임금을 부모로 여긴다.

임금이 어질고 신하가 바르면 다스려지고 임금이 어질지 못하고 신하가 바르지 못하면 어지러워진다.

인(仁)을 베풀고 백성을 사랑하며 의로써 신하를 부리고 덕을 숭상하고 현인(賢人)을 높이며 그 형벌을 덜어주고 그 세움을 박하게 하면 참으로 이와같이 할 수만 있다면 이웃 나라의 백성이 우러러 보기를 부모처럼하고 기뻐하기를 거꾸로 매어 달린 것을 끌어 높이는 것처럼 하니 이것이 바로 천하에 적(敵)이 없는 것이다.

정치를 하는 데에 포학함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제하면 반드시 그 나라를 편안히 하리라.

서전에 이르기를 「백성이 오직 나라의 근본이다. 근본이 견고하면 나라가 편안하리다.」 했으니 흉년이면 창고를 가득 채워 준비하고 흉년이면 나누어 주어 백성을 구제한 연후에야 나라가 편안할 수 있다.

정벌(征伐)하는 도(道)는 먼저 민심(民心)을 볼 것이니 민심이 따르면 천의(天意)를 얻을 수 있다.

욕심에 방종하고 태만한 자는 천명(天命)을 멸(滅)했기 때문이다.

군신(君臣)과 상하(上下)가 각기 그 일을 부지런히 하여 태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서 그 백성을 편안히 하면 그 나라가 편안하리다.

부지런히 부지런히 인선(仁善)을 확충한 연후에야 민심(民心)을 얻을 수 있다.

공자(孔子)께서 이르시길 「천자(天子)가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고 천자(天子)가 참지 않으면 나라가 공허해 지니 정치를 하는데는 오직 참는 것이 으뜸이 된다.」 라고 했다.

공리(功利)적인 사사로움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인(仁)을 베풀고 덕(德)으로 말미암는다면 왕노릇할 수 있으리다.

사납게 성내는 임금은 흔히 살인(殺人)하고 인선(仁善)한 임금은 흔히 양민(養民)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살인이 많은 자는 천하(天下)가 어지럽고 양민(養民)으로 의(義)를 삼는 자는 천하가 평안해 진다.

(王)이란 천하의 의로운 주인이다. 인의(仁義)를 행하여 왕노릇하면 천하의 백성이 모두 그의 조정에 서서 벼슬하기를 원하리라.

왕도(王道) 정치의 요령은 이내하지 못하는 마음을 물리치는데 불과하니 이내심으로 왕도(王道) 정치를 행하면 물론 백성들이 기쁘게 복종하여 딴 마음을 먹지 않음에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으리라.

인정(仁政)을 행하지 않고 정벌을 좋아하며 민심(民心)을 살펴보지 않고 형벌을 더한다면 백성이 흠어져 나라가 반드시 위험하리라.

전(傳)에 이르길 「왕정(王政)을 행할 수 있으면 도적과 오랑캐도 부자(父子)가 되고 왕정을 행하지 않으면 적자(赤子)도 원수가 된다.」라고 했으니 이것이 정치를 하는 한가지 큰 요언(要言)이다.

임묘(任弔) 현신(賢臣)을 못 얻을까 근심하지 말고 신하는 성군(聖君)을 얻지 못할까를 근심하지 말것이다.

초(楚)나라 장왕(莊王)이 정치를 어지럽히니 소종(蘇從)이 들어와 간(諫)하고 달아 놓으니 종과 부를 끊어 버리더니 그 나라의 권세가 제후의 세력으로 되었다.

이치를 따라서 천하에 공정한 자는 오직 성주(聖主)만이 할수 있는 바이니 그 성(性)을 다한 것이다.

옛성왕(聖王)은 그의 좋아하는 바를 따르지 못하고 한끼먹는 때에도 열번의 일을

났으니 수고로움이 그 가운데 있었다.

광명 정대하고 두루 흘러 막힘이 없는 자는 천지와 더불어 똑같이 한몸이다.

군신(君臣)의 도는 마땅히 지성(至誠)을 다해야 한다.

교화와 강상(綱常)은 나라의 원기(元氣)이다.

군신(君臣)의 도는 천지(天地) 음양(陰陽)과 다름이 없으니 음양이 서로 합하면

구름이 일고 비가 내려서 은택이 만물(萬物)에 입혀지고 음양이 서로 등지면 가뭄과

장마가 그치지 않는다. 군신(君臣)이 서로 마음이 합하면 정치의 도(道)가 밝아서

백성이 반드시 화열하고 군신이 마음이 맞지 않으면 강기(綱紀)가 쇠퇴하여 백성이

반드시 이산(離散)한다.

정도(正道)를 지키는 선비를 가벼이 말고 충심(忠心)으로 간(諫)하는 입을 막지

말라.

재상(宰相)은 임금의 마음과 손발이다. 대신(大臣)은 조그만 일을 치히하지 않는다.

정암(靜庵) 선생이 이르시길 「뜻을 세우되 옛 제왕으로 기약한다면 정치에 여유가

있고 일을 처리함에 마땅히 짐작한다면 정치에 해가 없으리라.」

勸學示諸生辭

詩書執禮慕孔子之雅言忠信不欺睠胡公之主本誓以朝益暮習

期在日就月將既不識歲月莫虛擲也又不見春草漸看長乎誠實
毋欺誦曾子之傳戒講習不惰筮羲皇之卦辭惟在患爲人師何莫
學夫小子手稱習字執筆如在背之芒名託讀書對卷視脫足之履
第觀底心統情以可止而無止且臨其行與事則當行而不行浪遊
浮遊奚以爲好憚茶肆酒肆此何等勝區星移物換天惟有白日之
復明年與時馳人必無青春之恒少放心度日教不就習鳥之數飛
看花探香戒莫禁豪蝶之狂舞或參淫樂地勇於妓酒花柳之遊每
至文墨場恟於江山風月之輟路逢豪荒臂膺之士愛釣如魚門到
文章車馬之人畏避以虎資託時制剃髮而非僧爲僧變遷儒儀幻
面而不獸而獸惟事如斯必不免道路以目所習至此孰肯爲丈夫
行儀胡爲乎自暴自棄勉旃矣先正先誠苟無悔悟必所惡於亡心
若不聽從可以撻之流血漸進教誨聖言尚存恆苦談論吾舌欲蔽
我自我書自書愧彼下愚難化年復年日復日惜汝中塗廢工所以

有此利導之語抑或勉夫放逸之心誓無十寒一曝庶爲上知務進
 五書六經少勿間斷實用力者何詐何僞乎心誠求之不中不遠矣
 行爲事業聖人道之存心志無虛邪弟子職之遺教克勤無逸願隨
 周元聖之明言既切以磋可復衛武公之盛道展也大成謀爲程伊
 川之畫贊不是小事著在劉屏山之論文顧我老夫不是荒誕嗟汝
 小子宜以專精

권학시제생사

시서(詩書)와 예(禮)를 지킴은 공자(孔子)의 아언(雅言)을 사모함이요 충신(忠
 信)하여 속이지 않음은 호공(胡公)의 주본(主本)을 돌아봄일세 아침으로 더하고 저
 녁으로 익히길 맹세하고 날로 나아가고 달로 나아가길 기대했네. 벌써 세월은 헛되
 이 보내면 안될 것들을 알지 못했나? 또 봄 풀이 점점 보이게 자라남을 보지 못했
 나? 성실히 속임없이 증자(曾子)의 전계(傳戒)를 외우고 강습에 게으르지 않아의
 황(義皇)의 과사(卦辭)를 가려냈네 오직 근심은 남의 스승되는데 있으니 어찌 소자
 (小子)를 배우지 않겠나? 손수 습자(習字)한다 칭했으니 붓을 잡으니 등에 가시를

짚어지든지 명분은 독서(讀書)에 부쳤으나 책을 대함에 벗어버린 헌신짝 보듯 단지 마
 음이 정(情)을 거느림을 보고서 그칠만한데 그침이 없고 또 그 행실과 일에 임하여
 는 마땅히 해야 하는데 행하지 않아 나만히 놀고 헛되이 노는걸 어찌 좋은 버릇이라
 생각하며 찻집과 술집이 이곳이 어찌 좋은 곳일거나? 별자리 바뀌고 물건이 바뀌어
 도 하늘엔 오직 밝은 해가 다시 밝고 해가 가고 때가 달리니 사람은 반드시 항상 젊
 은 시절이 없다네 마음을 놓고 날을 보내면 가르쳐도 비상(飛上)을 익히는 새의 잣
 은 날개깃을 이루지 못하고 꽃을 보고 향기를 찾으면 경계해도 호접(豪蝶)의 미친듯
 한 날개춤을 막지 못하네. 후음탕한 음악이 있는 곳에 끼어서 기생과 술로 화류(花
 柳) 놀음에 용감하면 매양 글짓고 글쓰는 곳에 이르러 강산(江山) 풍월(風月)의 시
 축(詩軸)에 겁이 나지. 길에서 호황하게 팔에 매를 가진 선비를 만나면 낚시밤 사랑
 하는 고기갈고 문장(文章)이나 거마(車馬) 탄 사람이 오면 피하길 호랑이 보듯 시제
 (時制)에 의지하여 머리를 깎으니 중아닌 중이 되고 유의(儒儀)를 바꾸고 얼굴을 바
 꾸니 짐승아닌 짐승일레리 오직 일이 이갈이면 반드시 길에서 눈치반는 걸 면치 못
 하고 익힌바가 이 지경이 되면 누가 장부의 행의(行義)라 하겠나? 어찌하여 자포
 (自暴) 자기(自棄)하는지? 힘쓸지어다 먼저 바르고 먼저 참될것을. 참으로 후회하
 고 깨닫지 않으면 반드시 망심(亡心)함을 미워할 것이며 만약 들어 주고 따라주지
 않으면 매때려 피흘리게 할 만하리 점차 가르침에 나아가면 성인(聖人)의 말이 오히

러 보존되나 항상 담론(談論)을 괴롭게 하면 내 허만 찢어질 듯하다. 나는 나대로
 책은 책대로면 저 하우(下愚)는 고치기 어렵다함에 부끄럽고 해가 또 가고 날이 또
 가면 너 중도(中塗)에서 공(工)을 폐할걸 아까워 하리. 이 이름게 인도하는 말을 두
 는 까닭은 또한 방일한 마음을 쉼면 함일세 맹세코 십한일복(十寒一曝)이 없으면 거
 의 상지(上知)가 되리니 힘써 오서(五書)육경(六經)에 나아가 조음도 간단(間斷)치
 말라 실지로 힘쓰는 자 왜 속이고 왜 거짓부리겠나. 마음으로 참되게 구하면 맞지는
 알아도 동떨어진 양이니 행실이 사업(事業)이 되면 성인의 도(道)가 마음에 보존
 되고 뜻이 허사(虛邪)가 없는 것은 제자의 직(職)의 끼친 교훈이리. 능히 부지런하여
 방일함이 없는 것은 주원성(周元聖)의 명언을 따라서며 이미 자르고 갈면 위무공(衛
 武公)의 성도(盛道)를 회복할 수 있네. 전야대성(展也大成)은 정이천(程伊川)의 화
 상찬(畫像贊)을 도모함이요 불시소사(不是小事)는 유병산(劉屏山)의 유문(論文)에
 나타나 있네. 돌아보건데 우리 늙은이가 황탄(荒誕)하지만은 않으니 아! 너희 소자
 (小子)들아 마땅히 전일하고 정미할지이다.

事父母能竭其力義

父母天地也天地之於萬物無一理之不遂父母之於子豈有一事
 之不義乎然則子之事親服勞於有事之間定省於晨昏之際其餘

짚어지든지 명분은 독서(讀書)에 부쳤으나 책을 대함에 벗어버린 헌신짝 보듯 단지 마
 음이 정(情)을 거느림을 보고서 그칠만한데 그침이 없고 또 그 행실과 일에 임하여
 는 마땅히 해야 하는데 행하지 않아 나만히 놀고 헛되이 노는걸 어찌 좋은 버릇이라
 생각하며 찻집과 술집이 이곳이 어찌 좋은 곳일거나? 별자리 바뀌고 물건이 바뀌어
 도 하늘엔 오직 밝은 해가 다시 밝고 해가 가고 때가 달리니 사람은 반드시 항상 젊
 은 시절이 없다네 마음을 놓고 날을 보내면 가르쳐도 비상(飛上)을 익히는 새의 잣
 은 날개깃을 이루지 못하고 꽃을 보고 향기를 찾으면 경계해도 호접(豪蝶)의 미친듯
 한 날개춤을 막지 못하네. 후음랑한 음악이 있는 곳에 끼어서 기생과 술로 화류(花
 柳) 놀음에 용감하면 매양 글짓고 글쓰는 곳에 이르러 강산(江山) 풍월(風月)의 시
 축(詩軸)에 겁이 나지. 길에서 호황하게 팔에 매를 가진 선비를 만나면 낚시밤 사랑
 하는 고기갈고 문장(文章)이나 거마(車馬) 탄 사람이 오면 피하길 호랑이 보듯 시제
 (時制)에 의지하여 머리를 깎으니 중아닌 중이 되고 유의(儒儀)를 바꾸고 얼굴을 바
 꾸니 짐승아닌 짐승일레리 오직 일이 이갈이면 반드시 길에서 눈치반는 걸 면치 못
 하고 익힌바가 이 지경이 되면 누가 장부의 행의(行義)라 하겠나? 어찌하여 자포
 (自暴) 자기(自棄)하는지? 힘쓸지어다 먼저 바르고 먼저 참될것을. 참으로 후회하
 고 깨닫지 않으면 반드시 망심(亡心)함을 미워할 것이며 만약 들어 주고 따라주지
 않으면 매때려 피흘리게 할 만하리 점차 가르침에 나아가면 성인(聖人)의 말이 오히

러 보존되나 항상 담론(談論)을 괴롭게 하면 내 혀만 찢어질 듯하다. 나는 나대로 책은 책대로면 저 하우(下愚)는 고치기 어렵다함에 부끄럽고 해가 또 가고 날이 또 가면 너 중도(中塗)에서 공(工)을 폐한걸 아까워 하리. 이 이롭게 인도하는 말을 두는 까닭은 또한 바일한 마음을 권면함일세 맹세코 시한일복(十寒一曝)이 없으면 거의 상지(上知)가 되리니 힘써 오서(五書)육경(六經)에 나아가 조금도 간단(間斷)치 말라 실지로 힘쓰는 자 왜 속이고 왜 거짓부리겠나. 마음으로 참되게 구하면 맞지는 않아도 동떨어지지 않으니 행실이 사업(事業)이 되면 성인의 도(道)가 마음에 보존되고 뜻이 허사(虛邪)가 없는것은 제자의 직(職)의 끼친 교훈이리. 능히 부지런하여 바일함이 없는것은 주원성(周元聖)의 명언을 따라서며 이미 자르고 갈면 위무공(衛武公)의 성도(盛道)를 회복할 수 있네. 전야대성(展也大成)은 정이천(程伊川)의 화상찬(畫像贊)을 도모함ियो 불시소사(不是小事)는 유병산(劉屏山)의 유문(論文)에 나타나 있네. 돌아보거네 우리 늙은이가 황탄(荒誕)하지만은 앎이니 아! 너희 소자(小子)들아 마땅히 전일하고 정미할지이다.

事父母能竭其力義

父母天地也天地之於萬物無一理之不遂父母之於子豈有一事之不義乎然則子之事親服勞於有事之間定省於晨昏之際其餘

三牲之養甘旨之供孰非竭力處噫父母至親也而愛心切於中則著於色者自是和氣不然則未免爲拂戾父母至尊也而敬心溢於內則見於色者都是愉婉不然則反以爲鹿厲其色也拂戾則雖日用三牲而君子謂之非孝其色也鹿厲則雖日勤定省而君子謂之非孝也然則事親之道豈徒服勞奉養晨昏定省而止者至愛存於心而愛之理發以爲和氣至敬在於心而敬之實發以爲愉婉然後謂之承順也但有飲食而畢供之爲養體有衣服而必進之爲便體者是謂養口體則可謂養志則遠矣竊以愉婉粹然之色如大舜之至誠然後有其容之夔夔寓如文王之至愛然後有其色之怡怡到此然後始可謂養志也故養親中養志爲難所謂和氣者養志之本也事親中承順爲難所謂愉色者承順之本也然則百行之源惟色爲難者豈不誠然乎故夫子以色難二字特言於子夏之問孝所謂能竭其力豈不是志體兼養之謂歟

부모는 하늘과 땅이다. 천지와 땅의 만물에 한 이치도 이루지 못한 것이 없고 부모와 의 자식에도 어찌 한가지 일이라도 불의가 있으리요. 그런즉 자식이 어버이를 섬김에 일이 있을 사이에 수그러움을 열심히 하고 새벽과 저물때에 정하며 살피고 그 밖에 세마리 희생(하루에 세마리의 짐승을 잡아 봉양함) (봉양과 맛있는 음식의 공양이니 누가 힘줄 다 할곳이라고 안으랴. 슬프다 부모는 지극히 친한분이니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 간절하면 열날빛에 나타나는 것이 자연히 화기가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거스름이 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부모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요. 공경하는 마음이 안에 충열하면 열날빛에 나타나는 것이 모두 기쁘고 유순한데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거칠게 될 것이다. 그 열날빛이 거슬리면 비록 날마다 세마리의 희생을 쓴다 해도 근자가 이르길 효도가 아니라 했고 그 열날빛이 거칠면 비록 날마다 부지런히 잠자리를 정해 드리고 근안을 살핀다 해도 근자가 이르길 효도가 아니라 하고 한 것이다. 그런즉 어버이를 섬기는 일이 어찌 한갓 힘드니 열날 부지런히 하고 봉양하고 새벽과 저녁에 정하고 살피는 것으로 그 철것이구나! 지극한 사랑이 마음에 존재하면 사랑하는 이치가 발로 되어 화기(和氣)가 되고 지극한 공경심이 마음에서 있으면 공경하는 실상의 발로 되어 유순함이 된 뒤에야 온 사람의 명령에 수순히 좃아서 이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음식이 있으면 반드시 공양하면 몸을 기르는 것이 되고 의복이 있으면 반드시

시 지달하면 몸을 편안하게 한 것이니 이는 입과 몸을 길렀다고 하는 것은 가하거나와 뜻을 기른 것이라고 하는 데는 멀다. 가만히 생각하면 유수하고 수한 낮빛은 수인임금(大舜)의 지극한 정성갈이 한 연후에 그 거동이 조심스럽고 두려워함이 있었고 또 문왕(文王)의 지극한 사랑갈이 한 연후에 그 낮빛이 화열함이 있었으니 이에 도달한 뒤에야 비로소 뜻을 길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기르는 중에도 뜻을 기르는 것이 어렵나니 이른바 온화한 기운이 뜻을 기르는 근본이요 아버지를 섬기는 중에 명령을 수순히 따라 이르는 것이 어려우니 이른바 유쾌한 얼굴빛은 수순하게 따라가는 근본이다. 그러즉 백가지 행실의 근원에 오직 낮빛이 어렵다고 한 것은 어찌 진실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공자님께서도 색난(色難·낮빛 찾기가 어렵다) 두 글로써 특별히 자하(子夏·공자의 제자)가 묻는 효도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이른바 능히 그 힘을 다 한다는 것이 뜻과 몸을 겸하여 기른다는 것을 이름이 아닌가.

石蓮說

有名而有不呼名者焉有字而有不呼字者何者蓋敵於我者皆呼名與字而卑幼於我者尊敬之地不呼名與字其禮已久故世或有別號者別號者通相呼之也然吾之平生不喜別號者吾有名有

字又有宅號敵於我者以字呼我長於我者以名呼我卑幼於我者以宅號呼我是足矣吾有一名一字一宅號有何復用哉年來盛多詩會同參詞詠則執筆者以我為蓮峰居士軸末以寫蓮岡自後因以為呼因以為寫以吾實華之不足內無藏用者豈不聞之驚駭見之愧怍也心不敢當者久矣遠近知舊之往還書封間間寫送則雖欲禁之不能自廢矣一日有人從我以來固請數行文既不容辭僅構數行記年月日下頗窘倉率以石蓮二字寫之但因居住非別有所取也同僚間或有文字事則更以此用是亦為其所呼也不可辭廢者吾之所居地石谷之陽蓮峰之東則此乃所居地紀而苟不虛偽也付之居地則有實而無虛偽故因以紀實也非徒以石為堅以蓮為清者也

석연산

이름이 있으되 이름이 부르지 못할 사람이 있고 자(字)는 있으되 자(字)를 부르

지 못할 사람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대개 나에게 필적한 사람은 다 이름과 자를 부
 르고 나보다 어린 사람은 존경하는 처지에서 이름과 자를 부르지 못하는 그 예는 이
 미 오랜된 일이다. 그러므로 세상엔 후별호(別號)를 가진 자가 있다. 별호란 통상적
 으로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내 평생에 별호를 좋아하지 않은 것은 나는 이름이 있고
 자가 있고 또 택호(宅號)가 있으니 나에게 필적한 사람은 자로써 나를 부르고 나보
 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이름으로써 나를 부르고 나보다 어린 사람은 택호로써 나를
 부르니 이것으로 족하다. 내가 한 이름과 한 자와 한 택호가 있는데 무엇이 있어서
 다시 쓸 것인가. 근래에 시회(詩會)가 많아 글 짓고 읊는데 동참하면 빚을 잡은 사
 람이 나를 연봉거사(蓮峰居士)라 하고 풍축(風軸)끝에 연강(蓮岡)이라고 쓰니 이런
 뒤로부터 부르게 되고 쓰게 되었으나 나는 실질적인 명망이 부족하고 안으로 감추어
 쓸 것이 없는 사람이데 어찌 들으면 놀라고 보면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랴. 마음속
 으로 감당하지 못한지가 오래되었다. 멀고 가까운 친구들간에 오고가는 편지 봉투에
 간간히 써서 보내니 비록 쓰는 것을 금하고자 하면서도 능히 스스로 폐하지 못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나를 따르던 이후에 굳이 두어 줄 글을 청하니 이미 사양할 수 없
 게 되어 겨우 두어 줄을 얻고 날자를 기록한 끝에 자못 근색하게 허둥지둥 석연(石蓮)
 두 글자를 썼다. 다만 거주지로 인한 것이요 별로 취할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동료들 사이에 후문자(文字)를 쓸 일이 있으면 다시 이것을 쓰니 이것도 또한 부르

는 것이 되었다. 사양하고 폐하지 않은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석곡(石谷)의 양지
쪽이요 연봉(蓮峰)의 동쪽이라 이는 사는 곳을 기록한 것이다. 진실로 허위 가 아니
라 살고 있는 곳에 부친 것이라 사실이 있고 거짓이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사실을 기
록한 것이요. 한갓 돌로써 견고함을 삼고 연으로써 맑음을 삼고 자 함이 아니라.

勸人擇師教子說

人之用心皆由氣稟之不齊也或賢或愚又有過刪不及之弊從賢而
學則必有進就之望從愚而學則必有癡蠢之習從過而學則必有
捐失之歎從不及而學則必有失望之歎矣豈不擇而教之乎近世
人心菲薄以傲慢敗習自尊爲主雖有吾之上有折之害之雖有同
列之才亦毀之訪之自稱曰覆載之間惟我獨存而至於經傳別無
難義處云者徒是爲自勝之辟者也若以子姪負笈從事於如此者
則棄之不遠矣非他若受學於其無下則先以忤逆爲主次以自勝
爲僻俗所謂以識字爲患也噫古人云生於吾後其聞道也先乎吾

吾從而師之且曰不恥下問此等說皆工夫上第一件事也豈可泛
忽也夫擇師而教之素以起家之本也起家豈易焉哉習其章句記
誦之訓詁也章句訓詁之難解者問於師可曉得故師者所以傳道
授業解惑者也擇其用心之仁善就其處事之明敏絕無傲慢邪辟
奸譎諂諛者送其子姪而教之則別無忤逆之弊進就成德必以有
起家者矣擇師其可忽哉

사람에게 스승을 가려서 자식을 가르치라고 권하는 말

사람의 쓰는 마음은 다 기쁨이 고르지 못한데서 연유한 것이다. 혹 어질고 혹 어
리석고 또 과(過)하고 불급(不及)한 폐단이 있으니 어진이에게 가서 배우면 반드시
진취할 희망이 있고 어리석은 이에게 가서 배우면 반드시 어리석은 습관이 있을 것
이며 과한자에게 가서 배우면 반드시 손실할 탄식이 있고 모자란 자에게 가서 배우
면 반드시 실망할 탄식이 있으니 어찌 스승을 가리지 않고 가르칠 것인가. 근대에
와서 인심이 알팍하여 오만과 폐습으로 자존심만 주장하니 비록 나보다 위에 있을지
라도 끊어 버리고 헤치는 것만 있을 것이요. 비록 비슷한 재주가 있을지라도 또한

할때고 비방만 할것이며 스스로 칭하길 하늘과 땅사이 에 오직 나만 홀로 존재하고
 경전(經傳)·성인의 경서와 현인의 전서(傳)에 있어서도 별로 어려운 곳이 없다고 하는자는 이것
 이 자승지벽이 될것이다. 만일 자식이나 조카에게 책을 짚어지고 이같은 사람에게
 종사케 하면 버리는 것은 멀지 않으리니 다름이 아니라 만일 문하에서 수학하게 하
 면 먼저 위반하는 것으로 주장을 삼고 다음엔 자기가 이기는 것으로 편벽함이 될 것
 이니 세속에서 이르는 바 아는것이 근심이 된다는 것이다.

아! 옛사람이 이르길 나보다 뒤에 태어났더라도 그 도(道)를 들은것이 나보다
 먼저라면 내가 좃아가서 스스로 삼는다고 하였고 또 아랫사람에게 묻는것을 부끄
 러워 하지 않는다는 등의 말들은 다 공부하는데 제일 첫번째 일이다. 가히 소홀히
 하라 대개 스스로를 가려서 가르친다는 것은 본래 가정을 일으키는 근본이니 가정을
 일으키는 것이 어찌 쉬운것이냐 그 장(章)의 구절과 기록하고 외울 경서의 주해를
 익힐것이다. 장의 구절과 경서의 주해를 해석하기 어려운것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깨
 달을 것이므로 스스로인 것은 도를 전하고 학문을 전수하고 의혹을 풀어주는 까닭이
 다. 그 마음씀이 어질고 선한자를 가리고 그 처사를 밝고 민첩하게 하는 사람에게
 나아가면 절대로 오만하고 사악하며 편벽하고 간교하고 속이며 아첨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자식이나 조카를 보내어 가르치게 하면 별로 위반하는 폐단이 없고 나아가
 덕을 성취하여 반드시 가정을 일으키고 있으니 스스로 가리는 것을 소홀히 할소나.

征伐不如保民勸農說

昔孔子曰立身有義而孝爲本治政有理而農爲本諺曰忠必求於孝子之門邦必勸於稼穡由此觀之治國之理在於得人勸農而已若得人則其政和若勸農則其民安古今貪利好勇之君治政不知在得人但知在政伐南征不服西伐不得使無罪蒼生萬里遠境長作孤魂無面渡江是敗國亡身非興邦保民之計也豈不痛惜哉故孟子曰保民而王莫之能禦也大抵施仁德而愛民如子則其國必興若宣暴怒視其民如仇讎則其國必亡夫王之暴怒亡國之漸也王之仁德興邦之兆也何特征伐爲計且有征伐之道隣國無道民以望之若大旱之望雲霓也則當是時也豈不以仁伐暴救濟蒼生於水火哉故古語曰天時不如地利地利不如人和修其仁德勸其農桑以保其民則是無敵之國也

정벌하는것이 백성을 보호하고 농사를 권장하는것만 같지 못하다는 설

옛날에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길 입신(立身)하는데는 의리가 있는데 효도가 그분이 된다고 하시고 정치를 하는데도 이치가 있는데 농사가 그분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상말(諺)에 이르길 충신은 반드시 효자의 가문에서 구하고 나라에서는 반드시 곡식을 심고 거두는 것을 권장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본다면 나라를 다스리는 이치는 사람을 얻고 농사를 권장하는데 있을 따름이다. 만일 사람을 얻으면 그 정치가 화하고 만약 농사를 권장하면 그 백성이 편안한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이것을 탐하고 유맹을 좋아하니 구주(紂)의 정사를 다스리는 것이 사람을 얻는데 있었음을 알지 못하고 다만 정벌에만 있는것을 알고 남쪽을 정벌하여도 늘 부시키지 못하고 서쪽을 정벌하여도 얻지 못하면 죄 없으니 백성들로 하여금 만리나 되는 먼 경계에서 길의 외로와 혼란이 되게 하고 가을 선나을 낫이 없으니 이 나라를 패하고 물물망하는 것이요. 나라를 흥케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계책이 아니다. 어찌 슬프고 애석하지 않겠나.

그러므로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시길 백성을 보호하고 왕을 하면 의방(義防)이 없다고 하셨다. 대저 인(仁)을 베풀고 백성을 자식같이 사랑하면 그 나라는 흥하고 만약 포악하고 성내는 것만 베풀고 백성을 보기를 원수같이 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대개 왕이 포악하고 성이나 내면 나라가 망할 점과요 왕이 어질고 덕스러우면 나라가 흥할 증조다. 어찌 특별히 정벌(征伐)을 계획하리요 또 정벌할 길의

있는것은 이웃나라에서 무도하여 백성들이 바라길 큰 가뭄에 구름속의 무지개를 바라는 것같이 한다면 이때를 당하여는 어찌 인(仁)으로써 폭악을 처서 창생을 물과 불에서 구제하지 않을소나 그러므로 옛말에 이르길 천시(天時)가 지리(地理)만 같지 못하고 지리가 인화(人和)만 같지 못하다고 하였으니 그 인덕을 닦고 농사짓고 누에치는 것을 권하여 그 백성을 보호하면 이는 당적할 나라가 없으리라.

存心說

夫物之善不善猶心之存不存心存則物善心不存則物亦不善收千里之放心守之存焉則存善在乎其中矣放之亡之未守未存則亡善不在乎其中矣故曾子曰心不在焉視而不見聽而不聞食而不知其味朱子曰天地變化其心孔仁非誠曷有非敬曷存防微謹獨茲守之常范子曰參爲三才曰惟心矣心爲形役存者幾希蓋聖賢慮後學戒自暴棄而教導其功德千載昭明此皆存心二字之一大訓詰也竊惟人之元氣內虛則外邪固守其本心終不失其所稟則將見衆善之畢至矣其於存存之除體物由其德則物之善心之

存自顯於其動靜之間守之則存放之則失矣故經曰其人存則其政舉其人亡則其政息盖其心存則其物善其心不存則其物亦不善矣自疆不息以準賢聖之存心則聖賢同歸其難乎哉

마음을 보존하는 말

대개 물질이 선하고 선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으니 마음이 존재하면 물질이 선하고 마음이 존재하지 않으면 물질도 또한 선하지 않는 것으로 천리나 멀리 놓아버린 마음이라도 지키고 존재케 하면 선(善)을 존재케 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것이다. 놓아버리고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고 존재케 하지 않으면 선(善)을 잊는 것도 그 속에 있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증자(曾子·공자의 제자)께서 말씀하시길 마음(心)이 존재하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고 주자(朱子)께서 말씀하시길 천지가 변화하는 것은 그 마음이 심히 인(仁)하기 때문이니 정성이 아니면 어찌 있고 공경이 아니면 어찌 존재하라. 미세한 것을 막고 홀로 있을 때 삼가하여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 상도라고 하였고 범자(范子)가 말하길 삼(參)이 삼재(三才)가 되는 것을 이르되 오직 마음이라 마음이 육체적 노예가 되면 마음이 존재하는 자 거의 드문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대개 성

현(聖賢)들이 후학들을 염려하여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경계하고 가르치고 인도한 그 공덕이 천년 뒤에도 밝게 비치니 이는 다 마음을 존재케 한다는 존심(存心) 두 글자의 큰 뜻이리라.

조용히 생각컨데 사람의 원기가 안이 허하면 밖에서 사악함이 들어오고 궁게 그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 타고난 성품을 잃지 않으면 장차 모든 선이 다 이르게 됨을 볼 것이다. 그 존재할 것을 존재케 하여 몸과 물질이 그 덕으로 연유케 한다면 물질은 선해지고 마음이 존재케 됨을 자연히 음직이고 고요한 사이에 나타나리라. 지키면 존재하고 놓으면 잃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經)에 이르길 그 사람이 존재하면 그 정치가 잘되고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정치가 쇠나고 하였으니 대개 그 마음이 존재하면 그 물질이 선해지고 그 마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물질도 또한 선하지 못하리니 스스로 힘써 다듬길 쉬지 말고 마음을 존재케 하는 것에 준거한다면 성현(聖賢)과 함께 돌아간다는 것이 어렵겠는가.

耕讀相背說

農者天下之大本也士者天下之大寶也故古語曰無野人莫養君子無君子莫治野人然則不耕難養君子不學難治野人二者相須

而爲業也若耕之勤而不惰勞而不懶春耕夏鋤秋收冬藏盈滿其家畜積府庫以養其君以養其親保其子孫然後剩成冠婚喪祭之大節也若學之惜其寸陰慕其三絕孜孜勤勤春秋學禮樂冬夏學詩書擴充其工夫存養其性教其子弟斥其老莊之道精一進就自守立身第一件事也故宋徽宗皇帝曰勤學者如禾如稻不學者如蒿如艸如禾如稻者國之精糧世之大寶也如蒿如艸者耕夫憎嫌鋤者煩惱大抵耕則不如辛苦學則不如勤苦也勤苦而學則必有名利光華辛苦而耕則必有榮樂安享也余嘗讀董召南朝出耕暮歸讀或山而樵或水而漁數句語擊節而歎曰古之人得兼斯二者今之人讀之不篤耕之不勤或半道而廢畫地不學或失其時秋無收穫藏置之術可勝嘆哉二者兼全難也一者守行豈其難也歟盖志不篤心不存故也余近日欲兼斯二者數日行之則耕田書八田讀書田荒于卷大抵難夫讀則耕歸於左耕則讀歸於左陽貨所謂爲仁不富爲富不仁正謂此也

발갈고 글읽는 것이 서로 배치 된다는 말
 농사는 천하의 큰 근본이요 선비는 천하의 큰 보배다. 그러므로 옛말에 이르길 야
 인(野人)이 없으면 군자를 기를 수 없고 군자가 없으면 야인을 다스릴 수 없다고 하
 였다. 그러즉 발갈지 않았으면 군자를 기르기 어렵고 배우지 않았으면 야인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다. 이 두가지는 서로 원하여 업(業)으로 하는 것이다. 만일 발갈기를
 부지런히 하고 게을리 하지 않으며 수고롭게 하되 나태하지 않고 봄에 갈고 여름에
 김매며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저장하여 그 집안에 가득하고 궁정의 창고에 축적하여
 그 이맘때를 봉양하고 그 어버이를 봉양하며 그 자산을 보호한 뒤에 나머지로 관혼상
 제(冠婚喪祭)의 큰 절차를 성사하는 것이다. 학문을 할 때 그 초음 아끼기를 자주 책
 끈이 세번 끊어진 것을 사모한 것같이 하여 부지런하고 부지런히 하여 봄과 가을에
 예악(禮樂)을 배우고 겨울과 여름엔 시서(詩書)를 배워 그 공부를 넓혀 채우고 그
 본성을 보존하고 길러 그 자제들을 가르침에 노자(老子)와 장자(莊子)의 도를 물리
 치고 정일하게 진취시켜 스스로 지켜서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 제일로 할 일이다.
 그러므로 송(宋)나라 휘종황제(徽宗皇帝)가 이르길 부지런히 배우 사람은 벼(禾)
 갈고 나락(稻)갈고데 배우지 않았으면 사람은 쭉(蒿)갈고 풀(草)갈다. 벼갈고 나락갈고
 것은 나라의 정미로운 식량이니 세상의 보배이지만 쭉갈고 풀갈고 것은 노약이나 싹어하
 고 김매는 사람이 괴로워 하는 것이다. 대저 발가는 것은 괴로운 일을 견디며 애쓰는

것만 같지 못하고 배우는 것은 애틀 써가며 부지런한 것만 같지 못하다. 애틀 쓰며 부지런히 하면 명예와 이익이 있어 빛날 것이요 괴로움을 면디며 애써 갈면 반드시 영화스러운 즐거움과 편안하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일찍 동소남(童召南)이 아침에 나가 밭갈고 저물면 들어와서 글을 읽히고 후이산에 가서 나무하고 후은 물에 들어가 고기잡았다는 두어가 지 글귀를 읽히고 무릎을 탁 치며 탄식하길 옛 사람은 이 두가지를 겸하였는데 지금 사람은 읽는 것도 독실하지 않고 밭가는 것도 부지런하지 않아 후 반론이나 가다가 그만두고 땅을 그워 배우지 않고 후은 그 시기를 잃어 가을에 수확하여 저장해 둘 방법이 없으니 한탄스러움을 이길소나. 농사와 학문 두가지를 겸하여 온전하게 하기가 어렵다. 한가지만 지켜 행한다면 어찌 그다지 어렵겠는가 대개 뜻이 독실하지 못하고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요사이 이 두가지를 겸해보려고 수일간을 행해보니 밭을 갈면 글이 밭으로 들어오고 글을 읽으면 밭이 책속에서 거칠어지니 대저 어려운 일이다. 글을 읽으면 밭가는 것이 좌(左)로 돌아가고 밭을 갈면 글이 좌로 돌아다니 양화(陽貨)가 말하였듯이 인(仁)을 하면 부자가 못되고 부자가 되면 인(仁)하지 못하다는 것이 바로 이를 이르는 것이다.

答野人說

余靜坐山齋一日有人從野人問曰子之宴居常謂左右曰禍因惡

積福緣善慶天之生民理固有之云然吾獨無理云也曰何哉曰觀此世俗貧益貧富益富何謂有理且暴虐者多子孫足衣食仁善之家貴子孫無衣食何謂有理也曰否是何言耶暴虐者渠雖虐先世積蔭蔭貽子孫仁善者渠雖善先世積惡惡遺子孫子孫之盛衰貧富之分殊從此可觀也古語不云乎積善之家必有餘慶積惡之家必有餘禍豈謂理之無也夫水木亦然枝幹遠達者前日培養其根者也派流長遠者大有其源者也故源大者不舍晝夜涓涓而流根固者不嫌秋冬鬱鬱而盛不舍晝夜而流者終八河海不嫌秋冬而盛者終成棟樑若非培根不枯而何成棟樑若非有源不涸而何八河海培養之木必有光華無源之水必爲涸渴積善者如培根光華之木積惡者如無源涸渴之水也豈謂理之無也

야인에게 대답한 말

내가 조윽히 채산재(採山齋)에 앉았는데 어느날 어떤 사람이 들로부터 들어와서 문

기를 당신이 한가할 때는 항상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에 이르길 화(禍)는 악(惡)이 쌓인 것 때문이요 복은 선경(善慶)에 인연함이니 하늘이 백성을 내는 이치가 진실로 있는 것이라 하고 하나 그러나 나는 홀로 이치가 없는 것이라 하고 하나 무슨 말이냐 하고 기에 내가 말하길 이 세상 풍속을 볼 때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고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니 무슨 이치가 있다고 이르리요. 또 포악한 사람은 자손이 많고 의식이 족하나 어질고 선한 집엔 자손이 귀하고 의식이 없으니 무슨 이치가 있다고 하겠는가 하고 고하니 말하길 그렇지 않다. 이 무슨 말이냐 포악한 사람은 그가 비록 사납더라도 선대에 음덕(陰德)을 쌓아서 그 음덕이 자손에게 끼친 것이요 어질고 선한 사람은 그 자가 비록 선하나 선대에 악을 쌓아서 그 악이 자손에게 끼친 것이다. 자손이 왕성하고 쇠잔해지는 것과 가난하고 부자가 되는 분수가 다른 것을 이를 쫓아서 가히 볼 것이다.

옛말에 이르지 않았느냐 선을 쌓으면 집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고 악을 쌓으면 남은 화가 있다고 하였으니 어찌 이치가 없다고 하겠는가 대개 물이나 나무도 그런 것이니 가지나 줄기가 멀리 발달하는 것은 전일 에 그 뿌리를 부둥고 기른 것이요 무릇 열의 흐름이 길고 먼 것은 큰 수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원이 크면 밤낮 없이 이 물이 졸졸 흘러가고 뿌리가 견고하면 가을이나 겨울을 싹이 안고 울창하게 왕성한 다. 낮과 밤을 쉬지 않고 흐르는 물이 마침내 큰 바다에 들어가고 가을과 겨울을 싹

積福緣善慶天之生民理固有之云然吾獨無理云也曰何哉曰觀此世俗貧益貧富益富何謂有理且暴虐者多子孫足衣食仁善之家貴子孫無衣食何謂有理也曰否是何言耶暴虐者渠雖虐先世積蔭蔭貽子孫仁善者渠雖善先世積惡惡遺子孫子孫之盛衰貧富之分殊從此可觀也古語不云乎積善之家必有餘慶積惡之家必有餘禍豈謂理之無也夫水木亦然枝幹遠達者前日培養其根者也派流長遠者大有其源者也故源大者不舍晝夜涓涓而流根固者不嫌秋冬鬱鬱而盛不舍晝夜而流者終入河海不嫌秋冬而盛者終成棟樑若非培根不枯而何成棟樑若非有源不涸而何入河海培養之木必有光華無源之水必爲涸渴積善者如培根光華之木積惡者如無源涸渴之水也豈謂理之無也

야인에게 대답한 말

내가 조응히 채산재(採山齋)에 앉았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들로부터 들어와서 묻

기를 당신이 한가할 때는 항상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에 이르길 화(禍)는 악(惡)이 쌓인 것 때문이요 복은 선경(善慶)에 인연함이니 하늘이 백성을 내는 이치가 진실로 있는 것이라 하고 하나 그러나 나는 홀로 이치가 없는 것이라 하고 하니 무슨 말이냐 하고 기에 내가 말하길 이 세상 풍속을 볼 때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고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니 무슨 이치가 있다고 이르리요. 또 포악한 사람은 자손이 많고 의식이 족하나 어질고 선한 집엔 자손이 귀하고 의식이 없으니 무슨 이치가 있다고 하겠는가 하고 고하니 말하길 그렇지 않다. 이 무슨 말이냐 포악한 사람은 그가 비록 사납더라도 선대에 음덕(陰德)을 쌓아서 그 음덕이 자손에게 끼친 것이요 어질고 선한 사람은 그 자가 비록 선하나 선대에 악을 쌓아서 그 악이 자손에게 끼친 것이다. 자손이 왕성하고 쇠잔해지는 것과 가난하고 부자가 되는 분수가 다른 것을 이를 쫓아서 가히 볼 것이다.

옛말에 이르지 않았느냐 선을 쌓으면 집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고 악을 쌓으면 남은 화가 있다고 하였으니 어찌 이치가 없다고 하겠는가 대개 물이나 나무도 그런 것이니 가지나 줄기가 멀리 발달하는 것은 전일 왜 그 뿌리를 부둥고 기른 것이요 물결의 흐름이 길고 먼 것은 큰 수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원이 크면 밤낮없이 이 밤이 졸졸 흘러가고 뿌리가 견고하면 가을이나 겨울도 싹이 안고 겨울이 깊어지면 다. 낮과 밤을 쉬지 않고 흐르는 물이 마침내 큰 바다에 들어가고 가을과 겨울이 싹

어하지 않고 번성한 나무는 종당엔 대들보가 되는 것이다. 만약 뿌리를 부둥기지 않았다면 마르지 않고 어떻게 대들보 되었겠는가! 부둥기지 않고 뿌리를 부둥아 빛나고 화려함이 있고 수원이 없는 물은 반드시 고갈할 것이다. 선을 쌓는 자는 뿌리를 부둥아 빛나고 화려한 나무 같고 악을 쌓는 자는 수원이 없어 고갈하는 물과 같으니 어찌 이치가 없다고 하겠는가.

鹽說

或有問於余曰鹽兮塩兮鹽之爲物也潔白如雪而輕重且異何也余應之曰其性皆無是異而亦莫不有是氣孟子答告子曰白羽之白猶白雪之白白雪之白猶白玉之白歟由此觀之物之性理之所殊固可知也夫供甘旨如非此物無以調味此乃飲食中最先爲宗貴者也曰然則必也產地多矣產地幾地曰余嘗聞之南北產于海中西川產于井底并州產于池澤康軍產于巖上井太產于寧山飛似瀑布湖中產于巖上又產于木或出於崖或出於石也曰然則各

處所産色與醜其所同然乎曰天下之口皆相似又天下之飲食亦皆相似豈有異味哉此皆理之一也問者唯唯而退余爲記說焉

貴客曰曰然限山其處多矣其氣味亦同余嘗聞之南此氣于氣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물기를 소음이며 소음이라 하는 물건은 깨끗하고 희기가 나는 것인데 가볍고 무거운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하니 내가 응하여 말하기를 그 성질은 다 이와 다른 것이 없고 또한 이 기(氣)가 있지 않는 것이 없다. 맹자(孟子)님께서 고자(告子)에게 대답하시길 흰 것과 흰 것은 흰 것과 같고 흰 것은 흰 것은 흰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으로 연유하여 본다면 물질의 성질과 이치의 다른 바를 진실로 알 것이라 하고 하였다.

대개 단맛을 제공하는데는 이 물건의 아닐 것 같으면 맛을 고를 수가 없으니 이는 음식중에서 최선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니 말하길 그렇다면 반드시 생산하는 곳이 많을 것인데 생산하는 곳이 몇군데나 되는가요 하니 대답하길 내가 일찍 들으니 남북(南北)에선 바다속에서 생산되고 서천(西川)에선 샘 밑에서 생산되고 병주(井州)에선 못 속에서 생산되고 강군(康軍)에선 바위 위에서 생산되고 정태(井太)에선 영산(寧山)에서 생산되는데 나르는 것이 폭포와 같은 호중(湖中)에선 바위

위에서 생산되고 또 나무에서 생산되고 흙 나뭇잎 지 가에서 나오고 흙은 돌에서도 나온다고 하니 말할길 그러면 각처에서 생산되니 색깔과 짠맛이 같으니가유함에 대답하길 천하의 일은 다 서로 같고 음식도 다 서로 같은데 어찌 다른맛이 있으리요. 이는 다 이치가 하나인 것이라고 하니 듣던 사람이 그렇겠다고 대답하고 물러가니 내 가 기록하여 말하노나.

倉鼠嘲厠鼠說

倉鼠問於厠鼠曰君之居污穢之中又飲食於泥塗之下未知其所樂何耶厠鼠默然有間曰何有樂味哉霑體污穢蒙首不潔或蹴糞掠土從噬微蟲或越墻穿穴竊嚼殘穀一或蹉跌輒墮機檻僅得避禍又遭犬尨驚魂駭魄庶乎萬端弱子孱孫徃徃橫罹由來苦業如斯而已何不慨歎也願聞君之生樂乎倉鼠仰天大笑曰余之生異乎是宅處倉廩之中墻院庇廡精穀陳腐無時含飽叩腹食之不盡用之不竭不可計量故不探外物不出外道何有機檻之患人犬之

禍也安享一生百子千孫不搔頭而相樂也廁鼠冷笑曰均是同根
 生以其處榮樂苦濕若是薄命一生者則李斯之歎亦明矣然而吾
 輩常在泥塗之下四望昏黑人犬寂寥則出頭曳尾自任往來也至
 於高明其倉廩時積則富或糶空虛則其如之何若恃長久則禍敗
 不遠也探前究後勿笑吾輩泥塗之安如何倉鼠默然有間曰君何
 爲不祥之言也頃之主翁呼猫放廩而盡除之嗚呼且今貪權毫利
 者與專恃富貴者宜自鑑戒無以廁鼠之所笑也夫歟

창고의 쥐가 측가의 쥐를 조롱하는 말

창고에 있는 쥐가 측가의 쥐에게 물기를 그대는 더러운 속에서 살면서 또 진탕길
 밀에서 음식을 먹으니 그 즐거움이 무엇이든 모르겠다고 하니 측가 쥐가 무뎠이 시간
 을 두었다가 말하길 무엇이든 맛이 있겠는가 몸에는 더러운 것으로 젖어 있고
 머리는 불결한 것으로 무릅써 있으며 혹은 똥을 차고 흙을 취하여 적은 벌레를 씹기
 도 하고 후이는 다짐을 더하고 구멍을 뚫어 구멍을 볼 때 번기도 하다가 한 번이나
 후차질이 생기면 구멍을 틀어 버리고(취득한 것)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겨우 화를 피하면 또

개나 삼살개를 만나 혼이 나가도록 놀래고 녀이 나가도록 놀래어 거의 만사가 끝난
 듯하고 약한 자식이니 잔약한 손자들이 가끔 행액을 당하기도 하는데 내려오는 괴
 로운 직업이 이걸을 따름이라 어찌 분개스럽고 한탄스러운 일이 아닌가! 원컨대 그
 대의 즐거운 생활을 들어보자 창고 쥐가 하늘을 우러러 보며 크게 웃고 말하길 나의
 생활은 이와 다르다. 이 댁의 창고 속에 살고 있는데 담장으로 절채를 둘러싸고 꽤
 깨끗한 곡식이 오래되어 썩고 있어 때없이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리고 있는데 먹어도 다
 먹지 못하고 써도 다 쓰지 못할 만치 그 양을 셀수 없으므로 다른 물건은 탐내지 않고
 밖으로 나가지도 않으니 무슨 쥐똥같은 근심과 사람이나 개의 화가 있으리요. 편안
 하게 일생을 먹으며 백자식 천손자가 머리를 긁지 않고 서로 즐거워 하노라고 하니
 측간의 쥐가 냉소하면서 말하길 모두 다 한 뿌리에서 나와 영화스럽게 살고 고통스럽
 게 사는 것이 이와 같으니 박명하게 일생을 산 것은 이사(李斯)·진시황제 때 정치가(刑)의 탄식
 에서 또한 밝혀졌다.

그러나 우리들이 항상 지함탕 속에서 있으면서 사방이 퍽퍽해져 사람과 개가 고요
 해지면 머리를 내밀고 꼬리를 끄으며 마음대로 왔다갔다 하는데 귀하게서는 그 창고
 가 때로 쌓여지면 부자이지만 후 쌀을 팔아서 창고가 비우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
 약 오래도록 가리라고 믿으면 화나 폐단이 멀지 않을 것이다. 앞일을 더듬어 뒷일을
 구리해 보면 우리들이 지함탕 속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을 웃지 않는 것이 어떨고!

창고취가 무뎡하게 사이를 두었다가 말하길 그대는 어찌하여 상서롭지 못한 말을 하
는가 잠시 후에 주인장께서 고양이를 불러 창고에 놓아 다 없앨 것이다. 슬프다 또 지
금 권세를 탐하고 이욕에 빠진 자들과 오로지 부귀만을 믿는 자는 마땅히 스스로 경계
하여 측간취의 우슴거리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孫龐二子冰炭說

噫仁德重乎功利重乎施仁尚德則萬人仰慕計功謀利則萬人耻
笑理之常也彼魏之龐涓齊之孫臏曾同師同學不尚仁德寬厚但
學功利武勇涓爲魏將臏爲齊將孰不謂養勇計功者乎當魏之伐
韓而困之也韓之請救急於齊勢困之矣臏之爲竈計劃涓之倍日
逐行皆是一般兵術然臏期陜道馬陵萬弩俱發出奇逞詐也涓至
大樹白書下以火燭之無智沒量所致也故自刎曰遂成豎子之名
噫功利不如仁德武勇不如寬厚以二子究其平日同學之誼臏之
挾道伏兵涓之逐行豈不相失交誼也然惟其所在竭盡心力爲人

臣之道也。二子之到此交誼猶屬第二。何惜其仁厚交誼。初不如不學兵法之爲愈也。

손빈(孫臏)과 방연(龐涓) 두 사람이 이름과 숫이라는 말

아! 어진 덕(仁德)이 중한가 공과 이꼇(功利)이 중한가 인(仁)을 베풀고 덕(德)을 숭상하면 만인이 우러러 사모하고 공이나 계산하고 이꼇이나 도모하면 만인이 웃는데 이치의 떳떳함이다. 저 위(魏) 나라의 방연(龐涓)과 제(齊) 나라의 손빈(孫臏)은 일찍 한 스승 밑에서 같이 배웠는데 인덕(仁德)과 과후(寬厚)한 것을 고상하게 여기지 않고 다만 공리(功利)와 무용(武勇)만을 배워 연(涓)은 위 나라의 장수가 되고 빈(臏)은 재 나라의 장수가 되었으니 누가 용맹을 기르고 공을 계산하자 라고 하지 않았는가.

위 나라가 한(韓) 나라를 정벌할 때를 당하여 곤란하게 된 한(韓) 나라가 재 나라에 구원을 청하니 형세가 곤란하였다. 빈(臏)이 계획을 세운것은 연(涓)이 날마다 배로 쫓아가니 다 이것은 일반적인 병술이라고 하고 빈(臏)은 좁은길인 마릉(馬陵)땅에서 수많은 화살을 한꺼번에 쏘아낼 것을 기약하니 기발하고 쾌활한 속임수를 쓴것이다. 연(涓)이 대수백서(大樹白書) 밑에 이르러 불을 지름은 모두 죽을것을 알지 못한 소치

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목을 매며 이르길 드디어 그 녀석이란 이름을 이루었다고 했다. 슬프다. 공리는 인덕만 갈지 못하고 무용은 관후한 것만 갈지 못하니 두사람이 그 평일에 갈이 배우던 우의를 구구해 보면 빈(贖)이 좁은 길에서 북명한 것과 연(涓)이 앞으로 달려 행진한 것은 어찌 서로가 사귀던 우의를 잃은 것이라고 안팎을 가. 그러나 오직 그 직위에 있어선 심련을 다 받친 것이니 신하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다. 두사람이 이에 이르니 사귀던 우의는 오히려 두번째에 속하게 되니 어찌 그 인자하고 후덕할 것을 아끼겠는가. 우의를 사귀던 처음에 방법이 더 좋다고 배우지 않았던 것만 갈지 못하다.

吳王夫差用伯嚭亡國說

孔子曰佞人殆夫佞人者止於諂諛順從而己不知義之所在但利是循故也利在君父則從君父而諛利在權臣則從權臣而諛利在戎狄則從戎狄而諛可不憎哉若忠臣則不然從義而不從君邪守直而不從君枉也惟吳太宰伯嚭不然受越賂讒子胥於夫差亡其國亡其國者亡其君亡其臣亡其民亡其身也以重賂輕其君至於

亡國豈不痛惜哉夫差之志切於越人之殺其父讎朝暮薪中切齒
剖心者已久而幸雪夫椒之地矣有一佞夫伯嚭讒忠臣子胥於其
君夫差夫差不用子胥之忠諫反聽伯嚭之讒諛釋放仇讎沒於佞
諛賜屬鏹之劍復取其尸盛以鷓夷投之江中自遺後患人民知其
忠烈立祠憐之惟夫差終不知其悟其賢矣其後姑蘇山上三戰三
北後乃覺其賢曰吾無以見子胥悞冒以死聖賢所謂近君子遠小
人豈不爲後世之龜鑑歟

오왕(吳王) 부차(夫差)가 백비(伯嚭)를 기용하여 나라를 망한 말

고자님께서 말씀하시길 간사하며 구변이 좋은 사람은 위험한 것이니 구변이 좋은
사람은 아첨하고 수종하기에 그칠 따름이요 의리의 소재를 알지 못하고 다만 이끄만
을 따르는 까닭이다. 이익이 군부(君父)에 있으면 군부를 따라 아첨하고 이익이 권
신(權臣)에게 있으면 권신을 따라가 아첨하고 이곳이 오랑캐에 있으면 오랑캐를 따
라가 아첨하니 미답지 않음이야! 만일 충신이라면 그렇지 아니하고 의리를 따라가고
이름의 사악한 것이 다르지 않으니 권익만을 지키고 이름의 굽은 것이 다르지 않느니라. 오

직 오나라 재상인 백비(伯嚭)는 그렇지 않았다. 월(越)나라에서 뇌물을 받고 자서(子胥...오나라의 충신)을 부차(夫差)에게 참소하여 그 나라를 망하게 하니 그 나라를 망하게 한 자는 그 임금을 망하게 하고 그 신하를 망하게 하고 그 백성을 망하게 하고 그 몸을 망하는 것이다. 중한 뇌물로 그 임금을 가버이 여겨 나라를 망하게 하였으니 어찌 슬프고 애석하지 않으랴.

부차(夫差)의 뜻은 월나라 사람이 그 아비를 죽인 원수를 갚는데 간절하여 아침 저녁으로 쉰나무 속에서 이를 갈며 마음들을 들어낸 것이 이미 오래되었는데 다행히 부초(夫椒)를 설유할 땅에 이르렀는데 아첨 잘하는 사람 백비가 있어서 충신 자서를 그 임금 부차에게 참소하여 부차가 자서의 충성스럽게 간하는 말을 들어 쓰지 않고 도리어 백비의 참소하는 아첨을 들어 원수를 석방하고 말 잘하는 아첨에 빠져 속루(屬鏤)라는 명검을 주고 다시 그 시체를 취하여 말가죽 푸대에 담아 강속에 던졌다. 후한을 남긴 뒤로부터 사람됨이 그 충렬을 알고 사당을 세워 가련하게 여겼지만 오직 부차만은 끝내 그 어짐을 깨달을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 뒤에 고소산(姑蘇山) 위에서 세 번 싸워 세 번 패배한 뒤에야 그가 어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르길 내가 자서를 볼 수 없다고 하고 일탈을 쓰고 주었다. 성현(聖賢)이 말하였듯이 군자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하라는 것이 어찌 후세의 귀감이 되지 않게겠는가.

自樂說

夫差之志也... 其父... 其

夫喜怒哀樂皆情之所發也若偏喜偏怒偏哀偏樂則反害其情故一喜一怒一哀一樂皆無偏詖而中於道義則所行無不平正洽和而小無仍滯豈不慥慥做工也余卜居山南溪北有時而漁以奉甘旨出入荆室以導家規同盤兄弟以友悌恭都率穉子以教俎豆升堂接書與生徒論古說今難疑問答或清風明月與友相酬題詩呼酒登東山叙嘯出南郊而耕田自以爲樂何樂加此且路斜東西時有從我者左右來之花發庭砌時有蝶使尋香竹樹深院諸鳥亂鳴池塘活波衆魚於物垂柳陰裏黃鸝求友疎簾壁上玄鷲賀主十尋松簷白鶴報賓數株桃院青猗吠人此非助我隱跡之物耶然則一花一艸毫髮烟光莫不隨樂而左琴右書山水自娛朝家城市事自外置之繁華是非一切禁斥以癡蠢爲行以聾啞爲主被短褐着大帶大冠履齒屐行步石徑徘徊林間逍遙永日徑過長夜常自負樂意陶陶圍圍傍人不知此樂而以我謂偷閒子云故以著吾樂也

스스로 즐긴다는 설

대개 기쁘고(喜) 성내고(怒) 슬퍼하고(哀) 즐거워(樂) 함은 다 정에서 발로 되는 것이다. 만일 편벽되게 즐겁다면 도리어 그 정에 해로운 그로 한번 기쁘고 한번 성내고 한번 슬프고 한번 즐거움을 다 편파가 없이 도의에 맞으면 행하는 것이 평정하지 않음의 없이 화합하여 조음도 막힘이 없으니 어찌 성의있게 공부나 일을 힘써 하지 않음으로 내가 사의 남쪽 시내의 북쪽에 터를 잡고 때로는 고기잡아 맛있는 음식이므로 봉양하고 늘 임하는 방에 출입하면서 가정 구울을 인도하고 형제가 함께 즐기며 우애하고 공경하고 어린 자식을 거느리고 제사 지내는 절차를 가르치고 당(堂)에 올라 책을 접하고 생도들과 더불어 옛일을 논하고 오늘날 말하며 어렵고 의심난 점문을 무답하고 후기를 바람 맑고 달 밝을 때는 벗과 더불어 서로 수작하면서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며 동산에 올라 휘파람을 불니 남쪽들에 나가 발을 가는 것을 낙으로 삼는데 무슨 낙이기에 더하리요.

또 기일이 동서로 비칠 때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좌우에서 오고 꽃이 들의 섬돌에서 필 때는 나비가 향기를 찾으며 대나무 기린 짐승이 여러 새들이 지지지고 못속의 활발한 물결에 여러고기가 가득 찼다. 버드나무 그늘이 드리운 속에 왜고리는 벗을 구하고 발을 걷어 번위에서 제비가 주인에게 하례하며 열질되는 소나무 처마엔 흰학이 손님에게 대답하고 두어 그루 북성 발에선 푸른 삼살개가 사람을 짓으니 이것이 내가

숨어사는 자취를 도와주는 물자들은 아니나 그런즉 하나의 꽃 하나의 풀 터럭만한 연기빛도 즐거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없으며 왼쪽의 거문고 오른쪽의 책과 산수로 스스로 즐기고 조정이나 일반 사회의 일은 밖에 다 두고 변화하고 시비하는 것은 일절 금하고 배척하며 어리석은 듯 행동하고 귀면의 병어리로 주(主)를 삼는다. 저 천한 옷에 큰 띄와 큰 관을 쓰고 이빨 돋은 나막신을 신고 돌기를 걸으며 쇼사이를 배회 하고 기남을 소요하며 기밤을 보내는 것이 항상 자부하는 즐거운 뜻이니 매우 화락 하면서도 괴로워 하는 것을 결 사람은 이 낙을 알지 못하고 나를 한가함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로 내 즐거움을 지으니라.

至理不二說

夫天陽地陰乾坤成德日陽月陰造化成形皆渾然無雜之理也故乾坤以陰陽五常之德化生萬物氣以成形而賦理日月以太陰太陽之精輝明萬區無一不所照皆是霄壤無跡無私之功也兩儀之際入參三才爲夷狄禽獸之主此皆仁與義之分定故也故退溪先生曰太極爲陰陽之主然太極反爲陰陽之所運用也凡生物之理氣莫不皆太

極陰陽理氣之所分也夫人之飲食且有理氣賦焉所欲食飲者理也欲食飲者氣也欲食飲則既有所食飲食之理也且書士之磨墨亦然斟水所欲磨者理也操墨行磨者氣也操墨行磨則既有斟水所欲磨之理無理氣何成形無氣理何賦焉理固一而已

지극한 이치는 둘이 아니다는 설

대개 하늘(양)이요 땅(음)인데 하늘과 땅으로 더불어 이루고 하는 양(陽)이요 달(음)이요 조화로 형체를 형성하는데 다 더불어 어울리게 섞임이 없지는 이치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은 음양오상(陰陽五常)의 덕으로 만물을 낳고 기(氣)로써 형체를 이루고 이치를 부여하며 일월(日月)은 태음태양(太陰太陽)의 정신으로 만방에 밝게 비취여 한곳에도 비치지 않는 곳이 없으니 다 이것은 하늘과 땅이 자취가 없고 사사로움이 없지는 곳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참여하여 삼재(三才)가 되어 오랑캐와 짐수의 지배자가 되니 다 인(仁)과 의(義)가 나누어 정해진 까닭이다.

퇴계선생(退溪先生)이 말하길 태극(太極)은 음양의 주(主)가 되나 그러나 태극은 도리어 음양의 양양하는 것이 된다고 하였다. 무릇 생물의 이기(理氣)는 다 태극과 음양과 이기의 나누어짐이 아닌 것이 없다. 대개 사람이 마시고 먹는 데도 이기가 부

여되어 있다. 먹고 마시고자 하는것은 이(理)요 먹고 마시는 것은 기(氣)다. 먹고
 마시는것은 이미 먹고 마시고자 하는 이(理)가 있었음이라. 그 글씨를 쓰는 선비의
 먹가는 것도 또한 그렇다. 물을 붓는것은 같고자 하는 이(理)요 먹을 잡고 가는것은
 기(氣)다. 먹을 잡고 가는것은 이미 물을 붓고 같고자 하는 이(理)가 있었음이다.
 이(理)가 없으면 기(氣)가 어떻게 형체를 이루고 기가 없으면 이가 어떻게 부여되
 었겠는가 이(理)는 진실로 하나일 뿐이다.

南珠公信齋
 馥下大報齋
 士張兼復齋

南耘公記蹟

贈丁大雅遠翼

進士愚齋鄭載弼

余與丁大雅契分有素前者再度訪問未嘗無講劇論說而竊覲其
天姿冲謙文程夙就德輝之蘊於中而英華之發於外者譬諸鑿枘
相合柵槿不差有非俗下秀才所可擬倫也以若大受之器獨坐窮
山兀然讀書則是先儒比之鸚鵡之說而吞棗之昆圖未可免也可
懼也已噫夫何挽近以來稂莠雜處冠履倒置程朱之道不幸楊陸
之說橫流駸駸然入於禽獸之域是故斯文有坎坷之懷英雄有礮
礮之志蓋以此也如有慷慨之心則夫以江南寡弱豈無尺寸之刃
乎當此之際有志之士拘於俗務不曰讀書則是昭敗績而歸罪於
儀也望所學則百千俗務詎能撓我方寸也蓋好學之方先攻那難
處去理會文義則一日而二日二日而三日漸進於長長之地而其

於性理格致之功庶幾可效而修齊治平之道亦可以企及耳母爲浪度硬著實地以爲逐臭之人聞道之鬼如何何然今之人不讀書爲可惜也

정대아 원인에게 즈믄

내가 정대아(丁大雅)로 더불어 친분이 본래 있었는데 두번째 방문했을 때 학문을 강하고 학설을 의논한 적이 없지 않은데 저이기 그 타고난 바탕이 온화하고 겸손하며 문정이 일찍 성취하여 덕스러운 빛이 속에 쌓여있고 우수한 문장력이 밖으로 발휘되고 이것은 것을 볼때 비유하자면 등근장부는 등근 구멍에 서로 맞고 을짚과 버림목이 어그러지지 않으니 세속의 수재로는 차례를 견줄 수 없다. 이와같이 크게 받든 그릇으로 기표는 산속에 홀로 앉아 미련스레 글만 읽는다면 이는 옛 선비들이 비교한 것처럼 앵무새가 흥내내는 말이요 탄조(呑棗)와 한 덩어리를 면치 못할 것이니 두려울 따름이다.

아(어찌하여 몇해 전부터 지금까지 어진이를 해치는 자가 섞여 살고 상하가 전도 되니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도(道)는 불행해지고 양주(楊朱)와 육상산(陸象山)의 설(說)은 범람하여 말이 달리는 것처럼 빨리 금수(禽獸)의 구역에 들어온다.

이러므로 유학자들은 세상에 쓰이지 못할 회포가 있고 영응에게 가슴속에 불평이 쌓인 뜻이있는 것은 대개 이런것 때문이다. 만일 의문에 복받치는 마음이 있다면 남쪽 먼지방의 작고 약한 사람이라도 어찌 짧은 칼이든 없앨수나.

이를 당한 지금에 뜻있는 선비가 세속적인 잡무에 연매어 글을 읽지 않으면 이는 크게 패하는 것은 환한일이고 죄(罪)가 의표에 돌아가리라. 배우기를 희망한다면 백천이나 되는 잡무라도 어찌 능히 내마음을 흔들것인가. 대개 학문을 좋아하는 방법은 먼저 어려운 곳을 쳐서 버리고 글의 의의를 이해한다면 하루에서 이틀이 가고 이틀에서 사흘로 점점 길어져 가는 땅으로 나아가면 그 성리(性理)와 격물치지(格物致知)의 공(功)에 거의 효력이 있을 것이요. 수신(修身)제가(齊家) 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의 도(道)에도 또한 바램이 미치리라. 함부로 건너지 말고 실지에 부딪쳐냄새를 쫓는 사람 도(道)를 듣는 귀신이 되는것이 어떻겠는가.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글을 읽지 않으니 애석하도다.

진사 우재 정재 필 씀

南耘丁君翼燮行狀

君諱翼燮改諱海鵬字遠翼號南耘丁氏其先押海人高麗大別相都元帥悅爲上祖太子太傅忠烈公允宗門下侍中公壽佐命功臣

純佑昭格署令白隱宗甲繩歸田里治隱入于金烏山公與林卓歸于錦城山中朝鮮太祖有召命不起獻義自靖恥齋克隆端宗癸酉文科大司諫及端宗遜位挈家入于永平之聖德山下每於端廟諱辰入越峴臺北向痛哭思庵彥奎仁祖丙子扈駕南漢山城以勞勩除端川府使於君七世以上府使有孫曰道一號南隱近齋朴文獻公門人文行俱著始居于谷城之蓮洞是生翊相即君之高祖也曾祖獻斗號杜谷祖文教號野隱受業于吾先子蘆沙先生門以孝贈都正考大覲號石蓮早從崔勉菴先生受學與弟大瑢友愛甚篤築相宜亭庚戌屋社杜門自靖而終世門人築壇寓慕有遺稿行于世妣全州崔氏三淳女全州李氏東宇女咸陽吳氏基萬之女俱有闡範君崔氏出辛亥正月七日時降辰也自幼穎悟甫上學不煩程督而自能知沉潛究玩未嘗有倦色事兩繼母也無異所生溫清以時定省無曠及其遭艱非服役不脫經衰非病甚不御厚

味日三展墓風雨不廢以親命贄謁于弦窩高先生得聞爲學之大要自後益自省重動作猷爲惟師訓是則持身以清謹交友以道義性愛山水凡遇一叢佳處徜徉而不知返與朋友作自居而惟其孝友之德端懿之義足以行於家而及於人者日斤斤而不自足蓋雖天植之美而得於學者爲多使之得長年而究業則必有可觀而偶遇疾以庚寅五月二十一日竟不起年僅四十其疾革也招家人託以善養老父至於家間事一未及焉以不終養爲窮天之恨焉計出遠近之識君者惻惻如喪其屬獎本郡木寺洞虎谷負巽原配豐川盧氏準鉉之女弘窩士豫后婦德甚備鄉薦其烈孝有褒賞生五男二女男宗杓娶玉川趙正秀女次奎赫娶光山金在根女次奎重奎淳奎完女適延日鄭景澤密陽朴鍾甲餘幼不盡錄嗚呼悲夫以君忠厚之姿謹慎之行早就有道之門趨向已定而進取無所沮宅心制行要不失儒者節度此可以見君之志也宗杓能守志不惑非有

受於庭訓然乎亦可尚也懼其幽光之或泯謁余以狀行余於君家
世稔之熟矣安能以不文辭遂取實錄而櫟栝之以俟知者擇焉

歲壬寅臘

月 日

幸州 奇老章 撰

행자

군(君)의 휘(諱)는 익섭(翼燮)이요 고친 휘(改諱)는 해봉(海鵬) 호(號)는 남공(南耘)인데 정(丁)씨의 선계는 압해인(押海人)이다. 고려때 대별상 도원수(大別相 都元帥)를 지낸 열(悅)은 상조(上祖)가 되고 태자태부(太子太傅)를 지낸 충렬공(忠烈公) 유종(允宗)과 문하시중(門下侍中) 공수(公壽)와 좌명공신(佐命功臣) 수우(純佑)와 소격서령(昭格署令) 백은종갑(白隱宗甲)은 줄줄이 시골로 돌아왔는데 아(冶隱)은 금마산(錦馬山)으로 들어가고 공은 임락(林卓)과 더불어 금성사중(錦城山中)으로 돌아 왔었다. 조선 태조께서 조정으로 들어오라는 명령이 있었으나 일어나지 않고 의리를 지키고 스스로 조용히 지냈고 치재극용(恥齋克隆)은 단종(端宗)이 계유(癸酉)·一四六三년에 문과에 합격하여 대사간(大司諫)이었는데 단종(端宗)이 왕위를 양양할때 가정을 거느리고 영평(永平)의 성덕산 아래로 들어가 살며 매년 단종의 제사때는 월현대(越峴臺)로 들어가 북향하여 통곡했고 사암언구(思菴彦奎)는 인조(仁祖) 병자호란때 왕을 모시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공로로 단천부사(端川府

使)에 제수되니 공의 칠세(七世) 이상이요 부사공(府使公)의 손자 도일(道一)은 호(號)가 남은(南隱)으로 근재(近齋) 박문헌공(朴文獻公)의 문인으로 문행(文行)이 함께 뛰어난데 처음으로 곡성의 연동에서 살았다. 이분이 의상(翊相)을 낳으니 군의 고조부이다. 증조는 헌두(獻斗) 호는 두곡(杜谷)이요 조부는 문교(文教) 호는 야은(野隱)인데 나의 선조 노사선생(蘆沙先生) 문하에서 수업하고 효행으로 도정(都正)에 증직되고 부친 대현(大暉)의 호는 석연(石蓮)인데 일찍 최면암선생(崔勉菴先生)에게 쫓아가서 수학하고 아우 대용(大溶)과 더불어 우애가 매우 돈독하여 상의정(相宜亭)을 지었다. 경술년 나라가 망함에 무을 단고 조용히 지내다가 세상을 마치니 문인들이 제단(壇)을 쌓아 사모하였고 유고(遺稿)가 있어서 세상에 행해지다. 모친은 전주최씨(全州崔氏) 삼순(三淳)의 따님과 전주이씨(全州李氏) 동우(東宇)의 따님과 함양오씨(咸陽吳氏) 기만(基萬)의 따님인데 다 가정의 규범이 있었는 데 구은(奎)은 최씨가 낳으니 신해(辛亥:一九一一) 정월 칠일인 생신날이다.

어려서부터 뛰어난게 영리하여 겨우 입학하여서부터 번거롭게 과정을 들추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능히 기묘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질졸 알았고 일찍 게으른 빛이 있지 않았다. 두 제모를 섬김에 생모(生母)와 다름이 없었고 따듯하고 서늘함을 때에 맞추고 혼정(昏定)시성(辰省)을 비우지 않았다. 상(喪)을 당하여는 일할때가 아니면 상복을 벗지 않았고, 병이 심하지 않으면 맛있는 음식을 먼저 안았다. 날마다 세

번씩 성묘하면서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폐하지 않았다. 부친의 명령으로 현와 고선생(弦窩 高先生)을 폐백으로 배양고 학문하는 대강을 얻어들이니 후부터 더욱 스스로 살피고 동작을 무겁게 하며 괴하는 것을 오직 스승의 가르침대로 하니 이것이 즉 몸가짐을 맑고 삼가하는 것으로써 하고 벗을 사귀되 도의로써 한 것이다. 천성(天性)이 산수(山水)를 사랑하여 무릇 한떨기 아름다운 곳을 만나면 왔다갔다 하면서 돌아올 줄을 모르고 벗과 더불어 가뭏으며 스스로 즐겼고 오직 그 효도하고 우애하는 덕과 단아하고 아름다움의 리는 족히 집안에서 행하고 남에게 미치는 것을 날마다 환히 살피면서도 스스로 족하게 여기지 않으니 대개 비록 하늘이 심음은 아름다움이지만 학문에서 얻은 것이 많음에 장수(長壽)하여 학업을 연구하였다면 반드시 볼만한 것이 있었을테데 우연히 병을 얻어 정인(庚寅:一九五〇)五月 二十一일에 마침내 일어나지 못하니 나이 겨우 四十에 죽은 것이다.

집사람을 불러놓고 늙은 부친을 잘 봉양하라고 부탁하고 집안일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고 끝까지 봉양 못한 것이 하늘에 사뭇치는 한이 된다고 하였다. 부고(訃告)가 나가니 원근에서 군(君)을 아는 사람들이 그 혈족의 초상을 당한 것 같아 슬퍼했다. 본군목사동호곡(本郡木寺洞虎谷)·손좌(巽坐)를 짚어진 언덕에 장사지내다. 배위(配位)는 풍천노씨(豊川蘆氏)·준현(準鉉)의 따님인데 홍와사에(弘窩士豫)의 후손이다. 부인의 덕이 심히 갖추워져 향중에서 그 열효(烈孝)를 추천하여 포상이 있었다. 五

남(二녀를 낳으니 남(男) 종표(宗杓)는 옥천 조정수(玉川 趙正秀)의 따남에게 장가
 가고 차남 규혁(奎赫)은 광산 김재근(光山 金在根)의 따남에게 장가가고 차남은 규
 중(奎重), 규순(奎淳), 규완(奎完)이요 딸은 연일 정경택(延日 鄭景澤)과 밀양 박종
 갑(密陽 朴鍾甲)에게 출가했다. 나머지 다 기록하지 않는다. 슬프고 슬프
 다 구의 충후(忠厚)한 바탕과 근신(謹愼)한 행동으로 일찍 도(道)가 있는 문하에
 나아가 추향(趨向)을 이미 정하고 나아감에 막힐것이 없었다. 마음에 두고 잊지않는
 태심(宅心)과 행동(行)을 절제하는 제행(制行)은 선비의 절도를 잃지 않기를 요(要)한
 것이니 이에 가히 구의 뜻을 보겠다. 종표(宗杓)는 능히 뜻을 지키고 의혹되지 않으니
 나가 정교후(正교후)를 받지 않았다면 그렇겠는가 또한 가상스럽다. 그 아늑한 빛이 혹
 꺼질까 두려워하여 나에게 행장을 지어주길 아뢰니 내가 구의 집안과는 세교(世交)가 오
 래라. 어찌 글 못하는 것으로써 사양하리요 드디어 실록을 취하여 곧게 바로 잡고
 아는 사람이 가려주길 기다린다.

행주 기노장(奇老章) 지음

南耘丁公墓碣銘

南耘丁君翼燮既歿葬谷城郡木寺洞面虎谷負巽之原莊軒奇老

章公斌爲排其行治可以不朽於百世椎刻辭久病之餘難於伸紙
入思其孝思不可愬君一諱海鵬字遠翼南耘別號也押海人系出
高麗都元帥悅世襲簪組至昭格署令白隱宗甲國革歸錦城山中
獻靖沒世恥齋克隆仕朝鮮文科大司諫 莊陵遜位入永平聖德
山不復出世思菴彥奎 仁祖丙子扈駕南漢官端川府使七世以
上顯祖也南隱道一師近齋朴文獻公移家谷城爲君五世祖高祖
翊相曾祖杜谷獻斗祖野隱文教師蘆沙奇先生孝 贈都正考大
現號石蓮受業于勉菴崔先生門人築壇釋菜有遺稿行于世妣全
州崔氏三淳女全州李氏東宇女咸陽吳氏基萬女崔夫人以 隆
熙紀元後辛亥正月七日生君賦性極孝務悅親志事異顏若所生
有事則必稟有命則必從和氣怡聲未嘗少懈以親命從師弦窩高
先生禮義經旨覈玄蹟微庚寅夏偶得疾刀圭罔效以有親在堂而
不能終孝爲徹天之恨泫然而逝五月二十一日也得年僅四十君

娶豐川盧氏準鉉女生五男二女男宗杓奎赫奎重奎淳奎完延日
鄭景擇密陽朴鍾甲婿也宗杓生又鎮主鎮允鎮仲鎮奎赫生茂鎮
堂鎮乙鎮奎重生元鎮甲鎮一鎬奎淳生永鎮京鎮奎完生光鎮虎
鎮三鎮君承襲詩禮就正於有道之門篤行孝友秉心塞淵天若假
之以年則其所蘊之德必有宣著於世而未能焉慨惜也已惟椒聊
蕃衍盈盈升斗不食之報其在斯歟銘曰

豐於賦嗇于年人不能無憾天椒聊蕃升斗盈敦詩禮繼家聲銘于
石揭佳城

檀君紀元四千三百十二年 己未 九月 日

豐山 洪錫熹 撰

묘갈명

남근(南耘) 정공익섭(丁公翼燮)이 이미 죽어서 곡성군 목사동면 호곡 손좌(巽
坐)를 짚어진 언덕에 장사지내니 장헌기노장(莊軒奇老章)공이 빛나게 그 행적을
배열하여 백세(百世)에 이르도록 썩지 않게 하였다. 비에 새길 글은 오랜 명끝이라
글짓기가 어려웠으나 그 효도를 생각하니 가히 근심스럽게 할수 없다. 근

(君)의 한 휘(諱)는 해봉(海鵬)이요 자(字)는 원익(遠翼)이며 남근(南耘)은 별호다. 압해인(押海人)이니 계통은 고려 도원수(高麗 都元首) 열(悅)에서 나오니 대대로 이어온 벼슬 집이다. 소격서령(昭格署令) 백은(白隱) 종갑(宗甲)에 이르러 나라가 바뀌자 금성산중(錦城山中)으로 돌아와 고요함을 지키다 세상을 마쳤고 치재(奇在) (恥齋克隆)은 조선조(朝鮮朝)에 문과(文科)에 합격하여 대사간(大司諫)이었는데 단종(端宗)이 양위(讓位)함에 영평성덕산(永平聖德山)으로 들어가 다시 세상에 나오지 않았고 사암 언규(思淹 彦奎)는 인조(仁祖) 병자호란때 임금을 남한산성으로 모셨고 벼슬이 단천부사(端川府使)였는데 七世이상 현조다. 남은(南隱) 도일(南隱) 道一)은 근재 박문헌공(近齋 朴文獻公)을 사사(師事)하고 곡성으로 이사오니 구의 五世조요고조는 익상(翊相)이요 증조는 두곡헌두(杜谷獻斗)요 조부는 야은문교(野隱 文教)인데 노사기선생(蘆沙奇先生)을 사사하고 효행으로 도정(都正)에 증직되고 부친 대현(大現)의 호는 석연(石蓮)인데 면암최선생(勉菴崔先生)에게 수업하였다. 문인들이 제단(祭壇)을 쌓아 제사지내고 유고(遺稿)가 있어 세상에 행해지다. 어머니(妣)는 전주최씨 삼수(三淳)의 따님 전주이씨 동우(東宇)의 따님 함양오씨 기만(基萬)의 따님인데 최씨부인이 융희(隆熙) 기원후 신해(辛亥) 一九一一) 정월에 七일에 구을 낳으니 타고난 성질이 극히 효성스러워 어버이 뜻을 기쁘게 하는데 힘썼고 다른 어머니를 섬김에도 낳았어 어머니와 같이 하였다. 일이 있으면 반드시 아뢰고 명령이 있으면

면반드시 좃으며 화한 기운과 화열한 음성이니 일찍이 조그맣도 헤이되지 않았았다. 부친의 명령으로 현와고선생(弦窩高先生)에게 종사(從事)하여 예의(禮義)와 경지(經旨)의 오묘함을 밝히고 정묘함을 깨우쳤다.

경인(庚寅)·一九五〇(년) 여름에 우연히 병을 얻어 갖은 영약도 효과가 없어 부모가 계시지만 효도를 마치지 못함을 철천의 한(徹天之恨)으로 삼고 눈물을 줄줄 흐리며 죽으니 五월 二十一日인데 나이가 겨우 四十이었다.

풍천노씨(豐川蘆氏) 주현(準鉉)의 따님을 아내로 맞아 五남二녀를 낳으니 남(男)은 종표(宗杓), 규혁(奎赫), 규중(奎重), 규순(奎淳), 규완(奎完)이요 연일 정경택(延日 鄭景澤) 밀양 박종갑(密陽 朴鍾甲)은 사위다. 종표(宗杓)는 우진(又鎭), 규진(圭鎭), 윤진(允鎭), 증진(仲鎭)을 낳고 규혁(奎赫)은 무진(茂鎭), 당진(堂鎭), 을진(乙鎭)을 낳고 규중(奎重)은 원진(元鎭) 갑진(甲鎭) 일호(一鎬)를 낳고 규순(奎淳)은 영진(永鎭) 경진(京鎭)을 낳고 규완(奎完)은 광진(光鎭) 호진(虎鎭) 삼진(三鎭)을 낳았다. 군(君)이 시례(詩禮)를 이어받고 도(道)가 있는 문하에 나아가 옳고 그른것을 질문하여 바로잡고 효도와 우애를 독실하게 행하였으며 잡아 지키는 마음이 성실하고 기묘했다. 하늘이 만일 나이를 빌려주어 오래 살았다면 그 마음에 쌓여있는 덕이 필연코 세상에 들쳐 나다났을텐데 그렇지 못한것이 슬프고 애석할 따름이다. 오직 초(椒)나무 무성하여 대나 말에 가득찬 것처럼 자손이 번성하니 먹어 버

리지 않고 보답한다 함이 여기에 있는 것인가. 명(銘)하노라.

다그난 품성의 품만 하지만 나이에 이색하였네. 사람이 능치 못하여 하늘을 감탄케 할수는 없으나 초(椒) 번성하여 대나 말에 찻네. 시례(詩禮)를 돈독히하여 가문의 명성을 이었으니 돌에 새겨 묘소에 계시하네.

풍산 홍 석 희 지음

南耘遺稿序

夫士之類多矣有孝順焉者遺逸焉者有豪傑焉者此三者其氣象則迥別而至于心志之確一也近世浴川石谷坊詩壇文藪磊落相望而南耘丁公諱翼燮其較著者也公生育詩禮之庭遊學高明之門承襲石蓮先公之遺業精熟弦窩先生之傳旨孝聞遠播文譽長振適值不辰拋却名利日與同氣逍搖山水煙霞之中且耕且讀且觴且詠快然自得飄飄乎脫塵俗而畢生年纔四十矣惜乎天若假之以年其瞻博擴充之境烏可量也至若詩文清雅灑落可賞可欽

然此豈輕重於公乎夷考公之一生當可謂之孝順底士者歟遺逸
 底士者歟抑亦謂之豪傑底士者歟此則必有世之公評在不敢質
 言焉公之胤宗杓君亦孝謹人也勤蒐其散稿編成一局囑余于校
 盖以世交也縱知不堪何能終辭既而復請弁文殊因所感而有一
 說焉雖然余之所感者公之稿也稿之所載者公之糟粕也傳曰言
 者心之聲也世之見是稿者不以稿見公而以其言見公之心性之
 天則亦庶幾矣乎

惟庚申季 月上弦日 順興 安 泰 曾 序

서문

대범 선비의 류(類)는 많으니 호도하며 수종하는 이도 있고 벼슬하지 않고 숨어서
 는 이도 있고 호걸(豪傑)스러우니 이도 있으니 이 세가지는 그 기품의 결말양이다 다르지
 만 마음과 뜻의 화고함에 이르러선 한가지다. 근세에 옥천(浴川)·곡성(谷城)의 옛이름(의 석곡
 면에 시인들(詩壇)과 문인들(文藪)이 근세고 활발하기가 서로 대등한데 남근(南耘)

정공익섭(丁公翼燮)이 그 중에서 뚜렷이 들쳐났다. 공이 시례(詩禮)의 가정에서 낳아서 자라고 높음은 스승의 문하에서 유학하였는데 선친인 석연공(石蓮公)의 유언을 이어받고 현와 고선생(弦窩 高先生)의 가르친 요지를 정미롭게 익혀 효자라고 들리는 이름이 멀리 퍼지고 문하의 명성이 길게 떨쳤지만 마침 아닌 때를 만나 명예와 이익은 포기하여 물리치고 날로 동로들과 함께 산수의 경치 좋은 곳을 소요하면서 또는 밭갈고 또는 들을 일고 또는 술잔을 기울이고 또는 읊으며 상쾌함을 스스로 일고 티끌 세상에서 벗어난 곳에서 가며히 나부끼다 삼할 마치니 나이가 겨우四十이라 애달도다.

하늘이 만일 나이로써 빌려주었다면 넉넉하고 넉넉하며 넉넉하여 충신할 경지를 어찌 해아리겠는가. 시(詩)와 문장(文章)은 맑고 우아하며 깨끗하고 속기가 없어 가히 상줄만 하고 가히 흠탄할만 하다. 그러나 이것이 공(公)에게 가볍고 무거움이 되겠는가. 공의 일생사를 고통하게 논한다면 당연히 호순한 선비라고 할 것인가. 유일(遺逸)한 선비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호걸스러운 선비라고 할 것인가. 이는 반드시 세상의 공적비평이 있을 것이니 감히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겠다.

공의 큰 아들 종표(宗杓) 구도 또한 호성스럽고 근신한 사람이라 부지런히 그 흠어진 원고를 모아 학원의 책을 만들고 나에게 교정(校正)해 줄 것을 부탁하니 대개 대대로 사귀어 온 것이므로 그런 것이다. 모두 알기에는 감당하지 못하나 어찌 끝내 사양하리요 교정을 마치니 다시 서문을 청하기에 특별히 느끼는 바로 인하여 한 말을

두련다. 비록 그러나 내가 느낀것은 공의 유고(遺稿)요 유고에 실려 있는것은 공의
저꺼기다. 전(傳)에 이르길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했으니 이 유고를 보는
사람은 유고로써 공을 보지말고 그 말로써 공의 심성(心性)의 하늘을 본다면 또한
거의 알 것이다.

경신 상순 수흥 안 태 증 서

跋

余與丁友宗杓再遇而未知其家世之詳也後獲見其王考石蓮公
之遺稿而得知其學問淵源之深長矣一日宗杓負其先考南耘公
遺稿一冊請爲之跋而泣下曰我先人生值倭治苛酷之日彼方禁
我邦之語公每乘假集數里教之以我國之諺語渠詰責之拘之數
月得釋然不少懈焉且不幸嬰于奇疾遽爾中身其時吾不知省事
然今己年長則固知先人之平生結精惟在耳願吾子勿靳也余亦
爲之一涕以諾之閱其稿公素聰穎之姿承襲乎野隱石蓮父祖之

家學薰陶乎高弦窩之門屏若其學業之成就與夫秉心之醇厚正直奇莊軒洪城南之狀碣備述之矣夫公之所著論不止此而隨書棄之不爲屑屑傳後之計故今所餘者祇文數篇詩數百首耳蓋其爲詩格調清雅取材瞻饒而鼓鑄淘洗之妙有不逮焉然殆可與李海石柳南江不媿爲儔匹余嘆近世浴川詩人之多也雖然公當邦家離亂之時而年纔四十而歿天若假之以年則其所學所成豈止于此而已哉宗杓亦佳士也勤勤蒐拾於紙堆之中繕寫一局將欲付印而廣布之一爲宗杓孝思之深而賀之一爲浴川詩道之盛而賀之

光復後初庚申菊黃節長興魏啓道跋

발문

내가 정우(丁友) 종표(宗杓)와 더불어 두번 만났으나 그 가문의 대대로 내려온 내력은 자상하게 알지 못했는데 뒤에 그 조부 석연공(石蓮公)의 유고(遺稿)를 얻어

보고 그 학문연원(學問淵源)의 기원과 기원을 알게 되었다. 어느날 종표(宗杲)가 그의 선고(先考) 남근공(南耘公 遺稿) 한권을 읽어보고 와서 발문(跋文)을 청하면 서는 남근공을 흠리며 말할길 내 선인(先人)이 왜정치하 가혹하던 시절에 사시며 저들이 우리나라 말을 음할때 공이 매양 틀릴타서 두어 마을 사람들로 모여 우리나라 언문(諺文)을 가르치다 말이 소문이 나서 꾸짖으며 구속했다가 수개월만에 석방되었으니 그러나 조금도 헤이하지 안했었는데 불행하게도 기이한 병을 얻어 급하게 중년(中年)에 졸(卒)하니 그때엔 내가 일을 살필줄을 알지 못했으니 그러나 이제는 이미 내가 장성하였기에 선인(先人)의 맺어진 정신이 오직 여기에 있었음을 알았으니 원컨대 당신님은 아끼지 마십시오요 라고 하니 나도 또한 한번 남근공을 흠리고 나서 승락하고 그 유고를 피어보니 공이 본래 총명한 바탕으로 야은(野隱) 석연(石蓮)의 가리지학을 승계하고 고현외(高弦窩)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그 학업의 성취함과 다만 잡아 지키는 마음(秉心)의 수후하고 정직한 것 같은 것은 기장현(奇莊軒) 홍성남(洪城南)의 행장과 묘갈명에 갖추어 기록되었다. 공의 저술과 논술이 이것에 그치지 않았으니 글지을 때마다 버리고 후세에 전하는 계획에 힘쓰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남은것은 다만 문(文) 두어편과 시(詩) 수백수다 대개 그 시(詩)의 격조(格調)는 맑고 아름다우며 취재(取材)는 넉넉하나 쇠붙이를 불리고 가려내고 씻어낸 미묘함에 미치지 못함이 있었으니 그러나 아마 이해석(李海石)과 류강남(柳江南)으로 더불어

짜이 되기에 부끄럽지 않으리라.

내가 근세에 육천(浴川)·공성의 옛이름)에 시인이 많음을 감탄하며 놀랐다. 비록 그러나 공이 나라가 어지러운 때를 당하여 나이 겨우四十에 죽었으니 하늘이 만일 나이를 빌려 주었다면 그가 배운 것이나 성취한 것이 어찌여기에 그쳤을 것인가. 종표(宗杲)도 또한 아름다운 선비라 부지런히 종이 무더기 속에서 주워 모아 한권의 책을 엮어 펴내고 장차 인쇄하여 넓이 반포하고자 하니 하나는 종표(宗杲)의 효도하는 생각이 깊음을 추구하고 하나는 육천(浴川)에 시도(詩道)가 왕성할길 위하여 추하한다.

광복후 초경시년 구화절에 장흥 위계도 발

跋

남은공(南耘公)께서는 천자(天資)가 총명(聰明)하시어 十七세(歲)에 사서삼경(四書三經)을 연송(連誦)하시고 현와고선생(弦窩高先生) 문하(門下)의 수학(修學)으로 심오(深奧)한 학문(學問)과 인격(人格)을 닦고 많은 학자(學者)들과 교의(交誼)하면서 학리토론(學理討論)을 게을리 하지 않았었다. 또한 공(公)의 선고(先考)이신 석연선생(石蓮先

生)의 엄격(嚴格)한 정훈(庭訓)을 받아 투철(透徹)한 충효사상(忠孝思想)과 교민인보상조(敎民隣保相助)의 미덕(美德)을 실행(實行)하였다.

즉(卽) 포악(暴惡)한 왜정(倭政)의 치하(治下)에서는 주(主)로 산림(山林)에 은거(隱居)하시면서 학문(學問)과 경륜(經綸)을 닦았고 때로는 국문(國文)을 해득(解得)치 못한 문맹자(文盲者)를 위(爲)하여 국문교육(國文教育)에 힘쓰다가 그들에 끌려가 많은 고욕(苦辱)을 당(當)하기도 했으나 끝까지 그 뜻을 굽(屈)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재지변(天災地變)으로 실농(失農)한 자(者)가 있거나 불의(不意)의 변고(變故)로 불우(不遇)한 일을 당(當)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사사(私射)를 털어 위문(慰問)하는데 솔선수범(率先垂範)하시고 관(官)에서 혜(施惠)를 건의(建議)하여 지궁(振窮)케 하였을 뿐더러 환난상휼(患難相恤)을 권장(勸獎)하여 미풍양속(美風良俗)을 구행(躬行)하니 사회(社會)와 향민(鄉民)의 귀감(龜鑑)이 되었다.

그러나 불행(不幸)하게도 三十六세(歲)의 장년(壯年)으로 득병(得

病)하여 위급(危急)을 불면(不免)하였는데 부인(夫人) 풍천노씨(豐川盧氏)의 지극(至極)하신 열행(烈行)의 구휼(救恤)로 三年을 연수(連壽)하시고 향년(享年) 四十세(歲)에 임종(臨終)하시었다. 오호(嗚呼)라 이는 비종문(鄙宗門)의 불행(不幸)이요 향리(鄉里)의 슬픔이며 유계(儒界)의 큰 손실(損失)이었다.

공(公)의 자종표(子宗杓)가 평소(平素) 부모(父母)를 길이 모시지 못함을 항상(恒常) 한탄(恨歎)하고 애통(哀痛)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맺힌 정(情)을 다소(多少)나마 씻고 아울러 유덕(遺德)을 길이 남기고저 공(公)의 산고(散稿)를 수집편간(蒐集編刊)하게 되니 반가운 마음 그지 없다. 저술(前述)한 공(公)의 지행미덕(至行美德)은 일찌기 아는바 있고 또한 불초(不肖)가 곡성군수(谷城郡守)로 재직(在職)당시(當時) 군민(郡民)의 자자(藉藉)한 칭송(稱頌)을 들은바 있거니와 이제 공(公)의 유고(遺稿)를 일독(一督)하니 그 문장(文章)이 정연(整然)함은 물론(勿論) 그 지기(志氣)와 독행(篤行)과 덕망(德望)을 가히 입증(立證)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本人)은 여기에 공(公)의 실

행(實行)과 학문(學問)의 경위(經緯)를 꾸밈없이 기술(記述)했거니와 이는 모름지기 후손(後孫)을 위(爲)해서는 좋은 가풍(家風)의 본이 될 것이요. 사회(社會)를 위(爲)해서는 좋은 향풍형성(鄉風形成)에 일조(一助)가 될 것이니 훌륭한 유고(遺稿)라 아니할 수 없다.

끝으로 족질(族姪) 종표(宗杓) 군(君)이 어려운 여건(與件) 가운데에서 지성(至誠)을 다하여 선고(先考)의 문적(文蹟)과 유덕(遺德)을 길이 전(傳)하고자 하는 효심(孝心)을 가상(嘉賞)이 여기면서 졸문(拙文)을 무릅쓰고 외람(猥濫)이 자(玆)에 발(跋)하는 바이다.

서기(西紀) 一九八〇年十一月三十日

족제(族弟) 채 군(採 鈞) 근발(謹跋)

南耘公詩文選

家君周甲獻壽

壽域連呼萬歲春壽辰壽爵瑞生新壽天飛笛蘇仙鶴壽海添籌絳
老人壽日明明臨屋照壽星耀耀徹心眞壽朋祝壽詩盈軸壽宴招
招集四隣

수역(壽域)에선 만세(萬歲) 봄을 연호하고

수신(壽辰)에선 수작(壽爵)으로 상스럽게 새것을 낳는다.

수천(壽天)에선 나르는 첫대소리에 선학(仙鶴)이 소생하고

수해(壽海)에선 주(籌)를 더하니 노이음은 탄해진다.

수일(壽日)은 밝고 밝아 집에 다다라 빛이고

수성(壽星)은 빛나고 빛나 마음의 진실에 통하네

수봉(壽朋)은 수(壽)를 비는 시(詩)로 풍축에 가득하고

수연(壽宴)에 불러드린 손님들 사방에서 모였네

弦窩函丈見枉銘感叙懷

奉拜尊師意外天威儀棣棣一仙緣閒將筆墨齋新著儼整衣冠講
古篇就事析疑論辯處持身遵律起居邊悔深前日工夫劣從此願
言陪十年

높은 스승을 받들게 된 것은 뜻밖의 일이었

위엄이 있는 거동에 익숙한 모양은 신선인 듯 신포다.

한가롭게 필묵을 잡으니 새책을 주고

엄숙하게 의관을 바로하고 옛글을 강했네

일에 나아가 의심난 것은 논변하는 곳에서 풀고

몸을 가지는 규율은 기거하는 곳에서 지키네

저일에 공부가 졸렬한 것을 기표이 뒤우치고

앞으로 바라는 것은 십년이나 모셨으면 하는 것이다.

弦窩先生挽

護支吾道守綱倫名重南藩過八旬巨厦摧樑非例事昏衢斷燭奈
行人青襟盡是難堪痛絳帳依然不倦仁小子從今何所仰蒼天漠
漠訴無因

우리도를 보호하며 가륜(綱倫)을 지키니

이름이 남녘에서 중하여 팔수를 넘겼네

큰집의 들보가 부러짐은 예사가 아니요

어든길에 촛불이 끊어지니 사람들인 어떻게 걸을까

선비들은 모두 다 슬픔을 참기 어렵지만

스승은 의젓하게 인(仁)하길 게을리 하지 않았네

소자(小子)는 지금부터 어디를 우러를까

푸른 하늘은 막막하여 하소연 할 곳이 없네

聞官家慰水災同胞有作

水難同胞正可憐無依無告只呼天
田園蕩蕩掃如席家屋沈沈漂
若船冒雨衝風惟太息携兒扶老蔑
周旋損金多小雖爭集賴此何
能穩食眼

불난리 만난 동포들 정히 가련하구나

의지할 곳도 아될곳도 없으니 다만 하늘만 부르네

논밭은 탕탕(蕩蕩)하며 자리갈이 쓸어지고

가옥은 침침(沈沈)하여 배처럼 떠 있다

비를 무릅쓰고 바람과 충돌하며 한숨만 실땀

아이를 끌고 늙은이 부들며 돌볼 수가 없구나

의연음을 다소리도 다투어 모이지만

이것으로 어떻게 먹고 자는데 편안할까。

示學徒

古人勤讀愛三餘朝暮未嘗求逸居富貴貪窮元在數功名事業摠
由書衝霄華鶴知雛後圖海飛鵬亦卵初莫道硯池游泳小風雲終
見化龍魚

옛사람이 부지런히 읽은것은 삼여(三餘)를 사랑함이요

아침 저녁으로 편안히 지내길 구하지 아니했네

부귀와 빈궁은 원래 운수에 있는 것이요

공명(功名)의 사업은 다 글로 연유함일세

하늘을 대지르는 학도 어렸던 후에 달줄 알고

바다를 그리는 봉새도 또한 알로부터 생겼네

벼루뭇이 헤엄치며 놀기에 적다고 이르지 말게

바람과 구름이 마침내 용과 고기로 변화하는 것을 볼것이네

對友論懷

吾知吾子子知吾隱遯同爲逸世軀
櫪驥何年馳冀野海鵬他日舉
雲衢千金不惜眞豪士萬事無疑是丈夫
琴友書朋情密勿時時門
外繫征駒

나도 자네를 알고 자네도 나를 아나

숨어사니 한가지로 세상을 숨은 몸이 되었네

마곳간에 있는 천리마가 언제 기주(冀州) 들을 달릴거나

바다를 나는 봉조가 된 뒤에 구름길을 나르리

천금을 아끼지 않는 것이 참다운 호걸이요

만사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 옳은 자부다

거문고 타는 벗을 잃는 벗과 정을 밀접하게 말게

때때로 문밖에는 길 떠날 말이 매어있네

賞菊

起向東籬晚景清
金華玉色滿家生
千莖同氣蒼烟纈
萬朶含馨白露橫
晉士採資閒醉興
楚臣餐寓怨騷情
賞君我是猶能愛
未必古人專美名

아침에 동쪽을 타리 쳐다보니 늦가을 경치가 맑고

금빛 옥색이 집안에 가득하여 빛나네

일천줄기 한모습은 푸른 연기 얽혀있고

일만송이 향기를 머금어 흰 이슬이 쌓였네

진(晉)나라 선비(도연명) 너를 캐며 한가로이 흥에 취하고

초(楚)나라 신하(굴원) 너에게 붙여

먹으며 떠든다고 원망하네

그대를 보니 나도 능히 사랑하는 것 같구나

옛 사람만 아름다운 이름을 오로지 할 것인가

桃源

三王去後有桃源秦代逃人作一村絕勝烟霞仙世界昇平雨露古
田園春深處處鹿遊野晝靜家家猶睡門重到漁郎終不覓落花流
水路迷昏

세 임금이 간 뒤에야 도원이 있었고

진(秦)나라 때 도망해 온 사람들이

한 마을을 이루었다.

절경인 연기 노을 신선이 사는 세계요

태평한 비와 이슬은 옛날의 전원이다

봄이 깊은 곳곳에선 사슴이 들에서 놀고

낮이 고요한 집집엔 삼살개가 문에서 자운다

거듭 어부가 왔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떨어진 꽃이 물에 흐르니 길만 혼미하네

巖上孤松

蒼官在木品居先生老岩頭幾百年蓋像萬枝能障日甲身千尺直
千天大冬秀色無過越長夏寒聲有凜然孤節凌霜終不改古今君
子愛稱焉

푸른 소나무가 나무에 있으니 가지런히 사는 것이 우선이요
바위 머리에서 날고 늙은 것이 몇백년이나 되었는고
만이나 되는 가지를 상상컨데 능히 해를 가리겠고
천천이 되는 갑옷 몸은 바로 하늘을 찌를 것 같네
큰 겨울에도 빼어난 빛은 소나무 보다 더한 것이 없고
긴 여름에 품어내는 차가운 소리는 능금하구려
외로운 절개는 서리를 능찌르며 끝내 고치지 않으니
예나 지금이나 군자들이 애칭하는 것이가

幽興

數椽茅屋在山南
朝暮相尋摠善男
新句每從愁裡覓
舊廷頻向夢中談
雲深好結芳鄰四
竹密曾開小徑三
畊讀漁樵安分事
塵間富貴不須貪

두어개 서까래 뛰집 산 남쪽에 있으니

아침 저녁으로 서로 찾는 이 다 선남들이네

새 글귀는 매양 수심 속을 따라 찾고

옛 정은 자주 꿈속을 향하여 담소한다

구름이 기묘어 사방에서 꽃다운 이웃들이 모이고

대나무 백백하여 적은 기운을 개통하니 세 갈래다

밭갈고 글읽으며 고기잡고 나무하는 것은

분수를 편안히 하는 일이요

속세 부귀는 모름지기 탐하지 않네

對話

閒餘論古復論今笑話溫溫夜已深半月遲遲臨礪戶斜風颯颯動
園林詩能泣鬼方眞調琴自和人是雅音鄰社兩三同志友交情縷
縷日相尋

한가롭게 옛것을 논하고 다시 지금을 논하니

웃는 말씨 다사로워 밤은 이미 깊어 가네

반달은 더디어 산 골짜기 집에 다다르고

골짜기 바람 쌀쌀하게 동산의 숲을 음직인다

시(詩)는 능히 귀신을 울리니 바야흐로 지술한 곡조요

거문고는 스스로 사람을 화하게 하니

이는 우아한 소리다

이웃 시사(詩社)의 두서넛 뜻을 같이하는 벗들이

사귄 정이 떨어지기 싫도록 깊어 날마다 서로 찾는구나

述懷

一生長住此名區雪釣雲耕興自優詩債掃空清夢裡朋懷未忘掛
心頭石徑無塵風線細洞天如水月輪浮良夜瑤琴聽罷後一樽急
急使人求

일생을 오래도록 이 유명한 구역에서 살고 있으니

눈속에서 고기 낚고 구름속에서 발을 가니 흥은 스스로 넘친다

시(詩)의 빛은 맑은 꿈속에서 쓸어 비우고

벗 생각 잊지 못해 마음속에 걸어들네

돌길 티끌 없어 바람줄은 가늘고

동천(洞天)·신선이 사는 명산(은) 물갈아 달바위가 떴다.

좋은 밤옥 거문고 소리가 끝난 후에

슬한잔 생각나서 사람을 시켜 구해오네

十五夜月

玉宇迢迢水鏡光六洲大界渾清涼
啣盃高士燈安用折桂仙郎斧
自揚山牖通明欺達曙野橋虛白訝浮霜
願君夜夜園無缺長照人間暗昧鄉

천제(天帝)의 화려한 집 높고 높아 수경처럼 빛나고

육주(六洲) 큰세계 모두 청량하구나

술을 마시는 덕높은 선비는 무엇하려 등불을 사용할고

계수나무 꺾는 신선은 도끼는 저절로 들쳐나네

산 들창이 환히 밝아 새벽인가 속이고

들 다리가 텅하게 희니 서리가 왔는가 의아롭네

원컨데 그대는 밤마다 등불어 일그러지지 말고

오래도록 인간들의 어두운 그늘에 비치소서。

自娛

山南溪北一樓高
 雪月滿洲又滿皋
 將酌餘醪因洗盞
 欲題新句更濡毫
 琴堂自滅心懷鄙
 林壑渾忘俗世騷
 生怕寒深不出驕
 駒每自鳴槽

산의 남쪽 시내 북쪽에 한 누정이 높이 섰는데

눈과 달이 물가에 가득하고 또 언덕에도 가득하네

술을 마시다가 남은 막걸리로 술잔을 씻고

새로운 시구(詩句)를 쓰고자 다시 붓에 먹물을 적시네

글썩는 집에선 자연히 마음속의 야비함이 없어지고

은사(隱士)가 사는 고랑에선 흔연히 속세의 시끄러움을 잊는다.

태어난 성질이 추이를 두려워 길은데서 나가지 못하는데

교만한 망아지는 언젠나 스스로 구유통만 울리네

山樓晚眺

風恬院落葉齊齊結網蜘蛛暗出樓山沒黃昏迷積樹樓鳴涼籟落
清溪哺雛慈燕踈簷語求母童羊暮野啼閒興有時佳句得濡毫堪
把画屏題

풍념원(風恬院) 낙엽이 가지런한데

망울치는 거미들이 가마히 나와서 서식하네

산이 황후에 무늬하니 쌓이나무는 희미하네

누각에서 울리는 바람소리는 맑은 시내로 떨어진다.

새끼를 먹이는 어미 제비는 처마에서 지저기고

어미 찾느 어린양은 저문들에서 울고있네

한가로운 흥은 때때로 아름답다운 시구(詩句)를 얻고

붓을 적셔 저으기 그림병풍에 쓰네

幽居

滿架書經讀未成 對人還愧語皆凡
 心田培去惟清淡 氣岸養來欲
 泰岩三徑莓苔 棲鶴鹿百年風雨
 老松杉相尋 俗客敲扉少烟青雲
 白洞口緘

시령에 가득한 책을 다 읽을 못했다니

사람을 대함에 말이 다 범상하니 도리어 부끄럽네

마음밭을 부들아 가는것이니 오직 맑고 담담함이요

기린언덕을 길러오느니 크 바위가 되고자 함이네

은사(隱士)의 문정 이외에는 학과 사슴이 살고

백년 비바람에 늙은 소나무는 교목이 되었네

서로 찾던 스객들 사립문 두드리는 이 드물고

연기는 푸르고 구름은 희니 동구는 단혀있네

山興

蒼江逢着碧山尋交結金蘭歲月深泉水將歸江海意庭松已得棟
樑心長天雲勢橫千里大壑風聲掃萬林清興津津西日晚更挑青
燭一豪吟

푸른 강에서 푸른 산을 만나려고 찾고

금난(金蘭)으로 사귀어 맺은 지 세월이 길었네

물은 장차 강이나 바다로 돌아갈 뜻이요

뜰 술은 이미 동양(棟樑)이 된 마음이네

긴 하늘의 구름 형세는 천리에 가로 놓였고

큰 고랑의 바람소리 많은 숲을 쓴다

맑은 흥이 진진하여 서쪽으로 기우는 해가 늦으니

다시 촛불을 켜고 한번 호쾌하게 읊어 보세

懷友

幽僻山村遠市城朝耕暮讀不求名
浮雲樓角心惟定水近床頭夢
欲清風入澗松涼籟動雨過塢竹綠
烟生見花忽發同人思獨上高樓
眺晚晴

깊숙하고 편벽한 산촌엔 시성(市城)이 멀어

아침엔 갈고 밤엔 읽으며 이름을 구하지 않는다

구름이 누각에 뜨니 마음이 정했노

물이 아상머리에 가짜우니 꿈이 맑고 자하네

바람이 물가 소나무에 들어오니 맑은 소리 음직이고

비가 오죽에 지나니 푸른 연기가 생기네

꽃을보니 무뎛디 친구생각이 우러나

홀로 높으니 누각에 올라 늦게 개인 하늘을 바라보네

山樓獨坐

一片清區卜我先逍遙物外管風烟療飢只合咬藜藿尚儉惟宜着
布綿風起有聲來遠樹月行無恙度長天詩愁泥塑無端坐獨抵窓
鷄曉信傳

한때기 맑은 구역 내가 먼저 정해 머무르니
만물 밖에서 소요하며 풍연(風烟)을 관리하네
요기를 하는데는 소채를 씹는것이 합당하고
검소를 숭상하니 무명웃 임는것이 마땅하다
바람이 이는 소리는 먼 나무에서 오고
달가는 것은 병이없어 긴 하늘을 건너네
시(詩) 짓느라 근심하며 우상처럼 무단히 앉아
홀로 새벽 닭 울음소리 기다린다.

書懷

林下書農我實兼無求外物近乎廉豪情似鶴天風舉遠志如鯤學
海潛剪久藤蘿交入室種多松竹雜連檐朱門名利何須說釣月耕
雲樂莫添

숲 밑에서 글 읽으며 농사 짓는 것을 나는 실로 겸하였고
그 밖의 것은 구하지 않으니 청념에 가깝다.

호방한 정은 학갈아 하늘바람을 타고 날듯하고
원대한 뜻은 고니 갈아 바다를 배우며 잠기네

오랜 등나무 서로 얽혀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자르고
많은 소옥을 심으니 쉬어서 처마에 연했네

벼슬아치 가문의 명리를 어찌 모름지기 말할까
달을 낚고 구름을 가니 즐거움이 더할 것이 없네

偶成

書經滿架不爲貧 逐日相逢揔好賓
夕照橫江山影倒 狂風折木海潮頻
干戈難得山中計 醫藥無靈老去身
修養心神都在此 新朝勤手掃庭塵

책이 시렁에 가득하니 가난하지 않다

날마다 만나는 이 모두 좋은 손님들이네
석양빛이 강을 가로지르니 산 그림자 거꾸러지고

사나운 바람이 나무를 꺾으니 바다 조수는 쪼그리네

무기로는 사충의 계획을 얻기 어렵고

의약으로도 늙어가는 몸엔 영감이 없네

십삼경을 수양합이 모두 여기에 있으니

내일 아침엔 부지런히 마당 먼지를 쓰르려다.

以文會友論

論曰友之會其類不一有以碁篁會者有以絲竹會者有以圖書會者有以射御會者好則好矣樂則樂矣然此皆不過誇其藝逞其氣以暢一場之優興也彼蘭亭之會洛社之會香山之會龍山之會會以詩酒善則善矣美則美矣而亦止於咏觴言其志叙其情以致一時之樂事而已若夫以文會者獨不然難經義講道禮見識相討過失相規以修一生之德業也故以友輔仁斐然成不器底君子則萬善足焉孝悌忠信由於斯禮樂刑政出於斯內而修齊之法外而治平之道無往不備可謂宇宙在乎手萬化生乎身矣大哉文之會也尚哉仁之輔也噫古之白鹿洞會藍田鄉會皆以文也而賢人君子彬彬輩出俾克樹風扶道降及季世雖會友者不爲不多不爲不數而先爲名利鮮克以文也嗚乎今者會友如白鹿藍田者將幾何吁可歎也夫

글로써 벗을 모이는 논설

논(論) 하노라 벗이 모이는 종류는 한가지가 아니다. 바둑이나 주사이로써 모이는
이가 있고 음악이로써 모이는이가 있고 그림그리고 글씨 쓰는 것으로써 모이는이가
있고 활쏘고 말타는 것으로써 모이는이가 있는데 좋다면 좋고 즐겁다면 즐거운 일이
다. 그러나 이는 다 재주를 과시하고 그 기운을 만족하게 하여 한 장면의 넉넉한 흥
을 편것에 불과한 것이다. 저 난정(蘭亭)의 모임과 낙사(洛社)의 모임과 향산(香
山)의 모임과 용산(龍山)의 모임은 시(詩)를 짓고 술을 마시는 것으로 모였으니 좋
다면 좋고 아름답다면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도 또한 유희이고 술잔 기우리는데만 그
그 뜻을 말하고 그 정을 퍼 한때의 즐거움 일만 이를 따름이다. 만약 문(文)으로써 만
난 이는 독특하게 그렇지 않다. 경서(經書)의 의의로써 힐난하고 도(道)와 예(禮)로
써 강하며 보고 아는것을 서로 토론하고 과실(過失)을 규찰하여 일생의 덕업(德業)
을 닦는다. 그러므로 벗으로써 인(仁)을 도운다고 하는 것이다.

문채가 나케(斐然) 그릇 아닌 군자가 되면 만가지 선이 족할 것이다. 효(孝)와 제
(悌)와 충(忠)과 신(信)이 이에서 연유되고 예(禮)와 악(樂)과 형(刑)과 정(政)도
이에서 남으니 안으로는 수신제가의 법이요 밖으로는 치구평천하의 도(道)가 가는데
마다 구비되어 있으니 우주(宇宙)가 손에 있고 만화(萬化)가 몸에서 나온다고 할만
하다.

크다문(文)의 모임이여! 가상하다인(仁)의 보(補)함이여! 옛날 백록동(白鹿洞) 모임과 람전(藍田)의 향회(鄉會)는 다문으로써 한 것이어서 현이후자(賢人君子)가 빈빈하게 배출하여 하여금 능히 풍성을 심고 도의를 붙잡아 말세에까지 내려왔다. 비록 벗을 모이는이가 다수가 되지만 먼저 명리(名理)를 위하고 능히 문(文)으로써 하는이는 적다 슬프다 이제 벗 모이길 백록(白鹿)과 람전(藍田)같이 할사람이 장차 몇이나 될 것인가 아! 한탄스럽도다.

氷巖瀑布記

水懸流曰暴其勢使然者由層巖也直縣之西三十里許有天皇峰峰之腰有氷巖穹然疣焉有鎮壓一谷之勢而巖之四面玉溜珠沫淋淋漓漓望之常如氷堆雪陵凝結晶輝以故得氷巖之稱焉淋漓溜沫合成小溪向東不休遇層巖奇石水從其端直下五七丈而左右盤巖席肆棋列林翠葱蒨可坐可踞而可槃桓每歲盛炎理屨徐行挹暴流濯纓濯足乃浴乃風以去舊染之汚而世間紛雜無一聞豈不快哉嘗一詠曰瀑布聲高聳世事豈曰故聳乎世臨瀑布而自

發也不寧惟是巖之凝結冰雪志士之操也瀑之瀉玉跳珠文人之才也其操如彼其才如此孰不嘆賞乎吾之日往忘歸良有以也抑又聞之瀑布隨處往往有之最奇勝有名者昇州之籠山河東之佛一是己金剛山之九龍瀑開城之朴淵瀑大名於天下豈徒名也哉以人之奇勝玩瀑之奇勝久久焉比比焉而顯揚于今若有奇勝人玩冰巖瀑之奇勝亦可與有名也哉余於是焉記之

빙암폭포기

물이 높게 달려서 흐르는 것을 폭포라 하는데 그 형세가 그런것은 층층으로 쌓여 있는 바위 때문이다. 곧 고령의 서쪽 三十里 慶에 천황봉이 있고 천황봉의 허리에 빙암(冰巖)이 있는데 활눈갈이 후이 튀어나 한 고랑의 형세를 지압하고 있고 바위 사방으로 눈갈이 물방울과 구슬갈이 거품이 물을 뿌리는 것 같다. 바라보면 항상 눈 언덕에 어름 무치가 엉키어 맑게 빛나는 것 같으므로 빙암이라 칭호를 얻었다 보 다. 물이 뿌리는 것 같고 물방울갈이 거품이 합쳐서 적인 시내를 만들고 도끼를 향하여 쉬지 않고 흐르다가 층층 바위와 괴이한 돌을 만나면 물이 그 꼴을 따르다 바로

대 일곱칠을 내려오면 좌우로 서려있는 바위에 자리를 펴고 바둑판을 벌려 놓으니
 숲이 푸르게 우거져 가히 앉기도 하겠고 걸터 앉을만도 하니 머뭇거리며 있을만하
 다. 매년 한 더위에는 나막신을 신고 천천히 가서 폭포수를 떠서 가뉘를 씻고 발도 씻
 고 목욕도 하고 바람도 쏘이며 옛날 물들었던 더러운것을 버리면 세상의 시끄러운
 잡사들은 하나도 들을 수 없으니 어찌 상쾌하지 않겠는가.

일찌기 한번 읊어보길 「폭포소리 높으니 세상사는 귀 먹었네」라고 어찌하여 세상
 사에 귀 먹었는가 폭포에 임하여 스스로 발로된 것이다. 오직 이것만이 아니라 이 바
 위가 이름과 누이로 엉키어지는 것은 지사(志士)의 지조요 폭포가 옥처럼 쏟아지고
 구슬처럼 솟구치는 것은 문인(文人)의 재주다. 그 지조가 저와 같고 그 재주가 이와
 같으니 누가 감탄하고 칭찬하지 않으랴. 내가 날로가서 돌아오길 잊는것은 진실로
 이런것이 있기 때문이다. 아니 또 들으니 폭포가 곳에 따라 가끔씩 있는데 가장 절묘
 한 경치로 유명한 곳은 승주(承州)의 룡산(籠山) 폭포와 하동(河東)의 불일(佛一) 폭
 포가 그것이다.

금강산의 구룡(九龍) 폭포와 개성의 박연(朴淵) 폭포가 천하에서 크게 유명한 것은
 어찌 한갓 이름뿐이리요 사람의 기승(奇勝)으로 폭포의 기승(奇勝)을 구경하는 것은
 오랫동안에 빈번하게 들쳐 나타났는데 오늘날에도 만일 기승인(奇勝人)이 있어서 빙암
 폭포의 기승을 구경한다면 또한 더불어서 유명해 지리라 내가 이래서 기록한다.

孺人豐川盧氏記蹟

孺人豐川盧氏行狀

孺人盧氏貫籍豐川系出於弘窩公士豫之后刑曹參判諱光升爲曾祖義禁府都事諱喆壽爲祖諱準鉉爲考妣安東權氏諱斗熙之女也夫人純租丁未九月二十一日慶北咸陽郡栢田面大安里生自髫齡孝友之誠出於天賦婉愉之儀自合內則年十七齊羅州丁翼燮卽大司諫諱克隆之后石蓮先生諱大覲之子也自以八門事服舅姑承順君子定省甘旨之供治田紡織之節俱有周密治規而尤當辰忌則必盡如在之誠遠近宗族有艱窶無依者則須必傾橐救助曰今日之窘明日裕餘之兆也勿謂過悶焉又或閭里不平者見之亦必舉義誨諭曰凡處世之道忍之爲上期許釋分解散是盍天性然非強意口辨也是以家道雍睦閭里畏服詎非夫人忠懇之誠使人感佩深入之攸錫矣乎嗚呼天戲無常而誠之歟不意夫君

偶遭風症委席累年日夜扶持調湯未嘗交睫者浹旬而繼月一不替人身常代之疹醫嘗聞言曰他患者長病之餘身俱渴須求血補充然後可期救命烈婦遂取刀潛入房中刺臀受血一碗灌口吞下後果得蘇生而延命三載人謂烈婦之誠天亦感應此所謂人善則天必降祥之致歟未幾以再風之痛奄遭城崩之慘其罔極慟迫爲如何哉既絕復蘇後以下從爲快事因家人阻諭曰尊舅在堂無姑三男妹呱在襁褓是誰奉養而撫恤之哉生以爲孝反勝於死以爲烈誨諭原懇婦遂幡然改悟於治喪葬禮奉舅撫幼倍前誠勤竟娶嫁折箸須厚彼薄我殆勝於己出曰天地所貴莫如父母世上有情無如兄弟手書壁上以爲沒身之銘尊舅以天年終爲夫身代凡几筵奠省喪葬凡節一如家禮而務盡誠敬士林鄉省之讚爭時齊發累蒙鄉道之褒揚噫天胡不壽賢媛惜逝時年五十有三即己亥正月二十六日也葬於本面天皇峯冰岩嶝負坤原有子五男二女長

宗杓次奎赫奎重奎淳奎完女適延日鄭京澤密陽朴鍾甲又鎮圭
鎮允鎮仲鎮長房出茂鎮唐鎮乙鎮次房奎赫出元鎮甲鎮一鎬次
房奎重出永鎮京鎮次房奎淳出光鎮虎鎮三鎮次房奎完出其外
幼不錄日宗杓君以府君文稿與先妣表彰狀示余不肖先妣之至
行懿德鄉省匠德之所欽賞而未顯布者無乃是不仁不明之科耶
然回念圖成事巨綿力未嘗不憂慮若一任塵篋則不肖之不肖尤
爲故際此先考稿并與之俱刊傳世爲寶也願吾丈莫諱一言之許
若何余應之曰不佞與君之尊王大夫殊恩斗大矣雖未曾有摳衣
之侍然其寵厚無量何敢辭諸不揆僭越遂按狀如右以俟立言家
之採擇焉

戊午春三月下澣 長水黃從周撰

유인 풍천노씨 행장

유인 노씨(盧氏)의 본관은 풍천(豊川)인데 계통은 홍와공(弘窩公) 사예(士豫)에

계서 나온 후예다. 형조참판 휘 광승(光升)은 증조가 되고 의금부도사 휘 철수(喆樹)는 조부가 되고 준현(準鉉)은 고(考: 아버지)요 어머니는 안동권씨 휘 두희(斗熙)의 딸이다. 부인이 순종(純宗) 정미(丁未: 一九〇七) 九월 二十一日에 경상북도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에서 출생하니 이빨이 돌을 나이로부터 효도하고 우애하는 정성이 하늘에서 타고난 성질에서 나오고 유순하고 기뻐하는 거동은 내칙(內則)과 합치 되었다. 나이 十七세에 나주 정익섭(羅州 丁翼燮)의 아내가 되니 곧 대사간(大司諫) 극릉(克隆)의 후예요 석연선생(石蓮先生) 휘 대현(大暉)의 아들이다. 시집에 들어와서부터 시부모를 섬기고 남편의 명을 지켜 이으며 혼정신성(昏定晨省)과 맛있는 음식의 공양과 발일과 기림하는 절차가 다 주밀한 법구가 있었다. 더욱 제사때를 당하면 반드시 절에 계시는 듯한 정성을 다하였고 멀고 가까운 일에 생활이 어렵고 의탁할 곳이 없는 자가 있으면 모름지기 기필코 전대(주머니)를 기울어서 구조하면서 오늘날의 구색은 내일 여유가 있게 살 조짐이라고 하고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하였다. 또 후 마을에서 불평한 자를 보면 역시 반드시 의리를 들어서 애우치고 무릇 처세의 기림은 참는 것이 최상이라고 하면서 기어히 분수를 풀어서 해산시키니 이것이 어찌 천성적으로 한 것이 지언지 뜻으로 한 구변이 아니지 않는가. 이리하여 집안의 도(道)는 화복하고 마을은 두려워하고 복종하니 어찌 부인의 충성스러운 간절한 정성이 아니었다면 사람으로 하여금 대단히 고맙게 여기고 기림이 들어가 주는 바가 되었으랴.

슬프다 하느니라 희롱이 무상하니 정성 탓인가! 뜻밖에 남편께서 증풍 증세를 만나
 서 자리에 누운지 여러해 되도록 밤낮으로 붙잡아 주고 약을 끓이며 누워서 불이 지
 안은 것이 열흘이 지나고 달달이 으면서 한 번도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자신이
 항상 대신했다. 의원이 일찌기 말라들려 주길 다른 환자들보다 오래 앓고나면 몸이
 함께 마르니 모름지기 괴를 구해서 보충한 뒤에 목숨을 구했다고 하니 열부(烈婦)께
 서 칼을 가지고 가만히 방안으로 들어가 불기를 썰러 피 한사발씩 받아 입에 부어
 삼키게 한 뒤에 과연 소생하여 삼년간의 목숨을 연장하니 사람들이 이르길 열부의
 정성에 하늘도 감응한 것이라고 하니 이는 이른바 사람이 선하면 하늘이 반드시 상
 서로응을 내린다고 한 것인가! 얼마 안되어 다시 일어난 풍통(風痛)으로 문득 성
 이 무너지는(崩城) 남편이 죽음 참변을 당하니 그 망중한 슬픔 어떨다 하리요 이미 기
 절하였다가 다시 소생한 뒤에 남편 따라 죽는 것으로써 쾌한일로 삼으려 했는데 집안
 사람들이 저지하고 타이르길 시아버님이 계시나 시어머니는 없고 삼남매의 어린아이
 들이 강보에 있는데 이를 누가 봉양하고 어루만져 구안하겠는가 살아서 효도하는 것
 이 도리어 죽어서 열부가 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알아듣게 타이름이 정성스럽고 간
 절하여 부인이 드디어 갑자기 마음이 변하여 치상치고 장례지내며 시아버지를 봉양
 하고 어린것들을 어루만져 기르는데 배전의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마침내 장가와 시
 집일을 보내고 분가 시킬 때 모름지기 저에겐 후하고 나에겐 박하게 하니 내가 낳은 것

보다 더 낮게 했다. 천지간에 귀한 것은 부모만 같음의 없었고 세상에 정이잇는 것은 형제 만 같음의 없었다는 것을 손수 벽위에 써 놓고 자신이 죽을 때까지의 명(銘)으로 삼았다. 시아버지께서 타고난 수명으로 세상을 마치니 남편을 대신하여 무릇 영위에 제물을 올리며 살피는 일과 치상치고 장례지내는 모든 절차를 가례(家禮)와 한결같이 하고 정성과 공경을 다하는데 힘을 쓰니 선비들과 향당에서 칭송이 때를 다투워 한꺼번에 발의되니 여러번 향당과 도의 포상을 받았다.

아(하늘이) 어찌하여 어진 부인에게 수명을 많이 주지않고 애석하게 가게하니 당시 나이가五十三세로 곧 기해(己亥)一九五九 정월 二十六일이다. 본면 천황봉 빙암 등근좌(坤坐)의 언덕에 장사 지냈다. 자식은 五남二녀를 두니 장남은 종표(宗杲)요 차남은 규혁(奎赫), 규중(奎重), 규순(奎淳), 규완(奎完)이요 따님은 연일 정경택(延日 鄭景澤) 밀양 박종갑(密陽 朴鍾甲)처다. 우진(又鎭), 규진(圭鎭), 윤진(允鎭), 주진(仲鎭)은 큰 아들이 낳고 무진(茂鎭), 당진(唐鎭), 을진(乙鎭)은 차남 규혁(奎赫)이 낳고 원진(元鎭), 갑진(甲鎭), 일호(一鎬)는 차남 규중(奎重)이 낳고 영진(永鎭), 경진(京鎭)은 차남 규순(奎淳)이 낳고 광진(光鎭), 호진(虎鎭), 삼진(三鎭)은 차남 규완(奎完)이 낳았다. 그밖에는 어려서 기록하지 않는다.

어(나)날 종표(宗杲)군이 부친의 문고(文稿)와 어머니의 표창장을 나에게 보이며 발초가 어머니의 지극한 행실과 아름다운 덕에 대하여 향당과 도내의 큰 선비들이

흠탄하고 칭찬하였지만 나타내어 반포하지 못한것은 이것이 어질지 못하고 밝지 못한 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돌아보고 생각컨데 성사하려고 도모해 보지만 일은 크고 힘은 모자라 일찍 걱정하지 않은바 아니나 만일 먼저 낯 상자속에 맡겨놓으면 불초의 불초는 더하는 것이 되므로 이 즈음에 선고(先考)의 유고와 아울러서 함께 간행하여 세상에 전하여 보배로 삼고져 합니다. 원컨데 우리 어르신께서는 한 말씀의 허락을 꾸짖지 말으심이 어떨런지요. 라고 하니 내가 응하길 재주없는 사람이 그대의 조부님에게서 받은 특수한 은혜가 말만큼 크니 비록 일찍 스승으로 모신일은 없으나 그러나 그 총애의 두터움은 한량이 없으니 어찌 감히 사양하겠는가 분수에 넘치는 것을 헤아리지 않고 드디어 행장을 우(右)와 같이 하고서 말이 서는 사람의 채택(採擇)을 기다린다.

무오 춘삼월 하한 장수 황종주(黃從周) 지음

豊川盧又玉女士孝烈碑銘

井序

孝烈婦盧又玉女士其先豊川人弘富士豫之后曾祖刑曹參判光升大考義禁府都事喆壽皇考準鉉皇妣安東權氏斗熙之女也世居咸陽之大安里生於李韓純祖丁未九月二十一日年十七歸于

羅州丁翼燮司諫院大司諫克隆之后舅石蓮大覲居谷城之蓮盤里事崔勉菴益鉉有儒望鄉人享于採山壇夫君號南耘游高弦窩光善之門有遺藁女士自入門侍舅事夫極其惋樂行祭延賓率忱而行財恤窮族義喻躁隣百行備具而不意夫君偶患風痺累載委席藥不替手夜不交睫醫言血補可得傅生女士潛入密室割臂受血碗而注之果然得蘇三載再發年四十竟至罔極一慟而絕而復蘇猶以下從爲志宗族懇喻曰舅老鰥在堂諸幼呱呱襁褓祿是誰養且恤之哉女士遂止之奉舅撫幼誠勤彌至累蒙鄉道之褒己亥正月二十六日沒年五十有三葬于天皇峯冰岩嶝負坤而封焉有五男二女男宗杓奎赫奎重奎淳奎完女壻鄭景澤朴鍾甲宗杓男又鎮圭鎮允鎮重鎮奎赫男茂鎮唐鎮乙鎮奎重男元鎮甲鎮一鎬奎淳男永鎮京鎮奎完男光鎮虎鎮三鎮今其鄉人士悼念其孝烈不忍竟湮其蹟欲樹一石於其里宗杓君具狀乞銘於余銘曰

行貴維三忠與孝烈存一猶難矧伊雙絕嗚呼豐川行鷺心馨既碑
鄉口奚竣余銘

乙酉光復後初壬戌歲暮文學博士眞城李家源 謹撰

풍천 노우옥여사 효열비명 병서

효열부(孝烈婦) 노우옥여사(盧又玉女士)의 선계는 풍천인(豊川人)인데 홍와 사에
(弘窩 士豫)의 후손이다. 증조는 형조참판 광승(光升)이요 조부는 의금부도사 철수
(喆壽)요 부친은 준현(準鉉)이요 어머니는 안동권씨 두희(斗熙)의 따님이다. 대대
로 함양의 대안리에서 살았고 이한 순종(李韓 純宗) 정미(丁未:一九〇七) 九月二
十一일에 출생하고 나이十七세에 나주 정의섭(羅州 丁翼燮)에게 출가하니 사간원
(司諫院) 대사간(大司諫) 즉응(克隆)의 후손이다. 시아버지는 석연(石蓮) 대현(大
現)인데 곡성 연반리에서 살면서 최면암 익현(崔勉菴 益鉉)을 스승으로 섬겨 유림
의 촉망이 있었고 고을 사람들이 채산단(採山壇)에 제사지냈다. 부군(夫君)의 호
(號)는 남운(南耘)인데 고현와 광선(高弦窩 光善)의 문하에서 놀았고 유고(遺稿)가
있다. 여사가 시집에 들어와서부터 시아버지를 모시고 지아비를 섬김에 그 유순하고
즐거움을 극진히 하였고 제사를 지내고 손님들 맞을때 정성을 다하여 행했고 제물로

구한 일가들을 구휼하고 성질이 조급하여 떠드는 이웃들을 타이르는 등의 백가지 행실이 구비되었는데 뜻밖에 부군께서 증풍병을 얻어 여러해를 자리에 누우니 약 다림에 다른 사람과 교체하지 않고 밤엔 잠을 자지 않았다.

의원의 말이 피를 보충하면 낫을 수 있다고 하니 여사(女士)가 가만히 밀실로 들어가 두부를 배어 피 한사발만 받아 입에 쏘아 넣으니 과연 소생하였다가 삼년만에 다시 발병되어 나이 四十세에 마침내 망극(罔極)에 이르니 슬피울다 기절하였다가 다시 소생하였는데 오히려 남편 따라 죽으려고 뜻을 삼으니 종족들이 간절하게 타이르면서 시아버지가 늙은 홀아비로 살아있고 어린것들은 울어대며 강보에 쌓여있는데 이들을 누가 봉양하고 또 구안할 것이냐고 하니 여사가 드디어 중지하고 시아버지를 봉양하고 어린것들을 어루만져 기르는데 지성스럽고 부지런함이 더욱 지극하여 여러 차례 향당과 도의 포상을 받았다. 기해(己亥·一九五九) 정월 二十六일에 죽으니 나이가 五十三세이다. 천황봉·빙암등·곤좌(坤坐)에 장사지내고 묘를 썼다.

五남(二녀를 두니 남(男)은 종표(宗杓), 규혁(奎赫), 규중(奎重), 규순(奎淳), 규완(奎完)이요 사위는 정경택(鄭京澤)·박종갑(朴鍾甲)이다. 종표(宗杓)의 아들은 우진(又鎭), 규진(圭鎭), 윤진(允鎭), 증진(仲鎭)이요, 규혁(奎赫)의 아들은 무진(茂鎭), 당진(唐鎭), 을진(乙鎭)이요, 규중(奎重)의 아들은 원진(元鎭), 갑진(甲鎭), 일호(一鎬)요, 규순(奎淳)의 아들은 영진(永鎭), 경진(京鎭)이요, 규완(奎完)의 아

들은 광진(光鎭)、호진(虎鎭)、삼진(三鎭)이다. 이제 고을 사람들이 그 효열(孝烈)을 슬프게 생각하여 차마 끝내 그 자취를 묻어 버릴 수 없어 한개의 돌을 그 마을에 세우고 저 하니 종표(宗杓) 구이 행자를 갖추어 명(銘)을 나에게 빌리려 함에 명(銘)하련다.

행신(幸愼) 귀한 것이 오직 셋이니 충과 효와 열이다. 한 가지만 보존하는 것도 오히려 어렵거늘 하물며 저 두가지 뛰어 남이야! 아! 풍천(豊川)이여 행동은 굳세고 마음은 향기롭네. 이미 마을 사람들을 입에 비를 세웠으니 어찌 나의 명(銘)을 기다릴수가.

을기년 광복후 첫임술(壬戌) 세 모에 문학박사 진성 이가원 삼가지음

忠文

跋文

인류역사(人類歷史)가 오늘날까지 연면(連綿)히 이어온 것은 문헌(文獻)이 전(傳)해오고 또 전(傳)해가는 것이 주요(主要)한 계기(契機)가 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꼭 전(傳)해야 할 문헌(文獻)을 전(傳)하지 않으면 전(傳)하지 않은 것이 오류(誤謬)를 범하는 것이요 전(傳)해야 할 그 당시(當時)의 사정(事情)을 알수 없는 것은 마치 중국고대사(中國古代史)에 기(杞)라는 나라와 송(宋)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없었으니 하면서 그 증거가 없는 것을 아쉬워하고 한탄해 온 것처럼 문자시대(文字時代) 이후(以後)로 모든 지식인(知識人)들이 문헌(文獻)을 보존(保存)하고 전(傳)하려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번에 곡성문화원(谷城文化院)에서 발간(發刊)하는 연반정씨(蓮盤丁氏) 삼세문헌(三世文獻)은 야은 정문고공(野隱 丁文教公) 석연정대현선생(石蓮 丁大暉先生) 남윤정익선공(南耘 丁翼燮公) 삼세(三世)의 기적문(記蹟文)과 유문선일부(遺文選一部)와 남윤공(南耘公)의 배유인(配孺人) 풍천노씨(豊川盧氏)의 효열행적등(孝烈行蹟等) 그분들의

땡땡한 행실(行實)과 아름다운 덕(德)을 한 책(冊)에 엮어 곡성관내(谷城管内)에 이러한 진유(眞儒)의 가문(家門)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물욕(物慾)의 늪에서 허덕이는 범부(凡夫)들을 경계(警戒)코자 하는데 그 목적(目的)을 두고 간행(刊行)하는 것이다.

기왕(既往)에 석연선생(石蓮先生)의 행장(行狀)을 기술(記述)하면서 가계(家系)의 흐름은 대개(大概) 알았지만 삼세문헌(三世文獻)을 번역하는 과정(課程)에서 이 삼세(三世)는 학문연원(學問淵源)이 뚜렷하고 식견(識見)과 경륜(經綸)이 뛰어난 유가명문(儒家名門)임을 더욱 느꼈다. 야은공(野隱公)은 기노사선생(奇蘆沙先生)에게 석연선생(石蓮先生)은 최면암선생(崔勉菴先生)에게 남근공(南耘公)은 고현와선생(高弦窩先生)에게 수업(受業)한 고덕군자(高德君子)로서 효제충신(孝悌忠信)과 인보상조(隣保相助)를 생활(生活)의 기저(基底)로 한 일동일정(一動一靜)이다 규범(規範)이었고 특(特)히 석연선생(石蓮先生)은 후진양성(後進養成)에 몸바쳐 석곡일방(石谷一方)에 문예저성기(文藝全盛期)를 이루고 곡성사림(谷城士林)의 천거(薦舉)로 오강사(梧岡祠)에

배향(配享)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분의 생활철학(生活哲學)이 가문(家門)의 전통(傳統)으로 이어져 그의 주손(胄孫)인 모연(慕蓮) 정종표씨(丁宗杓氏)가 부조(父祖)의 덕(德)을 승습(承襲)하여 모범가문(模範家門)의 명성(名聲)이 자자(藉藉)하니 이러한 학문적(學問的) 사상(思想)과 실천적(實踐的) 정신(精神)은 사회지도층(社會指導層)은 물론(勿論) 일반사민(一般士民)의 필독서(必讀書)로 제공(提供)하려는 취당(攄堂) 김길영원장(金吉榮院長)의 탁월(卓越)한 혜안(慧眼)에 감탄(感歎)하면서 이 문헌간행(文獻刊行) 사실(事實)의 설명(說明)으로 발문(跋文)에 대(代)한다.

정축(丁丑) 一九九七年十一月 日 무안(務安) 박양규(朴穰奎) 근발(謹跋)

一九九七年十二月五日印刷
一九九七年十二月十日發行

國譯
蓮盤丁氏三世文獻錄

發行處：谷城文化院

發行人：金吉榮

編輯與翻譯：朴穰奎

印刷處：清進文化社

光州廣域市東區金洞一〇一—
電話(〇六二)二二三—四三四六

表題 趙鏞敏

※ 이冊은 國費 및 郡費으로 發行된 것이다.